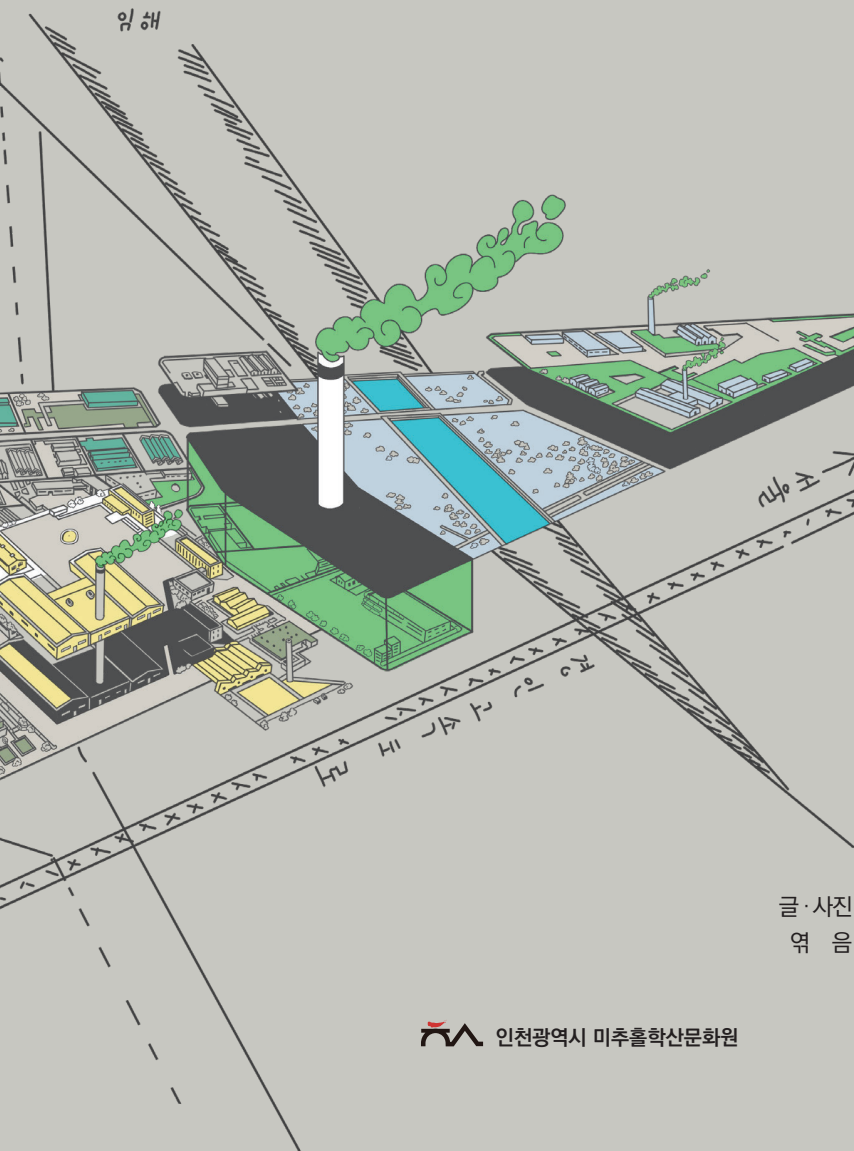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하다

1969년, 그리고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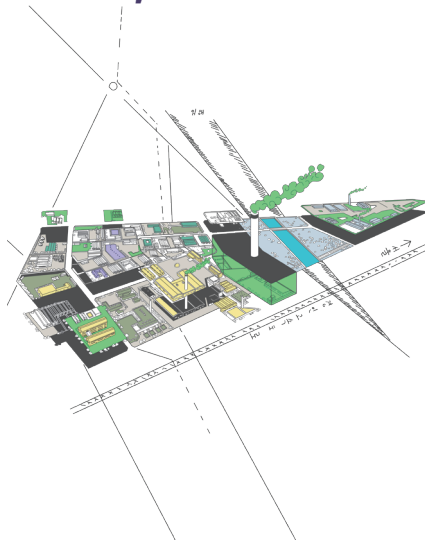


글·사진 미추홀시민기록단
역·음 미추홀학산문화원

미추홀
살아
지다
8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기록하다

1969년, 그리고 2023년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기록하다

1969년, 그리고 2023년

- **발간사** _____ 09
- **미추홀시민기록단 소개** _____ 12

들어가며

·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사진으로 보는 인천기계산업단지 _____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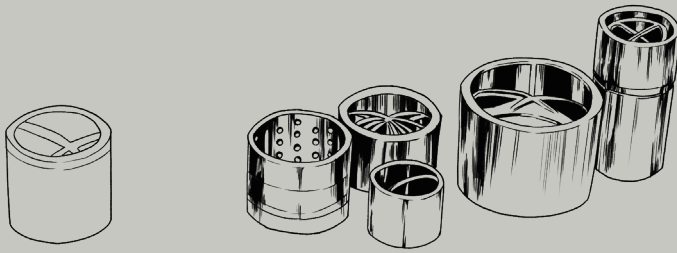
‘설립 57주년, 인천기계산업단지 역사를 돌아보다’ _____ 20
박인옥 다온정책연구원협동조합 연구위원

‘발 넓은 인맥,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단을 이끌다’ _____ 46
강인덕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인터뷰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사람들

기업(인)

- [환경기계, 부품] '미래 건설은 환경이다' 74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대표
-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품질 베스트'업체로 우뚝 서다!' 98
우일정밀(주) 조항구 대표
- [철강] '부국철강공업,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116
부국철강공업(주) 장영복 부사장
- '부국철강공업과 함께 걸은 길' 138
부국철강공업(주) 김문환 전무
- '부국철강공업의 만능해결사' 162
부국철강공업(주) 강병욱 이사
- [주조, 집진기 기계] '가업을 계승하며 세계로 나간다' 186
태진기연(주) 이재장 대표
- [프레스 기계] '기계 분야 기반 시설인 프레스 산업은 영원하다!' 206
(주)국일정공 강인덕 대표
- [금형 압출기계] '최초에서 최고로 세계를 누비다' 232
영일산업기계 박태석 대표
- [부품] '꿈이 현실이 된 생생한 다큐 드라마' 254
(주)인정테크 안인수 대표
- [제지기계] '제지기계 제조업체에서 선두 주자가 되다' 280
전)해안기계 고(故)김정일 전무
- '기계 설계에서 기계 영업까지' 296
전)해안기계 이진우 과장



기관

- '협동조합 1호, 기계공업의 산실' ————— 314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유재경 총괄이사
-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애국자' ————— 344
 인천상공회의소 박노호 전)사무국장
- '인천기계산단의 특급 민원 해결사' ————— 368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장유경 과장

이웃

- '산단 직원들의 사랑방, 경북슈퍼' ————— 394
 김호순
- '그때가 참 좋았지' ————— 414
 백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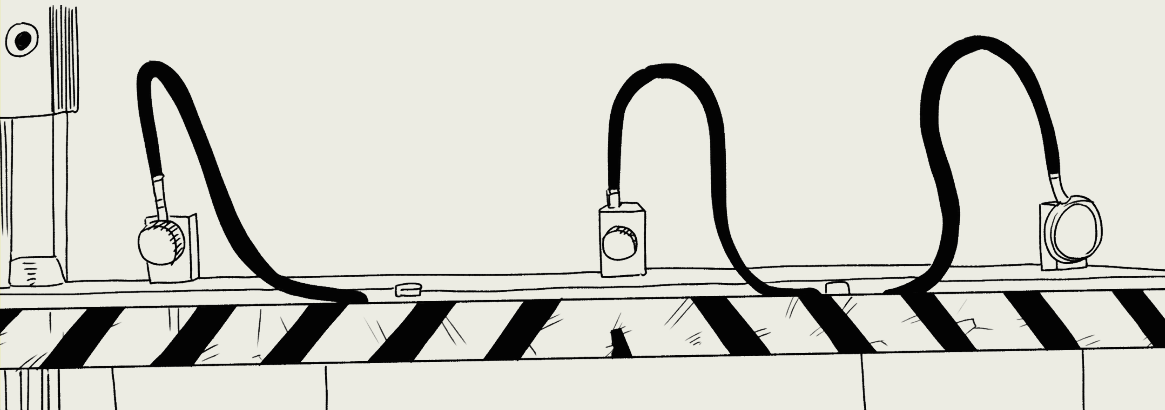
· 인천기계산업단지를 향한 제언

- '인천기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_____ 432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산업단지 활성화 최근 논의와 인천기계산단 시사점' _____ 436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기계산단의 현안 과제' _____ 442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 '인천기계산업현황과 기계산단' _____ 446
유재경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본부장

나가며

· 부록

- 기록후기 _____ 454
- 기록일지 _____ 458
- 찾아보기 _____ 462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2023년 미추홀기록사업의 미추홀시민기록단 활동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구술인터뷰 원고들을 편집하여 수록한 것이다.
2. 수록된 원고는 구술인터뷰의 발언을 살리되, 독자의 이해를 위해 내용을 편집·정리하였다.
3.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참여자들의 의견이며 미추홀학산문화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4. 단어의 뜻 및 말의 흐름을 보충 설명하는 주석은 각주로 표기하였다.

인천기계산업단지를 통해 본 지역 산업사 기록의 중요성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지난 여름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인천의 17개 산업단지 중 민간산업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조성 역사와 현장을 찾아서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1970년대 조성된 부평·주안·인천기계산업단지는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인천 경제성장의 큰 축을 이룬 인천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의 산업단지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1세기 산업구조 고도화에 밀려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는 산업화 1세대인 상공계, 행정관료, 지역토착민, 노동자, 농민, 행정관료,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조성한 인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산업단지는 지역민의 기대가 막연하게 표출된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내하며 조성된 공간’이기에 산업단지의 쇠

퇴가 산업화 기록을 소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 산업현장의 노동운동 기록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인천의 성장역사에서 산업화 1세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다른 차원에서 산업화 1세대가 남긴 토착기업들을 기록하기 위해 작년 뜨거운 여름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기록은 지역의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삶의 양식과 크고 작은 경험들을 기억하고 아로새기면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술 기록 작업은 인천기계산단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애사를 중첩하여 구술기록하는 작업이라 여타 구술기록보다도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기 기계산단 산업화 1세대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2세대와 3세대가 운영하거나 신규업체가 대부분이었고 구술기록을 원하지 않았던 업체도 많았습니다. 시작부터 구술자 섭외의 난항을 겪으면서 산단기록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박인옥 박사님 등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게 열 다섯 분을 섭외하여 본격적인 구술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1세대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구술 기록에 참여하신 분들의 수가 적어 초창기 조성의 역사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아직 가지 않은 기록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기록에 참여해 주신 강인덕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우일정밀공업(주) 조항구 대표님,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대표님, (주)태진기연 이재장 대표님, (주)인정테크 안인수 대표님, 부국철강공업(주) 장영복 부사장님, 김문환 전)전무님, 강병욱 총괄이사님, 영일산업기계 박태석 대표님, 전)해안기계 故 김정일 전무님, 이진우 과장님,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장유경 과장님,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유재경 총괄이사님, 인천상공회의소 박노호 전)사무국장님, 경북슈퍼 김호순님, 백용순님, 그리고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조성 초창기 사진들을 기록, 보관해 왔으며 기록 작업에 제공해 주신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기계산단 구술 기록에 참여하신 미추홀시민기록단분들과 기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자문을 해주신 다운정책연구원협동조합 박인옥 연구위원님, 기계산단 기록을 제안해 주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록 과정을 운영한 미추홀학산문화원 사무국에도 격려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구술기록사업을 지원해 주신 인천광역시청과 미추홀구청, 그리고 인천문화원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정형서

지역의 역사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경험이 모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시민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미추홀시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명의 미추홀시민기록단은

지역의 산업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련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구술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2019. 10.~12. 미추홀시민기록단 1기 모집
미추홀 시민기록자 인문교육 (10강)
- 2020. 6.~10. 미추홀시민기록단 양성 교육 (10강)
「미추홀, 살아지다3 미추홀, 안부를 묻다-삶」 구술자 참여
- 2021. 6.~11. ‘미추홀 음식’ 기록활동 (21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4 미추홀 사람들은 이 맛을 안다」 수록
- 2022. 6.~12. 미추홀시민기록단 2기 모집
‘송의목공예마을’ 기록활동 (19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6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수록
- 2023. 6.~12. ‘지역이슈의 현장’ 기록활동
- 2024.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활동 (16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8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기록하다」 수록



2023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이혜숙



정지선



조연희



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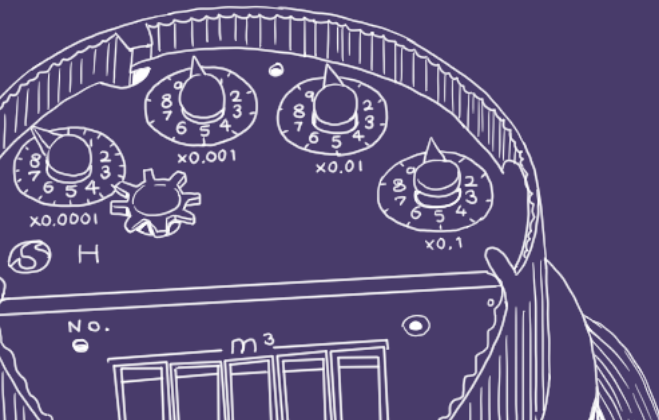
허은영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멘토



박인옥

다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

전



정우산업개발(주) 032) 581-0484 제안이중 2





제

일

OTON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사진으로 보는 인천기계산업단지



1954



1973



— **1986** —

— **2003**

설립 57주년, 인천기계산업단지 역사를 돌아보다

박인옥

다운정책연구원협동조합 연구위원

1

‘인천 산업화 유산의 현장’을 찾아가다

뜨거운 여름,
미추홀 시민기록단이 누빈 현장

도시의 성장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미래 삶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민의 의식 수준과 맥을 같이 한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인천의 17개 산업단지 중 민간산업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조성 역사와 현장을 미추홀시민기록단과 함께 찾았다. 인천기계산업단지는 부평과 주안 등 국가산업단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1960년대 영등포기계공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된 민간산업단지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883년 근대문화의 중심지 개항장,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5년 부평산업단지 조성 50주년을, 2019년에는 주안산업단지 조성 50주년 기념을 성대하게 치렀고, 남동산업단지는 조성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올해 조성된 지 56년을 맞았다. 성대한 기념식 없이 조용하지만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시민기록단 활동으로 역사와 현장을 기록하였다.

2

(사)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제1수출공단을 조성하다 (1966년)

초기 상공계·언론·지역토착민·농민과 노동자
언론·행정·정치인 등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연대로
1965년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을 설립하고
1966년 부평제1수출공단 착공

1)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구성되어 1963년 12월까지 운영된 과도정부 기구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조성된 부평, 주안,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산업화 1세대가 이룬 자산이다. 이들 산업단지는 인천상공회의소와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현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지역유지, 농민과 노동자, 언론, 행정, 정치인 등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연대와 네트워크로 인천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되어 한 시대를 대변한다.

1960년대 국가의 경제정책은 빈곤 극복, 자립경제 달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 1963년 6월 당시 한국나일론(현 코오롱) 이원만 회장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¹⁾에게 재일교포 전용 수출공단 조성을 제안하였다. 박정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로와 부평지구를 수출공단 예정지로 발표하자 인천의 상공계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인천상공회의소(1963.7.3), 경기도중소기업협동조합(1963.8.8),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1963.8.29, 10.11.)가 건의서를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사)인천수출산업공단(1965)을 설립하고, 부평지구를 수출공단으로 지정받아 1966년 4월 8일 착공하게 된다.



致辭하는 京畿道 朴泰元 知事 :朴知事는 이 致辭를 통하여 “祖國의 近代化의 標本은 바로 産業建設에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이 公團은 將次國家經濟의 커다란 礎石이 될 것이며 國家의 富強은 輸出産業의 振興에 集約되어 있기 때문에 祖國近代化의 礎石이 될 것”을 確信한다고 말하였다.



부평제1수출공단 기공식 및 공사현장
출처: (사)인천수출산업공단, 『부평공업단지』, 1966년

수출공단 부지, 부평지구인가 서곶지구인가 부평진흥회의 모금운동과 750만 원 지원

2) 부평지구에 수출공단 유치운동을 전개했던 부평유지 중심의 '금요회'가 '부평진흥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부지변경 논란이 일자 '부평수출공단유치후원회'를 구성하여 부족한 재원을 모금하였다.

하지만 수출공단 착공 직전 윤갑노 인천시장과 유승원 국회의원, 재벌 건설사 중심으로 설립된 (사)한국수출산업공단이 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면서 공단 유치를 둘러싸고 부평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부지 변경 이유는 재원 부족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부평진흥회가 모금한 후원금 750만 원을 전달하면서 수출공단 부지는 다시 부평지구로 확정, 착공에 이르게 된다.²⁾

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 부지변경
출처: 인천신문. 1966년 1월 22일



출처: 인천신문. 1966년 1월 27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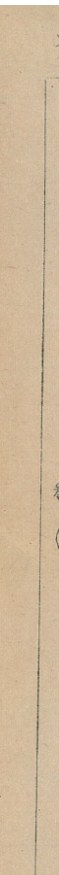
(사)인천수출산업공단

- 주안제2수출공단을 조성하다 (1969년)
주안 폐염전, 60만 평 주안공업지구로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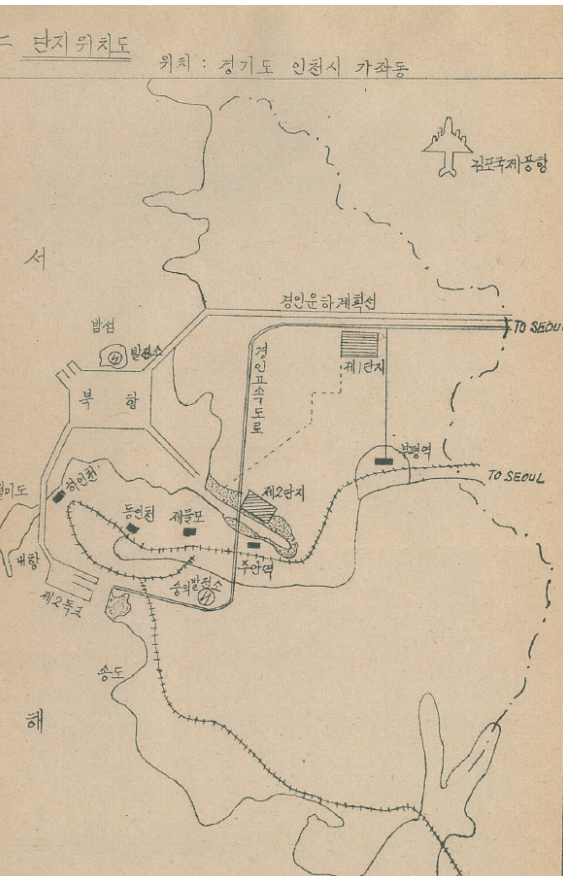
대한염업(주)의 재정적자,
염전매각으로 민간에 떠넘겨

‘선 분양 후 개발’

주안2수출공단 두 번의 기공식 (1967년, 1969년)



1966년 부평수출공단 기공식 직후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유승원 국회의원과 윤갑노 인천시장이 (사)인천수출산업공단에 약 150만 평 주안 폐염전을 활용한 주안공단 조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60만 평 규모의 주안제2수출공단 기공식이 1967년 6월 개최되었다. 하지만 염전 소유주인 대한염업(주)은 '일괄매각' 방식을,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분할매각' 방식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양 기관은 최종 20만 평 부지를 평당 1천원에 계약하고, 1969년 8월 두 번째 착공식을 하게 된다. 대한염업(주)의 주안염전 매각은 염수급 실패에 따른 재정적자를 국가의 재원 부담 없이 '선 분양 후 개발' 방식으로 민간에 떠넘겨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주안제2수출공단 계획도와 조성공사

출처: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주안제2단지 개발계획(2차수정)」, 1970.

기호일보, 2015년 11월 10일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519>)



1960년대 주안공단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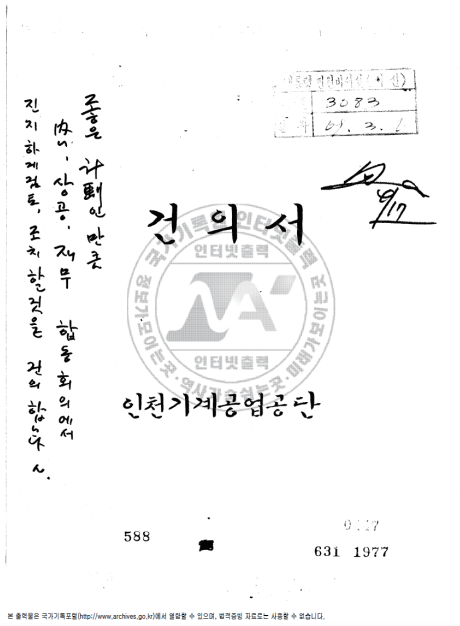
(사)인천수출산업공단

- 인천기계공업공단을 조성하다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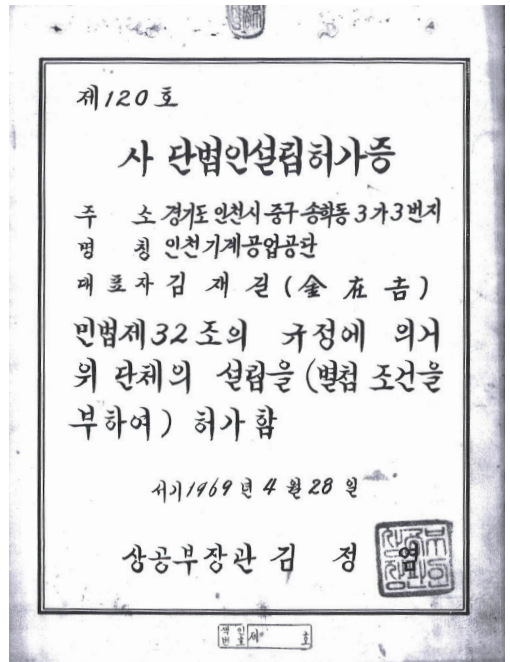
인천기계공단 조성 목적

- 1) 기계공업의 집단화
- 2) 산업의 방위체제 구축
- 3) 기계공업의 합리적 운영체제 확립
- 4) 각종 손실 방지 및 원가 절감
- 6) 기계공업의 협업화, 계열화, 분업화, 전문화
- 7) 기술 기능 향상과 상품의 고급화
- 8) 수출 및 대체산업 장려
- 9) 고용증대 및 기능공 양성
- 10) 공해 방지로 국민 보건 향상
- 11) 도시의 균형적 발전 도모

1968년 염전부지 분할매각 결정으로 인천상공회의소는 주안제2수출
 공단 조성 외에 기계업종을 특화하는 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하였다. 인천기계
 공단 조성을 위해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성회 설립(1968.12),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창립총회(1969.2)를 개최하고 국가에 건의서를 제출하
 는 등 기계공업 동일업종의 연대와 네트워크로 정부 승인 및 지원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의 업무협약의 지시와 상공부 승인(1969.4.28.)
 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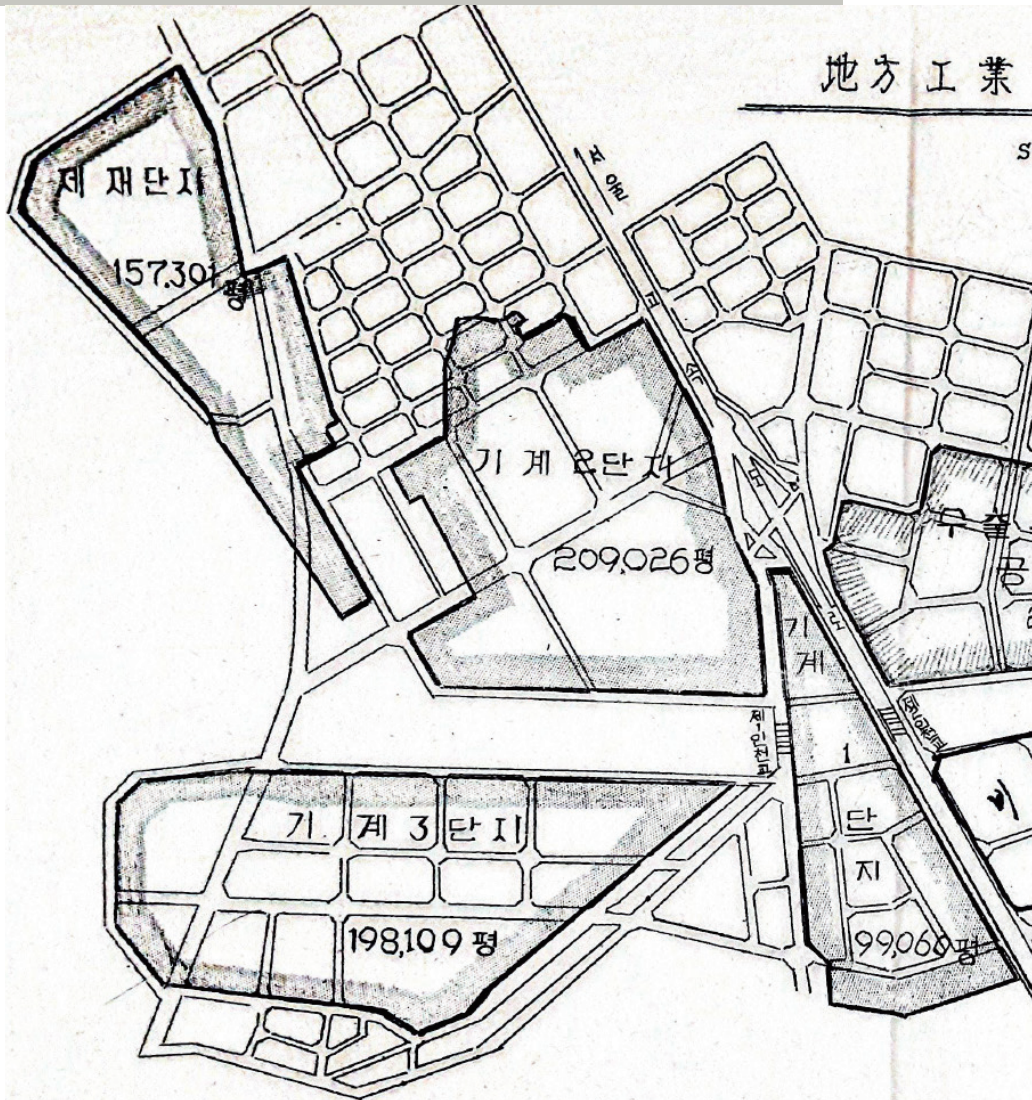
사단법인설립허가증
 출처 :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1969년



(사)인천기계공업공단 건의서(대통령 업무협약의 지시 친필)
 출처 : 국가기록원,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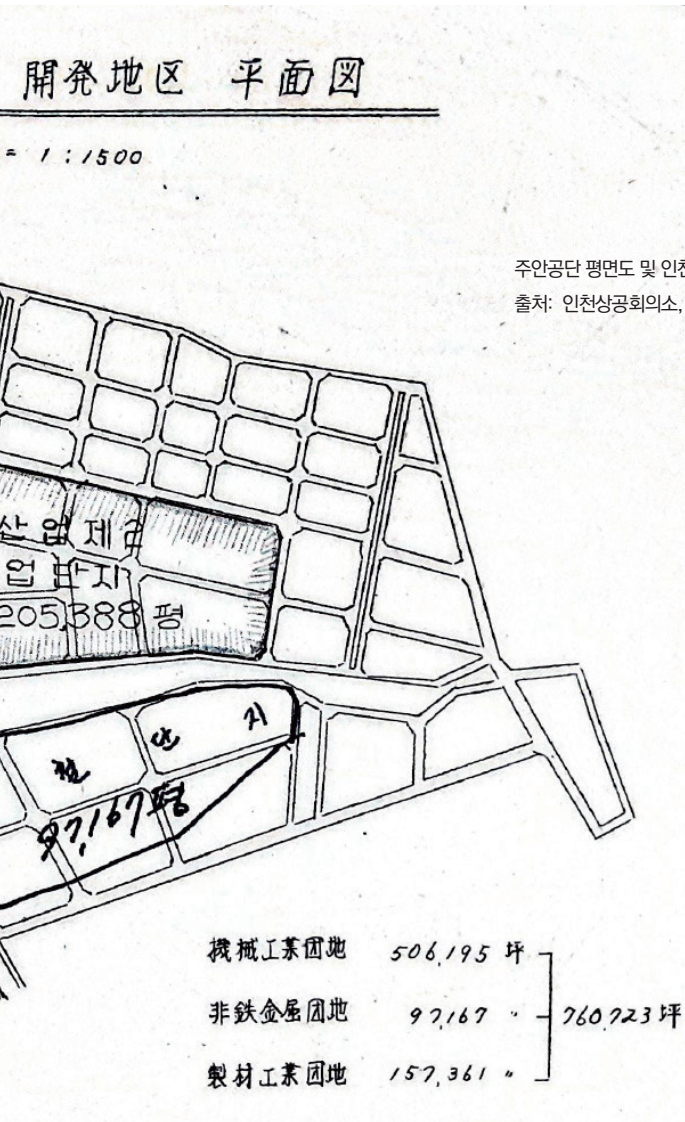
주안 폐염전, 기계공단으로 질적 탈바꿈

3개의 기계공단과
비철금속공단이 들어서다



우선 제1기계단지는 인천에 입지해 있는 기계공업으로 제한하여 분양한 결과 52개 업체가 신청, 100% 유치목적을 달성하였다. 공장부지 위치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다.

제1기계단지 부지 분양이 성공하자 (사)인천기계공단은 제2, 제3기계공단, 비철금속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주안 폐염전은 질적 전환을 맞게 된다.



주안공단 평면도 및 인천기계공단(제1,2,3 기계공단) 위치도
출처: 인천상공회의소, 「공업단지관계서류서류철」,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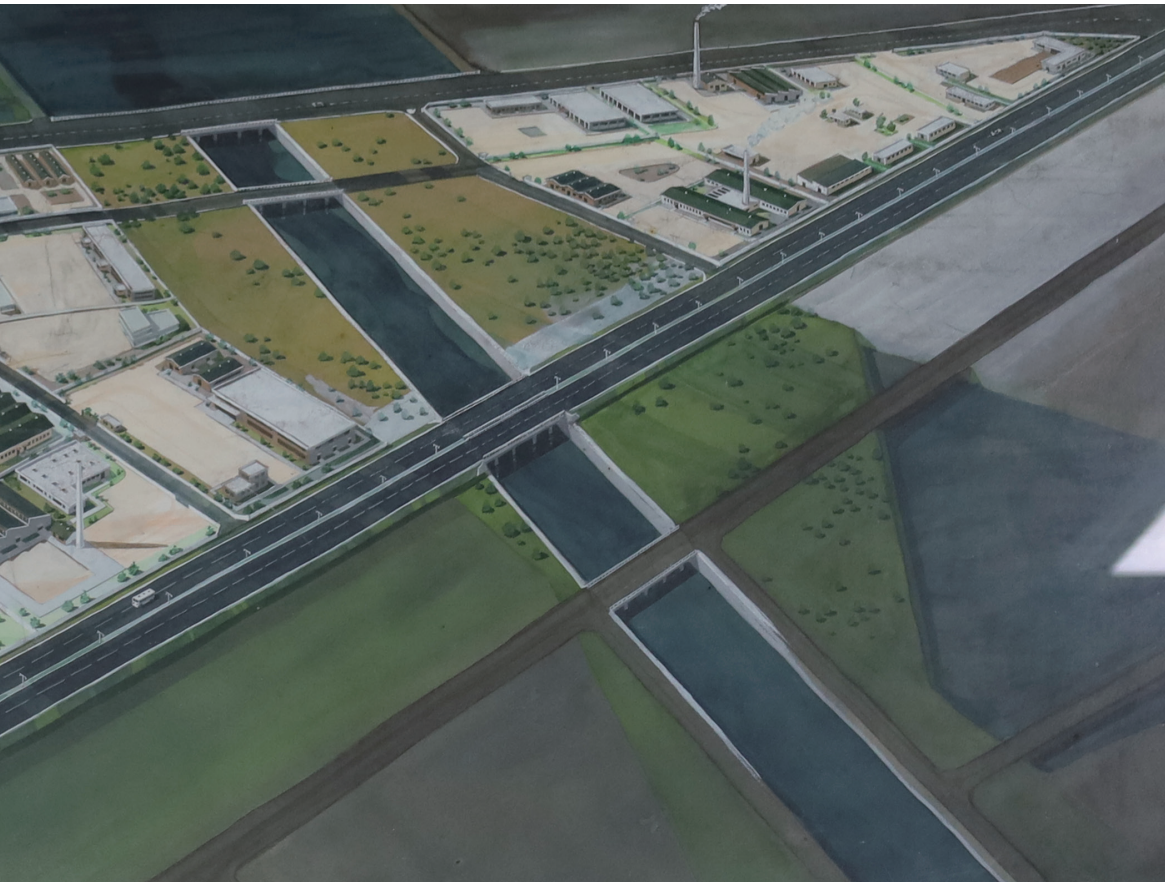


제1기계공단 도로 포장 기공식 및 공사 현장. 출처: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기계공업단지 조감도. 1967년



- | | | |
|-----------|---------------------------------|------------------------|
| - 제1기계단지 | 9만9천 평으로 인천에 있는
기계공업체만 입주 | (평당 3천2백 원,
현 기계공단) |
| - 제2기계단지 | 20만9천 평에 인천과
서울 소재 일반 공업체 입주 | (평당 3천4백 원,
현 지방공단) |
| - 제3기계공단은 | 19만8천 평에 지역과
업종 제한 없이 입주 | (평당 4천50 원,
현 지방공단) |
| - 비철금속공단은 | 9만7천 평에
비철금속업체만 입주 | (평당 5천 원,
현 국가 6단지) |



인천기계공단을 만든 핵심인물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도
김재길, 장만순, 김성성 등



인천기계공단 도로 공사 현장(사진 뒤에 지금은 사라진 선인체육관이 보인다.)

출처: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사)인천기계공단은 김재길 초대 이사장(1969~1971) 이후 장만순(1971~1972), 이봉운(1972. 2.~6.), 장만순(1972~1977), 김성성(1977~1980), 안희점(1980~1989), 장주완(1989~1991), 이정열(1991~2001), 천홍(2001~2003), 이정열(2003~2004) 등이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인천기계공단 조성의 핵심 인물인 초대 이사장 김재길과 장만순은 염전부지 분할 협상, 부지분양 및 공장유치, 자원 확보 등 3개의 기계공단 조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재길은 해방 전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삼중물산(주) 경성지점 인천출장소, 조선해운상사회사, 인천조선공업(주), 동해운수(주) 등 요직에 근무하였고, 해방 후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장만순은 해방 전 조선제강소에 근무하다 인천기계제작소를 설립, 해방 후 기업을 계속 운영, 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5

인천의 공업단지, (가)통합계약서로 강제 통합되다

1971년 부평공단과 주안공단, 국가산단으로 강제통합

이들 역대 이사장은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인천기계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쏟았다. 강인덕 국일정공 대표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부평제1수출공단 → 제4국가산업단지

주안제2수출공단 → 제5국가산업단지

비철금속공단 → 제6국가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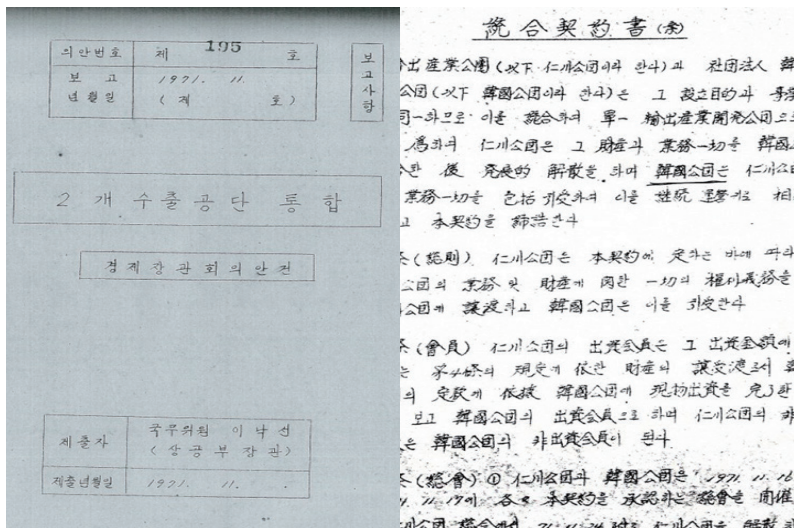
제2기계단지 → 제7국가산업단지 통합 무산, 인천지방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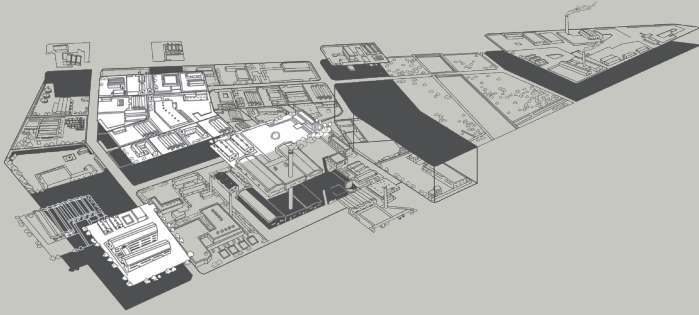
제3기계단지 → 인천지방산업단지

제1기계단지 → 인천기계산업단지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이 조성한 부평제1수출공단과 주안제2수출공단은 (사)한국수출산업공단이 조성한 구로수출공단과 함께 산업화 1세대의 열망과 기대를 반영한 수도권의 핵심공간이다. 그러나 1971년 위기를 맞게 된다. 국가가 1971년 11월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을 (사)한국수출산업공단에 강제 통합함으로써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설립 7년 만에 해체되기에 이른다.

수출공단 통합 문건 출처: 국가기록원, BA0139611.





6

인천기계산업단지, 어떻게 바라볼까?

산업화 1세대의 산물
‘고립된 섬’으로 전략
제조업보다 부동산 가치가 우선
이제 3세대로

국가의 강제통합방침에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최정환 회장(동일방직 전무)이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협의를 이어갔으나 군부정권의 정치권력과 힘의 동원을 막지 못했다. 부평제1수출공단은 제4국가수출공단으로(1971), 주안제2수출공단은 제5국가수출공단으로(1971), 비철금속공단은 제6국가수출공단으로(1974) 통합되기에 이른다. 국가가 제2기계단지를 제7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려했지만 1976년 공단관리청이 해체되면서 중단되었다.

(사)인천기계공단은 1978년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1997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개편되어 민간산업단지로 현재 운영 중이다. 현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초기 조성된 제1기계단지이다.

산업단지는 국가의 강한 리더십과 행정의 합리적 판단이 작용한 산업화 과정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산업단지는 초기 상공계와 언론, 지역토착민, 농민과 노동자, 행정, 정치인들이 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성한 산업화 1세대의 산물이다. 산업단지는 지역민의 기대가 막연하게 표출된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내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주변에는 노동자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섰다. 산업단지는 일터와 주거, 소득과 소비가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토대다. 그러나 지금 인천기계산단을 비롯한 산업 공간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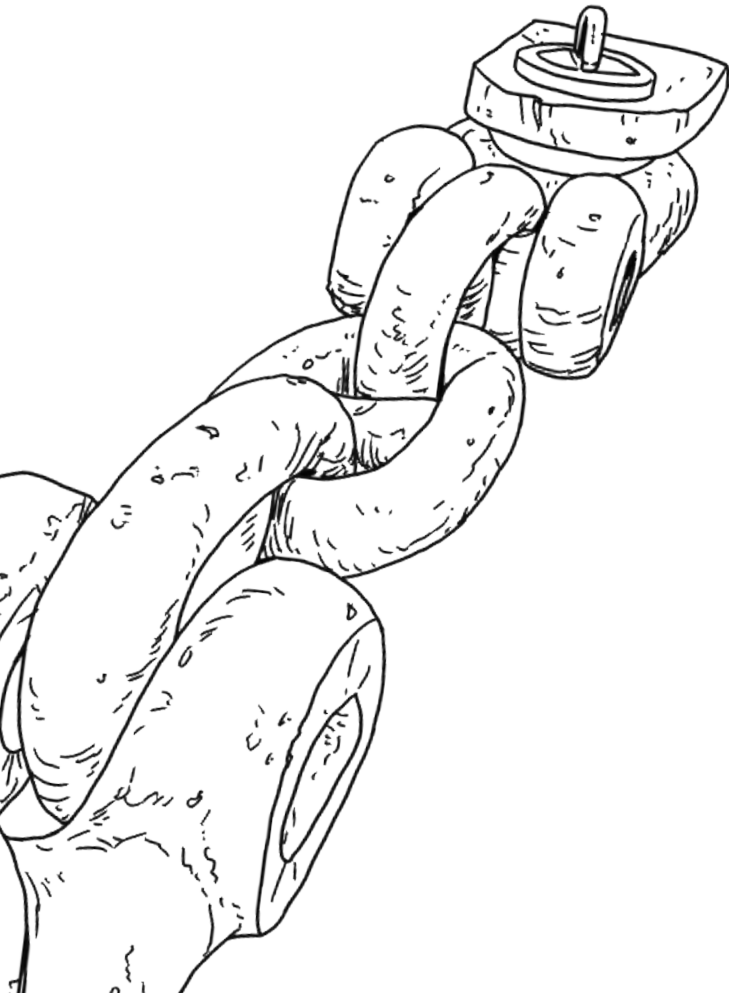
첫째, 아파트 단지에 포위되어 ‘고립된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어 생산기능을 위협받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는' 개발정책의 결과다.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하지 말자.

둘째, 탄소 감축을 위한 대응이나 실천과제는 멈추어 있다. 입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국가산업단지보다 취약한 구조를 갖는 민간산업단지로서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산업화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늙어가고 있다.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내몰 것인지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일이다.



■ 1960-70년대 인천의 초기 공단 조성 과정

일시	내용
1963.6	구로, 부평지구에 수출공단 조성계획 언론 보도
1963.7	인천상공회의소, 공단유치 건의서 제출
1963.11	인천수출산업공단 준비위원회 조직
1964.9	수출공단조성법 국회 통과
1964.10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구 수출공단 유치 신청서 제출
1965.6	부평지구 21만 평 지정공고
1965.6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 설립 총회 개최
1965.10	기성회 해체, 사단법인 인천수출산업공단 발기인 총회 개최
1965.11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상공부 승인
1966.1.	수출공단 부지 변경 논란(부평지구에서 서곶지구로)
1966.4.8	부평제1수출공단 기공식
1966.3	인천시도시계획5개년계획 수립(부평, 주안지구) 인천시, (사)인천수출산업공단에 주안공단 조성 제안
1967.6.2	주안공업지대 조성 기공식(주안폐염전 60만 평 매립)
1968.11	인천상공회의소, 기계공단 조성 여론조사 인천상공회의소,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시, 인천 거주 기계업종 등 기계공단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
1968.12.10	가칭 (사)인천기계공업공단 기성회 창립 총회
1969.2.8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창립총회
1969.10	주안제2수출공단 부지정지공사 착공
1969-1970	제1기계단지(9만9천 평), 제2기계단지(20만9천 평), 제3기계단지(19만8천 평) 비철금속공단(9만7천 평) 조성 및 부지 분양
1971.11	(사)인천수출산업공단과 (사)한국수출산업공단 통합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개최
1971.11.24	6개 항목 조건부 합의 통합총회 개최, 부평제1수출공단은 국가수출4단지로 흡수 주안제2수출공단은 국가수출5단지로 흡수
1973	상공부 산하 공단관리청 신설, 공단 흡수 통합 주도
1973.8	공단관리청, 제2기계단지 부지 매각 보류지시
1973.9.15	인천비철금속공단 해산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1974.1	공단관리청, 제2기계단지를 국가수출7단지 흡수 지시(1976년 공단관리청 해체로 중단)
1974.2.26	화산장에서 인천비철금속공단 해산총회, 국가수출6단지로 흡수
1975.12	공업단지관리법 제정, 민간단지 흡수를 위한 근거(1976년 공단관리청 해체)
1978	민간단지로서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설립허가
1997	민간단지로서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 명단(1965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경기도건설국장	이병균	제물포철공소 대표	이봉운
경기도내무국장	백태신	형제상회 대표	김정옥
경기도산업국장	홍순항	동양방직상무	최정환
경기도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한국화공(주) 대표	용이식
경기도지사	강신익	한국소다 대표이사	이덕근
인천시	김정임	경원기업(주)대표	김경원
인천시장	윤갑노	인천도시관광(주) 총무이사	김용해
이학박사	정광섭	대한연공업(주) 대표	김중하
인천신문사 사장	허합	한국피혁공업 회장	심현구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채호	경기교통(주)	김두영
일신산업(주) 대표	김영배	인천도시계획위원	김영길
송의직물공장 대표	윤종구		

출처: 인천신문, 1962년 6월 3일

■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회 명단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이사장	채호	조선삼공주식회사	이사	김정복	조양금속공업사
상임이사	정광섭	공단설립기성회	감사	김정옥	형제상회
	심현구	한국피혁공업(주)	감사	홍윤표	삼양물산(주)
이사	이봉운	제물포철공소	총무이사	최정환	동양방직(주)
	이덕근	한국소다공업(주)		김영배	일신화학공업(주)
	김경원	경원기업(주)		윤갑노	인천시장
	임호	일신제강(주)		윤종구	송의직물공업
	신대교	대성목재(주)		김재길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후선	삼광목재공업(주)		오준섭	인천수출산업공단

출처: (사)인천수출산업공단, 役員名單, 1965년

■ 인천기계공업공단 기성회 임원(1968년 12월 10일)

직위	이름	소속	
고문	유승원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봉진	경기도 지사	
	김해두	인천시장	
	박현수	대한염업(주)주식회사 사장	
회장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장만순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천기계제작소	
이사회			
상임이사	김재길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위원장	신흥선	인천상공회의소 종합개발분과 위원	
위원	김영배	일신화학주식회사	
	김용해	-	
	김두영	-	
	김순성	-	
	강용구	-	
	심영섭	-	
	이봉운	제물포철공소	
	홍승기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 이화철공소	
	임흥업	제일신철합자회사	
	김동욱	대인기계제작소	
	구자호	삼성주물공업사	
	김재순	해안정밀기계공작소	
	민찬식	인천시 건설국장	
	허호	인천시 산업국장	
	이학진	인천시 수도국장	
	감사	박동순	-
		안희점	재건공업사

출처: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인천기계공업공단 연혁철」, 1969년

■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이사회 임원(1969년 2월 8일)

직위	이름	소속
고문	유승원	경인지구종합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봉진	경기도 지사
	김해두	인천시장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사장	김재길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사	김재순	해안정밀기계공작소
	장만순	인천기계제작소
	임홍업	제일신철합자회사
	홍승기	삼화철공소
	김성성	오르강미성제조상사
	안희점	재건공업사
	구자호	삼성철물공업사
	김병두	만화주물주식회사
	장범진	인천강업합자회사
	박준근	경인조선철공소
	이봉운	제물포철공소
	감사	오대균

출처: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인천기계공업공단 연혁철」, 1969년

발 넓은 인맥,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단을 이끈다

강인덕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인터뷰



(주)국일정공 대표

강인덕(1957년생)

95년도에 (주)국일프레스를 인수하여 (주)국일정공을 설립한 이후 국일정공을 한국 프레스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경영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 넓은 대외활동력을 가진 기업가로, 민간주도로 조성된 인천기계산업단지 중요성을 알리고 낙후된 기계공단의 환경 개선을 주도하기 위해 2004년도에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20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관계자, 중앙 정부 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주도하여 2023년도에 인천기계산업단지가 공단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면담일시 : 2024년 6월 27일 10시

면담, 원고정리 : 정지선

면담지원 : 허은영, 박인옥, 양지원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역할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04년이니까 오래됐죠. 거의 20년 정도 공단을 끌어오고 있어요. 제 앞선 이사장님이 태진기연¹⁾ 대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연세에 서울대를 나와 두산 그룹에 계셨던 분이세요. 아주 일을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분도 오래 하셨는데 후임으로 저를 지명해서 이사장이 되었죠. 제가 57년생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상당히 젊었죠.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관리공단은 인천기계산업단지(이하 공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고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관리공단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산업 기계 제조업체로 1979년 주식회사 태연 기연으로 설립하여 1983년 인천 기계 산업 단지로 이전하여 자동 주조 설비 및 모래를 처리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

이사진들이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사진들이 다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공단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단에 맞게끔 경영 체제라든가 행정 체제를 갖춰 손색이 없는 기계 공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역할에 대해 적혀있는 안내판

처음 이사장 되었을 때, 여기 공단이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차고 그래서 우리 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손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해결하면서 이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했죠. ‘ㄷ’자 노깅²⁾을 묻어서 침수를 방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공단에 지금 CCTV가 6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감지가 되는 그런 정확도로 촬영되고 있어요. 제가 공단 순찰을 하면서 도둑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야겠다 생각해서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들을 설치하도

2) 샘을 만들 때나 수로를 놓을 때 사용하는 가운데가 빈 원형의 콘크리트통

록 했죠. 예전의 취약 지구를 지금은 가장 안전하고 밝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인도의 보도블록이 오래 되어가지고, 미추홀구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도 다 교체해서 깨끗이 깔아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공단의 환경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사장 첫 취임사에 담긴 운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네. 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 회사도 도둑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관리공단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역할을 못해주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썼죠.

우리 공단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안전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도난,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소방서도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포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자체가 주소지가 세 군데예요. 서구, 동구, 미추홀구. 아마 이런 공단이 대한민국에는 없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청장을 3명 상대해야 돼요. 각 구마다 움직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개선 사항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이렇게 유기적인 체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 공단 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그걸 다 살펴야 되거든요.

특히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공단보다도 저희가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주변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보공업³⁾ 제2공장 같

은 경우도 폐쇄한 게, 바로 분진이라든가 악취가 난다는 거였는데,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민의 반발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요. 정보공업을 시에서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했어요. 저희 공단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잘 통제가 돼 있고, 또 제가 잘 마무리하니깐 자꾸 일을 맡기는 거죠.

저는 이사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주로 공단의 환경 개선, 안전 그리고 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기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공단 내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단에 입주해 있는 약 180여 개 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관리공단이 그런 민원을 해결 못한다 그러면 관리공단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입주기업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저희 공단은 다른 공단하고 좀 틀리게 비교적 안정돼 있어요. 우리는 기계공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공단들은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계 산업공단으로 ‘기계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제조업체로 1975년에 성보공업사로 문을 열었다.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정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

그런데 사실 여기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제가 거의 퇴근을 못 해요. 어떤 위험 상태를 감지하면 바로 관공서로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도록 조치 해요. 그런 거 해야 이사장이죠. 공단 안전이 제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거니까 일을 해 줘야죠.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

2004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이사였죠. 이사하다가 이사장이 된 거예요. 이사 역할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1세대들이죠. 우리 공단 안에 1세대로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관리공단을 운영해 오시면서, 그분들이

임원을 거의 20~3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가지고 제2석으로 물러났다든가 아니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그 자체를 보고 배우는 거죠. 후배들은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당시 이사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배우면서 이사 역할을 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사가 되었을 때 어르신들이 애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인데 그분들한테는 애야 애.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어르신이니까. 제가 여기 어르신들을 상당히 잘 모시고 좋아했죠. 제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사장을 빨리 물려준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시하고 관공서의 관계자들을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아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로 재직하실 당시 이사 회의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함께 했던 이사님들이 다들 꼼꼼하셨어요. 대금⁴⁾ 회장으로 계신 분도 정말 꼼꼼하시고 차분하셨고. 옛날에는 다 애착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일하셨어요. 그분들과 회의하면은 무서웠어요. 요만한 거 갖고도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이걸 안 된다는 식으로 언성들이 높아가지고. 그게 다 보면 ‘공단의 질서, 공단의 불필요한 기업들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웠죠.

4) 1957년 2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인천 정밀사를 설립한 것으로부터 시작. 1974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92번길 38[도화동 720] 현 소재지로 공장을 이전. 자동 세륜기, 세차, 소독 설비, 제동 장치, 부쉬, 산업 설비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2022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 현장. 관리공단 제공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업종 변화 흐름

최근에 기계 공단의 업종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공단 내에 한계적으로 부딪혀 있는 부분들이 '기계 외에는 못 둔다' 하니까 경직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민원 발생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자가 공장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원 발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장부지를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매입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가 업종이 저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업종이 규제 업종이 되면 그걸 갖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일부 물류라든가 창고라든가 그거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 업종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 하는 편이고, 할 수 있다 하면 기계와 근접한 업종은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에 여기는 전자 업종도 못 들어

왔어요. 폐수, 오염, 악취와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돼서 PC판⁵⁾도 못 들어 오고 그랬는데, 지금 한 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늘 애를 먹습니다. 그 회사 근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냄새 때문에 우리 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허락 안 한 업종이 거의 몰래 들어 왔던 건데, 사실상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기되는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 저희는 철저히 규제합니다.

업종 제한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관련 업종만 들어오게끔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역사죠. 저희 인천기계산업공단 이름에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산업관리공단은 아무나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기계 업종이라는 특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줘야죠. 안 지켜준다면 문제가 되죠. 사실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제조업을 여기서 운영하겠어요? 이 좋은 땅에? 게다가 도로변인데? 창고업을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텐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 이권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규제를 풀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풀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규제가 풀어지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 물류라든가 다른 게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막 들어온

5) PCB(printed circuit board)로 전자공학에서 저항기, 콘덴서, 집적 회로 등 전자 부품을 인쇄 배선판의 표면에 고정하고 부품 사이를 구리 배선으로 연결해 전자 회로를 구성한 판

다고 하면 이 공단이 한 10만여 평 되는데 이게 공단치고는 좁아요. 공단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보편은 2공장, 3공장이 다른 지역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다른 걸 푼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기계공단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도로 주변 고도 제한 규제가 풀리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화 사업으로 공단으로 들어오는 물류라던가 큰 트럭들은 외곽으로 돌아서 진입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6차선 도로고 양쪽으로 2개 비상 도로가 있어요. 총 8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를 4차선 도로로 줄이고 도로 중간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시의 계획을 알고는 제가 중부일보에 의견을 냈어요. 공단 지역을 끼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녹지 공간 옆으로 차가 다니면서 매연도 뿜고, 달리는 차로 인해 위험할 텐데 누가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차선을 줄이다 보니 공단으로 들어오는 대형 트럭들은 그 도로를 통과 못 하게 제한이 돼요. 외곽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엔 상가 내지 주택이 있어서 주민 피해가 더 심하죠. 주거 공간이 있는 도로로 큰 차들이 막 다니게 될 테니까요. 공단에는 물류가 각지에서 들어와, 다시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나가야 하는데 민원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공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경인고속도로는 양대 공단이 접해 있어요. 우리 공단이랑 주안공단⁶⁾. 그런데 공청회도 없이 시가 계획한 것을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 인터뷰를 했고, 시에도 건의를 해 봤어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인천기계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입주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산업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이 대세라 대부분 자동화 기계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동화 산업은 기계가 바탕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기 공단에서도 자동화 기계를 다 만들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아날로그식 기계를 업체 자체 기술개발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 기계들은 다 자동 기계들이에요. 자동화된 기계들로 부품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자동화 시스템에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요즘 기업이 안고 있는 숙제죠. 스마트 시스템은 일종의 장치 산업입니다. 메인에 스마트 시스템 기능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산업에 맞게끔 가주는 거죠. 기계에 스마트 시스템을 붙여서 해외로 나갔을 때,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흔히 알려진 약칭은 주안공단 내지는 수출공단, 5·6공단으로 불림

원격 조정이 됩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붙이면 여기서 다 감지가 되죠. 그만큼 편리하고 첨단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류 창고가 지금 다스마트 시스템 아니에요? 층별로 보관되어 있는 물류를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벨트로 연결되어 알아서 계류장으로 빠져버리는 시스템 같은 것도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인 거죠. 이제 정부도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을 하니, 업체 자체에서도 안 바꾸면 안 돼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거죠. 제 회사도 올해부터 제품에 스마트 시스템 적용 시작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 시스템에 대하여 관리공단에서 입주업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측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각 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요. 기업이 부설 연구소를 만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3명까지 채용을 해서 한 5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업은 사무실만 마련하면 되거든요.

요즘은 각종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 정책이 잘 마련돼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잘 활용해도 돼요. 예를 들면 기숙사 시설의 환경 개선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100%는 지원 안 해주더라도 50%는.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 정책은 잘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몰라서 못 쓰는 데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중소기업정책을 많이 홍보해요. 연말 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 되면 예산에 따라서 기업 정책 홍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업체에 다 보내줘요. 그걸 보고 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신청하죠. 요즘은 정부 지원 정책들이 촘촘히 잘 돼가고 있어요. 정부 예산이 많

짱아요. 한 650조 원을 쓰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죠. 추경해서 670조까지 쓰는 그런 국가 예산으로 발돋움했는데, 그런 정책도 살펴봐야죠.

기계 공단 내에 입주업체 간 협업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그거는 공단 내 어디에서 어떤 부품을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협업하죠. 업체 대표들끼리 통하기도 하는데, 관리공단이 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니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해요.

인천기계산업단지에 불어오는 공단 재생 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3년도 8월에 정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⁷⁾(이하 재생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는지요?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1년에 두 군데 선정해요. 전국에 산업단지만 해도 거의 한 150여 개 단지가 있는데, 하늘의 별 따기죠. 특히 저희 공단은 규모가 좀 작아서 어려웠어요. 저쪽에 있는 20만 평 되는 인천지방산업단지⁸⁾하고 저희 기계산업단지하고 합치면 한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땀어요. 272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아요.

국가 공단인 남동공단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도 수년에 걸쳐갖고 땅을 파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저희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좀

잘 봐줘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공단 재생 사업을 따서 신문에도 크게 나왔어요. 2024년부터 예산이 반영돼요.

재생 사업에 대한 관리공단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재생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국가와 인천시가 5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재생 사업은 근로자들 복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을 만들고, 문화 공간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실제로 없어요. 있다면 동구구민운동장을 활용해야 돼요. 동구구민운동장이 옛날에는 우리 공단 내에 연결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끊긴 거예요. 그 공간이 한 6천여 평 되거든요. 거기에 문화 시설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내용이 좋죠.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단이 주차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도로변에다 차들을 대놓고 있는데, 동구구민운동장을 지하화해서 한 500여 대 정도 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요. 이번 예산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 공간은 도로변 완충 지역하고, 저기 넘어 어린이 교통공원 자리 그리고 인천의료원 옆 그런 부분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우리 공단 내 근로자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하고 재생 사업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 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인천기계산단은 인천지방산단과 함께 2034년에 지정. 산단 재정비를 위해 인천시는 2028년까지 총 272억 원(국비 136억 원, 시비 136억 원)을 투입할 예정

8) 인천시 관내 도심지 공해업체의 집단 이전으로 업종별 계열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973년에 미추홀구 도화동과 서구 가좌동 일원에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2024년에 국가가 예산을 1억 잡았더라고요. 시에서도 매칭해서 1억 잡았을 거예요. 그걸로 기반 용역을 할 겁니다. 아마도 주차장과 문화시설에 대한 설계가 나올 거예요.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있다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문화 공간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도로가 되면서 고도 제한 해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고속도로변은 5층 이상 못 올립니다. 허가 사항이거든요. 근데 서인천서부터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10층, 20층, 50층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직원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넣으려고 해요. 동구구민운동장이 시 땅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곳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에 문화시설을 지으면 크게 나오죠. 거기에 직원들 환경이라든가 문화생활, 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어주려고 해요. 그건 미추홀구하고도 협의를 할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건물이 세워지니, 채우는 건 미추홀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인 관리공단 부지도 한 18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정리해서 투입시키면, 깔끔하고 깨끗한 모범이 될 수 있고, 이 지역에서는 내놓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 우리 관리공단 사무실이 너무 오래돼서 손을 댈까 했었는데 다행히 재생 사업을 따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터전이 마련된 거죠.

재생 사업과 발맞춰 입주업체도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생 사업은 목적 사업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 기업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단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업체에다 주는 방법은 없죠. 재생 사업으로는 공단 주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회사 내 환경 개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소가 좁아요.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용지가 더 필요한 회사들도 있고,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서 개별 회사가 책임지기엔 어렵죠.

그렇다면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특히 용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수도권 밀집 지역으로 종량제에 묶여 있어요. 더 이상 한 평도 못 늘립니다. 옆으로 가는 건 안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⁹⁾을 풀어야 되겠죠. 지금 서울이 현재 420%면 600%로 다 풀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짓게끔. 우리 공단도 그런 거를 풀어서 공장을 여기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한 용지 확보를 위해 대체 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필요한 20여만 평 정도 되는 용지를 주고, 기계 공단을 나가라. 그리고 나면 도시 계획에 따라 여기를 개발하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반화 도로가 되고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공단만 고립이 되거든요. 민원 발생 요인들도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

9)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의미.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이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렸을 때 공단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상권으로 개발한다든가 공원을 한다든가 시민의 숲으로 한다든가 하고, 우리에게는 대체 부지를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시가 몰라요. 제가 시에 가서 대체 부지 달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공단 내 공장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전해요. 본사와 1공장을 못 키우고 2공장을 키우는 거죠. 지방 가면 땅은 내가 사고 싶은 만큼 그러서 살 수 있으니까. 땅값이 여기는 평당 거의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방 내려가면 100만 원도 안 돼요. 한 5~60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빛 하나도 안 주고 회사 크게 짓고 빛 제로로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수도권은 일을 하는 일터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구보담도 시가 앞장서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 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가세가 나오고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산 유발 안 하고는 세금은 안 나와요. 서비스업만 갖고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회사는 잘 못 움직여요. 여기다 공장을 지어 40~50년씩 하면서 계속 인천에 세금을 내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빠지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인천의 큰 공장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대체 부지를 못 해줘가지고 공장이 없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당진에 가면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로 뺏긴 거예요. 그런 부지를 조성하면 인천에 생산 유발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걸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땅에 없어 못 해준 게 아니고요. 예전에 검단 공

단, 그게 다 풀밭이었어요. 250만 평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게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아무것도 개발을 못 해 놓고 시장들은 그냥 4년 동안 있다가 또 4년 지나면 또 내가 이거 하겠다고, 또 4년 지나버리고 그러다 떨어지면 가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큰 기업들이 없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인천에 자생력이 별로 없죠.

대체 부지를 주면 공장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새로 지으면서 바꿔버리니까. 여기 회사들은 보통 3, 40년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시설 갖고 스마트 시스템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해야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부딪혀 있는 난제입니다.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인천 기계 공단의 역사성을 인천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신지요?

인천에는 한 14개 정도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가 산단 같은 경우 이벤트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인천시가 지방 산단에는 정작 지원을 1원도 안 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시에서 행정비 지원을 한다든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져간다 하면 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특수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제품 전시회를 한다든가 전시 품목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품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지방 공단하고 관계 개선 관리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지껏 상공회의소에서 지방 공단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시에만 맡기는 정도였는데, 그것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기계공단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공단을 좀 더 쾌적하고 정말 근무하고 싶은 그런 공단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근로자들 휴식, 변형 근로 시간과 같은 내용들을 국가 정책에 발맞춰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이번 재생 사업 예산이 잡혀서 직원 복지라든가 환경 개선, 문화시설 쪽도 역점을 두고 하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죠.

또 저희는 ‘업종 다양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있어요.

거기에 요즘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중대 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 부분도 좀 강화해서 우리 공단 내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계몽도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연결 체제도 원활하게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회사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좋은 전문 경영인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생 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정부 지원을 받

아 인천기계산업단지가 좋은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기계산업단지 입주업체 배치도, 2023년 기준

인천기계산업단지에서 공장 가동을 하려면
관리공단에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지 입주업체 배치도



임대차입주업체배치도

지역번호	지적번호	회원업체명	지역번호	지적번호	회원업체명	지역번호	지적번호	회원업체명
1	692-2	(주)코르텍	4	689-4	원테크	8	126-14	광덕정밀
1	278	(주)홍진티아이씨에이치	4	289-35	기환정공	8	126-4	부일공영사
1	278	강원인더스트리(주)	4	289-35	동남산업	8	180-153	상성테크
1	50-57	신광공속	4	289-35	(주)지지엠	8	126-24	(주)서울엔지니어링
1	50-57	조은풍력개발	4	261-26-46	삼화전자	8	126-14	아크필존
1	50-57	한창고무산업(주)	4	261-54	미래광학	8	168-52	(주)디케이이조명
1	50-57	(주)연희코스텍	4	92-56	영원산업	8	118-21	(주)에이치케이이열처리
1	50-57	대성정밀	5	289-16	알렉스텍	9	158	고려화이버(주)
2	303-27	한일산업	5	303-27	인천기계	9	158	보명철강공업
2	278	세광화학	5	303-27	영광이엔지	9	158	두일공속
2	70	레드피아	5	303-27	한일산업	9	158	(주)선영하이텍
2	261-23	(주)엑스코	5	303-27	한영기계	9	168-40	성우공속
2	261-23	아세아전기(주)	5	303-27	성신아트	9	168-46	경기테크
2	261-45	디지아그룹 풍경	5	289-16	천호산업	9	168-42	나래공속
2	92-12	신한일렉트론비(주)	5	289-4	링크라인	9	168-46	밀음전자
2	261-55	해일산업	6	261-63	한일방음문	9	126-17-7	닛시산업
3	261-55	(주)신호코리아	6	261-69	(주)해빅테크놀러지	9	126-13	(주)로드슬라
3	261-26-22	(주)티아이씨텍	7	261-66	(주)동아유리	9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공단

입주 상담



032)875-5461 /



032)875-5462, 050-2875-2400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60~70년대 주거단지에 밀집해 있는 공장을 집단화하고, 계열화, 협업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단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관리기구이다. 인천상공회의소와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입주기업들이 이사로 참여하여 1969년에 발족하였다.

창립총회에서 인천상공회의소 김재길 사무국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 강인덕 국일정공 대표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설립연도 : 1969년

이사장 : 강인덕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장고개로 98, 2층(도화동)

설립목적 : 기계공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



연혁

1968년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설립 기성회 발족

1969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에 김재길 선출

인천기계공업공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허가 제120호)로 기공식 실시

1971년 제3기 정기총회 실시, 임선 개선 이사장 장만순

1976년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로 지정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978년 인천기계공업공단 관리공단 창립총회

이사장 김성성 선출

상공부장관 인천기계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허가

(허가 제249호)

1980년 제2기 정기총회에서 임선 개선 이사장 안희점

1989년 제11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장주완 선출

1991년 제14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이정열 선출

1994년 인천기계공업단지 용도별 구획

(인천직할시 고시 제 1994-66호)

1997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4년 제26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이정열 퇴임

제26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이사장 강인덕 선출

2007년 제29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강인덕 재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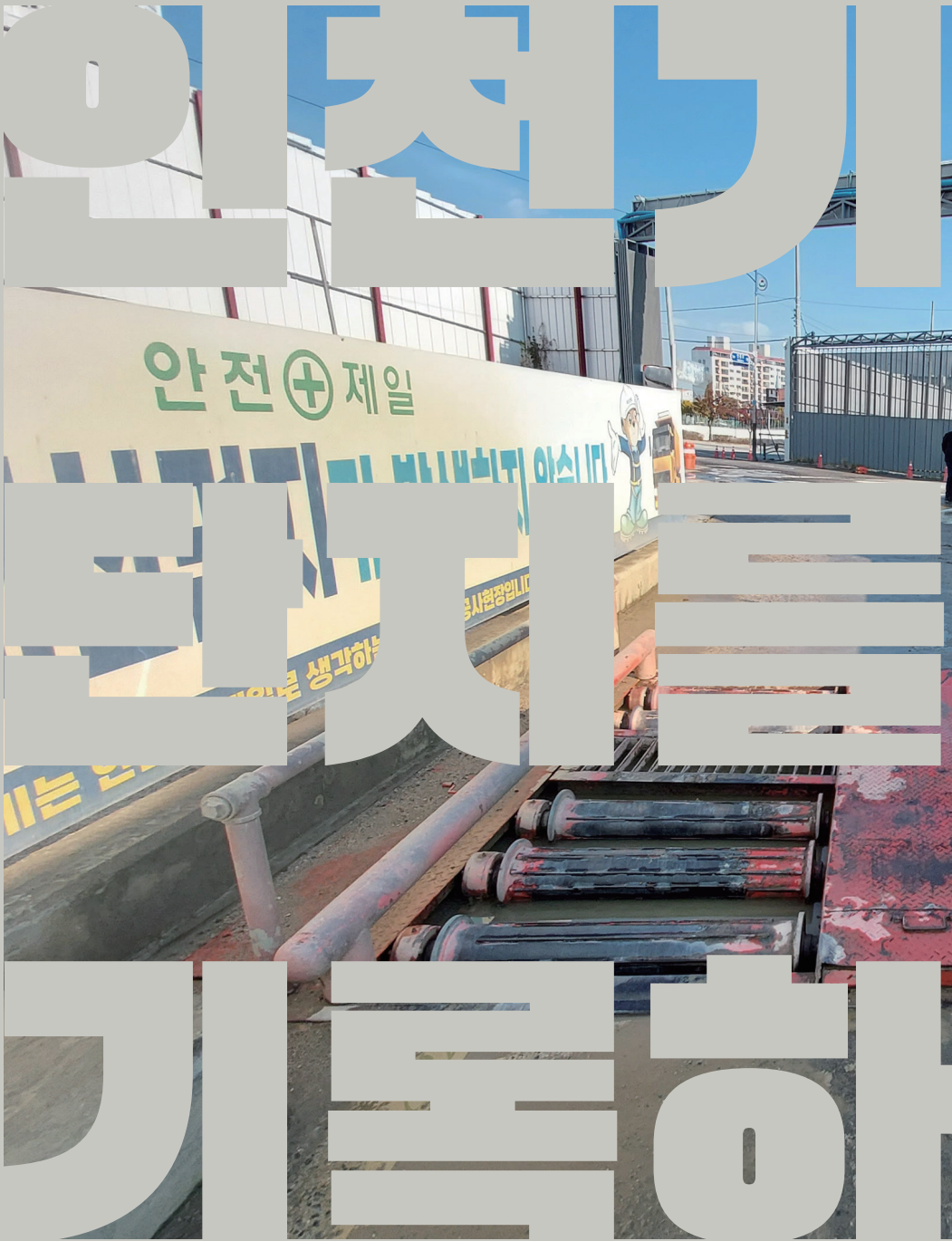
2022년 제44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강인덕 재선임

이 단기간

안전 ⊕ 제일

과 것 들

기 도 하



안전



1969년, 그리고 2023년

인천기계산업 단지의 사람들



기업(인)

[환경기계, 부품] '미래 건설은 환경이다'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대표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품질 베스트'업체로 우뚝 서다!'
우일정밀(주) 조항구 대표

[철강] '부국철강공업,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부국철강공업(주) 장영복 부사장

'부국철강공업과 함께 걸어온 길'
부국철강공업(주) 김문환 전무

'부국철강공업의 만능해결사'
부국철강공업(주) 강병욱 이사

[주조, 집진기 기계] '가업을 계승하며 세계로 나가다'
태진기연(주) 이재장 대표

[프레스 기계] '기계 분야 기반 시설인 프레스 산업은 영원하다!'
(주)국일정공 강인덕 대표

[금형 압출기계] '최초에서 최고로 세계를 누비다'
영일산업기계 박태석 대표

[부품] '꿈이 현실이 된 생생한 다큐 드라마'
(주)인정테크 안인수 대표

[제지기계] '제지기계 제조업체에서 선두 주자가 되다'
전)해안기계 고(故)김정일 전무

'기계 설계에서 기계 영업까지'
전)해안기계 이진우 과장



미래 건설은

대금지오웰은 건설 토목 현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이동식 자동 세륜기를 비롯한 오탁수 처리 장치와 정밀부품 가공기술을 활용한 건설 장비 부품 등을 생산하고, 환경과 안전을 우선하며 직원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환경이다





(주)대금지오웰 대표

이승우(1953년생)

이승우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 고(故) 이종필 회장의 뒤를 이어 2000년부터 대금지오웰을 이끌어가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9월 14일 10시

면담, 원고정리 : 이혜숙

면담지원 : 김용경, 박인옥, 양지원

신흥동에서 송림동, 그리고 기계산업단지로 이전하기까지

대금지오웰의 시작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회사 창업은 저희 부친께서 1957년도 2월에 신흥동, 지금 노포 맛집인 평양옥이 있는 인접 한 곳을 결방살이로 직원 1명을 데리고 ‘인천 정밀사’라는 상호로 가정용 미싱 부품을 제조하는 작은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평양옥 인근에서 시작한 후 제 기억으로 아주 어렸지만, 주소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신흥동 1가 9번지로 이전하고, 1967년 송림동 송림 초등학교 후문이 있는 쪽으로 확장 이전을 하셨다가, 1974년 11월에 지금의 인천기계산업단지로 이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장을 새로 신축을 하고 확장 이전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대금공업사’로 상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천 시내에 약 50개 정도 기계 제조 부품, 주철 공장이나 신철, 철강 공장이 여기 산업단지로 입주하게 된 거죠. 국가 주요 기간산업인 제철소, 제분공장, 철도공장, 봉제-섬유공장 등에 필요한 기계를 제작

설치 하는 업체, 기계의 본체 및 부품을 주조하는 주물공장과 부품가공 업체를 비롯하여 철근, 형강 및 철강선재 등을 생산하는 기계공업의 근간이 되는 업체들이 입주하였습니다.

원래 재봉기 부품으로 출발했습니다만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정용 재봉기는 퇴조하고, 봉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재봉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용 재봉기 부품에서 산업용 재봉기 부품 쪽으로 전환하고, 재봉기 외에 건설 장비나 산업 차량 쪽의 부품을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들어 제가 기계 설계가 전공인데 전공을 살려서 산업기계 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 지금 환경사업본부의 주력 제품인 세륜기를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금공업사 공장의 변화
(주)대금지오웰 제공

환경을 생각하는 사명 ‘대금지오웰’

사명 변경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이 세륜기입니다. 1991년에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았지요. 그러다 IMF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외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혹은 해외전시회 참가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설립자 이종필 사장과 이승우 현) 사장. (주)대금지오웰 제공

그때 당시에 건설 현장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중간에 ‘대금공업사’에서 ‘대금산업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했는데, 이 상호가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좀 글로벌화돼야 되겠다. 그러다 2007년 창업 50주년을 맞이해서 ‘대금지오웰’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지오웰은 지오그래피(geography), 웰빙(well-being) 이런 두 문자를 따서 ‘지오웰(GEOWELL)’로 했습니다.



(주)대금지오웰 현판

환경을 생각하는 세륵기 개발에 성공하다

세륵기 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세륵기는 1991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설비시설입니다.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의 흙먼지를 세척해 주는 자동화 장치이지요.

88서울올림픽 이후 전 국토가 개발 열기로 대단했던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선거 공약이었던 주택 건설 200만 호 건설이 시작되면서 시멘트 등 건설자재 공급을 위한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요. 그전에는 법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그냥 물구덩이를 통과하게끔 되다 보니까, 분당이나 일산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현장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드나드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 하필 또 한쪽에서는 입주가 막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대단했죠.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그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럽, 일본의 건설 현장 등을 벤치마킹하고 과거 사용하던 형식적인 콘크리트구조의 수조를 통과하는 방식을 버리고 기계식 세륵기의 사용을 법제화하였지요. 때마침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가 개발한 대금지세륵기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륜기 개발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소를 설립해 개발을 했고요. 과거에는 당연히 무겁고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설계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상당히 경량화되었습니다. 지금 형태나 외형적인 거는 거의 초기 개발 모델하고 유사합니다만 구조가 경량화하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제작이 되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물도 순환되어 재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륜기는 건설 현장 공사가 끝나면 철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치와 운전이 간편해야 해요.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장치여야 하구요. 좁은 현장에도 설치가 가능해야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운전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요.



(주)대금지오웰의 세륜기. (주)대금지오웰 제공

건설 환경 안전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만 저희는 그 범위를 좀 좁혀서 건설 토목 현장, 왜냐하면 기존 생활하수라든가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장에 고정된 대단위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현장에는 마땅하게 폐수나 오탁수를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는 설비들이 없죠. 그래서 세륜기처럼 그런 폐수 처리나 오탁수 처리 장치를 현장마다 옮겨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또 기술자가 없어도 쉽게 세륜기처럼 운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수나 오탁수 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 목표입니다.

임시로 개설되는 건설 토목 현장에서도 흙탕물을 정화시켜서 방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정화 장치를 간편하게 운반하여 설치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이 높은 장치도 개발하여 보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륜기가 사용될 때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 업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아닙니다. 또 계속 켜놓는 게 아니고 제조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한다든가 그런 요소도 별로 없는 업종입니다. 좀 더 자원이 덜 투입되고 고강도 경량화 또 에너지 절약형의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탄소 감축하는 데 일조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거하는 경우 트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먼지가 발생해 세륜기가 투입되고, 재건축 현장에도 투입되죠. 보통 5톤 트럭에 딱 탑재할 수 있게끔 모든 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세륜기가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있을까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화된 설비가 80년대 초반에 개



브릿지 600-세륜시스템
Bridge 600-Wheel Washing System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세륜세차설비. (주)대금지오엘 제공

발이 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일본이라든가 독일 등은 건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또 지역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처럼 도시 개발 현장이 저렇게 대규모로 또 단기간에 조성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 사용 환경이나 시장이 크게 다릅니다.

유럽 같은 데만 해도 현장이 소규모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고, 현장도 우리처럼 밀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 지역 또는 미국 그런 쪽보다도 국내가 더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해외시장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이며 이 장치의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 또한 미흡한 편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만 해도 똑똑 떨어져 있고 먼저 도로가 개설되고, 소규모로 택지가, 그것도 작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를 거의 안 쓰죠. 우리의 경우 약 70%가 산지

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도시 주변에 건설 토목 현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건설 기간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주거 시설과 건설 현장이 인접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해외시장은 대형 광산, 야적장, 제철소나 석탄 부두 등의 하역장소 등에서 사용하며 운반 차량 등도 초대형으로 세륜기의 구조 또한 이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외시장의 환경과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세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계부품 생산과 수(水)처리 장비 제작

또 다른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륜기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나 빗물의 유입으로 인한 흙탕물도 맑은 물로 정화시켜 방류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탁수 처리 설비 및 빗물로 인하여 도로나 건축물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장마가 길어지면서 강수량 또한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임시로 개설되는 건설 토목 현장에서도 흙탕물을 정화시켜서 방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정화 장치를 간편하게 운반하여 설치하고, 쉽게 운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며, 기능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장치도 개발하여 보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 부문과 더불어 우리 사업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건설기계용 슬라이딩 베어링을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장비의 관절에 해당하는 조인트 부분에 조립되어 장비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받쳐 주고 내구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으로서, 국내의 건설 장비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우리 제품의 높은 내구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안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품사업부에서 생산하는 부시(BUSH) (주)대금지오웰 제공

100여 개 협력업체와 유대 및 협업을 위한 경영

산단 안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일단 이 산단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대신에 주주 또 철강, 기계 프렌트 제조, 부품 이런 다양한 기계 관련 분야의 업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 기업 간의 유대, 입주 기업 간의 유대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습니다. 주변 기업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인천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써 저희 부친 경영 철학하고도 상통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한 100여 개 정도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협력사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20년 이상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상당수는 저희 회사 생산 현장에서 성장해서 퇴직을 하시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하셨을 때 회사가 생산하는 아이템 그래서 저희가 수주가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부품 수주든 자체 소요된 부품이든 이런 부품들이 늘어나면, 저희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제조 현장에 투입하고 또 과거에 하던 그런 아이템들은 그분들이 창업을 하면 그 아이템을 그분들한테 위탁 생산을 하든가 또는 임가공을 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창업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 도와드리고, 우리 회사를 나가 창업해 사업가로 성장하신 선배님들도 20여 개 업체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와 꾸준히 협력 기업으로 거래해 경쟁사가 아닌 동반 상생하는 동행의 전통을 갖게 되었어요. 뿌듯합니다.

세륵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니까 저희가 5개 지방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 회사에 근무

하다가 또 조직 운영상 회사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는 사원이 있지만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은 직위와 기회가 부여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래 회사에 공로가 있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대리점을 통한 창업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쇠퇴와 열악한 환경

1970년대 기계산단 조성 초기에 입주하셨던 50여 개 기업 중에 여기 현재 남아 있는 기업들이 불과 아마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될 겁니다. 타 지역으로 확장 이전을 했거나 경영난으로 파산하거나 해서 초기 입주 기업은 5개 업체 정도만 남아 있지요.

또 지금 현재로는 아마 남동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대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공장 규모를 축소하면서 작게 분할 매각하여 소규모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원 소유 기업이 한 100개 정도고 거기에 임대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100개 정도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인천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이 공장 부진이 심각하잖아요. 외곽으로 이전을 하든지 여기 기존 산업단지 부지는 작게 분할해가지고 소규모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우리 산단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민간산업단지로 소규모 임차업체가 증가하며 관리업무량은 늘어나고, 회비 수입이 감소하면서 운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변 지역이 대단위 주거지역이 들어서 산단의 입지 여건이 위축되고 슬럼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공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예산이 배정



대금공업사 앞에 서있는 설립자 이종필 사장. (주)대금지오웰 제공

되고 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우리 산업단지를 지역의 제조업체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단지로 재생되기를 바랍니다.

설립자 이종필 회장에 대한 기억

선친이신 이종필 사장님과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 보아 온 아버지 고 이종필 사장님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을 질책하시거나 꾸짖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조용하시고요. 회사에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신 여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일요일 날 특근이나 밤늦게 잔업 하는 경우 야근도 잦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일요일이나 휴일날 나와서 직원들

이 특근을 하고 있으면 뒷집 지면서 현장을 한 바퀴 도시다가 슬쩍 직원을 불러서 돈 2~3만 원 손에 쥐어주며 ‘고생이 많구나’ 하고 가신데요. ‘그런 따뜻한 정이 많아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되었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건 몰랐거든요. 직원들 급여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늘 먼저 챙겨주셨죠. 항상 직원들 먼저, 저와 부친은 나중이었죠. 이런 부친의 따뜻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회사가 지금까지 생존하며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1987년 회사아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주)대금지오웰 제공

고용시장의 변화와 어려움

요즘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성장동력은 무엇보다도 인재 확보이지요. 그런데 취업인구는 감소하는 데다 학력은 높아지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요. 제조업이 성장하고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 제조 현장 취업 시에 지원하는 제도를 더 확충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젊은이들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부족, 기계산단의 구조 고도화 절실

산단 안에도 모임 같은 게 있을까요?

부친 때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따로 특별한 이 산단 내 모임은 없습니다. 대개 산단 이사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실제로 이 산단 내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조금 범위를 넓히면 산단 입주자 중에 '미추홀 경영자 협의회'나 아니면 '상공회의소' 이런저런 교육 모임 이런 데를 통해서 교류가 있고 이 산단만의 교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편이지요.

이번에 인천기계산단이 구조 고도화 지구로 지정이 돼서 270억 원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계산단이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요. 너무 열악합니다. 입주 기업도 임대업체 포함해서 200개 기업이면 작은 규모거든요. 순수하게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단지다 보니까 아

주 열악하죠. 건물도 낡고 그래서 이렇게 산단 안에 커뮤니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예산이 배정됐다고 그래도 막상 여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수렴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해야 되니까, 아마 조만간 논의가 있겠죠.

우선 여기 기계산업단지의 특징이 다른 공단하고 달리 기계산업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일부 규제를 다른 종목으로 풀긴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래되고 상당히 낡았잖아요. 건물도 그리고 또 이 산단 자체 하다못해 회의실이라든가 건물도 아주 노후되고 낡아서 지금 비가 줄줄 새고 그런 정도니까요. 입주 기업과 직원들이 산단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ESG 경영 전략

꾸준히 기부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기부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하시고 진짜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족 중에 또 직원 중에 사실 못 살고 어려우니 먼저 도와줘야 돼. 주변에 우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늘 생각은 있지만 주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요. 제 생각이 우선 내 가족 내 직원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변에 지역에서 좀 어려운 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거는 옛날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 기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기업의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즘에 ESG 경영¹⁾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실제로 해외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기업 간 거래 시 평가하는 요소 중에 기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든가 또 윤리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거래하는 조건에 그런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지만, 이제는 기업의 운영이 그냥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해 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면 당연히 구성원들에 대한 이윤 분배도 생각해 야 되지만 사회적인 기여도 생각해 야 되겠지요.

그래도 적자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이 적자가 나면 일단 경영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분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이윤이 나면 거기에 어떤 적정선에서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여하는 것도 생각해 야 되겠다고. 그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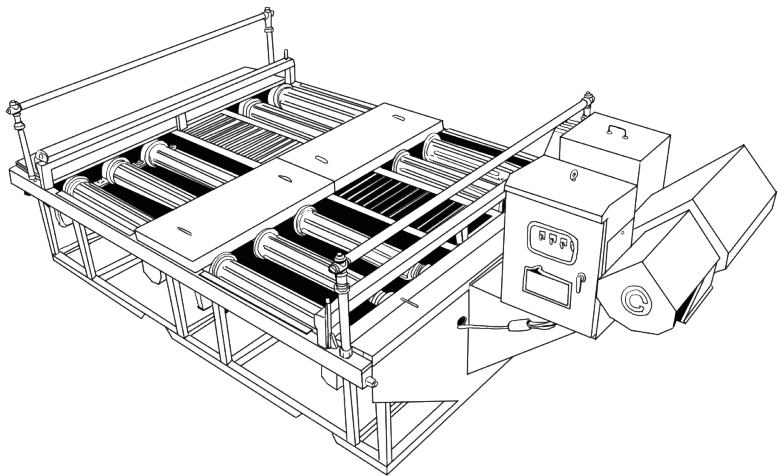
회사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미래의 비전은 저희 세류기보다 더 유명한 업체가 스위스의 프루티거 (FRUTIGER) 회사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1등! 일류 회사! 그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게 목표고요. 이 부품 사업도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는 1등을 하는 회사! 우리 회사 직원들은 사실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지방대 나오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자기 전문성

1) 이에스지(ESG) 경영,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을 갖고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하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은 ‘1등을 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좀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러면 우리 위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회사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고, 한 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전략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전략을 세우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토착 기업으로 기계산단을 지켜온 만큼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금지오웰

60여 년간 키워온 정밀기계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제일의 건설기계 부품 부사와 핀 제조업체로 자리를 잡아 온 대금지오웰. 1991년 국내 최초 이동식 자동 세륜기를 개발하여 세륜기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 : 1957년

대 표 : 이승우

종업원수 : 111명

업 종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주 생산품 : 자동주조설비, 산업기계, 중기부품 등

홈페이지 : <https://geowell.co.kr>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92번길 38



기업 연보

1957년 인천정밀사 설립(신흥동)

1974년 인천기계공업공단 확장 이전

1991년 대금산업 주식회사 법인 전환 /

이동식 자동세륜기 개발

1996년 대금산업 주식회사 본사 증축

2000년 현이승우 대표 취임

2001년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2002년 KT 신기술 인증마크(대금세륜기 CE인증획득)

2004년 환경 친화 경영대상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2007년 음성 공장 준공 / 주식회사 대금지오웰 상호 변경

2009년 이동식 축중기 출시 /

건설현장 전용 일체형 축중기 개발

2011년 기술혁신 대전 대통령 표창 수상

2014년 삼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15년 인천 본사 제2공장 증축

(PIN & BUSH 생산라인 확장)

2016년 사이클린(용수처리기) 개발

2017년 대금지오웰 창립 60주년 /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시장진출

2019년 분무식 집진기 개발 및 시장진출 /

오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글로벌 강소 기업 선정

2020년 제38회 상공대상 환경영영부문 수상 /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싸이클린 NEP 인증 획득

2021년 GX 세륜기 및 사이클린 CE 인증 획득

자동차 부품

업체로

1979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품질 향상 및 생산 관리 효율성을 추구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여러 차례 받아온 인천기계산단의 우일정밀공업 주식회사. 40년 넘게 자동차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였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도 발맞춰 부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일정밀공업 조항구 대표이사님을 만나다.



'품질 베스트'

우뚝 서다!





(주)우일정밀공업 대표
조항구(1954년생)

대우 그룹사에서 근무하다 1982년 12월 우일정밀공업(주)에 입사하여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9월 6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정지선

면담지원 : 표기자, 박인옥, 양지원

우일정밀공업의 시작

우일정밀공업은 언제 설립되었나요?

우일정밀공업은 1979년 인천기계공업 단지에 설립된 디젤용¹⁾ 엔진 부품 생산 회사로, 상당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피스톤핀²⁾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1982년도에 황병희 회장님께서 우일정밀공업(주)을 인수하여 오늘날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항상 안정적인 기업 경영으로 40년 동안 큰 무리 없이 기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IMF나 대우자동차 부도 사태에도 큰 타격 없이 기업 경영을 하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업적입니다.

우일정밀공업 사명(社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우의 ‘우’ 자하고, 대우에서 첫 번째로 세운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고 해서 ‘우일’ 정밀이 된 것입니다.

1) 1897년에 독일의 디젤이 발명한 내연기관으로 실린더 안에서 공기만을 고온으로 압축한 뒤 경유나 중유를 분사하여 자연 발화로 점화하고 폭발하게 하여 피스톤을 움직이는 기관이 장착된 자동차

2) 원통형 피스톤과 연접봉을 연결하는 금속제 핀. 둥글고 가운데가 비어 있다.

우일정밀공업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종류

주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은 어떤 것인가요?

현재 우리 회사는 내연기관³⁾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GM⁴⁾과 현대인프라코어⁵⁾의 1차 협력업체로서 인천기계공업 단지에 1공장, 2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Water Pump⁶⁾, Oil Pump⁷⁾, 트랜스미션 부품⁸⁾ 등을 생산합니다.



우일정밀공업의 주요 생산품

- 3) 연료를 내부의 실린더 혹은 연소실 등에서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기관
- 4) 미국 GM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 2008년 도요타에 1위를 내줄 때까지 자동차 산업 역사의 대부분 기간인 77년 동안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 5) 대한민국의 중대형 건설기계 제조업체로 HD 현대의 계열사
- 6) 라디에이터(radiator) 뒤에 장착되어 냉각수를 펌프로 강제 순환시켜 엔진을 냉각시켜 주는 부품
- 7) 엔진 하부에 위치하며, 오일 탱크에 부착되어 엔진 각 부의 윤활부에 펌프로 윤활유를 강제 공급시키는 부품
- 8) 변속장치(transmission)의 후진기어(reverse gear)를 지지하는 축으로 후진기어 변속 시 동력전달을 하는 부품

주로 어느 나라로 생산품이 수출되나요?

국내 기업과 해외 GM 등 완성차 업체에 직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프링 힐이라든가 디트로이트,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브라질에 있는 자동차 공장과 거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부품은 멕시코로 많이 수출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낸 부품으로 소형 엔진을 조립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다시 들어온 엔진이 현재 GM에서 나오는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군산에 공장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2000년도에 GM 자동차 회사에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유일정밀은 GM KOREA에서 Out Sourcing⁹⁾ 정책에 호응하여 매출 신장에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견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 군산 산업단지에 제3공장을 설립하여 또 한 번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군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011년 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 (주)우일Autotech¹⁰⁾은 공장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 엔진용 부품인 Bearing Cap¹¹⁾, Exhaust Manifold¹²⁾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부품 전량이 북미, 우즈베키스탄 등에 수출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9) 외주(外主)의 의미로, 기업이나 조직에서 생산, 유통, 용역 등 업무의 일부 과정을 경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외부의 제삼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

10) 2005년도에 전라북도 군산에 설립된 유일정밀공업 군산공장, 2011년도에 (주)우일오토텍으로 사명을 변경, 제품 생산 라인 전체 자동화 시스템 구축

11) 엔진 블록에 크랭크축(crank shaft)을 고정할 수 있게 하고 회전운동을 돕는 부품

12) 실린더 헤드의 배기 밸브들과 연결되어 한가지 통로로 연결하여 배기가스를 배기구(muffler)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



(주)우일Autotech 군산공장 전경

정밀도가 생명인 자동차 부품의 품질 향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회사 연혁을 보면 품질 관리 인증에 관한 내용이 다수 있던데, 자동차 부품 생산에서 품질 관리 인증을 받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품질 관리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원가 절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는 'ISO 9002 품질 시스템¹³⁾'부터 시작해서 'ISO 14001¹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SGS)¹⁵⁾, 그리고 'IATF16946 인증(SGS)¹⁶⁾'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13) 조적이 고객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설계된 표준

14) 조적의 운영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환경 관리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표준

우리는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것은 생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라그게 성공하게 되면 또 원가절감이 될 것입니다.

사실 품질 인증을 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



군산공장 내부의
자동화 시스템 모습

15)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이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ATF 16949는 지속적인 개선, 결합 방식 및 공급망의 변동 및 폐기물 감소를 다루는 고객별 요구 사항에 초점

16) 제조업체의 공장 관리를 위한 개념이자 구현 도구로 주문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의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들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의 활동을 관리, 착수, 응답, 보고하는 생산실행관리시스템



우일정밀과 우일오토텍이 받은 품질 관리 인증서

이라면 힘들어도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들을 묵묵히 지나오니 GM 본사에서 품질 베스트 업체 상을 줬습니다. 이 상은 국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GM Supplier of the Year(SOY) 2014



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2020

우일정밀공업만의 win win 채용 방식 & 복지 정책

우일정밀공업만의 채용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우리 회사는 현장 기능사원 채용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40세 이상 52세 미만자를 채용하여 고용 안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타 업체에서는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상황이었지만 40~50세쯤이면 가정에서 교육비 등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여서 채용 후에도 회사의 근무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직률이 낮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노사간 win win 채용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하반기 채용공고

고급 기능의 기술 인력은 어떻게 채용하시는지요?

중소기업에서는 고급 기능을 지닌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사는 대기업 명예 퇴직자 중 당사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이 사항은 당사에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채용 의사를 밝혀 입사자에게 인기가 높아 지원자가 많은 편입니다. 전문 기술 영입자와 기존

직원들의 장기 근무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생산품 질적 향상을 이루어, GM 자동차 등 모기업에서 다년간 품질 우수 업체로 수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일정밀 기술연구소

직원 채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는지요?

현재 젊은 세대들의 기능직 취업 기피 현상이 각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어 당사는 2023년부터 정년 나이를 만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62세면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라고 아쉬움을 토로 하는 모습을 보고 타 기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시한 제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고용 안정과 경험에서 축적되는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정년 연장 당사자에게는 가정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장 정책은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보다도 먼저 시행하였으며, 만 62세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65세까지는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하여 이 또한 win win 채용 방

식으로 노사 간 모두 좋은 채용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우일정밀만의 복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사의 채용 원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의 나이가 높다 보니까 노동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본 건강검진 외에 혈액 검사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비용은 회사에서 냅니다. 만약 검사 결과 당뇨라든가 성인병이든지 뭔가 병명이 나오면 이동 배치도 해주고, 근무 시간도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발 빠른 추진력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대비하다

회사 운영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GM에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2000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 들어온 GM은 부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 공장에는 86년도 르망 엔진부터 만들었던 기계 설비 장비들이라 대부분 20년도 더 된 장비들이었습니다. 아웃소싱 방식을 택한 GM은 그 장비들을 타 업체에 넘기려고 했고, 그때 그 장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품을 하나 만들려면 장비를 사고,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하다 보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익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GM에서 처분하는 장비들을 가져와서 우리 공장에 설치하면 일주일이면 바로 생산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부

평공장에서 설비를 한 100대 이상 갖고 왔는데 바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를 우리가 직접 실어와야 했었는데, 저는 “하다못해 쓰레받기까지도 다 주워 와라. 갖고 와서 필요 없는 건 고철로 팔게!”라고 말하면서 다 가져왔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발 빠른 추진력이 가져다준 매출액은 얼마였나요?

한국 GM 입장에선 우리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개발되는 레간자나 신형 엔진 부품 제작을 우리에게 더 잘 주고. 그럼 또 돈 들어서 설비해서 생산해 내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10년 동안에 매출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났을 때 100억 조금 넘었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930억까지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지요?

우일정밀공업(주), (주)우일Autotech는 40년 이상을 내연기관 부품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향후 GM 자동차에서 수주하여 북미로 수출하게 될 Exhaust Manifold(배기가스 부품), Engine Block에 장착되는 Bearing Cap은 2026년 하반기 양산 시점에 맞춰서 전 직원이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 개발 완료 후 양산하여 수출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



Exhaust Manifold



Bearing Cap

로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발맞추어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0년 기업의 꿈에 도전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여 당사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와 군산시의 고용 극대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기계산단이 기계 전문 산업단지로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인천기계산단이 타 국가 산업단지보다 관리가 잘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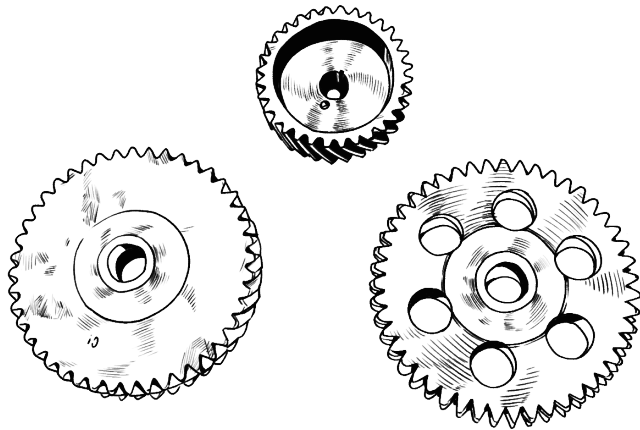
제가 82년도에 여기 왔을 때 당시 부지가 컸던 부국하고 유일만 그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장부지를 세분화해서 임대로 주다 보니 현재 190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세를 보면 땅값이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지방 공단보다 가격이 높아 지방 공단으로 내려가는 회사들이 많고, 그 자리를 분양업자들이 들어와서 소규모로 잘라서 분양해 버리니 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조각 분양을 막는 인천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인천기계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천시에서 미래의 발전성 있는 반도체 회사와 협업을 맺게 해서 여기

다가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그 부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겠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려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과 여기를 매칭시켜서 들어와서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그럼 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에 포스코 같은 곳이란 조인을 해줘서 아이템을 개발해 내고 부족한 자금도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일정밀공업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기업으로 출발해 자동차 및 산업 엔진용 오일펌프, 워터 펌프, 트랜스미션, 새시 부품을 양산해온 우일정밀공업은 “최고의 품질로 최대의 고객 만족”이라는 회사 슬로건을 내세우며, 앞선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이다.

설립연도 : 1979년

대 표 : 황병희, 조항구 외

종업원수 : 70명

업 종 : 자동차 엔진 및 기타 부품 제조업

주 생산품 : 자동차부품(엔진, 미션, 바디)

홈페이지 : <http://www.woo-il.com>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89번길 5



기업 연보

1979년 회사 창립(인천)

1980년 KS 마크 인증(IAA)

1995년 제2공장 설립(인천)

1997년 ISO 9002 품질 시스템 인증
100PPM 품질 인증(중소기업청)

2005년 군산 공장 설립

2008년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SGS)
기술연구소 설립(KOTIA)

2011년 군산공장 (주)우일오토텍으로 분사

2011년 최우수 협력 업체상 수상(두산인프라코어)

2013년 QSB 재인증 _ 벤치마킹 협력업체로 지정
KG모빌리티 1차 업체 등록

2014년 GM Global Supplier of the Year Award (SOY) 수상

2018년 IATF16946 인증(SGS)

2008년~2024년 GM Global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부국철강공업,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운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건설현장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덩달아 철근 제조도 생산을 멈춰야 했기에 직원들 월급이나 유지비용 면에서 애로사항이 컸어요. 제조 시설을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해외로 방향을 틀고 미국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에 소형 형강 품목으로 많은 양을 수출했어요. 수출 탑이 100만 불, 500만 불,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1000만 불 직전인 99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주)부국철강공업 부사장

장영복(1948년생)

장범진 창업주의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나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큰형님 장영상 사장님의 러브콜에 1982년부터 부국철강공업 인천공장을 맡아 관리하였다. 회사의 흥망성쇠와 궤도를 같이하며 아쉬움도 크지만 부국철강이 새로운 업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11월 8일 14시, 12월 7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허은영

면담지원 : 양지원

부국철강 경영 일선에 참여하다

장영복입니다. 1948년 인천 경동 17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께 서 슬하에 4남 2녀를 두셨는데 그중, 저는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 형제는 모두 송림학교를 졸업했고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큰형님만 제물포고등학교가 없었을 때니 인천고등학교 졸업하셨습니다. 또, 4형제가 다 연세대학교 졸업입니다.

큰형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가업승계의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아버님과 일선에서 같이 있으셨고 저는 82년 정도에 인천공장으로 오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다 첫 입사는 연합철강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2년 근무하며 현장경험을 쌓고 대우실업서 2년 근무했죠. 그 당시에는 부국철강 공업이 규모도 커지고 생산이 활발했으니, 큰형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82년도에 인천공장에 내려와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천공장에서 생

산라인, 현장 살림을 총괄했고, 큰형님이신 장영상 사장님께서 수입·수출에 전념하셨고, 둘째 형님인 장영훈 사장님은 미국 지사장으로 나가셨다가 서울 쪽 영업파트를 맡아 관리하셨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인 반면 큰형님은 상대를 졸업하셨고 경영이 적성에 맞는 성격이시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인천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조업 분야 사장답게 술도 잘 드시고, 사교성도 많으셨어요. 저는 강단에 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격이 외향적이지는 않았지만 형님과 서로 보완하며 호흡이 잘 맞았죠.

창업주이신 아버님에 대한 기억

아버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친께서는 1911년생, 돼지띠이신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야말로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포목상 직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인천에서도 큰 포목상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덕분에 독립하게 되셨어요. 포목상을 운영하시다 ‘이연고무’ 경영자에게 인정을 받아 ‘이연고무¹⁾ 제2공장’을 설립하셨고, 그 당시들 대중적으로 신었던 검정 고무신을 주로 생산해서 회사 규모를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 때도 이북까지 넘어가 대량으로 팔고 올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연고무 제2공장’으로 분할받으신 후 ‘인천고무공업사’를 설립하셔서

1) 조선이연고무공업회사: 이연콘체른으로 알려진 신흥재벌로서 재생고무의 생산을 독점하였다.

지금 동인천 경찰서 자리, 송림동에서 생산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 일이어서 선친께서 ‘철강’으로 방향을 돌리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 ‘인천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셨는데 그 당시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고 또, ‘수출 보국(輸出保國)’을 외쳤던 제3공화국 시절 충북 음성에 수출용 양송이 공장을 차렸어요. 그 당시는 대만이 기술로 가장 앞선 나라였어서 대만에서 직접 기술 도입해 생산시설을 갖췄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회사 설립 커팅식할 때 참석했을 정도로 시작은 잘 됐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중에 중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업적 중 하나는 인천 경동에 인천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하신 겁니다. 그 당시 경동이 서울 명동처럼 인천의 중심지였어요. ‘항도백화점²⁾’이라고 우리 집이 173번지였는데 집 바로 옆, 172번지, 포목점을 운영하시던 자리에 건물을 올리셨어요. 그 당시 인천에서는 아마 그런 건물이 없었을 거예요. 최신식의 3층짜리 건물을 올리셨는데 그 일대가 일제시대에 지은 상업은행 정도 건물만 있었고 주변이 다 판잣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명물이었죠. 1950년대 이런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백화점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대를 앞서가신 듯합니다. 물론 ‘인천에서 백화점 사업이 전망이 있을까?’ 그런 검토는 부족하셨는지 한 1~2년 운영하시다 백화점이 흥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양복점으로 또 당구장으로도 바뀌었는데 제가 판단해도 인천이 서울 위성도시라,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쇼핑을 위해 서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으로 가죠. 1970년, 80년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2) 1954년 인천 경동에 건립된 인천 최초의 백화점



항도백화점 개업 홍보 신문광고

그 후 경동 사거리에 2층 건물로 ‘뉴욕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또 설립 하셨는데 거기도 성장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1970년대 골프연습장도 인천 최초로 도입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다 기계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여직원이 골프공을 하나씩 놔주면 치고 그럴 때였어요.

양송이 수출도, 백화점도 난항을 겪으셨고 철강회사도 한동안 어려웠었죠. 그러던 차에 이 기계산단에 입주하셔서 ‘부국철강공업’을 설립했죠.





‘함도백화점’의 설립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기업인으로서 아버님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긴 했어도 집에서는 회사 일을 잘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밖에서는 배포가 크셨지만 저희가 하는 요구에는 항상 “해줄게, 해줄게.” 하시며. 물론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셨지만. 또 주변에 사람이 많으셨어요. 경동 집이 당시 꽤 평수가 넓은 집이었지만 아버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못 보셔서 친인척들을 포함해 우리 집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

당시 어머니가 한 끼 식사를 20명분 이상 준비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누가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셨고, 지방에서 지인들이 올라오면 방 하나씩 잡고 기거하는 경우도 많았죠. 한 옥이였기 때문에 방이 많았는데 한 방에 한 집씩 묶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여자들만 있는 방도 있고 그랬었죠. 그렇게 인맥 관리를 잘하셨어요. ‘인천고무공업사’ 하실 때 도움받은 분이 있어요. 그 자제가 제물포 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 갔나 그랬는데 그분 학자금을 아버님께서 다 대주

셨죠. 그분은 금융회사 간부인가 대표이사도 하셨을 정도로 잘 되셨고요. 그 당시에 우리도 자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사업가로 서나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죠.

‘부국철강공업’으로 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시고서는 일선에 나서지 않으셨어요. 80년대 들어서는 장남인 장영상 사장님이 경영권을 승계하셨죠. 당시에 집이 서울 서교동이었는데 큰형님 결혼하고 분가하셨을 때도 저는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는 회사 차가 자동차 한 대인데, 제가 타고 먼저 출근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점심 드시고 전철로 인천에 내려오셔서 친구들과 만나고 하시다가 퇴근할 때 회사 오셔서 같이 서울로 올라가고, 그렇게 10년을 모시고 동행했어요. 항상 검소하셨고 사치는 별로 안 하셨죠. 보통 경영을 아들한테 맡기면 참견도 하시고 하실 텐데 아버님은 회사일 파악은 다 하고 계셔도 일절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기계 산단 일대에 대한 기억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 이 일대를 떠올려 보면 인천교도 없었거든요. 인천중학교 시절 별칭이 ‘개건너 대통령’이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며) 인천교 넘어서 가좌동 쪽을 ‘개건너’라고 불렀어요. 심재갑³⁾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농민학교’ 같은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3) 인천중학교 출신의 교육자, 서구 가좌동에서 가재울야학당을 열고 ‘가좌농민학원’을 창립해 농민운동, 교육 계몽 운동을 펼쳐 ‘살아 있는 상록수’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학교 때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선생님 산에 가서 송충이 잡고,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웃음), 그 당시에는 기꺼이들 가서 송충이도 잡고 그랬는데 그럴 때나 여기 염전 터에 왔던 거 같아요. 개건너 좁은 바다, 갯골 간척지 같은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건너’로 넘어갈 때 조그만 뗏목 같은 배를 타고 건너곤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기계제작소’ 장만순 씨 주도로 이 공단이 조성되었을 거예요. 일대에 기계공단을 조성하면서 기계, 철강과 관련된 업종을 모아서 입주하게 된 거죠. 초창기에는 주물, 철강 같은 제조업체가 꽤 많았어요.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되고 그 옆에 이 염전을 매립해 인천 시내에서 제조업하는 기업을 입주시킨 거죠. 그 당시 지방공단으로 인천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수도권에 국가산단으로 구로가 제일 먼저 조성됐고 그때 부평산단이 있었고, 주안 5·6 공단이 생기고. 그 당시 우리도 송림동에서 이주했고 배다리 쪽에서 사업하던 사람들도 이리로 많이 왔고, 제침(制針) 공장 등 인천에서 유명했던 제조공장들이 다 여기로 건너왔죠.

부국철강공업의 성장과 도약

큰형이신 장영상 사장님은 군대 전역하고 오셔서 전무로 근무하시다가 80년대에 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84년도에서 86년 사이 회사 성장이 최고에 다다를 때였고, 제가 막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82년도는 회사가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인 영창철강을 인수해 덩치도 키우고 근영철강이라는 자회사로 다시 설립해 제가 임원을 맡

아 운영했죠.

그 당시 철강 대기업이 많았지만, 미국 수출은 저희가 먼저 시작했었을 거예요. 동국제강, 인천제철 같은 규모가 큰 업체들도 우리만큼 수출을 하진 못했어요. 그 업체들은 대형 제품들을 생산했지만 우리는 소형 품목을 생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희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부국철강이 중소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많으니 그 당시 무역협회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인 줄 알았었죠. ‘부국철강’이라는 이름도 한뫼하지 않았나 생각하죠.(웃음)



부국철강 임직원 조회, 좌측이 장영상 사장님

소형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추석이 지나면 건설 현장을 가동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건설공사를 멈추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철근 제조 시설도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압연 제

조기업들은 철근과 공업용재 생산이 대부분이었으니 겨울에 생산라인 가동을 멈췄다가 봄 되면 가동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버텨야 하는데 직원들 월급이나 유지 비용은 그대로 나가야 하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컸죠. 겨울 한 철 생산량이 없으니 부국철강도 기계산단 입주한 후 한 3~4년간 회사 사정이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이 살길이다.” 해외로 판로를 넓히면 제조 시설을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할 테니 다른 공장들이 다 어려워할 때, 우리는 앞서서 방향을 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인연이 되려니 주변 지인들의 조언으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됐죠. 그 당시 벨기에에 경쟁 회사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일단 우리 한국이 유리했어서 미국 시장 소형 형강 쪽은 저희가 다 잡고 그래서 꽤 많은 양을 수출했어요. 수출탑이 100만 불, 500만 불,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1,000만 불 직전인 990만 불을 수출해서 천만 불 수출탑은 수상을 못 했어요.



수출을 앞두고 있는 형강제품들

그런데 그 이후 수출량이 직하했죠. 저희 생산품이 수출용과 내수용이
규격이 달랐는데 IMF 당시 내수용에 맞춰 변신을 못 하는 바람에 회사
가 굉장히 위축됐고 타격이 컸죠.

우리 아버님께서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먹고살아야지 다른 데 한눈팔
지 말자.”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생산라인에 계속 투자하고 은행 저축
만 힘쓰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력 수출품이 가발 아니면 섬유였는
데 철강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니 수출·입 은행에서 수출 장려한다는 명
목으로 자금도 많이 빌려주고 그랬어요.

부국철강은 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지 않고 모두 수입을 했어요. 왜냐
하면 인천제철, 동국제강 같은 데서 재료를 생산해 팔았는데, 우리가 소
형 압연 공장이기는 하지만 경쟁업체니까 재료를 안 주는 바람에 전량
수입해서 제조공정에 투입했죠. 처음에는 미국에서 고철을, 압연제라
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100%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로 결제를 해야 했고 수출·입 은행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더 저
렴한 이자로 유산스(usance)⁴⁾를 더 연장해 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정
부 지원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입하는 은행에서 그냥 보증서를 발
급해 주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내 담보가 얼마 있는가를 따지지만 수출
에서 그런 건 예외 규정으로 두었던 거죠. 당시 우리가 3개월이면 회전
이 됐는데 그냥 환어음 기간을 6개월, 1년 늘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단자회사⁵⁾가 있었어요. 지금의 저축은행보다 규모가
조금 큰 정도였는데 이율이 꽤나 높았어요. 유산스를 연장해 주니 미국
에서 수입할 때 은행에서 한 2~3% 저리로 대출받아 바로 상환하지 않

4) 환어음 지급 기간, 또는 기한부 신용장

고 단자회사에다 넣으면 이자가 훨씬 높았어요. 오히려 대출 이자보다 예금 이자가 더 높았던.

그 당시 수출 쪽에서 그런 페이버(favour, 인정)를 받았고, 그렇게 단자 회사에 넣어서 예금이 몇십억, 외형이 많이 성장했었는데 환어음은 쌓여 있는 상태로 IMF가 찾아왔으니 환율 1천 원짜리가 2천 원 되는 바람에 한 50억 피해를 봤어요. 신용장⁶⁾ 갖고 수입을 하는데 수출하고 납품하고 나면 그 '신용장을 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바로 끄지 않고 그걸 길게 봐주니 원래 (재료를) 사서, 물건 만들어서, 납품해서, 대금 받고 갚는 데까지 3개월 회전이면 3개월 신용장인데 정부에서 봐주는 게 있으니 6개월 이상, 은행에서는 “그냥 그 쓰고 있어라.” 그러니 상환하지 않고 갖고 있던 대출금이 몇백만 불까지 불어났어요. 그 금액을 IMF 때 몇 배로 갚아야 되니 타격이 아주 크게 왔죠.

부국철강이 수출을 시작할 때 외환은행과 거래를 했었는데 경기은행이 설립되면서 경기은행 전무님과 큰형님, 장영상 사장님이 인천고등학교 선후배였던 거예요. 그 당시 경기은행에 국제영업부가 있었는데 국제영업부에서는 우리가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이렇게 수출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으니 큰 고객이었죠. 국제영업부 차장일 때부터 우리하고 쪽 거래했던 분이 경기은행장이 되셨으니 부국철강을 흔하게 아시잖아요. 서로 전화 통화하고 뵈러 왔다고 하면 행장실로 바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경기은행 국제영업부와 전적으로 거래하면서 경기은행의 도움도 받았지만, 은행이 합병되는 바람에 부국철강도 피

5)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의 대차(貸借) 또는 중개를 하는 금융투자금융회사를 말한다. 단자 회사는 1972년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6)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해를 많이 봤습니다. 부실 은행으로 낙인찍히니 거래처는 신용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미은행이 인수합병을 했는데 한미은행은 점령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합병 접수하고, 본부장 와서 “경기은행 거래하는 기업들은 다 그냥 사기꾼들 아니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 이미지 갖고 가다 보니 하루아침에 신용이 없어진 거죠. 경기은행하고 거래하는 회사는 다 신용이 없는 기업으로 대우받았으니 다시 신뢰를 다지고 기업이미지 회복하는 데 고초를 겪었습니다.

수출 주력 기업이다 보니 경기 은행을 인수한 은행에서 다시 신용장을 내줘야 되는데 재보증을 못 해주겠다 하여 지연, 학연, 인맥 다 이용해 서울 소재 은행에 줄을 대서 몇 달 만에 다시 정상화됐지만 이미지 개선이 힘들었어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20년 가까이 경기은행이 성장하는데, 행장을 비롯해 은행 관계자들 다 부국철강 덕 봤다고 할 정도로 기여를 했지만 “그 회사 자본 몇십억이 깨졌다.”고 소문나면 바로 기업의 운명이 바뀌니 신용 회복에 힘들었죠. “회사 잘 못 되면 안 된다.” 다시 사정사정하고 했지만, 막상 미국 수출이 끊어지면서 그로부터 외형이 줄었어요. 한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면 지원을 많이 하지만 수출이 없어지니 혜택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기업 망하겠네, 잘못하다가 망하겠는데.” 그렇게 회자되면 은행에서 거래를 꺼려하니 여러 은행을 전전했죠. 그리고 2008년 리먼사태⁷⁾ 때 또 한 번 위기가 왔죠.

장영상 사장님께서 89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형님은 사업가셨지만 저는 관리형 경영인이다 보니 회사를 이어받아 끌고 가야 되는데 제조업 경영에 테크닉도 없었고 좀 벅찼습니다. 일을 벌이기보다는 수

7)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칭함

성(守成)에 집중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성격인 데다가 선 친께서 물려주신 회사인데 ‘야 이거 지켜야지.’ 하는 체면이라는 것도 꽤 부담이 됐어요.

예전부터 kg 단위, g 단위 거래 중, g 단위로 거래하는 사업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금 거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웃음). 제조업 분야도 반도체는 비행기로도 수출하지만, 철강은 배로 한참 실어봐야 단가가 낮아요. 한편 생각해 보면 철강은 무던한 업종이죠. 50년 전 철근 지금도 쓸 정도로 변화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철강보다는 스테인리스 가격이 한 5배 높고 우리 설비가 요행히 스테인리스 생산이 가능하니 후처리 설비만 추가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 스테인리스 생산에 몰두했어요.

또 우리 기술자들이 스테인리스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공장을 가동하던 차에 미국에서 앤티덤핑(anti-dumping)⁸⁾을 맞았어요. 일본의 ‘아이치제강’이라고 스테인리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와 합작해서 부국철강이 생산한 제품라인은 일본기업이 캐파(CAPA)⁹⁾를 더 안 늘리고, 우리 제품으로 미국 수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동시에 미국의 앤티덤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좀 놓쳤어요. 그런데다 국내 시장은 스테인리스 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시장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더 두드렸어야 했는데 한국종합상사가 인도의 철강회사에 기술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으로 미국 수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역으로 인도회사가 급격히 커졌죠. 우리

8) 반덤핑 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9) capacity: 설비가동률, 생산능력



부국철강공업 생산현장

도 그제서야 제품 만들어서 경쟁하러다 보니 인건비에서 일단 밀리는거죠.

2000년도 인도는 인건비가 1불(\$ 1,000원이었어요. 우리가 10배나 비쌌던 거죠. ‘대개 외국하고 경쟁하면 자국이 유리한 면이 물류비예요. 그런 물류 싸움에서 보통 내수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이 스테인리스는 워낙 단가가 높아 물류비 차이가 인도에서 오나 가까운 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한국이 수출 위주 국가이다 보니 수입용보다 수출용 컨테이너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인도로 수출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1,000불인데 인도에서 오는 비용은 1~200불밖에 안 드는 거죠. 갔다가 오는 건 거의 비용을 안 받은 셈이죠. 계산해 보면 우리 제품 만들어서 부산에 가는 트럭킹차지



부국철강공업의 생상품, 찬넬

(trucking charge)¹⁰⁾가 인도에서 오는 운송비용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50만 원, 인도에서 오는 건 30만 원이에요. 그 당시 인도는 우리나라 70년대처럼 수출기업에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이 많이 됐죠. 경쟁이 안 됐습니다.

내수용 스테인리스는 주로 조선소에 납품했어요. 스테인리스의 특성이 녹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 유지, 정비, 보존) 비용이 저렴하니 단가가 비싸도 스테인리스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소에다가 “중국제품 쓰면 녹납니다. 중국제는 짝통이에요.” 해도 지금 당장은 녹이 안 나니 “어차피 팔고 나서 배 떠난다.” 그 마인드예요. 이렇게 중국제품에 밀려 국내 시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회사는 더 어려워졌죠.

10) 내륙운송비용

철강 사업의 쇠퇴와 기계산단의 위기

최근에 '중대재해 특별법'이 생겼어요. 우리 업종이 항상 위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산설비를 자동화하려면 몇천억 자본이 들어야 해요.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안전사고 발생하면 대표가 처벌받는다'고 하니 감방 들어가는 걸 감수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싶지는 않다.'



눈오는 날의 부국철강공업(주) 전경

또 외국 근로자들 7~8명을 고용했었는데 코로나 때 본국으로 가버리고 인력난에 힘들었어요. 결국 생산라인을 멈췄어요.

현재 부국철강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강업을 정리하고 물류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제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물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지방 공단법’에 물류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니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산단에는 물류업체가 있어요. 거기는 예외로 검토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 가능해요. 저는 인천 사람이라 인천의 이익을 위해 방향을 잡았었는데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구조고도화를 통하면 물류업을 할 수 있다기에 시청에 허가를 요청했더니 가만히 (팔짱을 끼시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트랙을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 지방공단은 시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허가가 안 났죠.

두 번째 트랙은 국가산단에 의뢰해 구조고도화를 밟는 방법인데 규모가 전국적이나 1년에 4번 구조고도화를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응모를 했죠. 구조고도화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면 일정 정도 공단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의 이익을 벌어들이면 20억을 기부금으로 책정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20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공단이나 시에서 주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플랜까지 제출하라는 거죠.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 보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갖고 오라기에 아무튼 맨 파워가 없으니 컨설팅을 맡겼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불합격 통보 받았어요.

시청의 구조고도화 팀이 꾸러진 지 10여 년 지난 조직인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팀’과 ‘지방공단 구조고도화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고도화를 처음 신청한 거예요. ‘지방공단 구조고도화팀’은 10년간 아무 일도 안 한 셈이죠. 회사라면 당연히 사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원이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네 이름이 구조고도화팀인데 왜 구조고도화 하겠다고 왔는데 안 해주느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기계공단이 나아갈 방향

시장이 주제로 하는 경제토론회가 있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참석하라.”기에 갔어요. 저한테 발언권을 제일 먼저 주기에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면서 화물차 출입 금지다. 공단을 만들어 놓고 공단에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하면 공단 죽이는 거지 뭐냐. 대책을 세워라.” 건의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상의해서 연락을 한다고 하더니 한 달인가 지나서 ‘불가!’라고.

일반화 도로는 대찬성입니다. 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이 됐으니. 그런데 “기계산단이 산업 용도가 폐지돼서 산업도로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도 아닌데 인천항까지 어떻게 가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인천항은 저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 불렀겠죠. 그 주민들은 화물차 안 다녀도 자기 생계에 뭐가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천대로 화물차 통행금지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공청회에 초대해서 설득을 했어야죠. 공무원은 “공청회 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공청회 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외국에서는 보통 2차선만 필요한 도로도 교통량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4차선 정도로 만들어 놓죠. 그런데 교통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멀쩡한 도로를 없애고 중앙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걸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기계산단 내에 물류업을 막아버리면 산단이 노후화를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줘야지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에 1년간 비슷한 수의 근로자가 입사했다 퇴사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근무할 환경이 아니니 입사했다가 못 버티고 퇴사하는 거죠. 첨단 업종이 들어오려면은 그 주변 여건이 일단 갖춰져야 하는데 주차장도, 식당도, 카페도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올 리가 없죠. 지금 아마 이 기계산단 안의 모든 현실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환갑 넘은 사람들이지 젊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는 없죠.

부사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소감이긴 합니다만(웃음) 부국철강이 1980년대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한창이던 시절 900만 불 수출탑을 세워 국가 산업에 기여했다는 것. 그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부국철강공업과

나는 내가 특별히 가진 기술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로스(loss)를 줄이느냐'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그거다.' 그래야만 회사에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밤에 자다가 말고도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다고 연락하면 뛰어나가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죠. 나는 오로지 그게 내 책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함께 걸어온 길





(주)부국철강공업 전 전무이사

김문환 (1937년생)

1950년 12월, 서울 미아리에서 기차길 따라 걷고 또 걸어 인천 배다리에 도착했다. 당시 김문환은 14세, 서울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어머니와 두 동생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지만 전쟁이 가져다준 '소년가장'의 집을 기꺼이 지기로 했다. '부국철강공업'의 창업주인 장범진 대표가 운영하던 '인천고무공업사'에 소년공으로 입사해 군제대 후, '인천강업합자회사'로 고무신 생산에서 철강회사로 회사는 업종을 바꾸었지만 김문환의 '한 우물' 인생은 바뀌지 않았다.

'부국철강공업'으로 다시 한번 사명이 바뀌어 공장장에서 전무이사로 진급하는 동안 김문환은 여전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회사와 가족을 위해 온 평생을 바쳤다.

면담일시 : 2023년 9월 27일 15시

면담, 원고정리 : 허은영

면담지원 : 김용경, 양지원

전쟁이 가져다준 직업, 김문환 소년가장이 되다

1937년생입니다. 고향은 서울 성북구 미아리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거기서 목회 활동하셨는데 일제 때는 철제들 다 공출하라고 종도 뺏어가고, 식기들도 다 가져가고 교회를 못 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 제 위로 형님이 세 분이 있었고 밑으로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변 전에 아버지가 목회 활동도 못 하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둘째 형한테 너는 군대에 입대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태릉에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기관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큰형님은 ‘경성전기 주식회사’, 지금의 ‘한전’이죠 거기 근무하셨고. 그러고 제 바로 위 형이 그 당시에 배제 중학교 다녔었고. 나는 50년,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 중학교에 입학했죠.

아버지가 5.30 선거 때 조병옥 박사 선거운동을 하셨거든. 그래서 사변 나고 잠시 피난 갔다가 6월 28일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서류(선거 관련) 있던 거 또, 작은형 군복 입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전부 불태웠는

데 인민군 내무서에서 따발총 메고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가택 수색을 쫓 했는데 서랍 속에서 작은형 군복 입고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고,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박또박 다 말씀하고 하셨지만 가서 조사할 거 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 가서 그만이에요.

큰형님은 이범석 장군이 ‘민족청년단’을 만들었을 때 일본 군대도 갔다 왔었거든요. 북한군이 들어오더니 큰형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큰형 처갓집이 경기도 양주에 있었어요. 거기서 피난 갔다가 셋째 형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보느라고 아침 먹고 걸어서 집에 와 봤죠. 그 당시에 형 친구가 ‘경기상업’, ‘도상’이라고 그랬지. 도상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끌려가서 북한군들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형 친구가 알아보더니 “7월 14일날 총살당했다.” 그러시더라고요(모두 작은 목소리로 탄식). 그러니까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북한군이 형을 잡으러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시골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조밭이 이렇게 (손을 어깨높이로 올리시며) 높았었으니까, 그 밑에 굴을 파고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거기 숨어 있고. 나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도토리 같은 거 따다가 갈아서 그걸 개떡같이 만들어서 그걸 쓰거든요, 물에 우려서 거기다 사카린 조금 쳐가지고서 개떡 만들어서 그거 먹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9.28수복’ 했는데 거기는 북쪽이니까는 그(당시 전무님이 계시던 경기도 양주) 길로 성북구 미아리에서 일하던 빨갱이들이 북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10월 중순에 집으로 왔어요. 작은형은 난 아버지 원수 갚겠다고 군대를 지원했어요. ‘방

위군'이라고 큰형도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인천 배다리 쪽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나하고 어머니하고 동생 둘하고 '니쿠사쿠(배낭)'라고 거기다가 옷가지 집어넣고 형이 기차길로 따라가라고 그래서 12월인데 아침 7시에 그 기차길만 따라서 계속 걸어서 저녁 어둑어둑해서 배다리에 도착했죠. 그래서 인천을 오게 된 거예요.

14살이었죠. 서울중학교 입학하고 한 두세 달 땡기고 못 땡긴 거죠. 그렇게 인천에 와서 인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동생 둘하고, 어머니하고 책임을 진 거죠. 이전 여담인데 그 당시에 내가 미아리에 있는 송인국민학교 9회 졸업생인데 내가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학생 대표로 답사도 하고 서울 중학을 우리 학교에서 7명이 시험 보러 가서 내가 당당히 거기 입학했죠.

그랬는데, 사변 이후에 형들은 군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 전선에 나설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동생이 국민학교 4학년, 2학년 그랬었거든요. 개네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난 공부를 하지 못했죠.

1·4후퇴 했다가 수복하고 '이연 고무'라고, 지금 인천제철소 그 옆으로 쪽 돌아가면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하던 고무공장이 있었어요. 그 내막이야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만든 큰 회사예요. '인천강업'이 그 당시에 '이연고무 제2공장'이었어요. 한쪽 옆에 고무공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규모를 늘려가지고 인천 제2공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범진 씨가 '인천고무공업사'라고 고무공장을 시작한 거죠.

전무님께서는 그 고무 공장일 때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고무공장 할 당시는 전기가 모자라 큰 공

장만 전기가 나가고(전기를 공급하고) 작은 회사들은 전기가 남아돌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밤에만 조금 주고 그랬었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기계 좀 돌리고 전기가 끊기면 또 그만이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네요.

그런 생활을 했어. (웃으시며) 그 당시에는 고무공장에서 검정 고무신을 만들었는데 이북으로 많이 갔어요. 강화 교동으로 해서 고무신을 가져가서, 북에서는 한약재 같은 것들 가지고 오고 물물교환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무공장이 경기가 없어지고 나는 군대 가게 되고, 제대하고 왔더니 철강회사가 된 거예요. 거기(인천강업 합자회사) 갔더니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서 거기 다시 들어간 거죠.

여기 인천에 오셔서 정착해 사신 데가 어디세요?

처음 인천에 오자마자 며칠 있다가 섬으로 피난을 갔어요. 삼목도라고 거기서 있다가 수복하게 되니까는 인천으로 다시 올라왔죠. 인천에 와서는 송림동, 송림초등학교 뒤에 살면서 인천 고무공장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장태진 사장님이 날 더러 학생증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서울중학교 학생증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야간 학교라도 보내주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때 ‘향도중학교’라고 야간 중학교가 있었어.

그런데 여건이, 전기가 없어서 낮에 일을 못 하게 되면 밤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일 시작하는데 내가 일 안 하고 학교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 갈 생각을 포기했던 거죠. 고무공장에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기계로 신발 만드는 감(재료)들을 전부 뽑아 놓으

면 낮에 여공들이 앉아서 신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대기하고 있다
전기 들어오면 일해야 되고, 참 어려웠어요.

인천강업 초창기 모습과 인천기계산업단지로 이주하게 된 계기

내가 61년 2월에 34개월 근무하고 제대해서 그 이듬해 초에 장범진 사
장님이 “다시 와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입사한 걸로 알아요. 아마
그때 인천강업(부국철강의 전신인 ‘인천강업합자회사’)도 새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인천강업합자 회사에 입사하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회사가 두꺼운 철판을 소재로 6mm로 가늘게 늘려가지고서
못공장에다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내가 뭐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
까는 첼제들 뽑으면은 계근(計斤) 해서 출고하고 그야말로 뒷일을 한
거죠. 재료 들어오는 거 받아 쌓고 그런 것들. 그 당시는 재료를 인천제
철에서 비레트(billet)¹⁾라고 그걸 갖다가 잘라서 재료를 뽑았어요. 그런
데 재료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동국제강’에서 철근이 자동화해서 막 나
오기 시작하니깐 조그만 회사들은 판로도 막히고 어려워 얼마 동안 또
쉬었어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 그냥 일반 철근 같은 거 뽑는 걸로 안 되

1) 형강으로 압연하기 전의, 각종 단면을 가진 강재. 압연에 의해 환강, 각강, 아이형 강, 엘형 강 따위의 각종 띠강
이 만들어진다.

졌다. 그러니까 회사 윗분들이 공업용에다가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앵글, 찬넬’ 이런 공업용 제품을 뽑기 시작하니까 철근보다는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하려니까는 장소는 좁고, 그 당시에 공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공단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송림동 인천강업에) 있던 기계를 옮겨서 하나하나 뜯어서 갖다가 설치를 한 거죠. 인천강업이 이곳으로(기계산단으로) 옮기면서 ‘부국철강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



부국철강공업(주) 70년대 공장 사진

미국 시장을 개척하게 된 계기와 재료 수급 방식

그 당시에 재료가 없었기때문에, 미국에서 고철을 갖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다니면서 고철도 수소문해서 들여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72년도에 기계산단으로 이사 나와서 한 1, 2년 후부터죠.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대형들만 나왔지 소형제품들을 만들지 못했었어요. 우리가 개발해서 소형(제품)들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원재료가 없었기때문에 미국에서 고철을 수입해다가 쓰고, 고철 수입하는 것도 재료가 부족해 연안부두에서 폐선(廢船)들, 오래된 배들을 갖다가 철판을 이렇게 (양팔을 벌리시며) 크게 크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철판들은 조그만 압연 공장들이 갖다가 압연(壓延)재로 사용을 하는 거고, 얇은 거, 못 쓰는 부속들, 고철들은 용해용으로 제강공장에서 전부 가져가고 그랬었죠. 산소공들이 올라가서 배를 몇 토막을 내서 육지로 올리면 좀 두꺼운 건 압연 공장에다 팔고, 고철들은 제강공장으로 가고.

그 고선박은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쓸모 없어진 걸 그냥 가져오는 건가요?

선박은 누가 사 오는 건지 모르고 거기서 이걸 압연재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그게 저렴도 하고, 비레트 같은 거는 미처 구입이 안 되고 공장이 1, 2, 3 공장이면 제일 작은 공장에서는 를 투입해 소형 제품을 생산하면 좋는데 일반연주 빌레트는 거기서는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게 미처 안 되니까는 미국에서도 고철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젊은 장소가 필

요했어요.

인천강업에 있을 적에는 좁은 데서도 그냥 움지락 꼼지락했었는데 압연용 고철을 사용을 하려니까는 장소가 넓어야 되겠고 그래서 넓게 잡아가지고 온 거죠.

그만큼 철강(철강산업)은 활발한데 재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재료가 부족했죠. 제강공장에서 빌레트(billet) 같은 걸 뽑아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어려워지니까는 중국으로 눈을 돌려서 많이 들여다 썼죠.

부국철강이 여기(기계산업단지)로 나와서 압연롤의 굵기에 따라 1공장, 2공장, 3공장, 그렇게 3개 공장을 만들었어요. 배(폐선에서 분리한) 철 판들 작은 것들은 작은 기계에서 하고, 국내 제강공장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빌레트(billet), 대형 제품들은 1,2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미국 경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국내 판매보다 미국 수출이 많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 80년대는 종업원이 한 200명까지도 됐었으니까요. 미국 수출 대주느라고 주·야 작업도 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한참 경기가 관찮았었죠. 그러다가 미국 경기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미국에 수출도 어려워지고. 제일(큰 원인)은 원재료 구입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는.

기계산업 단지에 터전을 잡던 초창기의 모습



부국철강공업 1980년대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인 조회 현장. 부국철강공업 오기석 부장 제공

전무님은 처음에 단순 업무나 그런 일로 시작하셔서 부국철강에서 기술을 익히신 건가요?

별 기술이 없어요, 현장 관리만 오래 했었으니까는. 그런데 원재료를 가지고서 어떤 제품을 뽑으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맡아서 해서 생산과장, 생산부장 그렇게 올라간 거죠. 이곳으로(기계산업단지) 이사 나와서도 몇 년 있다가 과장되고 또 얼마 있다가 부장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부장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사양했는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장을 하다가, 또 공장장까지 시켜줘서 공장장을 하게 되고 했는데 나는 본래 기술은 없는 사람이고.

부국철강 입주하실 당시 주로 어떤 공장들이 입주를 했었나요?

우리가 이사 올 때 한 두세 공장인가 밖에 없었어요. 허허벌판에 두세 공장 들어섰고. 그 당시에 들어와 있는 게 압연공장들이예요. ‘안성신철’, ‘삼진신철’, ‘영창금속’, ‘동인신철’ 또 ‘부국철강’. 아마 한 5개 되는 모양이야. 압연공장들이 주로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아마 제일 첫 번인가…… 허허벌판일 때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모습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숨을 쉬시며) 아휴, 허허벌판인 데다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여름 장마 때면 하수 시설이 안돼서 공단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무릎까지 막 물이 차고 그랬었으니까 일을 못하죠. 물 차오기 시작하면은 기계들은 쇠니까는 물에 차도 별문제가 아닌데, 모터는 안 되니까. 그걸 챔브로끄²⁾(체인블록)를 전부 달아가지고 이렇게(양 손바닥을 위로 향해 올리시며) 공중에다 매달아 올려놓고 있어요. 비 그치고 물 빠지면 또 내려놓고. 그러니까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은 한 2~3일 동안 작업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고생했죠.

장마철에는 출퇴근하시기도 힘들셨을 것 같으세요.

아휴, 그 당시는 버스 타고 와서 물에 빠지면서 공장에 들어가는 거야. 일할 생각이 아니고 모터가 물에 빠지면 고장나 일을 못하니 일단 모터 같은 거 올리려고 (미소를 지으시며) 몇 년 고생했었죠. 그런 게 제일 그 당시에 (웃으시며). 지대가 낮은 데다가, 거기가 인천교가 바로 물이 빠

2) 체인을 조작하여 짐을 들어올리는 장치, 도르레의 일종



철거 후 공장 풍경

지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는 물이 거기로 들어오면 그냥 지대가 낮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공장들은 자기네들끼리 지대를 높여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하수 시설이 되니까는 그때부터는 괜찮았죠.

부국철강의 전성기와 쇠퇴기, 그리고 회사를 위해 일하셨던 경험

경기 나빠지고 장영상 사장 돌아가시고 회사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시설투자를 좀 해서 신(新)기계를 도입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 직책을 맡기가 참 벅차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다 숙련이

되기도 했으니까는 2002년도에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 당시에 내가 나
이가 예순다섯 적이네.

회사는 어려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월급만 타고 앉았는 게 난 바늘방
석에 앉은 거 같고 그래서 내가 그만두는 것이 맞다. 장영상 사장 죽고
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굳혔던 거여. 그런데 사장 죽고 동생들이 와서
경영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있는 거야 다 하겠지만 공장 일은 내가 했으
니까 그 당시에 그만둘 수 없어서 그냥 붙어 있던 거죠. 그러다가 2002
년도에 나이도 예순다섯 됐고 또, 내 개인 생각하면은 애들도 다 컸으니
까는 생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당시는 퇴직금으로 한 1억 받
은 것 같아요.

그러셨겠네요. 40년을 근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2년에서 2002년이니까 부국철강에서 30년됐죠. 옛날에 인
천강업은 뭐 그건 치지 않고 일로(기계산업단지로) 넘어와서 부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부국철강은 30년 근무죠, 허허.(웃으시며)
한참 경기 좋을 적은 83년도인가, ‘상공부 장관상’도 받았죠. 93년에 ‘인
천 남구 모범 근로자 상’ 탔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니 인원
을 늘려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주간반이 일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
까지 야간반이 일했죠. 그러면은 나는 그 당시에 주안역 바로 뒤에 살았
어요. 밤에 자다가 말고도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다고 연락오면 뛰어나가
고. 하여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하고 밤에 자다가도 나가고. 출퇴
근 시간이 따로 없었죠.

그때만 해도 인천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셨다고.

아, 그럼요. 그 당시에 경기가 참 괜찮았어요. 나는 내가 특별히 가진 기술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로스(loss)를 줄이느냐.’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그거다.’ 그래야만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특히 배(船) 철판 같은 고철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비레트(billet)는 계산 딱 하면 얼마 자르면 몇 킬로가 나오고 얼마 늘어나고 다 계산하는데, 오래된 배들은 썩었잖아요. 뿔끼칠을 허니까 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썩었으니까 불에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고 걸쭉데기 다 썩어버리면 중량이 확 달라지잖아요. 지금들은 정량으로 딱 6m면 6m, 7m면 7m 딱 나오죠. 그 당시는 철근 재료들이 생긴 대로 좀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그냥 재료 생긴 대로 그렇게 막 통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수출하게 되니까 그게(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몇 미터짜리, 중량 계산해서 실어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고철 가지고 맞추려니까 로스가 많이 났죠. 또 미국에 수출하던 그 물건이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별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국내에서는 만드는 회사가 우리 부국철강밖에 없었어요.

기계 부속 만드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규격이 소형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었었어요. 미국으로 고철 수입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장태진 사장님 때부터 눈을 떠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시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작은 사고들은 많았죠. 그게 전부 어떤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공들이 집게 같은 거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주로 화상들을 많이

당하고 쇠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발등 다치고 그런 사고들이 많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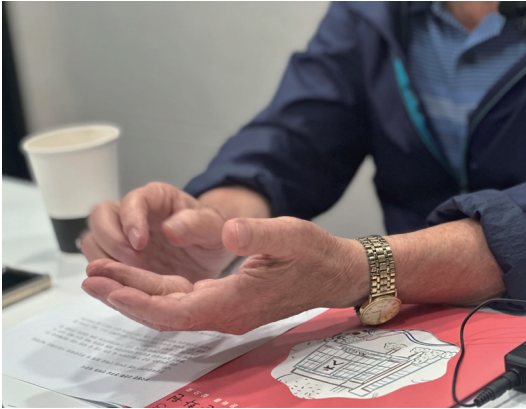


부국철강공업 공장의 작업안내 판넬

전무님은 괜찮으세요? 오래 하셨으니까 직업병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었고 내 훈장은 이거죠 (손은 보여주시며) 재료 절단하는 절단기에 손가락이 딱 잘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태진 사장이 자르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붙여라.”
난 모르니까 아파서. 그랬는데 다 살아났어요, 괜찮아요.



인터뷰 중 손을 보여주는 김문환 전무

부국철강에 대한 애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삶

회사 이름이 부국철강이잖아요. 대표님께서 부국철강으로 이름을 명명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내력은 저는 잘 모르죠. ‘인천강업’은 합자회사라고 지었다가 여기 부
국철강으로 넘어오면서 장태진 사장이 손 댄 거예요. 그리고 장범진 씨
가 사장이었다가 아들인 장영상 씨한테 넘긴 거죠. 장영상 씨는 인천에
서 꽤 발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나랑 동년배인데 현장 일에 대
해서는 간섭을 안 했어요. 현장만큼은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사장이야 외
부로 다니면서 원재료 수입해 오는 거. 나는 오로지 그게 내 책임이라는

사명 가지고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장장님이셔서 다 맡기셨나 봐요. (웃음)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되나.’ 그것만 생각하고, ‘내 있는 내 노력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하겠다.’ 했던 거죠. 지금들은 뭐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단 지금 세대들은 애사심이나 이런 건 딱히 없거든요. 그 당시들은 다들 그야말로 ‘여기 아니면 밥 못 먹는다.’ 그런 생각들을 다 했었으니까.

하여간 참 우리 집사람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인천강업, 그때 당시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쌀가게 가서 월급 나오면 준다고 그래서 쌀 한 되, 두 되 이렇게 사다가 팔아먹고. 그러고 월급 나오면 갖다 갚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제물포고등학교 나와서 서강대학 들어가고. 둘째는 딸아이인데 인일여고에서 톱을 했죠. 연세대학 졸업하고 생화학과 나왔는데 다시 1년 재수해가지고서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개네들 둘 학비 대고, 우리 먹고 사는 게 빠듯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우리 큰일이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래도 요행수로 공부들을 해가지고서 인일여고 다닐 적엔 장학금 타가면서 공부해서 학비도 별로 들지 않았죠.

애들이 졸업하고 나니까는 이제 한 짐 났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그만 두더라도, 퇴직금이라도 얼마 받으면 그거 가지고서 내 생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과감하게 했던 거죠.

부국철강을 퇴직하며 느끼는 감회

오래 근속하셨는데 퇴직하실 때 감회가 어떠셨어요?

아휴 뭐, 그 당시에 내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전부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 거고. 난 단지 회사는 어렵고 하니까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서 버티기가 싫고. 내가 밑에 애들한테 다 전수했으니까 나 없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용단을 내린 거죠.

그 당시 65세에 나왔지만 내가 건강은 남한테 지지 않았었으니까는. 그래서 남동공단 공장에 가서 또 몇 년 일도 했었고.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빌딩 관리인으로 가서 또 몇 년, 아마 80 될 때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기계산업단지에 대한 견해

주변 회사들도 흥하고 쇠퇴하고 이런 것도 다 보셨겠네요.

기계공단 입주할 당시 압연공장들이 7~8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없어지거나 탄 데로 가고. 나 그만둘 적에는 ‘동인신철’ 하나 남고 우리 부국철강 바로 뒤에 있던 ‘영창금속’은 부국철강이 인수해서 거기까지 넓힌 거고. 그리고 ‘안성신철’, ‘대진공업’ 조그만 회사들은 전부 없어졌어요.

그 당시는 기계공단에 들어온 회사 중에서는 큰 회사가 없어요. 전부 그렇게 조그마한 회사들이고. 아마 규모로는 우리 부국철강이 대지도 그렇고 제일 그 당시에 활발하게 했었고. 지금은 ‘미주철강’인가, 그 당시 ‘동방제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사장은 다 바뀌고 다른 사람한테로 넘

어렸으니까는 모르겠어요. 마찌꼬바(작은공장)라고 조그만 회사들이니까는 하다가 경기 없고, 시설 노후화된 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코스트(가격) 맞출 수 없고 자연히 도태되고 손들고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자기네가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빌레트를 잘 안 주는 거예요. 원재료 수출을 막는 거죠. 그래 그거 구입하기 어렵고, 현대제철인천공장이나 동국제강에서도 빌레트를 뽑던 것들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 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연이 기계는 노후화 되고 재료는 모자라고.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인천공장은 고철을 직접 수입해서 용광로가 있으니까 녹여가지고서 비레트를 생산하고 철근도 생산하고. 우리는 그걸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려워진 거죠. 원자재가 수급이 되면은 대형 공장에서 못하는 소형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랬었는데 재료가 안 되고 하나까는 조그만 공장들은 다들 문 닫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기계산단이 많이 열악해지고 노후화돼 있잖아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그래서 96년, 97년 그때 장영상 사장 죽고 나서부터는 회사가 시설을 좀 대체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기계를 좀 늘려야 되고.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형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는 노후화됐죠. 사람들도 자꾸 연령이 높아지니까는 힘들죠. 그 당시에 뭐 연령 제한이라는 게 말만 있었지 뭐 사실은 70대 된 사람도 할 줄 알면 (일을)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는 ‘이걸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했는데 자금이 유통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해

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미지수고 하니까는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내가 직책은 높아지고 책임감에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회사는 어려워져서 인원이 300명 하다가 그냥 줄고 그래서 40명, 50명 그렇게 되고 하니까는, 딴 기술 분야들이야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부심이라도 있겠지만 난 그렇지 않은 거니까는 그래서 ‘에이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만든 거죠.

내가 2002년도에 그만뒀지만, 내 몸은 거기서 나왔지만, 생각은 항상 ‘어떻게 그대로 잘 꾸려나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로 “야, 회사 형편이 좀 나아졌냐, 어떠냐?” 계속 묻고 그러는데도 당시 우리 미국 하나 보고 생산했는데 미국에서 양이 줄어드니까 그것만 바라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원재료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는.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부국철강에 대한 애정과 창립자에 대한 추억

이사님 이 공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런 부분만큼 정말로 좀 잘했다, 자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휴, 뭐 별로 특별한 건 없고. 그 당시에 조그마한 압연공장들이 여럿 있었으니까는.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공업용 찬넬(channel), 앵글(angle) 이런 걸 만들고 그러니까는 다른 공장 경영진 분들이 “너희는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서 저런 거 하나?” 해가지고서 구경도 오고 그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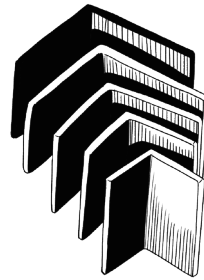
있던 기억은 있죠. (웃음)

오비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모이시는 분들이 주로 창립 멤버신가요?

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이 먹어서 벌써 갈 사람들 가고 이제 몇 사람 남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 모임도 없어졌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인천을 내려왔어요. 부국철강 앞에 계근실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들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 못 오고 하니깐 그때부터 자연히 없어진 거죠.

그래도 내려오면 나는 꼭 회사 궁금해서 “부국철강 지금 어떤가?” “사람 다 내보내고, 뭐 어려워서 못 돌린다.” 어쩐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눈가에 눈물이 맺히심)

장범진 씨, 장태진 씨, 장영상 씨, 지금 장영훈, 장영복 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예요. 특히 장범진 그 양반은 현장에 나오시면 이런저런 말씀 안 하세요. 공장이 넓으니까, 둘러보시면서 고철 여기저기 땅바닥에 떨어진 거 있으면 직접 주어다 고철장에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묵묵히……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시며 소감

정말 뜻깊게 사셨고 전무님 덕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하셨잖아요, 형제 분도 그렇고 자제분들도 그렇고. 정말 사변을 겪으신 전(前) 세대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놓으시고 주변을 위해 희생을 하셨는데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하여간 내가 30년을 근무한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30년을 근무하고 정성을 들여서 했던 회사가 더욱 번창하기를 못하고 그냥 문을 닫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죠. 기계는 전부 노후화돼서, 사람을 줄이고 힘도 좀 덜 들이고 하려면 자동화를 해야 하는데 그건 돈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다 자리 잡고 우리야 집사람하고 둘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지고서 맞춰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죠. 큰 병이 없어서 그게 감사한 거죠.



부국철강공업의



만능해결사



붉은 쇠들이 막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기계 소리 나고 현장에 사람들 막 깔려 있는 모습을 도서관에만 있다가 와서 처음 봤잖아요. 어머머마하더라고, “야, 일할 만하구나.” 그랬어요.



(주)부국철강공업 경영총괄 이사 강병욱(1958년생)

1985년 부국철강공업 무역부에 입사한 직후 인천공장으로 내려와 근무한 지 40년이 되어 간다. 현장과 영업 일선을 오가며 산업역군으로 종사한 강병욱 경영총괄 이사는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국철강의 해결사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8월 31일 15시

면담, 원고정리 : 허은영

면담지원 : 표기자, 양지원

도서관 사서에서 제조업으로, 청년 강병욱의 선택

저는 원래 원광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했었어요. 84년도에 딱 1년간 도서관 사서 일을 하다 ‘남자가 도서관에서 있어야 될 청춘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조업 쪽에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지인의 소개로 85년도 3월 1일 입사해서, 86년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국철강공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군대 가서 바뀌었죠. 1년 동안 함상(艦上) 생활, 배를 타다가 한 2년을 대방동 해군 본부에서 장군 당번을 하게 됐어요. 그 장군님이 백석기 제독이신데 인천고등학교 출신이고 협성대학교 총장을 하신 이후,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하시고 전역을 하셨어요. 한국출판협회 회장, 세계출판협회 부회장도 하셨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36년생이신데 돌아가신 (부국철강공업) 장영상 회장님하고 인천고등학교 54회 졸업 동문이에요.

제가 장군님을 2년 동안 모시고 있다가 대학 마지막 학기를 졸업하고,

원광대학에 공채로 들어갔는데 대학도서관 세미나로 부산을 가게 됐었죠. 그 장군님이 부산 해역사(해역사령부, 海域司令部) 사령관으로 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사령관 관사에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러다가 “거기 근무하는 게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그러셔서 “저는 사실은 장남이고 외아들이고. 그래서 사서로 근무하는 게 정상 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거기서 바로 우리 장영상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우리 사령관님이 “내가 이 친구를 자네한테 소개시켜 주면 내가 도움을 주는 거지 자네한테 인사 청탁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웃음). 이 분(장영상 사장님)이 해군 본부에 계실 때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문에 가서 비표(祕標) 달아 드리고 사무실에 모시고 그래서 안면이 있었죠.

부국철강에 와서도, 한 1년 10개월 만에 유례없이 대리 진급을 빨리하게 됐었고. 그분도 또 삼성 장군, 쓰리스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장영상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야 그 백 제독 별 세 개 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즐거웠죠. 사실은 지금까지 저의 멘토죠. 삼성 장군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모범이 되는.

이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는 66세고 호적상으로는 60년생으로 2년이나 늦게 돼 있는데. 원래 나이는 58년생이고 77학번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라 우리 안동고등학교 선배들이 육군사관학교를 한 10명, 12명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하고도 동갑이고, 그때는 육사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 때였죠. 그런데 호적이 2년 늦게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던 때가 16세밖에 안 돼요. 육

사는 18세가 돼야 하는데 못 갔죠. 그래서 재수하면서 종로 2가에서 학원 다니면서 술, 담배 배우고 육군사관학교 떨어졌죠.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일반 대학을 2년 늦게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도서관 학과인데 요즘은 문헌정보학과가 되겠죠. 도서관학과는 실력이 없으니까 갔죠.(다들 웃음) 요즘도 누구 만나면은 나 60년생 아니라고, “나 58년 생인데.” 고등학교 졸업 명부, 졸업 연도 77년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죠.(웃음)

입사 초기 부국철강공업과 기계산업단지의 모습

장영상 사장님은 8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동생이신 장영훈 사장님이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죠. 창업주는 아버님이신 장범진 회장님이시고요.

부국철강의 전신이 ‘인천강업합자회사’라고, 52년도부터인가 저기 옛날 동부경찰서 자리, 지금은 거기 주상복합 지었는데, 송림동 청과시장이라고 1,2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회사의 전신인 못공장부터 시작해서 69년도에 기계산단에 공간 조성이 되면서 72년도에 여기 6천 평을 매입해서 시작했죠. 공장은 이렇게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 모습이 땅도 똑같고, 건물도 지금 이 모습이고. 단지 달라진 거는 요 앞에 복리후생관 건물을 제가 와서 86년도에 지었어요.



부국철강공업의 생산품과 지게차

이사님 재직 당시 85년 즈음에는 기계산단에 몇 개 정도 회사가 있었나요?
규모가 좀 있지 않았나요?

인원은 지금보다 몇 배가 많았죠. 지금은 3천 명 된다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죠. 예비군 대대가 있었고 그랬었으니까. 그때 경동산업, 동방제강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85년도에 버스 타고 인천교에서 나가면은 경동 키친아트에서 아줌마들하고 인천교 여기가 복잡복잡했었어요. 그리고 인천교 다리 밑이 85년도에는 밀물 썰물에 물이 저 십정동까지 들락날락했어요. 갯골이어서 망둥이 낚시하고 그랬죠. 이 인천교 겨울 바람이 유명했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다 매립을 한 거죠. 인천의료원 삼거리에서 경동 키친아트 가는데 그게 다리였어요. 다리 교각이 있었고 그 밑에가 갯골이었고 가좌동 쪽을 ‘개건너’ 라고 그랬어요.

청년 강병욱의 눈에 비친 이 기계산단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대단했죠. 제물포에서 내려서 경비실에 와서 우리 부사장님 이름을, 그때는 부장이었으니까 “장영복 부장님 만나러 왔습니까?” 경비실에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붉은 쇠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기계 소리 나고 현장에 사람들 막 깔려 있으니까. “야! (감탄하는 표정으로)” 처음 봤잖아요. 현대제철, 포항제철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도서관에만 있다가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도 시끄러워. 기계 돌아가는 소리, 인터폰 하는 소리, 현장에 출고차 들락날락하지. 여기 앞에 계근대가 있거든요. 계근대서 여직원이 계속 세금 계산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여직원들이 5명 앉아서 월급 계산하고 영양사 있고. 우리 2층이 다 식당이었거든. “야, 일할 만하구나.” 그랬어요.

입사 당시에는 어떤 부서로 오시게 되었나요?

마포에 영업부하고 무역부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영어 원서 번역하고 그랬으니까 무역 영업 쪽으로 갈려고 서울사무소에 올라가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일단은 “영업 무역을 하려면 인천공장을 가서 공장을 좀 알아야 된다. 현장에서 1개월 정도만 공장의 루틴을 좀 보고 와라.” 그러셔서 인천공장에 내려왔는데 지금 부사장님한테 잡혔어요. (모두 웃음)

“애는 여기 데리고 있을 테니까 서울에 한 명을 더 써라.” 그래서 인천에 그냥 이렇게. 안 그랬으면 서울의 영업 무역했으면 지금은 우리 회사 영업 출신들이 나가서 다 철강 대리점도 하고 돈 많이 벌었지. 자기 사업도 하고. (웃음)

기계산단에 입주할 때 생산라인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신 건가요?

29년생으로 고향이 함경도 흥남부두 그쪽인데 내려오셔서 그때 당시 공무과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인천강업’ 때부터 공작반원으로 들어와 공작반에서 기계를 연삭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도 삼각함수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면서 롤 회전 이런 거를 산출하더라고요. 이론적인 건 없는데, 그냥 똑딱거려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롤 공형만 만들면 쇠 나오게끔 이런 실력이 있던 분이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우리 장영상 사장님이 그분한테 많이 의존했죠.

인천이 부둣가 쪽으로 배 수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선반공으로 조그마한 거 연마하고 연삭하고 이런 정도로 하다가 그분은 생산설비 그쪽으로 공무부의 최고 책임자였고 밑에 차장, 과장들은 가열로라든가 환경, 방진, 집진시설 같은 거 이런 쪽을 맡아서 했어요. 기계 쪽에 제품 개발하고 이런 거는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기계산단에 생산라인 설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 인천제철이 외국에서 고철 배를 들여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베지(샬비지, salvage)¹⁾’라고 해서, 저기 지금 100주년 기념탑 옆에 옛날에 큰 사우나 하나 있었죠. 거기에서 경인방송 쪽으로 오다 보면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죠. 옆에 바닷물 들락날락하는 데. 거기에 살베지(salvage)라고 고선박 해체하는, 외부에서 폐선 갖고 들어오면 거기 바다에서 선박 해체를 해요.

1) 조난 당하거나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는 작업. 고선박을 해체하는 곳을 이르는 명칭으로 쓰인 듯하다.

그 선박을 해체해서 나오는 철판들을 재료로 잘라서 쓰는 데가 많았죠. 그 선박을 하나 사 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간이며 뭐 다 있잖아요. 선박을 해체하면 그 안에 모타, 심지어 냉장고 같은 부품들 있잖아요. 이 양반이 나가서, 고철 같은 거 사 오면 “우리 저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분이예요. 대단했죠.

80년대 부국철강공업의 성장

80년대 부국철강이 가장 왕성하게 생산 활동을 하던 때잖아요. 노동 시간도 그렇고 직원들 수당이나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는 비근한 예로 현대제철보다 우리가 임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열로 분들이 현대제철에서 여기 우리한테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장영상 사장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셨어요. 미국 다니시면서 원재료도 크게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장영상 사장님이 영진공사 이기상 사장님하고 인천에서는 몇 안 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영주였던 분이예요.

84년도에 500만 불 수출탑 수상을 하잖아요. 그때도 장영상 사장님이 계셨던……

예, 그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돌아갔었죠. 3개 공장이 있었고. 부서가 5개 부서예요. 그러니까 3개 공장은 주간을 하고 2개 공장은 야간 공장을 돌렸어요. 생산량이 한 6만 톤에서 7만 톤. 그때가 직원들이 300명 정도 됐죠.

정부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철강업 자체를 좀 많이 독려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국가 기간 산업이었고 그랬으니까. 이 철강이 쉽게 말하면 유행을 안 타요. 100년 전에 철근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을 안 타니까 안정되기는 했는데 이 철강석 재료 가격이 몇 년 전에는 110만 원 하다가 지금은 90만 원, 85만 원 이래요, 철근 가격이.

부국철강공업의 주된 생산품들

가장 많이 생산하던 제품이 형강(形鋼)²⁾ 제품인가요?

네, 그때도 형강입니다. 미국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게 효자 상품이었는데, 지금 사장님(장영훈 사장님)이 미국 지사장 나가 계셨었고. 그때는 정말 잘 나갔었죠.

그 당시 기계산단 내에 동종 업계들도 경쟁이 심하고 이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공장마다 쇠를 쉽게 못 만들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하듯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동방제강’이라고 여기는 레일만 만들었어요, 광산에 들어가는 레일. 서울제강 같은 데서는 앵글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고. 서로가 조금씩 달랐죠. 그래서 그렇게 경쟁은 안 났어요. 우리는 소량 다품종으로 만들었죠. 이 양반이(홍남 출신 공무부장님) 기술이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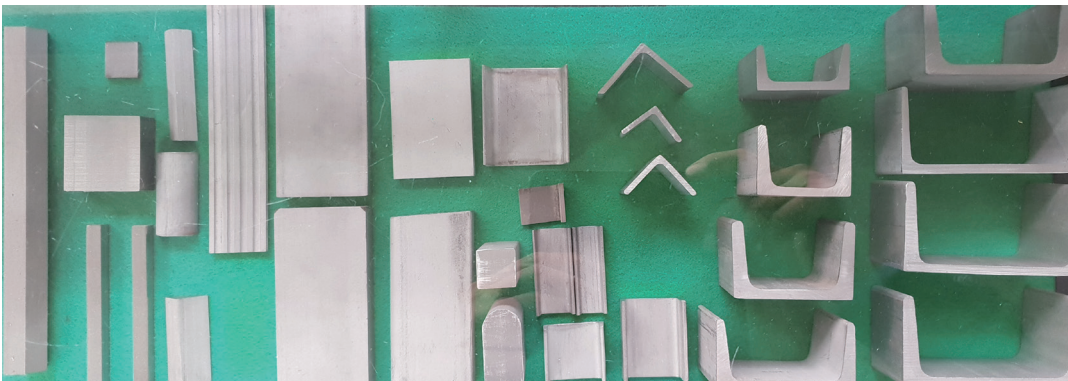
2) 구조용 압연강재로 각종 단면형상을 가진 봉(棒)모양 압연재의 총칭인데, 철골 구조용으로 사용된다. 단면형상에 따라 ‘ㄱ형강’, ‘H형강’, ‘ㄷ형강’ 등이 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쇠로 그렇게 한 번 만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주물도 아닌데. 이걸 가열로에서 1,150도로 쇠를 익혀가지고, 13번 패스를 왔다 갔다 해서 쇠가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기술이죠.

주요 생산품에 채널이 있죠, 일본식으로 발음으로 찬넬. 돌아가신 분도 잔넬, 잔넬 그러시고. 채널이 통로잖아요, 배수로 통로 이런 걸 찬넬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6m짜리로 그냥 이 제품이 이렇게 이런 모양(손가락으로 ㄷ자 모양을 만드시며)으로 6m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제품은 디귤 자로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걸 보통 얹어놓고 많이 쓴대요. 이렇게 (종이로 ㄷ자 모양의 채널 모형을 만드시며) 이렇게 놓고 쓰는데 기계를 올려놓으면 이게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런 채널을 지금 평철 같은 걸로 이렇게 포밍으로 접어서 쓸 수도 있는데, 애는 지금 가운데가 조금 더 두꺼워요, 채널이.

(직접 ㄷ자 모양의 철근 제품을 가져오셔서) 이것을 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50mm, 애를 이렇게 (ㄷ모양으로) 세워서 이 위에다가 공작기계 같은 거 설치하면 힘을 되게 받아요. 저희들이 미국에 이 채널을 수출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철근 가격의 2배를 받아요. 이렇게 가운데를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큰 거는, 이거 배(두배) 되는 거는 만들기는 쉬워요. 동국에서도 나와 있는데 동국에서 이렇게 얇은 거는 못 만들어요. 얇아서 이게 13 패스를 거치면 롤 파손이 와요. 쇠가 식어버리면서 감겨버리니까.

부국철강공업의 다양한 생산품들





주 생산품인 채널에 대해 설명하는 강병욱 이사

13 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1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빌렛(billet)³⁾이라는 큰 쇠를 1,150도에 서 가열로 익혀서, 계속 13 패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사각으로 나왔다가, 한 패스 나오면서 85% 형상을 갖추고 이렇게 나왔다가 그다음 패스에서 약간 모양을 좀 더 갖춰서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런 제품이 나오게끔 이 롤 만드는 기술을 김 전무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쇠가 여기 들어가서 다음 패스, 2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20%를 누른다든지. 압축을 너무 많이 줘 버리면 롤이 파손이 되잖아요, 공형에. 그래서 압축하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

3) 형강으로 압연하기 전의, 각형 단면을 가진 강재. 압연에 의해 환강, 각강, 아이형 강, 열형 강 따위의 각종 띠강이 만들어진다.

제품 나오기까지 이 통 빌레트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형을 거쳐서 나오는 거죠.

기본 빌렛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오셨어요?

90년도에는 러시아에서 많이 샀죠. 그다음에는 중국에서 샀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배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시간도 좀 짧았었고 그래서 월 한 5천 톤씩 사서 썼었어요. 배가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은 며칠씩 그냥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바빴었죠. 우리가 이 공단에서는 독보적이었었죠. 저 서울제강, 동방제강, 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죠.

스테인리스도 생산하시잖아요. 스테인리스를 생산하려면 생산기술 라인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이 양반 기술이었죠. 스테인리스는 일반 쇠 중에서 니켈 함유량이 많아요. 니켈은 찢든찢든한 성질이 있어요. 스테인리스는 이론적으로 모터 회전이 빠르면 안 된다고 그랬었고, 쉽게 말하면 가열로에서 열을 가해 쇠를 서서히 썬야 돼요. 일반 쇠는 빨리 익혀갖고 빨리 끄집어 내갖고 회전을 빨리 해야 애가 안 식으니까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그게 아니고 서서히 썬서 서서히 회전을 낮춘 모터로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결국은 스테인리스를 했어요. 우리 2년 전에 문 닫을 때까지 스테인리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지금 재고도 갖고 있죠.

우리가 1972년부터 한 1990년까지는 일반강을 했었고, 90년부터 한 97년도, 2000년도까지는 플랫타이라고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평철을 생

산을 했었어요. 2000년도에는 스테인리스를 생산하는 후처리 공장을 지으면서 스테인리스를 하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었죠.

인천기계산단이 당면한 문제와 구조고도화의 필요성

그래서 지금 뭐 잘 하시겠지만, 여기 기계공단은 원체 낙후가 돼서 “커피 한 잔 먹을 데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지. 그리고 법적으로 여기 식당이 지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단 자체의 규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서 전국 최초로 인천기계산단을 재생 사업한다고 5년 안에 돈 준다고. 이렇게 경제신문 나오고 우선적으로 푸는 게 뭐냐 하면은 공원, 커피숍, 주차장. 그게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옆으로 보면은 아침 8시에 출근하는데 6시 반 이렇게 와서 차 세우려고. 남동공단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여기가 오히려 주물이 있었어요. 지금 주물 못 들어와요, 여기 있는 업종은 어쩔 수 없이 되었는데 나가고 난 뒤에는 공해 때문에 다시 못 들어오죠. 주물하고 도금공장도 나간 지 한 2~3년 됐어요. 새로운 업종 들어오려면은 조그마한 선반 놓고 이렇게 하는 업종이 들어오지.

그러면 이 넓은 부지를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업종 변경하는 게 결국은 물류창고를 지으

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허가는 났어요. 허가를 저쪽에서 좀 늦게 내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허가가 아니에요. 여기 업종 제한을 이렇게 해 놨는데 ‘구조고도화’라는 게 있어요. ‘구조고도화’는 그야말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 지역에서 산업 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공단에는 이 구조고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창고를 짓는 우리 목적이 보관업을 하는 창고가 있고, 3PL(제3자물류)이라고 해서 우리가 쿠팡에 임대료 창고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고 보관업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쿠팡이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 하려면은 구조고도화라는 트랙을 밟아야 되는데, 이 구조고도화의 시행권자가 인천시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 산업정책과 가서 참 솔하게 싸우고 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왜냐, 하필 왜 기계공단에 제조업을 해야 되는 업체에서 이 쿠팡을 넣으려고 그러느냐? 서비스 업종에 3PL 넣으려고 그러느냐?” 이래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한 25%, 우리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개발 이익금을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결국 허가 낸 게 창고 보관업으로 그냥 냈어요. 이거 팀장 하나, 사무관 하나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못한 거예요. 이거 2,400억 투자해서 창고 이거 짓는 걸로 그림 그리고 다 했었어요.

지금 여기 8층 건물에 한 3만 3천 평 물류창고 계획잡고 교통영향 평가 받고 다 했는데,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되면서 2.5톤 이상 화물차 못 다닌다고 그래갖고 또 완전 개판 됐죠. 저 도로 어떻게 나는 건 아시죠? 저게 지금 8차선 도로인데 4차선으로 만들고, 가운데 공원 만

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이 공단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화물차 못 다니게 만들고. 지금 정문이 저쪽(인천대로 방향)으로 나 있는 곳들은 화물차 못 다니면 어디로 들어가요, 못 다니지. 근데 10.45km 구간, 거기에 공단이 차지하는 건 불과 몇 프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화물차는 봉수대로인가 현대제철 앞으로 해서 외곽으로 서울 다녀라 이거지. 이쪽은 시민의 쾌적한 숲 조성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단을 바깥으로 빼라. 시에서 땅 사고 제안하면 그거는 또 못하는 거지.”

지금 이 기계산단이 사실은 전부 다 슬레이트 건물 다 썩었잖아요. 시에서 봤을 때도, 지도 펼쳐놓고 보면 남동공단, 국가산단들은 잘 돼 있는데 기계단지하고 일반 산단, 차라리 인천의료원 저쪽 옆으로는 일반 산단이니까 좀 괜찮아요. 샌드위치 판넬, 요 근래에 짓는 거라.

이게 272억이 뭐냐 하면 주차장 짓는 거 그런 거지. 개인 사업장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구조고도화를 하면, 우리가 2,400억을 들여서 하면은 이익금 산출을 한단 말이에요. 창고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 2,500억이 된다. 그럼 10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25%, 25억을 개발 이익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게 25% 내 갖고는 콧방귀도 안 뀌어요. “무슨 소리냐.” 25%면, 최하 40%~45%는 내라는 거지.

기계공단이 당면한 문제들과 앞으로의 방향

이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 기계산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계 산단은 우선적으로 일반공업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업종 자율화가 되어야 해요. 준공업 지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경공업처럼 가벼운, 제조가 아닌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물공단이던 서부산단이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서부산단이 주물공단일 때 청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느껴서 서부산단 자체에서 청라로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연판장을 돌렸어요.

결과는 청라 주민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그 보라, 우리 공단 여기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주물공단을 준공업 지구로 바꾸면서 땅값이 3배가 올라간 거예요. 주물공단은 나가는 걸로 하면서 거기에 지금 LG 있죠? 공항 가다 보면 경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은 LG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좀 지나면 KB금융 있고. 거기가 주물공단 자리였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10년 전에 시청에서 우리에게 지식산업센터 지으라고 했습니다. “은행도 하나 놓고, 주유소도 놓고, 땅은 넓으니까 된다.” 라는 거야. “야 지산(지식산업단지) 지어놓고 그럼 우리 철강을 해야 되는데, 철강을 어디서 하냐?” 그래갖고 얘기가 깨졌어요.

재직하시며 느끼신 감회와 희로애락의 경험들

부국철강의 역사를 같이 하셨는데 남다른 감회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85년도부터 봤었죠. 물론 기쁜 일이라면 직원들 300명이 부서별로 가족 야유회 가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부부 동반으로 봄가을 두 번씩 관광



기계 철거 후 공장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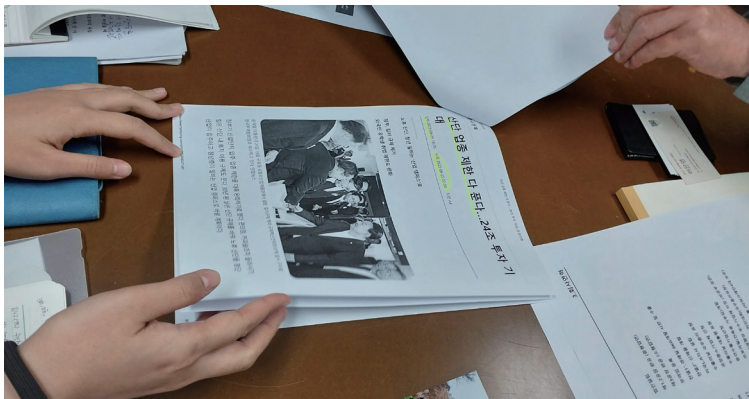
버스 타고 버스에서 놀고, 그때 반장 부인, 직원 부인들이 음식 다 만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또 저희들이 집들이가 많았었어요.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면 뼈꾸기시계 3만 5,000원짜리, 시간 되면 나오는. (모두 공감의 웃음) 그런 거 사가고. 그 인간관계들 그렇게 재미가 있었고. 송



도 안에 유원지 빌려서 송창식 가수 불러다 놓고. (부사장님을 가리키시며) 저분하고 송창식이 중학교 동창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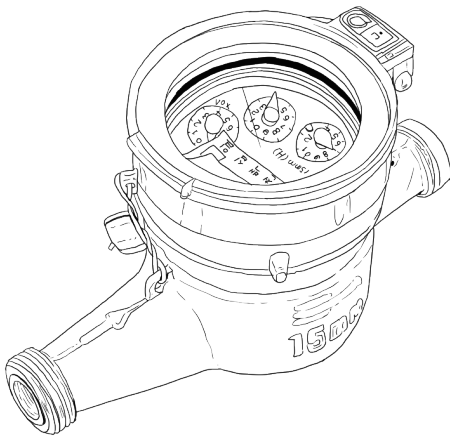
저희들이 5월 말 법인이었는데 그해에는 물건이 하도 많이 나가고 발주가 많아 5월 말, 12월 말 이렇게 결산을 두 번 했어요. 그러고 난 뒤 12월 말 법인으로 바뀌었죠. 그게 20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부산 영업하러 다니면서 “이거 진짜 몇억 남는 오더다. 이거는 괜찮다.” 돌아와서도 큰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하면 그런 뿌듯했던 기억도 있어요.

아픔이라면은 우리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생겼고. 가족들 와서 슬병 깨서 나한테도 덤벼들고. 결국 내 입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가슴 아팠죠.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5개 부서가 주간, 2개 부서 야간에 있어서 숙직을 했었어요. 숙직하다가 숙직실에서 갑자기 죽은 내 동료도 있고. 그 친구가 나랑 동갑내기인데 같은 해에 결혼을 하고, 같은 가좌동에서 살고, 같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은 우리 부부가 그 집에 하루 갔다가 그들 부부가 내 집에 하루 왔다가 그랬고.. 그때는 신혼 때 가좌동에 단독주택에 이렇게 돌아가면 문 하나 있고 부



산단 업종 제한 완화에 대한 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억 있고 그게 다였잖아요.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고. 주인집은 (화장실이) 안에 있고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 친구도 거기 그런 데 살고, 나도 결혼했던 첫해에 거기서 살았는데. 숙직하다가 1월 3일날 시무식 하러 왔는데, 1월 2일날 야간에 그만..... 참 많이 울었죠. 기독병원에서 부검도 하고..... 그리고 산재 사고 나서 참 가슴 아픈 적도 많았고.





매립지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 젖은 서류들을 말리기도 했다고 한다.



(주)부국철강공업

압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중소형강압연 제품, 찬넬, 평철, 경 레일, 그레이팅용 I-BAR 등을 생산해 1980년대 북미 수출에 주력했으며 2000년대 이후 스테인레스 스틸을 개발해 조선소에 납품하는 등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인력난 등의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였다.

설립연도 : 1972년 6월

대 표 : 장영훈

종업원수 : 14명

업 종 : 철강재의 생산 및 판매

주 생산품 : 중소형강압연 제품, 찬넬, 평철, 경 레일, 그레이팅용 I-BAR 등
생산 그 외, 무역 및 건설장비 대여

홈페이지 : bookuksteel.co.kr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89번길 54



기업 연보

1972년 06월 법인설립

1972년 07월 제1, 2공장 완공 (중형압연)

1975년 02월 찬넬1", 경레일 9KG개발 시판 및 수출

1979년 04월 미국 L.A지사 설립

1983년 06월 유망중소기업체 선정

1984년 11월 수출의날 대통령 표창

2001년 06월 STS 후처리 공장 준공

2001년 12월 STS 앵글, 평철, 찬넬 생산 시판

2002년 12월 STS 찬넬 유럽 수출

2018년 11월 연구소 설립

가업을 세계로

주물공장 설비가 아주 큰 시장은 아니고 틈새라고 보면 맞아요. 아무나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설비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규모가 크고 또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국내보다는 외국 쪽으로 발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승하며

나가다





태진기연(주) 대표

이재장 (1959년생)

창업주인 고(故) 이정열 사장의 뒤를 이어 2대째 주물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공장 운영을 위해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3대째 가업을 이어 대물림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면담일시 : 2023년 10월 12일 13시 30분

면담, 원고정리 : 조연희

면담지원 : 이혜숙, 양지원

태진기연의 시작

창업주인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금속과를 나오셨고, 한국기계라고 예전에 대우중공업¹⁾ 거기를 61년도에 입사 후 일본 자동차 회사에 연수를 가셨어요. 그다음에 기획 관리부에서 개발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일본 '고마쓰' 회사하고, 그다음에 '히타치'하고 같이 기술 제휴를 해서 지게차하고 지금 굴삭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성사시켰죠. 그때 독일 디젤 엔진 공장 설립을 그때 하셨고, 여기 화수동에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있죠. 거기에 주물공장이 있어요. 70년도에는 방위사업 그 부품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도 참여하셨어요. 창업하실 때 금속 주물에 해당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바로 입주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대우공업사에 2년 동안 임대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1) 현 두산인프라코어의 옛 이름



태진기연의 초기 입구 사진. 태진기연(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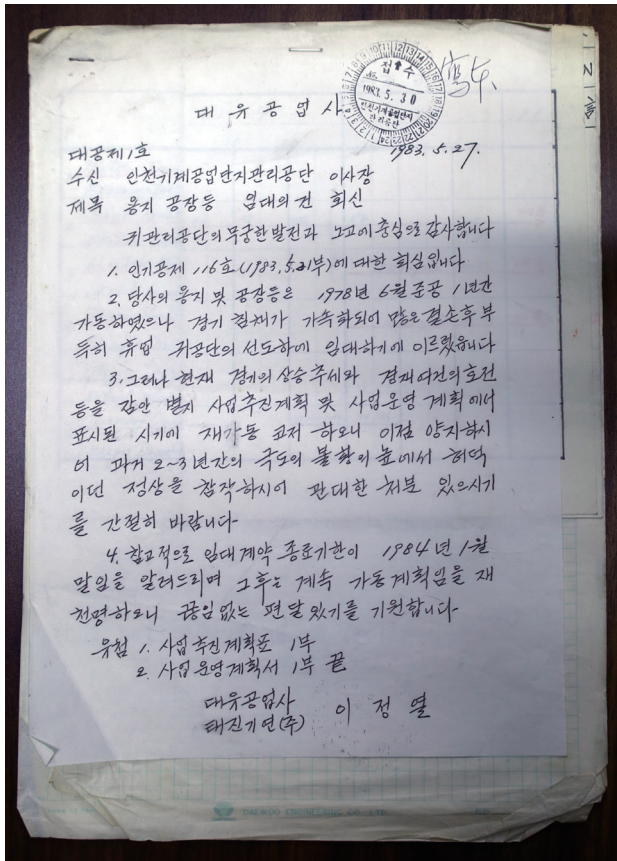
그 당시 못 들어오게 된 이유가 경기 침체가 가속해서 관리공단에다가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어 진행된 거죠. 원래 공단으로 하면 임대료를 못 주게 돼 있을 거예요. 대우공업사도 기계 설비 분야였어요. 78년도에 입주하면서 태진기연으로 바꾼 거죠. 실제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업사로 하면 안 되고 법인으로 해야 혜택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태진기연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태진기연 이름은 아버님이 지으셔서 의미는 잘 모르겠네요. 한자 풀이로 크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지 않았나 싶어요.

언제부터 가업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가업을 이어야겠다고보다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일을 했으니까. 할 때부터 같이 일하고 그랬거든요. 전공은 기계 쪽이 아닌 인문계 나왔어요. 근데 기계 만드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성에도 좀 맞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가 이제 계속 받을 담그면서 가업을 잇게 됐네요.

아버님이 이렇게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버님은 ‘당연히 물려받겠지.’ 하고 생각을 하셨지. 저 역시 자녀들한테 물려 줄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이르고 좀 더 있다가. 현장 일 배우러 들 어왔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자녀들도 가업을 이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진기연(주)의 초기 대유공업사 임대와 관련한 발신문서 (수신처: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 태진기연(주) 제공



태진기연의 옛 모습들

-옛 직원들 사진들, 제품도색과정들. 태진기연(주) 제공

지금 함께하는 직원은 몇 분 정도 계
시나요?

한 2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기
계산단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
고 경서동은 규모가 더 커요.
경서동 주소는 '서구 원전로
37번길 9', 여기도 산업단지인
데 주물단지로 되어 있죠. 아
버님이 처음 설립했을 당시에
는 직원이 12명 됐는데, 작년
하고 올해는 20명으로 가장
많아요.

김종석 반장님이라고 지금은
전무가 됐는데, 근속한 지 40
년 가까이 됐어요. 직원을 관
리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부
분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직원
들하고 일용직을 같이 채용하
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은 인력
회사에서 채용해서 일정 시간
되면 이동하다 보니 자연스럽

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직원 채용할 때 어려움은 없는데 젊은 사람들
이 별로 없죠. 외국인 직원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
어요.

태진기연 성장과 발전 : 설비시설의 자동화와 환경 분야 특허 취득

인천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돈 모은 거 갖고서 땅을 산 거죠. 76년 설립 당시 모습은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라 잘 몰라요. 개업식 사진이 있는데, 아버님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아마 65년도? 64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원에 있는 업체에다가 납품해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설계를 캐드로 하지 않고 설계도를 직접 그렸죠. 이분은 이제 전무님이라고 설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5~6년 계셨나?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90년대 설계도 그리는 모습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IMF와 금융위기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기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2008년이면 리먼 사태²⁾ 말하는 걸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IMF 때는 좀 어려웠죠. 공사를 하는데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진흥주물이라고 주물단지에 있는 업체 거 공사할 텐데, 상당히 큰 공사를 받았는데 적자를 좀 본 것 같아요. 공사하고서 그래서 좀 어려웠지.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만큼 오래되니까 거래처들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나아졌죠.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초기에는 다 수작업으로 작업하다가 점차 설비를 자동화하였는데 당시 바뀌던 상황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주물 설비 공장들이 수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들이 아니고 품종은 많은데 숫자는 작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 수작업을 많이 했지요. 1996년도 이때는 우리가 서브 모터를 써서 로봇같이 소형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믹스를 개발해 줘가지고 사람들도 좀 덜 들어가고 생산성도 많이 올라갔죠. 주물공장 캐스코드³⁾라는 공장에다가 설치를 해줬는데, 이 프로그램 믹서를 그때 개발했어요. 그때부터도 인건비 때문에 자동화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2)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칭하는 말

3) 인천 동구 화수동에 위치. 선철주물 주조(주철 엔진 Block, Head, 건설기계용 유압주물, AI 엔진 Head), 제철, 금형기공설비 제조 등 선철주물 주조업체

4)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경영)의 합성어로,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집진기 특허나 악취제거장치 특허는 환경 관련 분야인데요. 이런 환경 관련 분야 특허를 취득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주물 설비 주물공장이니까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집진기가 같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매출이 좀 줄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환경 설비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했죠.

ISO-9001 취득은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품 등급을 좀 올리면서 균일하게 만들려고 취득했어요. 특허를 받고 벤처 등록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일부 있지만, 실제로 하려면 이제 벤처기업이나 이렇게 Inno-biz⁴⁾를 갖고서 본인들이 찾아서 신청해야 해요. 어드벤처이지가 좀 있다는 얘기죠.

해외 파트너와 협력 확대

일본과 재생 설비 기술 제휴를 하셨는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때는 주강 공장들이 CO2 공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CO2 프로세스라고 물유리를 갖고서 하는 공법인데 그 일이 상당히 손도 많이 가고, 일손도 많이 가고, 제품도 아주 지저분하게 나올 때 알파세트라고 하는 공법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파세트가 뭐냐 하면 주방에서 물건을 경화를 시키는데 알칼리 폐놀 수질을 갖다 써서 몰드를 뜨거든요. 모래에다가 수지를 섞으면 딱딱하게 시멘트같이 굳어지는데 CO2는 물유리에다가 CO2 가스를 집어넣으면 굳어져요. 작업성이 좀 좋아져서 이 기술을 일본 업체하고 협정을 맺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Alfa Set System



Furan System



Cement System

태진기연의 생산품 Foundry Plant Engineering

다 만들지 못하고 일본이나 독일,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 기계를 수입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기술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만 하기에는(공급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일본에도 이제 팔 생각하고 카탈로 그까지도 만들어냈죠.

2011년부터 수출을 생각하셨다는 건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기계 전시회를 나간 것도 수출을 염두에 뒀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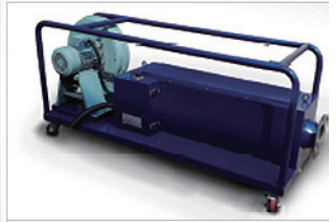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물공장에다



Post Mixer



Fast Loops Line



Mold Heater System

태진기연의 생산품 Sand Mixer System mobilb mixer

발주를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계들을 잘 쓰는데 자기네 러시아 쪽에서는 기계가 자꾸 고장난다고 하면서 30년 전에 설비를 놔서(설치) 새로운 설비를 좀 검토하는 중이라 참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참여하게 된 거죠.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수출은 중국하고 러시아만 하고 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죠. 일단은 경제제재 하면서 모든 은행 거래가 중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

도 일단은 제약이 되고, 대신 견적 내달라는 요청은 자주 들어오죠. 그러나 실거래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물건 해주고 돈 받고 하는 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단지 이제 신용장 열어주고 우리가 बैं크 개런티 해주는 부분들이 좀 안 되고, TT⁵⁾로 해주는 거는 다 되더라고요. 물건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와 거래를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 어떤 장점을 보고 선택하셨나요?

정읍에 케스코라고 하는 주물공장이 있거든요. LS그룹하고 삼양사하고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합작한 걸로 알아요. 그 세 회사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케스코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대기업 재벌들만 들어가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에 신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하게 된 거죠. 또 한 군데는 아까 얘기한 우리와 기술 제휴한 일본 업체가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해서 자기네가 일부 기계를 대고, 우리가 기계 만들어서 집어넣고(공급) 해서 수출했고요. 또 일본의 도시바라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일부 기계는 영국에서 들어오고 일부는 우리가 조인트 해서 설비를 집어넣었죠.

중국이랑 거래를 시작한 게 케스코 할 때니깐 2008년쯤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2014년, 기계가 먼저 들어갔고 그 이후 전시회가 있다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해서 모스크바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죠.

해외 AS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5) Telegraphic Transfer, 은행 간 전신 송금, 국제 송금에서 널리 사용된다.

거기도 이제 AS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부품들은 우리가 공급만 해주고 있어요.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보내겠죠.

국내에도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는데, 먼저 비즈니스를 맺었던 국내 업체는 어디인가요?

유성기업이 먼저 시작했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노조가 아주 강성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거기에서(유성기업) 큰 프로젝트로 시작했죠. 지금은 아이템이 바뀌면서 좀 멀어졌어요.

파트너사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AS도 잘해주고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설비 산업이 얘기한 대로 써보고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지 소개시켜 주지 고장만 자꾸 나면 소개시켜 주겠어요? 소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중간에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영업도 하고 기계적으로 좀 안정돼야지.

거의 내수가 많은데 간혹 큰 프로젝트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죠. 2022년하고 2023년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설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경서동 공장도 얻게 됐죠. 설비를 수작업으로 하던 걸 로봇화시키는 과정이라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예산군하고 MOU를 맺으신 게 있던데요.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에서 진행하게 되셨는지요.

우리 거래처들이 경서동 쪽에 많이 있거든요. 경서동서부터 김포 쪽에

업체들도 있어요. 그 업체 중에서 22개 업체가 모여서 주물공장은 될 수 있으면 오지 못하게 각 시도에서 막으니까. 예산에 그 땅을 알아보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자 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충남도청하고 그 주민들 간에 소송이 걸리면서 표류가 돼버렸어요. 대법원까지 가니까 그때 한 7~8년 걸린 것 같아요. 처음 계약해서 시작하다가 소송 걸리고 나서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 받은 게 충남도청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업체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상황하고 달라져 경기도 안 좋고 하여 못 하겠다고 다 빠져나가 몇 개 업체만 남아 있어요. 우리도 땅만 사놓은 상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주물시장의 변화와 대응

주물도 소재가 계속 바뀌었죠?

원래 주물은 그래요. 산업화가 될수록 주물 생산량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주물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독일, 일본, 이태리 이렇게 쭉 순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주물 소비량이 한 세계 랭킹 8위 정도 돼요. 이태리나 프랑스 정도 수준하고 맞먹거든요. 주물이라는 게 원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철판에 그 모양대로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생물을 뽑아 가지고서 하는 게 원가가 더 싸게 먹히니 하는 건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지저분하고 먼지 많이 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선진국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다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 싸고 만들기 쉬운 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해오고 또 동남아시아

에서 해오고. 어려워서 안 되는 물건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하청을 따로 주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일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요.

하청도 해주는데, 지금은 일단 중국에서 들어온 거랑 우리나라에서 하면 단가가 안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청주고 싶어도 다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물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주문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도 하청을 많이 주죠. 우리 도면으로 해서 다 외주 줘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죠. 공장이 작으니까 5대 5정도 하청을 주고 있어요. 다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걸 하려면 가공도 해야 되고 열처리며 용접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규모만 커지니 실속이 없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외주 처리하는 게 더 싸죠.

기계산단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목표

기초 산업 분야가 어려워지면서 기계산업단지도 많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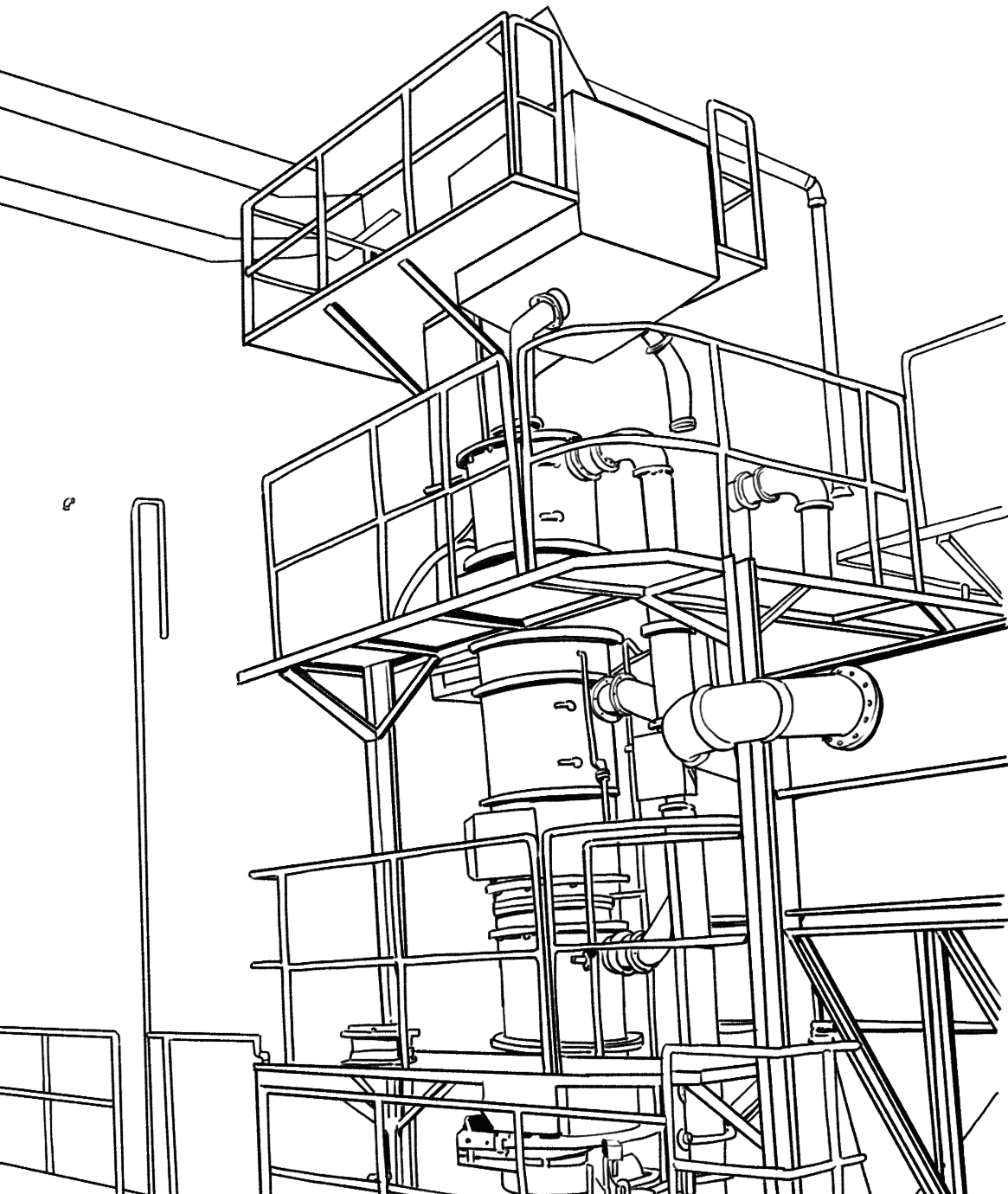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못 하는 곳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주물공장 가서 보시면 다 외국인들이예요. 근데 지금은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감들이 다 떨어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지저분한 데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회사들은 사람을 덜 쓰도록 자동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협력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주면서 때로는 개발하는 아이টে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들이 돈이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 설비 같은 경우 투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90% 지원해 주고 10%만 자부담 식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업을 계승한 기업으로 회사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 느껴요. 앞으로 계획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지금 주물공장 설비들이 소강상태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경영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명도는 있어요. 그렇다고 주물공장 설비가 아주 큰 시장은 아니고 틈새라고 보면 맞아요. 아무나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설비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규모가 크고 또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국내보다는 외국 쪽으로 발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태진기연

1976년 설립된 태진기연은 앞서가는 '기술력'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산업용 열식건조기, 금속주조 및 압연기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클라이언트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왔다.

설립연도 : 1976년

대 표 : 이재장

종업원수 : 22명

업 종 :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제조

주 생산품 : 산업용 열식건조기, 금속주조 및 압연기

홈페이지 : <http://www.taejinme.com/>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장고개로92번길 58



기업 연보

1976 대유공업사 설립

1978 (주)태진기연으로 상호 변경

1988 유망중소기업지정(한국과학기술원)

1996 집진기 핵심부품 일본메탈공업(주)에 최초 수출(ITEM 2종)

2000 집진기 특허취득

2002 ISO-9001인증

2005 벤처기업 등록

2010 FURANE MOLDING 자동조형라인 및 프로그램믹서 개발

2011 주물공장 악취방지 집진시설

2014 반자동 조형라인 제작

믹서기 100TON외 러시아 MESH STEEL SYSTEM 수출

2015 생형 사처리타워 제작, 설치

기계 분야

프레스 산업은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국일정공은 언제나 그랬듯 공부하는 강인덕 대표의 흔적이다.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데는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이라는 국일정공 강인덕 대표. 경제 흐름과 미래 산업에 대한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와 신기술 개발에 재원을 아끼지 않는 국일정공 강인덕 대표의 말씀!

“기업은 현금이예요. 현금은 피예요!”



기반 시설인 영원하다!





(주)국일정공 대표

강인덕(1957년생)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16세에 서울로 상경, 전공을 살려 무역회사 '한국정밀기계통상'을 설립하였다. 기계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프레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일찌감치 깨달아 1995년에 국일프레스를 인수하여 국일정공을 설립하였다. 기계 공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20년이 넘도록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치, 경제, 국방, 경영,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을 절차탁마의 자세로 공부하며 매주 나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면담일시 : 2024년 6월 27일 11시

면담, 원고정리 : 정지선

면담지원 : 허은영, 박인옥, 양지원

실향민 2세로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에 자리 잡기까지

어린 시절 지냈던 포천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 856번지에서 태어났어요. 16살까지 포천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의 주소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처음엔 주소가 포천군이었는데 행정구역 재편으로 양주군으로 바뀐 거예요. 양주군 탑동으로. 그다음 지자체가 출범하면서 동두천이 동두천시로 됐어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태어나서 양주로 주소가 바뀌었다가 동두천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초등학교는 선단리 지나서 포천으로 다녀야 했는데, 너무 머니까 동두천에 분교를 지어서 거기서 다녔어요. 그래도 행정은 다 포천으로 가서 모든 걸 다 봐야 했죠. 포천 가면 한나절이 지나갔어요. 의정부로 돌아가서 버스 타고 그리로 넘어가서 행정을 보고 그랬던 내용들이어서 불편함이 많았죠. 중학교까지 거기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어요. 어린 시절에 떠나와서 그런지 고향엔 그렇게 많이 안 갔죠.

아버지의 부재가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지난 일들을 판다 카면은 저희는 고향이 이북이에요. 아버님이 황해도고 어머니가 강원도였어요. 옛날엔 강원도도 이북이었습시다. 두 분이 다 이북 분, 이래가지고 남쪽에는 고향이 없죠.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48살에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 종손이 되었지요. 더구나 대한민국에 인척이 아무도 없어요. 두 분 다 이북에 두고 와서 인척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죠. 오죽하면은 ‘삼촌을 어떻게 해야 돼?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는 촌수는 어떻게 따지는 거지?’ 그럴 정도로.

제 나이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든 인생이 바뀌었죠. 선수 생활까지 했던 운동도 그만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려서 ‘나는 절대적으로 월급쟁이가 안 될 것이다.’라는 다짐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가 사업가가 되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엔 월급쟁이로 들어갔다가 빠른 나이에 독립했어요. 당시에 “망해도 나는 본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사업한다고 할 때 집에서 무지하게 반대를 했죠. 그땐 제가 회사에서 인 정도 많이 받을 시기였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까 어머니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집안의 가장인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집식구도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뭘 해도 내가 하겠다”라고. 사실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30대 들어가자마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행했으니까. 집식구한테도 “내가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우리 집식구는 돈 한 번도 안 벌어봤어요. 이날까지 살면서 내가 그 약속 지키느라고 무지 애썼어요. 다행히 운도 잘 맞아서 잘 됐지요.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92년도 당시에 1년에 한 10억 정도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 많이 벌었어요. 한 3년 정도 하면서 거의 한 40억 정도. 직장 생활하면 400만 원도 못 모았을 텐데.

남다른 준비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제가 30대가 되자마자 계획하고 공부했어요. 직장 다닐 때도 365일 중에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일 끝나고 나면 신설동 국립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고,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준비를 즐기치게 해오다가 92년도에 실행에 옮긴 거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게 뭐 돈을 준비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을 짰 거죠. ‘내가 어떤 품목을 하면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때 정한 품목이 잘 맞아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어떤 종류의 사업이었는지요?

서울에 ‘한국정밀기계통상’¹⁾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했어요.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기계를 받아다가 판매를 하는 사업이었어요. SK라든

1) 1993년 5월 11일에 설립. 대표는 강인덕, 사업장 주소는 인천 남구, 업종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현재 폐업 상태

가 대우중공업이라든가 여기 국일프레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모든 기계를 저희가 국내에 판매하고 수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였는데 바로 ‘신뢰’였어요. 저는 신용을 지키기 힘든 시기였어도 무조건 신용을 지켰어요. 일단 벌면은 몽땅 다 현금을 주고 샀어요. 제가 뭐 담보가 있었겠어요? 집도 남들이 인정도 안해주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현금 시스템으로 돌렸어요. 대기업에서도 현금을 주니까 물건을 바로 줬던 거죠. 사실 현금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걸 알기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나 그걸 많이 연구했고, 결국 그걸 성공했기에 대기업에서 더 많이 밀어준 것예요. ‘여기는 주면 현금이다.’ 이런 걸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돈을 번 것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인수하게 된 거죠.

(주)국일프레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3년 정도 ‘한국정밀기계통상’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95년도에 (주)국일프레스를 인수했어요. 그때가 37세 때인데 좀 빠른 나이에 인수했어요. 원래 공장은 옆에 땅에 있었는데 건물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사서 2001년도 10월에 준공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지은 공장이지요.

국일정공의 전신인 (주)국일프레스를 인수하게 된 이유

(주)국일 프레스는 어떤 회사였나요?

국일프레스²⁾는 원래가 1954년도에 창업된 회사입니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1954년도에 프레스³⁾를 만들었으니까 70년 정도 됐죠. 처음에 서울에서 만들어서 그다음 원효로, 그 후에 인천 제일제당⁴⁾ 뒤쪽으로 이전해 왔어요. 여기는 원래 인천 주물⁵⁾공장이었어요. 사실상 3공장. 본사는 독산동에 있었는데 목돈 들여서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한 7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런 회사죠. 프레스 기계 제조회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죠.



국일프레스 신문 광고(1979년 12월 29일 매일경제)

- 2) 1954년 설립. 1982년 국내 최초로 프레스 가공 작업 시 제품을 자동으로 이송시켜주는 로봇 자동 이송 장치를 개발하고, 1천 톤까지 가공할 수 있는 크랭크 리스프레스와 냉각 단축 프레스인 나클 조인트 프레스(Knuckle Joint Press)를 개발하는 등 첨단 프레스 생산업계에서 주목받는 제조업체, 현재 (주)국일정공으로 바뀜
- 3) 재료에 힘을 가해서 소성 변형시켜 굽힘·전단·단면수축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4) 1953년에 설립. 설탕과 조미료 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에서는 중구에 사료 공장을 설립하여 사료 생산 시작, 2007년에 사업 회사 'C.제일제당 주식회사' 출범, 현재 인천에서는 식품과 설탕, 농공시설 품목 생산
- 5) 용해된 금속을 주형(鑄型) 속에 넣고 응고시켜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 제품

국일프레스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국일정공’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95년도에 국일 프레스를 인수, 합병하면서 상호를 ‘국일’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하고 ‘프레스’를 ‘정공’으로 변경했어요. 품목은 프레스인데 상호만 국일정공으로 변경한 거죠. 정공은 정밀공작기계⁶⁾를 의미해요. 프레

스라는 단어가 익스프레스(이 샷짐 센터)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듣기에 좀 그래서 정공이라는 말로 바꾼 거죠. 그리고 원래 프레스기는 스테핑⁷⁾이라고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금형이 있고, 프레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니까 좀 더 다양한 기계와 다른 품목을 좀 더 뽑아야 되겠다 해서 정밀공작이라는 상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도 괄호치고 프레스를 써요.



(※)국일정공 현판

국일프레스를 인수한 이유가 있는지요?

프레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

6) 기계 자체가 높은 정확성을 가진 정밀한 부품들로 이루어져서 정밀 가공에 쓸 수 있는 공작 기계

7) 강한 힘으로 철판을 광 하고 찍어서 가공하는 방식

초 기반 산업이에요. 이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 역사에 따라서 없어지는 기계가 아니고 이거는 산업화에 따라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꼭 필요한 게 프레스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가전제품. 이게 다 프레스로 찍어내는
거예요. 세탁기, 컴퓨터 케이스를 찍어내는 게 프레스예요. 플라스틱은
사출기⁸⁾가 찍는 거고. 근데 플라스틱은 깨지죠? 쇠는 찌그러질망정 깨
지지 않아요. 철은 재생돼요. 녹여서 다시 만들죠. 근데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이 되고 재생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기계 산업에서 특히나 프레스는
없어서는 안 될 기계죠. 자동차 영원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모품
이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프레스로 찍
는 거예요.

프레스 기계는 제가 기업을 했을 때도 샀던 거고 여기서도 구입해 봤는
데, 공부하다 보니까 기초 기반 산업으로 프레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알
게 된 거죠. 자동차 가전, 선박, 컴퓨터 항공에 이르기까지 프레스 기계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시간 내에 끝나면서 모델이
변경될 게 아니고 기술 개발로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프레스는 생명력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뽕뽕 타입인 거죠.

해마다 프레스 생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안전장치가 2단, 3단, 4단으로
바뀐다고 하는 기술 개발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오는 거죠.
이런 것이 사전에 감지가 됐던 부분들이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인수에 달려들은 것이죠.

8) 실린더 속에서 가열하여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폐쇄된 거푸집 속에 밀어 넣고, 냉각하여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기계



PCS-Series ([C] Type Single Crank Press)



PCD ([C] Type Double Crank Press)



KSH (Semi H type Single Crank Press)



KDH (Semi H type Double Crank Press)

(주)국일정공에서 생산하는 프레스 기계



태국 (주)원천산업 프레스기계 납품 사진. 2015년. 국일정공 유투브

30여 년간 흔들림 없이 국일정공을 운영해 오다

국일정공 운영 초기에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회사를 일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10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어렸을 때 거의 회사에서 잤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퇴근을 안 했어요. 여기서 집이 7분 거리인데도 안 갔어요. 제가 우리 막냇동생을 데리고 있을 때, 개가 집에 가서 속옷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일하다 보면 뭐 새벽 1시, 2시 되면 그냥 회사 소파에서 자고 정말 그랬어요. 거의 한 5~6년 그렇게 했죠. 초창기에는 하루에 제가 1,000km도 뛰어 봤으니까. 운전 1,000km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알아요? 출발해서 대전에서 대구로 해서 부산 갔다가 저쪽 목포로 건너가면 돼요. 진해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올라오면 청주입니다. 그렇게도 하루에 다 뛰어 봤어요. 그래도 즐겁고 재밌었어요.

97년도에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어휴~ 안 좋았죠. 당시에 부도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막 줄줄이 터지는데 뭐 저라고 안 터져요? 제가 IMF 때 부도 맞은 것만 해도 한 25억 이상 받았죠. 그때 당시 유가증권⁹⁾이 다 휴짓조각이 되는데. 그건 아마 방송에도 한 번 나왔을 거예요. MBC에서 우리 회사 취재를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취재하면서 우리 회사 부도¹⁰⁾난 수표를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놀래요. 이려고 어떻게 회사가 살아남았냐고? 그만큼 준비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만큼. 터질 것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하는 사전에.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는 삼한사온이 와요. 옛날부터 쪽 경기를 살펴보면요, 삼한사온이 오고 있어요. 기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좋으면 3년 동안은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쪽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걸 대한민국이 근대화화 산업화가 63년도에 시작되면서 쪽 올라온 역사를 딱 들춰 보면 나와요. 언제 좋았고 언제 나쁘고.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국제 경제 위기를 같이 겪어요. 대한민국은 원부자재¹¹⁾가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살을 앓는 거죠. 미국에서 기침 한 번에 우리는 드러누워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보면서 항시 위험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적군이 나타난다고 총을 다 쏘버리면요. 나중에 정말 나타날 때 못 쏘잖아요. 그렇죠? 남겨놔야죠. 내가 쓸 만큼은

9)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

10)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11) 생산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자재. 기계유, 연료 따위

갖고 있어야지 상대편 장군이 나타날 때 쓸 총알도 남겨놔야겠죠.
기업한테 총알은 바로 현금이에요. 무조건 기업은 돈 없으면 죽습니다.
피 같은 게 돈이에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
업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죠.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가
는 거죠.

그럼 IMF 때 인원 감축이나 월급 삭감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셨는지요?

아니요. 저는 인원을 한 명도 안 줄였어요. 월급도 한 번도 안 깎아봤어요.
당시에 직원들이 “나라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월급을 반납하겠다.” 말했
지만 제가 그때 “반납할 만큼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일 더 해라! 여러분이
100%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납하고 70% 80%를 유지할 거면 반
납이 아니다! 반납하지 말고 120% 발휘해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안 줄였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정에 100원 갖다주다가 80원 갖다주면 기
분 나쁘잖아요. 집안 살림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100원 갖다주
고 일 조금 더 하면 “아유~ 당신 고생했네. 내가 당신 고기라도 한번 사줄
게.” 이렇게 되죠. 사전에 준비하고 맞춰나가다 보니 저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¹²⁾가 일어났을 때나 IMF 시절 다 나름대로 잘 겪어왔어요. 자동차
가 왜 방어 운전해요? 나 혼자서 아무리 가도 사고 안 나는데, 탄 차가 와
서 들이박을 수 있으니까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속도를 빨리 낸다든가 늦
추든가 하는 거죠. 사전에 견제하고 가는 거죠. 기업 운영도 방어 운전하
는 거랑 똑같은 거죠.

12) 미국의 투자 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럼 당시에 사장님도 직원들과 같이 회사에 남아 일을 하셨겠네요?

그럼요. 저는 지금도 회사에서 밤 11시 전에는 안 나가요. 여기에 11시까지 있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11시나 12시까지 회사에 있어요. 집에 가면 뭐 해요? 일찍 가봐야 밥 먹고 TV 보고 과일이나 깎아달라고 하겠죠. 그건 먹충이죠.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계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군대 제대 후 지금까지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점심 저녁을 먹거든요. 근데 점심은 회사에서 먹어요. 저녁은 먹고 들어가요. 집에서 밥 먹는 게 한 달이면 한 두세 끼 정도. 그냥 그 시간을 회사에 다 보내고 퇴근합니다. 한 11시까지.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저는 직원이 없어도 돼요. 제 사무실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30년 치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직접 찾아요. 내가 2000년도에 뭐 했지? 그럼 2000년도 거 보면 돼. 찾으면 나오니까 다. 1년 치가 다 나와요.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그럼 언제 무엇을 하면서 쉬시나요?

제가 취미가 따로 없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친구가 뭐가 있겠어요? 친구들이 저를 돌 같이 봐요. 저는 동창회에 가서 친구를 일 년에 딱 1번 만나요. 동창들 사이에서 저는 좀 독특하죠. 제가 사업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놀지를 몰라요. 오직 운동만 쫓아다니는 거죠.

가끔 시간이 나면 산에 가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어쩌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조용히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하죠. 산도 2개, 3개 타는 게 생각하면서 타는 거예요. 건강도 생각해서 산

에 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지 않고 혼자서 타고 돌아와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저런 생각들을 메모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토요일에 일어나 가지고 청량산, 문학산, 월미산 이렇게 세 군데 산을 돌고 회사로 들어와요.

직원 복지의 꽃을 피운 회사 경영철학

허투루 소비되는 시간에 엄격하신 것 같은데 하루를 보내는 대표님만의 철칙이 있는지요?

저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움직여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시간이 모자라요. 아침에 5시부터 눈 뜨기 시작하면 저녁 12시까지 시간관념을 2시간으로 잘라요. 2시간 넘는 건 잘 안 해요. 2시간 단위로 잘라서 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다른 걸 해야 해요.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골프 치러 간다 하면 6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오고 가고 라운딩하고. 그럼 2시간 법칙 이걸 못 해요. 6시간을 거기다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정말 이거는 아주아주 시간을 잘 내서 쪼개서 가면 가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주말에만 조금 시간을 내죠.

그럼 운동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회사 내에 체육관을 세우신 건가요?

예. 맞아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좋아하는 직원들도 쓰라고 체육관을 지어놓은 거예요. 2002년부터 열어 봤으니까 올해가 22년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만 사용하게끔 하지 않고 지역 주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혼자 쓰기 아깝잖아요. 여기서 시



국일정공 체육관 외관



체육관 내부 모습

합이나 체육 관련 행사가 많이 진행됐어요. 국일정공 실업 농구팀¹³⁾도 운영해서 실업팀 농구대회도 하고.

그리고 족구장도 2개 만들어서 점심시간이면 족구하고 배구하고 리그를 하는 거예요. 월말 되면 우수 부서에다 시상해서 회식하게 만들어주고 그랬죠. 요즘은 주말에 초등학교생인 손녀딸이 와서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요.

13) 2003년에 창단된 인천지역 유일 여자 실업 농구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획득을 끝으로 해체

체육관 외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는 우리 회사 여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 하게 해요. 여직원들 커피 심부름, 청소 이런 거 전혀 못 시켜요. 저부터도 안 시켜요. 여직원들 출근해서 아침 커피 타고 청소해주는 문화를 싹 없애버렸어요. 라디오 방송 제목처럼 요즘은 여성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직원 수가 예전보다 줄어든 이유가 OEM¹⁴⁾이 늘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저희가 다 생산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부품을 받아서 조립만 해요. 예전 직원들이 나가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도와주죠. 그들이 생산한 부품을 OEM으로 사서 오는 방식이에요. 그거야말로 직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기 근속자들이 많은가요?

다 오래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장기 근속자들이예요. 보통 20년, 30년. 다 공신들이죠. 제가 좀 못 돼서, 예전에 잘못된 직원한테 주먹도 날려봤어요. 당시 직원 중 한 명이 월급 받아서 술 먹고는 집에는 쥐꼬리만큼만 가져다줬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줘도 보너스 안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직원 부인을 오시라고 해서, 부인 앞에서 때렸지요. 부인이 놀라더라니까! 그때 제가 부인한테 월급 통장을 직접 주고는 남편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회사 직원 부인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다가 자칫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직원

14)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들이 장기 근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도 챙기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더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는 1박 2일로 야유회도 가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는 조금 특수한 회사라 가지고요. 제가 인수하기 전에 회사는 군 체제였어요. 우리 총무부장도 윈스타 출신이었어요. 별 하나. 국일프레스 당시에 아침에 구보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공단을 다 돌았어요.

제가 인수해서는 산정호수에 가서 극기 훈련도 했어요. 산정호수에 직원들 데리고 다녀오면 목이 다 쉬어서 오고, 얼굴은 시커멓게 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부인들이 남편들을 보면서 1박 2일을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오는지 궁금해하고 그랬어요. 제가 훈련 3년 차가 됐을 때 됐을 때 가족들을 동반해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새벽 6시 일어나서 옷통을 벗기고 뺏기고, 산꼭대기까지 뺏기고 올라가는 거. 마치 어디서 군대가 온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서 그다음 뭐하나면 단체 축구! 볼 한 세 개 집어넣어 놓고 양쪽 갈라가지고 골대에 집어넣고, 바로 전투 축구죠. 볼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볼, 저 볼 차는 시합인 거죠. 그리고 또 옷통 벗고 내려와서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해요. 근데 음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자동차를 갖다 대고 문짝 4개를 다 따요. 그리고 거기다 카세트! 그거 틀어놓고 춤추고, 아~ 잘 놀아요. 술 안 먹어도. 술 안 먹어도 아주 그런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닿는 곳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이사장님께서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요?

제가 술담배를 안 합니다. 담배는 여지껏 퍼본 적이 없어요. 피다 끓는 게 아니고 안 배웠습니다. 술도 제가 안 배웠어요. 피치 못하다 그러면 한 잔 정도나 먹을까 했는데 1년 내내 한 잔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좀 고집스럽게 살아왔죠. 그래서 술 담배로 인한 몸의 망가짐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으로 상당히 다지죠. 제가 구기 종목은 못 하는 운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족구 이 정도는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냥 선수로 뭘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활동한 지 올해로 28년 됐습니다.



3층 직원 식당

전국농구연합회 회장을 제가 16년 정도 했고, 경기도 체육회에서 부회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인천 내려와서 인천농구협회장, 인천체육회 상임부회장, 회장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프로축구 대표를 했어요. 스포츠 쪽으로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축 쳐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책도 좀 보고 그래요. 술 안 먹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제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자는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자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몸에 배 있다 보니까 뭐 피곤하다든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는 넘쳐요. 젊은 사람보다.

내면의 에너지가 남다르는데,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술 안 먹는 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술 대신 커피 마시면서도 진실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3층 직원 식당에서 수요일 포럼을 해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제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132회째 진행하고 있어요. 외부 강사는 안 부르고 거의 제가 혼자 진행합니다. 지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와서 듣는데 132회 중 120회는 거의 제가 강의했어요. 동행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메인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줄여서 ‘아세사’인데 국가하고 동행하겠다는 의미의 포럼이죠.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해요. 거의 3년 다 돼가죠. 지난번 100회째는 무지하게 많이 모였죠. 우리 체육관에서 했는데 100회 기념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려왔어요. 정책 강연도 해주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해주죠.

매주 포럼도 진행하고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역할도 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국일정공을 이어갈 후계자를 양성하고 계신지요?

아니요. 후계자 없어요. 저는 계집애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딸 둘. 그런데 그 두 딸이 저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라고 그랬는데 젊은 애들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 일에 관심이 생기더라도 여자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경영인이 있다고 하면 전문경영인한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내 식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 국일정공도 제가 인수받았잖아요. 2세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 카면 일할 수 있게 해야죠. 저는 저 혼자 이걸 해서 내가 다 끝까지 마무리해서 내 핏줄에게 이어준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은퇴를 생각할 연배가 되신 것 같은데, 은퇴 후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은퇴? 저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녀본 곳이 없어요. 옛날에 속리산에 갔었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캠핑카 하나 사서 저 혼자서 하루에 두, 세 군데 다니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캠핑카에 있으면 좋거든요. 저는 정말 캠핑카 하나 사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회사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커서 다른 분들이 안 놔주실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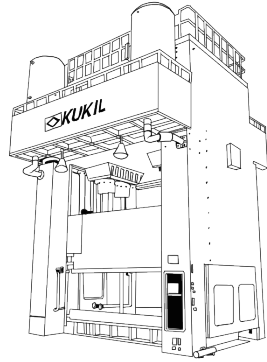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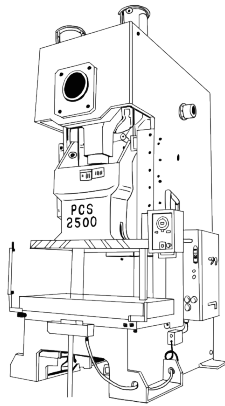
제가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자문도 해줘야죠. 땅속에 묻히면 끝이니까 제가 가진 거 다 주고 가야죠. 무조건 주고 가야

됩니다. 뭐든지 주고 가야 후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일체육관에서 농구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인덕 대표





국일정공 정문을 지키고 있는 '국일이'를 쓰다듬고 있는 강인덕 대표





(주)국일정공

1954년에 창업된 (주)국일프레스를 인수하여 1995년에 새로운 법인 (주)국일정공으로 출발하였다. 70여 년간 한국 프레스 산업의 발전과 영광을 함께 해 온 국일정공은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 우선이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프레스 제작만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설립연도 : 1995년

대 표 : 강인덕

종업원수 : 45명

업 종 : 기계, 기계설비

주 생산품 : 프레스 기계, 자동화 기계 제조

홈페이지 : <http://www.kip-press.com>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343번길 73



기업 연보

1954년 국일프레스 설립

1994년 (주)국일프레스 기술-기계설비, 설계설비 인수 추진
(주)국일정공 법인설립 추진

1995년 (주)국일정공 법인설립(자본금 1억)

(주)국일프레스 인수 완료

1995년 C형 에어 클러치 브레이크 타입 프레스
개발(PCA-series)

너클조인트 프레스 개발(냉간단조 전용기 : KJP-series)

자동 후렉스 프레스 개발(열간단조 전용기 ; AFU-series)

1996년 C형 더블 크랭크 프레스 개발(PCD-series)

트랜스퍼 로봇트 개발(TRO-series)

고속 자동 프레스 개발(ASD-series)

영남지사 개설(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2동)

1997년 크랭크레스 프레스 개발(CLP-series)

1998년 자본 증자 3억(자본금 4억)

1999년 결식 학생 돕기 교육부 유공자 표창(교육부 장관)

2000년 ISO 9001:1994 인증 획득

호남지사 개설(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2001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한미은행 로얄 비즈니스 클럽)

2002년 국민생활 체육진흥 표창장(문화 공보부 장관)

2003년 국일 여자실업농구팀 창단

ISO 9001:2000 인증 획득

2003년 싱글 크랭크 프레스 신기술 개발(PCS-series)

C형 더블 크랭크 프레스 신기술 개발(PCD-series)

SEMI형 더블 크랭크 프레스 개발(KDH-series)

2004년 SEMI C형 싱글 프랭크 프레스(KSH) 개발

2005년 중소기업경영대상 수상

2006년 고성능 습식 클러치 개발

2007년 디지털 전자제어장치 개발

2010년 KCS 품질 인증 획득

2013년 SEMI H형 더블 너클 프레스(KDKP) 개발

최초에서 세계를

고무대야 금형은 아버님이 원조세요.
고무대야에 대한 모든 기계 금형 압출기는
세계에서 제가 넘버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부심이죠.



최고로

누비다





영일산업기계 대표

박태석 (1966년생)

창업주인 부친의 뒤를 이어 2대째 고무대야 금형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침체 대안으로 무역업을 준비하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10월 7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조연희

면담지원 : 허은영, 양지원

전국 최초 고무대야 금형을 시작하다

처음 공장은 영일철공소로 송림동(인천 동구 송림2동 56번지 3통 1번)에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었는데, 1층에서 공장을 하고 2층은 살림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공장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5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저희 할아버지께서 황해도에서 내려와 대전에 계시다가 인천으로 오셔서 다시 황해도로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길이 막히니까 인천에 정착하게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다른 회사에 다니다 나와서 조그맣게 공장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이 큰 형이 잘 되면 동생들도 잘 된다 하셨거든요. 아버님, 작은아버님 두 분 이렇게 형제분들끼리 일을 시작한 거죠.

공장 설립일을 기억하시나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70년 전후 될 거예요. 그때는 경운기 부속들 가공해서 납품하는 것도 있었고 고무대야 기계 압출기는 그때도 하셨고요. 고무대야 금형은 아버님이 원조세요.

고무대야에 대한 모든 기계 금형 압출기는 세계에서 제가 넘버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부심이죠. 아프리카에 100% 제가 수출하고 있고요. 남미도 거의 제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를 보고 로컬에서 만드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어렸을 때 공장 운영하는 아버님과 추억이 있는지요? 그 당시 아버지와 에피소드나 회사 관련해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인천에서는 원재료를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따라서 지하철 타고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내려오고 했어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박스로 사는 게 아니고 몇 가닥씩 조금씩 샀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5학년이었는데 샘플을 가지고 자전거 타고 송의동에 가서 사다 드리기도 했어요.

지금도 기억 나는 게 공장 앞에 전라도 광주나 전주, 군산 이런 데서 오셔서 가지고 일 좀 해달라고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그때도 고무대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주무시면서 내 일 먼저 해달라고 며칠씩 기다리셨어요.

빨간 고무대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아버지가 아시겠죠. 아버지가 처음에 하셨으니까. 근데 고무대야는 예전에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안 했잖아요. 요즘에는 재활용 비닐, 나

일론이 많이 나오니까 폐비닐을 세척해서 압출기에 넣어 녹이면 밀가루
떡처럼 나와요. 그거를 다시 로라에다 밀어서 팽팡하게 펼쳐 다시 프레스에
이제 금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씌운 다음에 프레스를
작동한 후 제품이 나와요. 저희는 금형과 기계만 만들어요.
근데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제가 생산 공장을 했었어요. 현지 나이지리아에서
잠깐 하다가 레바논 애들한테 다 매각하고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기계 판매하는 것만 해요.



공장 선반에 진열된 고무대야 샘플

기계를 최초로 만들어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일화 좀 들려주세요.

그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손님들이 와서 며칠씩 기다려서 내 거
먼저 해달라며 긴 줄을 서서 기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때는 종업원이
꽤 많았죠. 그때는 인건비도 싸서 종업원이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밤새워 일하셨어요. 지금은 저까지 7명이 있죠. 작년 11월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동생을 좀 불렀어요. 동생이 도면이랑 외주 가공하는 거를 담당하고 현장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기술을 좀 배워야 하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아버지 또 일하는 직원은 워낙 베테랑인 기술자로 현장에 계속 계시죠. 우리 딸내미는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를 하고, 남은 한 친구는 20살에 와서 지금 55살이 됐으니깐, 35년을 있었네요. 작은아버지한테 선반을 배워서 그 친구가 베테랑이 됐어요. 작은아버지는 거의 50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82세까지 나오셨다가 제가 운전을 반강제적으로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깐 이제 공장에 안 나오시죠. 가끔 우리 아들 불려서 공장에 한번 가자 그러면 이제 모시러 가요.

무게가 나가는 기계들이라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외주를 얼마만큼 주고 계시나요?

외주를 예전에는 한 10% 정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0% 이상 주고 있어요. 가까운 데는 남동공단 또 시화공단 검단 또 먼 곳은 대전, 세종에 오더를 주고, 거기서 제작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조립하죠. 그분들도 이런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고무대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랑 좀 다르게 국내에서만 일하다 보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해외 시장을 IMF 지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은 안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 계속 해외 시장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일찍 해외에 눈을 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해외 일을 해 온 거고 그 사람들은 국내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일을 갖다가 많이 하시죠. 첫 번째는 일이 많아지니까 서로 같이 일해서 먹고사

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고무대야 계통에 베테랑이시니까 그분
들한테 맡기면 일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멀지만 맡긴 거죠.

수출을 시작하다

1998년도에 코트디브아르 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
전에도 수출은 했어요. 아버지가 멕시코에 중고 기계를 수출하셨거든요.
그걸 외국인들이 보고 한국에 가면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공장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계열사를 하려는 나라는 많은데 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미스터 박
이라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
소문해서 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로 모르는 친구들한테서 새벽에 연락



공장 한쪽에 쌓여있는 수출품

이 와요. 남미는 15시간 차이가 나고, 서아프리카는 9시간이 차이가 나요. 사실 저는 해주기 싫어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케파¹⁾는 작은 데 더 많은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능력 한도 내에서 해야 하나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도를 지키고 있어요.

아버님이 멕시코로 처음 수출한 건 몇 년도인가요?

80년대 초반. 그때 내수 시장이 더 좋았는데, 멕시코에 사는 교민들이 한국에서 고무대야를 사용하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깐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면 돈이 되겠다고 해서 한국에서 중고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새 기계를 가지고 가고, 그러나 금형도 다시 만들게 된 거예요.

멕시코 시티 고도가 한 2천 정도 돼요. 우리가 가면 고산병이 올 수도 있어요. 지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을 보관하기 위해 빗물도 받고, 물을 보관하는 용으로 대용량의 물건들을 많이 필요로 한 거죠.



해외 거래처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케파라고도 부르며 제조 현장에서 '생산능력'을 말함

2)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수도

근데 아프리카는 지대가 낮으니까 조그마한 대야를 많이 가지고 가요. 아비장²⁾은 강가에서 빨래만 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이제 물 나르는 용도로도 쓰이고 시장에서 과일 담은 통이라든지 곡식 담아서 먹는 통으로 쓰여요. 아프리카는 사실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전체 통계가 안 되다 보니 수요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어디로 팔리는지 저도 궁금해요.

해외 거래처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페비닐을 재활용해서 고무대야를 만드는 과정

한 군데랑 인연을 맺으면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멕시코 회사는 거래한 지 거의 30년 됐고요. 지금 거래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15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요. 작년에도 새로운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와서 풀 세트로 수출했어요.

영상보러가기





아프리카의 고무대야 제작 공장



고무대야를 제작하는 모습



영상보러가기

폐비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환경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녹이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환경에 신경 안 쓰고 생산해서 국민이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다는 식이었죠. 근래에 들어와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집진기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그래서 태우면서 안 좋은 물질은 집진기³⁾로 빨아들여 걸러서 내보내고 있죠.

3)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그러면 지금은 국내 시장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국내 시장 비중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수출할 때 음식물을 담지 말라고 써서 보내기도 해요. 음식물을 담지 말라고. 환경 이슈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장이 쇠퇴하는 거죠. 우리의 한 70년대 되는 나라에 수출하면 그 친구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멕시코에서 많이 배웠죠.

해외 영업 노하우가 상당한데요. 그 과정에서 겪었을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죽을 뻔도 했죠. 현지에서 오토바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친구들을 ‘오가다’라고 그러거든요. 나이지리아 공군 대령이 탄 차를 살짝 긁었어요. “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너 어떻게 해줄래?”,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 비싼 차를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대화가 오가더니 그 자리에서 싸서 죽였어요. 라고스⁴⁾ 시내에 ‘오가다’가 수천 개가 있거든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은행이고 가게고, 돌이랑 나무로 막 다 부수고 그랬어요. 현지에서 알게 된 친구가 “미스터 박 회사에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집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느지막한 시간에 집을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을 돌아서 한 20m 정도 남아 있는데, 폭도들이 짹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역주행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크랙션을 누르며 개네들이 내려왔어요. 겨우 들어오기는 했는데 뒤에 창문이 하나 깨졌더라고요.

4)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연합의 최대 도시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나이지리아가 총기 소지가 되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쿠데타는 말할 것도 없고 빵빵거리며 도망갔던 기억이 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모카커피가 왜 모카커피인 줄 아요? 아라비아반도 끝에 예멘이라는 나라 옆에 모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전에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됐어요. 이 커피가 모카항으로 와서 세계 각국으로 나갔거든요. 탄자니아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커피는 영국 왕실에서 먹어요. 모카항에서 수출하는 커피라고 해서 모카커피가 된 거예요. 하여튼 아프리카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2대째 가업을 잇다

기업을 이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결정했어요. 제가 군대를 25살에 갔는데 27살인가 여덟에 제대했어요. 그때 작은아버지들이랑 아버지랑 우리를 고생해서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하든 내가 하든 누군가 물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제가 물려받은 거죠.

제가 군대 갈 때 송림동하고 도화동을 같이하고 계셨어요. 송림동 공장이 좁은데 기계들이 자꾸 커지니까 도화동에서도 공장을 한 거죠. 1985년도부터 2014년까지 있었어요. 도화동 자리는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기계 완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기계 쪽으로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전 화학 전공했어요. 저는 사실 ROTC 장교를 하려고 했는데 부

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는 장교로 조금 잘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유 너 극장에 간판장이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 하고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를 늦게 간 것도 사실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깐 군대를 갔죠. 미술은 지금도 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서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꼭 그려보고 싶어요. 나중에 여기서 은퇴하면 조그마한 집, 조용한 집 하나 시골에 가서 사든지 해서 거기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대표님도 가업을 잇고 계시는데요. 자녀분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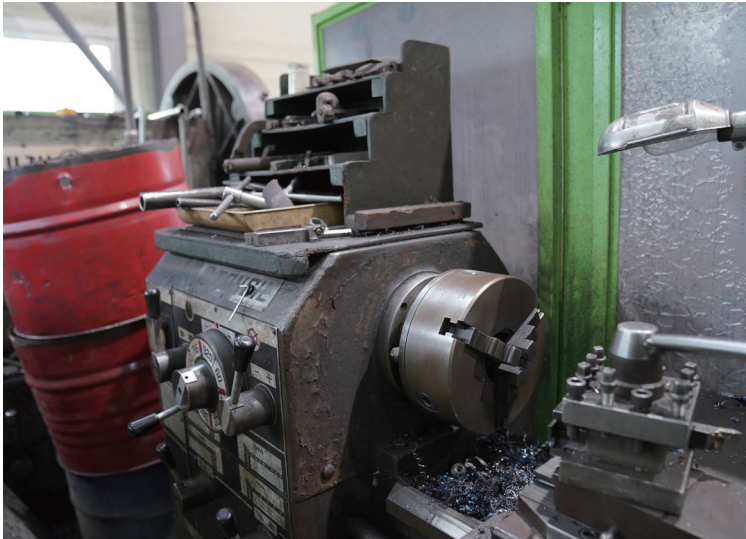
우리 아들이 여기 나와서 일을 한 지 3년이 됐어요. 그 친구도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제대하고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비전을 본 거죠. 지금은 현장에서 일을 처음부터 배우게끔 해놨어요. 거래처 소개해 주느라 아프리카는 한 번 갔다 왔어요. 호주 가서 언어 공부 좀 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죠.

할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저도 사업을 하고 우리 아들도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를 20년 넘게 다니면서 일궈놓은 네트워크를 제가 그만두면 사장⁵⁾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5) 사물 따위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지 않고 썩혀 둠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신 기계를 지금도 쓰고 계시는지요.

저기에 선반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73년도인가 74년도에 산 거
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30만 원인가 260만 원 주고 샀대
요. 그 당시에 송림동에 슬래브집 한 채 가격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다른
기계는 정리했는데 그 기계는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버지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유가 돼서 공장을 좀 넓힌
다고 하면 정문 옆에 아크릴판으로 해서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는 도화동 건물도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현장에서 일하
던 그 건물의 먼지 쌓인 녹슨 철문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때쯤 되면 기억하고 싶어서 짝 진열
하려고요.



아버님이 사용한 기계

쇠퇴하는 제조업의 현실

인천기계산단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014년 4월 30일에 왔으니 벌써 10년이 됐네요. 집이랑 제일 가깝잖아
요. 송림동 그리고 할머니가 105세인데 도화동 오거리 쪽에서 혼자 사세
요. 제일 주된 원인은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고,
작은아버지나 우리 직원들도 가좌동, 만수동에서 사니까 차량으로 30
분, 4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어서 여기가 제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사 올 때 밀링 하나 그리고 선반 세 대를 가져왔어요. 한 달 반 정도 이
사한 것 같아요. 규모에 비해 오래 걸렸죠. 저쪽에서 일하면서 하나 옮기
는 식으로 조금씩 옮겼어요.

일이 계속 있으니 멈출 수 없겠어요. 하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저는 5시 이후에 일을 또
시작해요. 그래서 한 7시 반이나 8시에 퇴근해요. 저녁 6시면 아프리카는
아침 9시라 업무 통화를 하거나 메일로 응대를 해줘요. 저녁을 먹고 운동
하고 다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또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시
간은 또 멕시코가 아침 시간이에요. 수면 시간은 보통 3~4시간. 너무 힘
들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잠을 못 자요.

지금 업무에 부담도 있어 확장하는 것을 꺼리시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조업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남동공단이나 시
화공단 다녀보면 일들이 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멈췄

짱아요. 예전에 비해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할 때 엔지니어도 없고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짐만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른 방향으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이제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기계산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와 다른가 봅시다.

많이 틀리죠.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불 켜져 있는 데가 많았어요. 늦게까지 혼자 업무하고 전화 받고 8시 정도 퇴근하면 불 켜져 있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캄캄해요. 그때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토요일에 일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캄캄해요. 그만큼 이제 제조업의 일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은 없는지요?

저는 없었어요. 물론 저도 부품이 수급이 안 되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수입되는 거 찾아서 사 오고 웬만하면 원자재를 미국산, 일본산, 유럽산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1년에 한두 번씩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주문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느라고 기계 주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금형부터 필요한 물건을 대량 주문해서 3년 동안 저는 더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어요.

정직한 만큼 돈을 번다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경영 철학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경영 철학이죠. 저는 남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싫어요. 정직하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저는 받으면 돼요. 중국산 가지고 만들어서 국산이다. 이런 거는 싫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상인이 됐어요. 저한테 다 구해 달래요. 저는 기계를 수출해야 하는데 “호수 구해 달라, 무슨 드릴 구해 달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매일 체크해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도 두 번 확인했어요. 한 번 보고 또 나가서 일하다가 또 한 번 보고, 그 수량을 맨날 체크하고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수량 적은 메모) 계속 보면 그게 머릿속에 박혀요.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적어놓은 거를 그냥 할 일 없으면 봐라. 그냥 쉬는 날도 나와서 보고 그냥 계속 봐라. 그냥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계속 봐라.”

인근 업체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제가 낮을 좀 가려요. 친해지면 터놓고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처음 사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요 앞에 있는 공장에서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나 뵙다가 자기네 못 쓰는 사출기 금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외국에다가 팔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오세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후세대에 물려줘야

사실 미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MZ세대라고 하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기름을 만진다, 손톱 사이에 기름때가 낀다. 험한 일 전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것도 큰 회사만 해당이 되고 작은 회사는 해당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세네갈 감비아쪽에 데리고 올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어요. 힘도 좋고 일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는데 개인적으로는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태예요. 기계 업종은 50대 초중반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사람이 없어요. 30~40대가 메꿔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업을 해서 괜찮지만 일반적인 회사들은 마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영일산업기계만 보더라도 직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는 인력은 더 구할 수도 없고요. 구할 생각도 없고 그냥 다 외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외주해서 받아다가 마무리만 해서 수출 나가는 거로 하고 무역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 시장은 진짜 커요. 금도 웬만한 아이템 가지고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 먹고 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30년, 50년은 있어요. 제조업은 답이 없어요.

저 나름대로 남미 시장이나 아프리카 시장을 알고 있으니까 대처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시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가 본 적도 없

고 산단에서만 납품하셨으니까요.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아이템을 받아서 일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새로운 아이টে을 해서 넘겨줘야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 보다는 내가 경험이 더 많잖아요. 더 많은 걸 봤고 내가 본 것 중에서 좋은 아이টে을 넘겨주면 우리 아들은 그걸 보고 한 스텝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세상은 넓다, 부딪혀보라

혹시 아드님이 일하면서 어렵다거나 힘들다는 얘기 하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우리 아들도 힘들다고 느끼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비전이라도 있죠. MZ세대 그 친구들은 진짜 오기 싫을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아들이 이거 안 했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대하고 와서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 말하면서 이 신발을 사서 왔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저도 사실은 55세에 은퇴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러한 바람에 가르치느라 계속하고 있어요. 아들이 물려받는다고 안 했으면 접고 무역업만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예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난 진짜 젊은 친구들한테 “아프리카가 됐든, 유럽이 됐든, 동유럽이 됐든, 선진국이 됐든 한번 가서 부딪혀보고 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넓은 데 가서 한번 찾아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도전하기를!



영일산업기계

송림동에서 영일철공소로 시작해 2014년 인천기계산단에 입주한 기업으로
2대째 고무대야 만드는 금속 성형기계를 제조하고 있다.

설립연도 : 1970년 전후

대 표 : 박태석

종업원수 : 7명

업 종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주 생산품 : 금형, 기계부속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261번길 63



기업 연보

1970년 영일철공소 설립, 송림동 일대

1980년대 남아메리카 멕시코 Dong Bu 수출
남아메리카 멕시코 PLACERO 주식회사 수출

1984년 영일철공소 도화동 이전

1996년 영일산업기계로 사명 변경
1999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GIG 주식회사 \$200,000 수출

2001년 유압패킹 개발

2003년 나이지리아 공장설립(라고스)

2006년 나이지리아 공장 폐업

2007년 말리 GICMA PLAST 수출

2008년 세네갈 TOP PLAST 수출

2010년 기니 TOP PLAST 수출

2014년 인천기계산업단지 내 입주

꿈이

생생한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녹록지 않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한 기업체의 수장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그의 관계지향의 성실함과 검박함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현실이 된

다큐 드라마





(주)인정테크 대표

안인수 (1963년생)

충북 태생으로 인천 인하대에 입학하면서 인천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꿈이 직장생활을 거쳐 CEO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가 되었다. 대표이지만 직원과 동료의식으로 함께 일하며 직원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 진정한 리더의 덕목을 갖춘 오너이다.

면담일시 : 2023년 11월 16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표기자

면담지원 : 이혜숙, 최지은

가족 소개 및 인천과의 인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63년생이고요. 고향은 충북 충주입니다. 82년도에 인하대학교 금속과로 입학하면서 인천하고 인연이 되었죠. 가족 관계는 일남일녀, 딸은 인천외고, 중앙대를 나와가지고 일본 무역회사에서 한 5년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와 있고요. 무역 업무를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 회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화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 기계자동화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저희 회사 온 지 한 5년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아빠 회사에서 일 안 하겠다더니 말년 휴가 때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아빠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했죠. 캐드, 캠, 설계 쪽으로 도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 회사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창업 전 직장 이야기

창업 전 직장에서 일하셨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88년도 부천 내동에 있는 대청금속¹⁾이라고 제가 금속과를 나오다 보니까 거기는 알루미늄 중력 주조하는 업체예요. 자동차 매니폴드 이런 금형주조를 하는 업체죠. 거기 근무할 당시 대우종합기계 협력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그 과장님이 대금지오웰(이후 대금이라 칭함)을 소개시켜 주셔서 대금에서 오랫동안 일했죠. 금속 쪽에 있던 사람이 기계 가공이라는 업체를 처음으로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일주일 만에 저를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대금에서는 사장님의 전공을 살리려고 채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을 보셨을까요? 이어서 대금에서 하셨던 일도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금속 쪽에 있을 때 제가 도면도 못 봤어요. 원가절감, 원가분석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기계 가공 쪽에는 전혀 몰랐으니까 면접 볼 때도 쉽게 보지는 않았죠. 왜냐면 내가 협력업체인 대우종합기계 직원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당신이 와서 뭘 할 수 있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했죠. 처음에 구매로 들어갔다가 한 5~6개월 됐는데 영업 쪽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당신이 두 가지 하시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영업사원이고 안에 들어오면 구매사원이고 그렇게 했었죠.

1) 현 대천테크. 경기 부천시 내동 222-38 소재

영업은 주로 신규 아이템 개발이나 신규 업체 개발 그리고 대우종합기계 쪽 유지 관리 이런 업무를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납품도 했습니다. 일하면서 업적이랄 수도 있는 거는, 대우종합기계보다 큰 업체는 개발한 건 없고. 관련된 협력업체 몇 군데 제가 했었는데 주종은 대우종합기계죠. 그리고 구매는 무슨 업무를 했냐면 원가 분석 또 경쟁력 있는 하청업체 개발, 주로 그런 업무였어요. 사실은 제가 대금에 들어가서 도면을 못 봤어요. 우리 대학교 때 4년 동안 알루미늄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알루미늄 소재를 폴리싱 해갖고 현미경으로 조직 보고 하는 실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친구들보다 오히려 실무 쪽으로는 훨씬 떨어졌어. 입사하고 유한공전 나온 친구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진짜 그 친구들은 많이 알더라구요. 그 친구들은 구조 설계도 가능하더라고. 우리는 주로 이론 쪽으로 공부만 하다가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이 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배워요. 도면 해독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구멍가게 주인 꿈이 기업체 오너가 되다

대금에서 퇴사하신 후 창업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저희가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도 아니고 어머니가 난전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소원이 제가 대학 가는 거였기 때문에 머리는 나쁜데 대학 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니마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업을 거의 포기했죠. 그런데 형, 누나가 어머니 소원이 너 대학 가는 거였는

데 포기하면 안 된다 해서 그 해 시험 보고 인하대를 가게 됐어요. 인하대 금속과를 왔는데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사장 한번 해보고 싶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해외여행을 한 번 하고 싶다. 대금에서 일을 많이 배웠죠. 원가 분석하는 방법, 영업하는 방법 신규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업체에서 한꺼번에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공정이 다르니까. 도금이라든지 연마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그 업체가 어디 어디 있고 단가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 공정을 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대금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영업하면서 그 대우종합기계 협력업체들 사람들하고 인맥을 많이 쌓았죠. 거기서 구매 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기계 사업부를 총괄하게 됐어요. 직원들 관리도 조금 해봤고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고민 고민 끝에 과감하게 나왔죠. 과감하게 나왔던 거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부동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나와서 뭘 해야 되는데 저는 도면을 볼 줄 알고, 원가 분석할 줄 알고, 견적 낼 줄 알고, 그런데 기계는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약속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대신 집사람은 “절대 집에 있는 돈은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기계 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걸 했는데 누가 나한테 물건을 줘요? 안 주죠.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승용차 화물차 방식도 판 적도 있어요. 그러던 중 대금에서 일할 때 알던 대우그룹 종합기계 구매 차장들이, “뭘 해?”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협력업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 그 대금에 있었던 안 부장 알지? 도와줘,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

마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한 업체가 처음으로 PIN을 30개씩 줘요. 세 가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기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제품을 아웃소싱을 해서 처음으로 내 사업자로 거래명세를 끊었었죠.

인정테크, 새로운 아이টে姆으로 승부하다

창업을 하고 생산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요. 그 아이টে姆으로 선정하시게 된 배경하고 거래 업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거의 13년 5개월 동안 대금 얼굴로 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대금 아이টে姆을 건드린다는 게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하는데 앞에서 짹짹거리는 게 싫다 보니 저만의 아이টে姆을 구상했죠. 찾아보니 다품종 소량은 누구든 싫어하잖아요. 그런 연유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자고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가 소개로 오카다아이언이라고 어태치먼트²⁾로 일본에 한 2위 정도 되는 업체예요. 거기에 샘플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샘플하고 AS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맨 처음 거래는 아까 얘기했던 핀 세 가지 줬다던 국내업체 ‘썬앤실드’였었고. 그러면서 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도 우리 주종은 오카다아이언 어태치먼트 부품이죠.

실상 오카다와 거래하기까지는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 샘플과 AS부

2) 기계. 기구의 몸체에 설치하여, 그 기계의 성능을 높이거나 몸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언 그분이 당신 공장 가보자. 근데 그 당시 제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력업체에다 부랴부랴 인 정테 크라고 간판을 바꿔 붙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카다아이언을 다이렉트로 하는 건 아니고 상사가 끼어 있습니다. 상사 사장하고 오카다아이언 직원하고 왔더라고. 20~30초 보셨을까요? 근데 들켰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샘플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니까 “그 사람 공장에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꾸준히 말기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공장에 직접 와 본다고 한 거죠. 근데 그 쪽에서 여태까지 기계 없이 자기 공장 없이 물건을 조달한 게 신기하다. 대신 앞으로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당신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랴부랴 남동공단에 30평짜리 임대 공장을 계약했죠. 계약을 하고 공장이 있으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NC 2대를 샀어요.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은행을 갔는데 업력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갖고 시작했는데 사정을 했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남동구청 가서 국내 업체 인증서를 받아오라 그래요. 구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신보에 제출했더니 신용장을 써줘 갖고 그때 기업은행에서 5천만 원을 더 받았죠. 그걸 가지고 중고 기계 하나하고 리스하고. 어쨌든 기계는 있는데 돌릴 사람은 없고 오더는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소재를 내가 사다가 가공업체에 주고 가공을 하면 열처리를 내가 하고 직접 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거의 바닥나고. 기계까지 리스하다 보니까 찢절했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금에 반장으로 있던 직원. 지금 우리 회사 공장장에 있다가 독립한 친구인데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너 월급 못 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에이 부장님은 그럴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CNC 2대를 책임지고. 근데 두 대 갖고 안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대로 아웃소싱 계속 했죠. 그러면서 기계가 한두 대씩 더 늘어난 거고 공장장 같은 그 직원은 혼자서 일하니까 너무 심심했던 거예요. 어느 날 “사장님 나 친구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친구?”, “라디오 하나 사주세요. 혼자서 너무 심심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라디오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재미있는 전통이 생긴 거죠.



공장 내 오디오

기계 산단에 입주하다

네, 한편의 다큐드라마네요. 그 후로 여기 기계산단에 들어오시게 된 배경 설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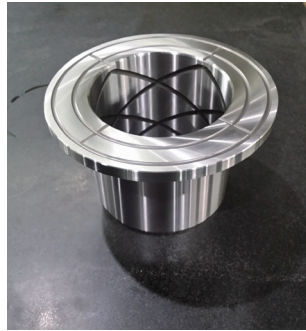
그 후 이곳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에 대금 사장님이, 미국의 상당히 큰 회사인 존디어라고 농기계회사가 있는데 대금에서 부취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편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존디어에서 우리 공장이 비좁고 정리가 안된 걸 보고 거래를 못했었죠. 그 후 다시 대금 사장님이 전화하셨어요. 한 1년 있다가 “다시 합시다. 근데 그전에 안 사장 공장 얻어. 넓고 깨끗한 데로 옮기시오.” 하셔서 공장을 큰 데로 얻어야 해서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나 좀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부동산 하나까. 그래서 남동공단에서부터 막 돌아댱겼어요. 사실은 산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집사람이 아는 부동산 업자를 만났어요. 우리 신랑인데 공장을 얻으러 다닌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인정테크 장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 공장이에요. 그래 여기 전세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매매 내놨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래갖고 기업은행에 갔더니 그나마 그동안 제가 실적이 좀 쌓여가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은행에 거의 계약이 결정이 됐다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되고 어렵게 됐는데, 그때 마침 국민은행에 다니는 후배가 “선배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국민은행으로 되었죠. 그 공장을 얻고 이제 대금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사장님 제가 공장을 얻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꿈도 못 꿰어요. 내가 요만한 공장이든 어떤 공장이든 어차피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겠지만 내 공장으로 만들어주신 게 대금 사장님이죠. 그분이 나보고 무리하게 큰 공장을 얻으라는 바람에 임대 얻으러 멩기다가 이거를 사게 된 거죠.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거래하시는 국내 협력업체는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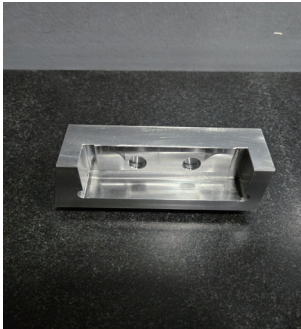
해외는 가장 큰 데가 오카다 일본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 금형 핀을 납품하는 데는 김코라는 업체가 있고. 많지는 않고 13군데에서 15군데 정도. 거기에 대금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종이 핀과 부쉬인데 지금 보시는 아이템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브레이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카타, 앤드, 플레이 여러 가지 유압 부품들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생산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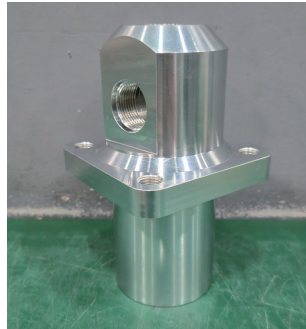
PIN



BUSH



CUTTER BASE



CONNECT

인정테크의 생산품

우연히 여기 기계 산단으로 이전을 하시게 됐잖아요. 수출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주변에 국가 수출공단인 부평이나 주안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전하게 될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가고 싶죠. 혜택이 굉장히 많죠. 우선 제가 이쪽을 좋아하는 게 직원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작년 말부터 더 넓은 공장을 알아보러 엄청 다녔어요. 다녔는데 갑자기 무지하게 올랐어요. 금리 6%, 7%예요. 그나마 기업은행에서 예쁘게 (봐줘갖고) 현재 제가 4%로 있거든요. 그게 작년 재작년 치면 두 배가 오른 거죠.

(인터뷰 중 오더 건으로 전화가 옴)

주문받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재고가 몇 개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되니 주문도 바로 받을 수 있죠.

기계산단에서 일하시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라든가 거래 업체가 가까운 데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또 업체 간 이동 거리가 짧으니 탄소 배출도 적고요. 열처리 업체, 연마업체와 외주가공업체 등이 다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하기 훨씬 편하고 고마운거죠.

기계산단은 대금에 입사하신 93년과 현재하고 비교해서 변화된 면이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금에 근무했을 때는 인력이 꽤 있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식당 이런 게 꽤 많았거든요. 회식을 하러 가든가 끼리끼리 모여서 술자리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쪽에 호프집이라든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복잡, 복잡한 게 좀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수작업으로 하던 공정들이 자동화시스템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죠. 퇴근 후 술 한잔이 낭만였었는데 월급봉투 가져가는 거, 그때가 더 가장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통장으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단 업체들이 약간씩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전문화가 많이 됐고.

위기가 발전의 기회가 되다

2005년에 창업을 하셨으면 미국 발 금융 사고 겪으셨을 것 같고 또 이어서 코로나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회사 상황이 어땠었고 또 위기였다면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덩치가 작았기 때문에 버텨올 수도 있어요. 저희도 몇 개월 고생을 했죠. 그 당시에는 직원이 한 6~7명 됐는데, 불안해할까 봐 일부러 정상 근무를 시켰어요. 진짜 재고 확보도 한계가 왔다 싶었을 때는 공장을 좀 깔끔하게 해보자 해서 일주일 내내 유리창 청소해 본 적도 있어요. 덩치가 컸다면 직원 감축도 해야 했을 텐데 규모가 작다 보니 그런 힘든 점은 없었던 거죠.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도 오히려 기회가 됐었죠. 지금처럼 공장을 확장

하게 된 게 쓰나미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부품이 개발되고 발주가 많아졌습니다. 일본이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죠.

코로나 때는 달라진 상황 없으셨나요?

큰 상관은 없었지만 매출이 조금 떨어졌죠. 저희 회사 장점은 임가공³⁾ 업체는 주로 소재라든지 모든 걸 사급⁴⁾을 받아요. 우리 회사는 작지만 도면만 주면 완제품으로 납품합니다.

공장 운영하면서 제가 사고관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단가를 제출할 것. 두 번째 납기. 세 번째 품질. 납기 준수율은 현재까지는 95프로 이상.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면서 공장에 재고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 물량은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물량인가요?

수주 생산이면 오더가 들어올 때마다 생산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미리 재고품을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긴급 발주 건이나 양산 발주에 대한 납기 준수를 위해 적정량의 재고를 비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부분 임가공),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서 하청, 하도급과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4) 사급(賜給)이란 건설·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모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모기업이나 협력사 간에 효율적 공급 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주 거래업체의 납품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운영 철학, '인정테크'의 가치는 여러분입니다

사장님의 회사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주 5일 근무제를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소기업체에 서 주 5일 근무를 예전부터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13년 됐을 거예요. 법적으로 한 건 얼마 안 되고. 그때 계도기간이었을 때 우리는 이미 시행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알고 이 주변에서도, 뭐야 이게 좋은 거야 뭐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업체들이 다 따라오고 있어요.

5일제는 사장님 아이디어였었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평균 연령대가 30이다 보니 그들의 워라밸에 맞춰주기 위해선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잘한 거 그거밖에 없네.

직원분들이 젊어요. 젊은 인재를 채용하게 된 배경과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요?

10년 되면은 최소한 일본 일주 여행을 보낼라 그래요. 저 친구들이 오래 있게 하는 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 너무 없어요. 제가 도화공고운영위원회 3년 동안 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확 보여요.

저는 도제학교⁵⁾하고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젊은 사

5)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현장교육과 심화 실습을 배우는 교육 방식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함과 동시에 NSC기반 자격부여,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제도.

람이 있으면 더 쓰고 싶은데 한계가 있죠. 내가 3명을 뽑고 싶다고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없어요. 저희 인원이 지금은 딱 정상화가 됐어요. 안정됐다 그러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고만두고, 고민하다 보면 또 채워지고. 젊은 친구가 있다면 내가 아이템을 어디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갔더니 최고 어린 기술자가 70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근사치 왔습니다. 내가 공부해 갖고 얻은 지식, 내가 땀 흘리고 몸으로 체득했던 지식, 이 아까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젊은 친구한테 물려주고 싶대요. 일본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답니다. 한국도 거의 그렇게 됐어요. 지금 남동공단 같은 데 가면 우리도 영세하지만 환경적으로 도금업체 열처리 업체 공장이 다 외국인이에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력난이 제조업체의 한계이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난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땅을 파도 자원이 없는 나라, 오로지 인력이잖아요. 인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 반도체 쪽이지만 제조업 쪽도 뭐가 인력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운영하시면서 창업 시부터 변함없이 가지고 가시는 운영 철학이라는
가치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학까지는 없고요. '인정테크의 가치는 여러분입니다'라고 제가 그 표
어를 창립할 때 붙였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주니까 우리가 먹고 사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우리 직원들하고 고객을 함축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안 보내
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지 그런 고민. 매출도 올리고 직원들한테 좀
노력을 할라 그래요. 그리고 나도 직원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본다든 걸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운영 철학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향이 직원들한테는 최고일 것 같아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사장님만의 그런 운영 마인드로 직원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창립 멤버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요, 퇴사하는 직원은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째는 인정테크가 싫은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욕심이 있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너무 괜찮은 친구가 있었는데 붙잡고 몇 번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장님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하고 쿠팡일을 하는데 그만둔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병역특례를 마치고 나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거의 없어요. 학교 지역운영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점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군대 안 가는 건 좋은데 공장이라는 데가 우선 위험하다, 더럽다,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공장 정리 정돈입니다. 우리가 공장 기계와 기계 사이가 좀 넓잖아요. 물건이 크니까 행동반경이 넓게 안전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저렇게 크게 했어요. ‘제발 다치지 마라.’ 그게 첫째고. ‘내가 하기 싫으면 상대방도 하기 싫다. 같이 가자.’ 내가 언제 생산성 따지냐, 오늘 안 만들어지면 내일은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좀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있죠.

사업체 승계에 대한 고민

앞에서 제조업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 면담 때 아드님이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장비 부품이 제조업의 기초 산업인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려면 아드님에게 승계하는 시점에서 사장님의 고민점이 뭘까요?

사실은 제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들이 옆에 있어 다행이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설비가 인력을 대체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냐, 그래요. 인정테크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기본에서 시작했던 인정테크 중장비 어태치먼트에 대한 색깔은 없어지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할 겁니다. 우리 세대보다 똑똑한 거 같아요.

기계산단 재생 사업에 관하여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요, 인천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기계산단이 선정됐어요. 주최 측인 인천시에서는 기계산단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반영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공정을 파악해 가지고 유기적인 단지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재, 열처리, 연마, 가공 이렇게 연관 분야끼리 집약해 있으면 효율적이죠. 두 번째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출고는 해야 되는데 차 댈 데는 없고 공간이 없어 애를 먹어요.

재생 사업으로는 인천시에서 해줘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단 내에 입주한 업체들끼리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재생 사업에 같이 합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갖고 기계 산단 그러면 소재, 연마, 가공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구상을 한다면 그 안에서 자급자족은 아니더라도 물류가 우선 가까워지잖아요. 거래 업체들이 가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동 시간이 짧고 환경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도 많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현재는 저희 공장이 좁아져서 이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부지를 더 확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까운 곳에 2공장을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2층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저희 주변 공장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2층을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가까운 곳에 한 600평이나 700평에서 좀 깔끔하게 해서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아까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카다아이언 모임이 있어서 많이 다녔어요. 독일의 바우마(BAUMA)⁶⁾ 전시회 또 세계 3대 전시회⁷⁾가 있잖아요. 인터메토(INTERMAT)⁸⁾, 코넥스코(CONEXPO-CON/AGG)⁹⁾, 근데 저는 바우마 갔다 왔어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국 업체들 영업이 해외 업체를 영업하는 것만큼 치열해요. 여기는 인맥, 혈연, 지연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물건이 좋아도 혈연, 지연, 학연이 없으면 너무 영업하기가 힘들어요. 다만 장점은 말이 통한다는 거, 거리가 가깝다는 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를 한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업체를 뚫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딸이 사실, 능력은 안 되더라도 그 녀석하고 전시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가서 부스 설치는 못 할지언정 “인정테크는 이러이러한 제품이 가능합니다. 당신네들이 그 작은 수량 갖고 고민하시는 거, 우리는 특성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작년에 디트로이트 중장비 전시회(SAE World Congress&Exhibition)가 있었어요. 거의 중국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물가에서 밀리고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독일 바우마 전시회 갔을 때 중국 굴삭기 포크레인 전시회는 너무 조잡하더라구요. 지금 엄청 따라왔어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반도체, IT 쪽에 투자도 좋지만 우리 같은 풀뿌리 제조업은 어떡하나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6) 바우마(BAUMA). 독일 뮌헨 바우마 건설 기계 및 장비 박람회

7) 맥락상 세계 3대 건설기계 박람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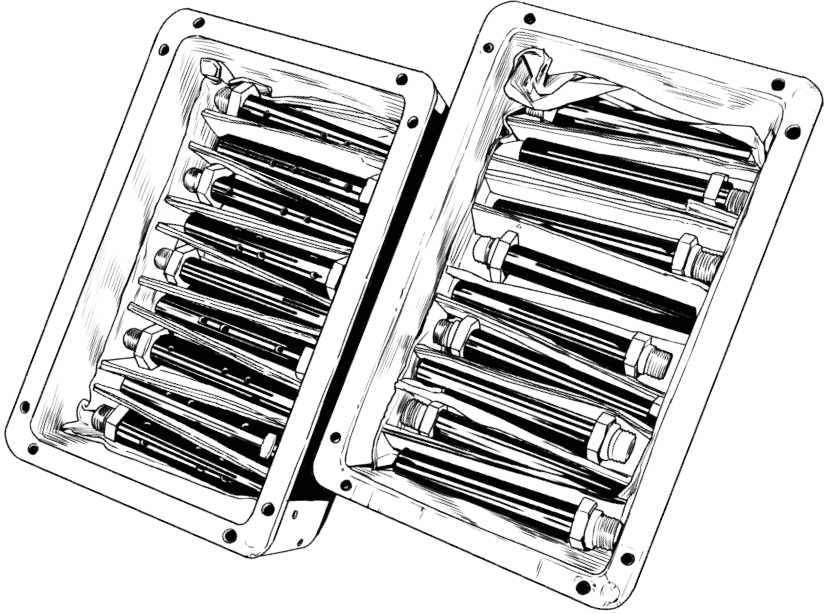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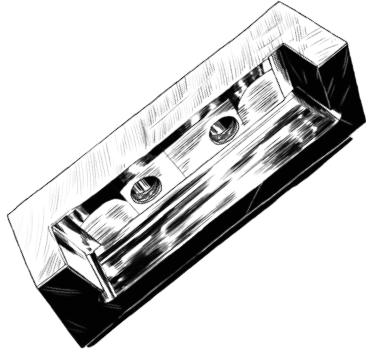
8) 인터메토(INTERMAT). 프랑스 파리 기계 박람회

9) 콘엑스포(CONEXPO-CON/AGG).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 건설기계 박람회

사장님 입장에서는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운영 쪽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을 산업 1세대로서 열심히 일해 오셨잖아요. 자연인으로서 노후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집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황창연 신부님이 나보다 어려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나이가 들면 자식 버릴 것. 두 번째, 부동산 버릴 것. 나이 들어갔고 부동산 해봐야 자식한테 가. 세 번째, 의지하는 거 버릴 것”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자기가 처음에 안 도와주고 돈 안 내줘갖고 너무 미안해 하는데, 나는 진짜 일하는 게 좋아요. 견적 내고 물건이 나가면 내 자식 나가는 것 같고 진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대금에서 배운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잘 성장해서 제2, 제3의 인정테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정테크

인정테크는 건설장비 부품 및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 등 부품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설립연도 : 2005년

대 표 : 안인수

종업원수 : 13명

업 종 : 제조업

주 생산품 : PIN. SHAFT. BOSS. BUSHING. CONNECCTION

소 재 지 :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01번길 55



기업 연보

2005년 인정테크 설립

2012년 기계산업단지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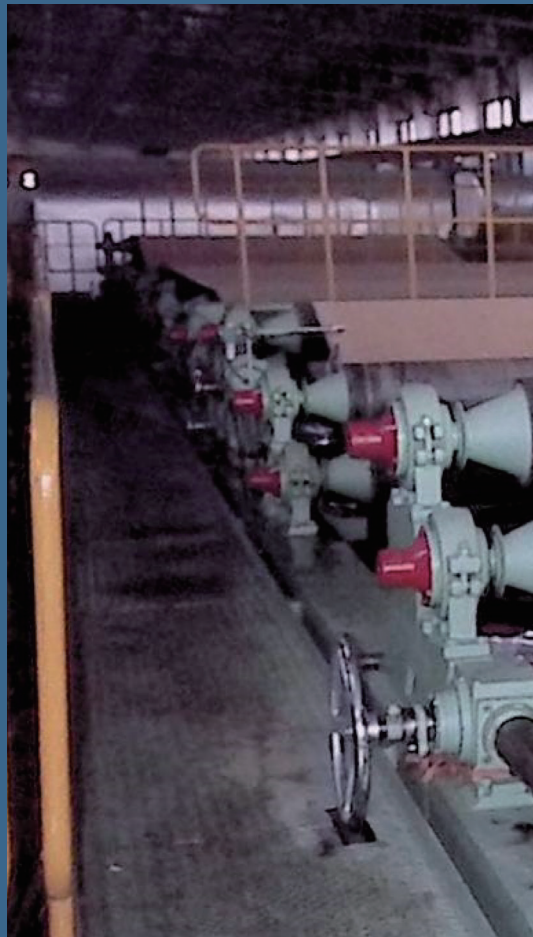
2015년 (주)인정테크로 법인 전환

2015년 도화기계공고와 산학연계 협약

제지기계

선두 주자가

1976년 설립된 해안기계는 제지기계를 제작, 해외 수출에 성공하며 제지업계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기업이다. 1981년 방글라데시 제지기계 설비 250만 불 수주는 흔치 않은 사례로 국내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인천기계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해안기계 기계부에서 일해온 김정일 전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조업체에서 되다





전) 해안기계 전무

故 김정일 (1946년 ~ 2024년)

해안기계 창업 멤버로 영업과 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1996년 해안기계를 인수하여 세광기계로 창업, 운영하였다.¹⁾

면담일시 : 2023년 8월 7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김용경

면담지원 : 박인옥, 양지원

1) 故 김정일 님은 기계산단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인터뷰에 응한 구술자 중 한 분으로 책 발간을 앞두고 11월 21일 작고하셨다.

해안기계의 창업과 발전과정

고향은 어디인가요?

인천 만석동 화수부두 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때 송현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지만 송림동에 있는 서림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송림동에 살고 계셨는데 당시 할아버지께서 택 근처 큰 기와집을 사주셔서 송림동으로 이사를 하며 서림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해안기계에 언제 입사하셨나요?

해안기계 입사는 1975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제지 회사에 입사해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앞으로는 월급쟁이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조그만 철공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인 인천으로 왔어요.

진주에서 올라온 것을 어찌 알았는지 (주)쌍용제지에서 같이 일했던 (주)화성제지 사장인 이영철 대표가 연락되어 해안기계 설립에 동참을 해서 이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지요.

해안기계 창업에 동참하여 창업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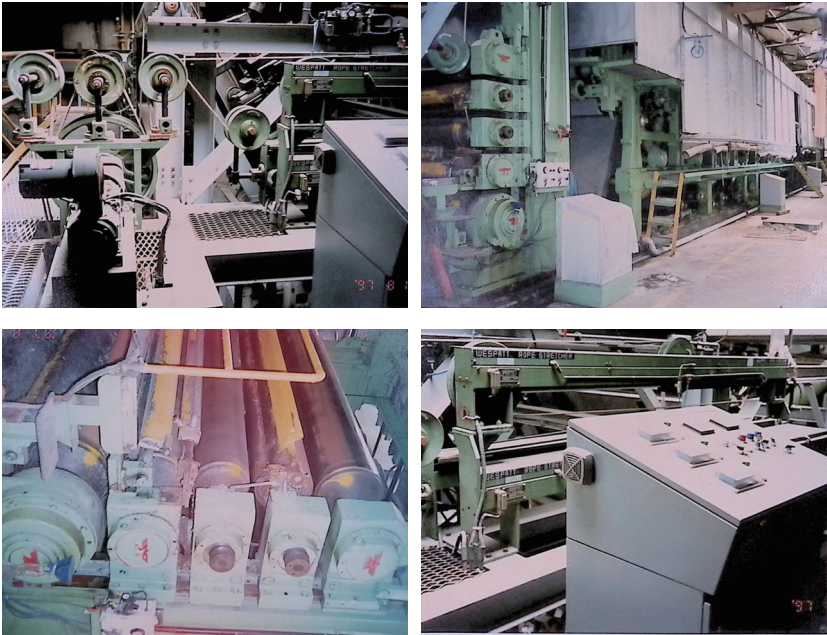
(주)화성제지 이영철 대표와 제가 쌍용제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안양에 있는 제지 회사를 다닐 때 이영철 대표가 화성제지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제지 기계를 만들어 납품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 확장을 할 때 저는 진주에 있는 제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생활을 접고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화성제지 이영철 대표가 나에게 연락이 되어 같이 만나 얘기 하면서 전에 만든 제지기계 1호기가 잘 되니 제지기계 2호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지기계 회사를 창업할 테니 저에게 발주를 주면 제가 만들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찾으러 다니다가 ‘해안정밀’이라는 19공탄 연탄을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그 회사의 김정민 대표가 사망하여 부인이 운영을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 회사를 정리하려고 매물로 내놓아 1차 협상을 하였는데 자금이 없어 협상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를 화성제지 이영철 대표에게 말을 했더니 이영철 대표가 도와줄 테니 해안정밀을 인수하자 해서 인수하게 되었고, 당시 대지가 1,456평인데 3천만 원에 거래를 협상했습니다.

이영철 대표가 친척 관계인 풍림산업 이필웅 부회장²⁾과 국방부 연구원

인 이필호 연구원과 한번 만나자 하기에 그러자 했습니다. 그 후 대림산업 부회장, 화성제지 이영철 사장하고, 국방부 연구원인 이필호 씨 등이렇게 셋이서 날 만나러 왔어요. 세 사람은 제게 동업을 제의를 하기에 돈이 없다 하니, 이필호 부회장은 제게 “월급은 얼마 주면 되겠냐?” 해서 “30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당시 30만 원은 일반 기술자 10명분의 월급입니다. 또 잠시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더니 “좋다. 그럼 화성제지 일은 완벽하게 끝내 달라.”고 해서 그러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해안기계에서 생산한 제지기계. 故 김정일 전무 제공

2) 풍림산업은 대림산업에서 독립해 설립한 기업. 이필호는 대림산업과 풍림산업 부사장, 사장을 역임함

그리고 며칠 후, 해안기계를 이필호 국방부 연구원이 인수를 하여 대표 이사로 취임을 하고, 제가 제의한 30만 원 월급받고³⁾ 운전기사 달린 새 승용차(당시 75년 포니)에 이사 직함 주면서 해안기계에서 계속해서 일해 달라고 했어요. 아마 저의 기계 만드는 실력을 인정한 것인지, 또 제 지공장 일한 인맥과 실력을 존중한 것인지 화성 제지 일이 끝났는데도 해안기계에서 영업을 하면서 함께 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여 기계부를 맡아 전국에 있는 제지 기계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기계 처음 창립하며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입사 당시에 13명으로 영세했지만, 나중에는 100명이 넘어갔어요. 재미 있는 일 중 하나는 초창기에 13명 봉급을 다 합쳐도 제 월급보다 적어서 세무 사찰이 나올 정도였지요.

감옥에 갇힐 뻔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펄프 공장 공장장을 할 때, 진주에서 하숙을 하었는데 진주 남강 변에 회사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정부 정책으로 벗짚으로 펄프를 만든다는 대학교수들이 모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벗짚을 잘게 썰어 가성소다를 넣고 삶아서 펄프를 만든다는 연구인데, 벗짚 한 트럭에 나오는 펄프 양이 요만큼 아주 적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표백을 위해 강력한 독성이 있는 석회석에다 넣어 표백제를 만들어 내는데, 어찌나 표백제 독성이 강한지 가스가 새서 그 일대 두꺼비들이 온 마당에 나와서 다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 중앙대 교수였던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3개월간 붙잡혀 있기도 했어요.

3) 75년 당시 선반공 월급이 2만 5천 원이었으므로 구술자가 받은 30만 원 월급은 12명분의 급여임

영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글라데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저를 찾아와 궤련지(卷煙紙)⁴⁾ 5톤짜리를 방글라데시와 수출협약을 했는데, 궤련지 제조를 도와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궤련지는 한국 조폐공사와 남한제지에서 만들었는데 1급 종이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였어요. 국내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했었지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필호 사장이 해안기계를 부도를 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대우에서 요청한 것 해 보자고 했어요. 그것은 1981년 방글라데시에 있는 담배 제조 공장 프로젝트로 턴키(turn key)⁵⁾로 250만 불짜리인데 당시에는 아주 큰 액수의 사업이었습니다.

1979년 대우와 계약을 했지요. 그때 돈으로 248만 불.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일을 한 것이죠. 그 후 궤련지 생산 기계를 만들기 위해 조폐공사도 수없이 가보고, 남한제지도 여러 번 가보았어요. 일본의 궤련지 생산 1위인 곳도 알아보니 200만 불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사이 기계 회사 전 설계부장을 만나 일당 5만 엔을 주고 영입해서 했는데, 남한제지와 같아서인지 1급 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스타트 엔지니어링 업계의 조언을 받으려고 제가 캐나다까지 찾아갔더니 20만 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캐나다 사람이 보낸 기계 설계 서류를 보니 기존과 다르게 새롭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4) 종이로 말려있는 담배에 쓰이는 종이

5) 발주자가 프로젝트의 완성까지의 계약을 설계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발주하는 프로젝트 운영 방법. 기획, 설계·시공, 보수까지를 종합적으로 청구한다.

회사에서 그 설계에 따라 샘플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호의적인 회사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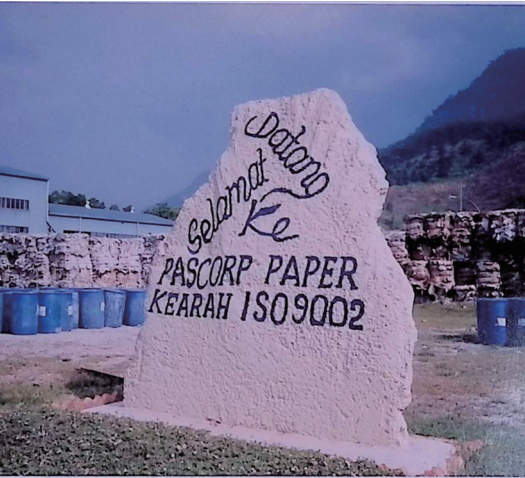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연락하여 주트(JUTE)⁶⁾를 보내라고 해서 인천항에 재료인 주트(JUTE)가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인천항이 발각 뒤집힌 거예요. 대마초 수입이라고 해서 안된다 하기에 회사에서 기계 만드는데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렵게 통관을 해서 들어온 주트(JUTE)를 캐나다 밴쿠버로 다시 보내서 기계 설계 완성된 것을 받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책임감 있게 샘플로 만든 종이를 보내주면서 표백되는 제지에 관한 모든 것을 표시해서 보내주었어요. 참으로 존경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돼요. 나중에 방문해 보니 캐나다 엔지니어 회사임에도 조그마한 제지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캐나다 회사 덕분에 일을 완성할 수 있었지요.

방글라데시에서 기계 설치하면서 에피소드는?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공장 기계를 설치했지만 시운전을 할 수 없어서 조폐공사 생산과정 하다 퇴직한 사람 4명을 스카웃해 시운전을 했어요. 방글라데시 사업으로 이때 환차 이익이 5억이 났고, 전체 이익이 10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남동공단에 3천 평의 땅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안기계 매출이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었지요.

시운전을 위해 파견된 4명이 오랫동안 있으려니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날 것 같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계를 우드박스 포장을 할 때 소주와 통조림 종류 등 부패되지 않을 음식들을 같이 넣어 포장을 하여 먹을 수

6) 황마(黃麻) 또는 황마에서 얻어지는 섬유. 거칠고 약함. 곡물(穀物) 자루 포장 천 등의 원료로 쓰임



말레이시아의 Pascorp Paper Industries 출장 사진. 故 김정일 전무 제공

있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4명이 먹으려고 보내온 것을 방글라데시 현지 직원과 운전기사, 청소부, 일반 직원들을 포함하니 10명 정도가 되어, 4명이 먹을 것을 10명이 나눠 먹으니 배가 고프다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썼어요. 방글라데시에 일본 사람이 하는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외국인은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지요. 그곳에 우리는 외국인이라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곳은 대사관 직원 불러 파티도 하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술을 먹었지요. 한국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 음식이라 우리 입맛에 맞아 자주 들러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시운전을 하고 한국에 온 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회사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었지요.

회사 사업확장은 순조로웠는지요?

이필호 사장은 서울대 금속과 나와 주물에 관심이 많아서 공장 안에 기계부와 주조부, 사업부를 늘려갔지요. 그러면서 키스톤 밸브⁷⁾의 업체에서 의뢰한 밸브디스크를 브론즈로 주조하라고 했지요. 100% 동으로 주조하면 100개 중 2개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량이 계속 나왔어요. 죽을 지경이었지요. 불량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그러다 용탕⁸⁾에 성공해서 재미가 붙었어요. 덕분에 재고를 전부 처리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저도 전무로 진급하여 회사에서 입지가 높아졌어요.

남동공단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동기는?

이필호 사장은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익도 생기고, 캐나다 프로젝트도 성공하여 이윤이 남게 되자, 주조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던 차에 남동공단에 3,000평 부지를 매입하여 주조부 공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저는 도화동 기계부에 남아 운영하였습니다. 이필호 사장이 남동공단으로 가고, 저는 이곳 도화동에서 기계 공장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도화동 공장을 나보고 인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화동 공장을 제가 인수하여 해안기계에서 (주)세광기계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기계를 인수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제가 해안기계를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제지’라고 있어요. 중앙

7) 1950년 키스톤은 현재 세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터플라이밸브를 독창적으로 개발한 선구자이다.

8) molten metal ,溶湯-주조에서 녹여 넣는 용융금속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탕이라 한다.



중양제지 군산공장 전경. 1988년. 故 김정일 전무 제공

제지에서도 저보고 인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양에 있던 중양제지가 군산에 공장을 하나 새로 건설하는데, 중양제지 대표가 말레이시아에 우리 기계를 수출하자고 해서 수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필호 사장이 저보고 해안기계를 인수하라고 하였지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그 기계가 1,400만 불짜리예요. 그래서 중양제지의 기계를 다 뜯어다가 우리 공장에다 갖다 댔어요. 공장이 딱 찻쪼. 해안기계를 33억에 인수하게 되었지요. 경기은행에서 30억 대출을 받았고 모자라는 3억은 동서의 도움으로 충당하여 겨우겨우 인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양제지의 말레이시아의 그것이 MOU만 체결한 채 L/C⁹⁾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중양제지의 돈줄인 이석길 부사장이 암으로 죽고, 그다음에 아들도 암으로 죽었어요. 덕분에 내 운명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들도 죽는 바람에 내 운명이 바뀐 거죠. 어떡하겠어요. 중양제지를 인수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9) 신용장은 영어로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무역 중 대금결제 과정에서 수입자가 개설 신청을 하면, 은행이 발행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규정에 일치하는 서류를 받으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의미합니다.

한국제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계를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10억에 계약을 했고, 영풍제지하고도 또 계약을 했고, 그래서 회사 형편이 점점 팽창아졌어요. 그때 세광기계는 잘 나갔어요. 제지회사들에게 기계 납품으로요.

그런데 이게 IMF가 오면서, 경기 은행이 탈이 난 거예요. 경기 은행에 내 잔고가 2억이나 있었는데, 제가 찾으러 가니까 경찰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 경기은행을 다 넘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은행이 미국의 한미은행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전부 스톱(stop) 되었잖아요. 은행 잔고도 못 찾지요. 융자도 더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줄이 모자라서 부도가 난 거죠. 세광 기계가 2010년에 부도가 난 거예요. 한 달 이자가 4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할 수 없이 부도가 났지요.

인천기계산단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만순 사장의 회사인 인천기계제작소가 인천역 가는 중간에 있었어요. 저는 이필호 사장과 함께 그분 공장도 가보고, 집도 가보고 그랬어요. 장만순 사장은 인천기계공업단지의 부지확보를 위해 주안염전을 인수해 공장(단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만순 사장이 인천 도심권에 산재한 중소기업형 기계 공장을 집단화하여 조성한 설립자지요. 장만순 사장이 기계공단을 조성한 사람이예요. 염전의 5~6천 평과 인천역 앞에 있는 인천기계산단과 합쳐 인천기계관리공단을 설립했어요.¹⁰⁾

10) 고 김정일의 기억에 오류가 있음. 인천기계관리공단은 장만순이 인천역 앞에 있는 자신의 공장 인천기계제작소와 합쳐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인천기계공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계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사회를 구성해 설립한 사단법인체임

인천기계공업단지 초기 모습에 대하여

인천기계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은 어땠나요?

기계공단이 1971년 조성되고, 1975년 해안기계가 들어서고 이후 많은 업체들이 모여 인천기계공단이 조성되었지요. 기계 공단은 처음엔 장만순 씨가 만든 사설공단이었어요.

이 기계공단은 1975년 그 당시만 해도 흙길이어서 비만 오면 질척거리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한 곳이었어요. 그 흙길을 아스팔트 길로 만들려 할 때 시에서 50% 보조해 주니 하자고 했는데 처음엔 입주자들 대부분 반대를 했어요. 깨지면 보수하고 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수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러면서 공단 안에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비만 오면 기계 공단 내에 물이 차서 피해가 많이 생겨 인천시에서 도로 공사할 때 배수로를 잘 설치해 비 피해를 줄여 주었어요. 이후 공장(공장부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민영체제인 인천기계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었지요.

기계공단 안에 있던 의료보험공단의 위상은?

저 끝이 인천기계제작소 장만순 회장이 염전을 인수해서 기계공단을 만든 겁니다. 그 옆에 정보산업, 중간에 금성기계, 고속도로 쪽에 부국철강이 있었지요. 그리고 대한제쇄, 우일정밀, 화일프레스, 동인제철 등등이 있었어요. 당시 대림산업 이필웅 사장이 저보고 거기(기계공단) 있으니까 공장 나면 인수하라 했지요. 공장 전체가 5만 7천 평. 꽤 많이 인수해서 남 좋은 일만 시켰지요. 인수해서 다 팔았어요. 인수는 우리가 했

는데 모두 다 팔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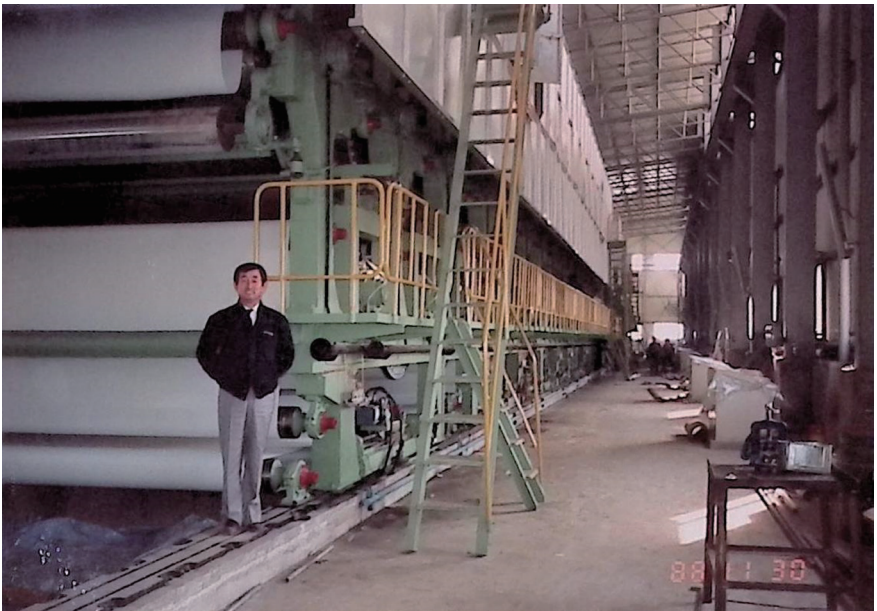
공단 안에 의료보험공단이 있는데, 당시 저는 의료보험공단 창립 멤버로 감사 일을 했어요. 의료보험공단의 창립자이면서도 행세는 제대로 못 했어요. 저는 평생 기계 제작하는 일만 잘했었어요.

사실 공단에서는 해안기계 전무까지 역임한 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어요. 꽤 파워가 있었거든요. 공단의 공장을 여러 군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이 공단에 있는 공장 다 인수할 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인수한다고 했어요. 뭘 믿고 그랬냐 하면 대림산업의 이필웅 사장님 믿고 대담하게 행동했지요. 대림산업 대지주가 5만 7천 평을 인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평당 2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계약금 줄 때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나왔거든요.

인천기계산단의 성쇠(盛衰) 과정을 보며 아쉬운 점은?

인천기계공단에 현재도 옛날 업체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는 2세, 3세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는 아쉽게도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겨 가서 기업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그때 당시 도로변에 있는 쪽 공장을 다 인수하려고 들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6천 평을 인수를 했고, 인수를 해서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했어요. 그중 화성제지 사장이 기계산단에 대림 오토바이 공장을 하기도 했어요.

해안기계가 제지공장 분야에 큰일을 참 많이 했어요. 해안기계가 제작한 기계 덕분에 제지 회사들이 잘 되었거든요. 그 한 예로 영풍제지는 해안기계에서 납품한 기계 덕분에 골판지와 제지업계의 1위 업체가 되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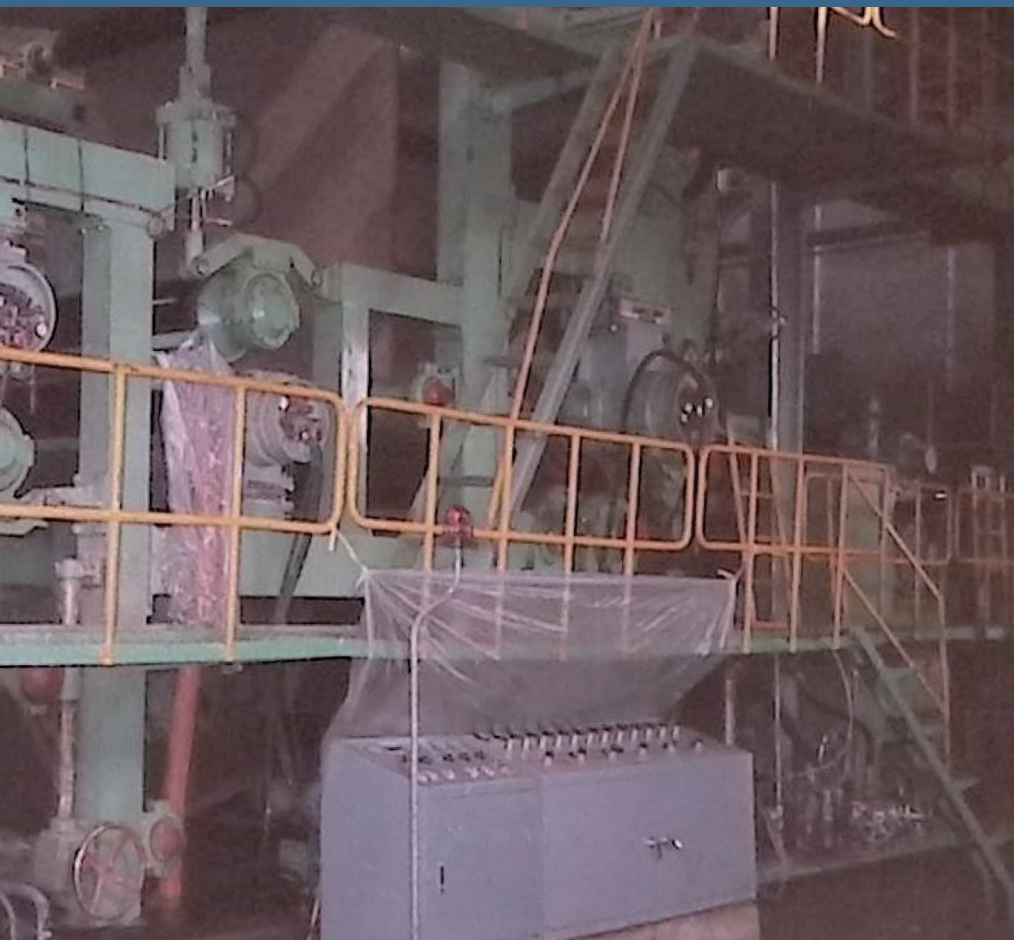
제지기계와 촬영한 故김정일 전무 사진. 1988년

기계 설계에서

해안기계에 입사하여 기계 설계와 영업업무를 담당한 이진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한다.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기초산업의 뿌리인 주조산업의 쇠퇴, 젊은 층의 생산 현장을 기피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기계 영업까지





해안기계 (주)

이진우 (1954년생)

전라북도 군산에 태어났다. 매형의 소개로 해안기계에 입사하게 되어 인천으로 오게 되었다. 해안 기계의 기계설계부에서 근무하다 영업부로 발령을 받고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40대 초반 기계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이직을 하였다.

면담일시 : 2023년 9월13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김용경

면담지원 : 허은영

해안기계에 입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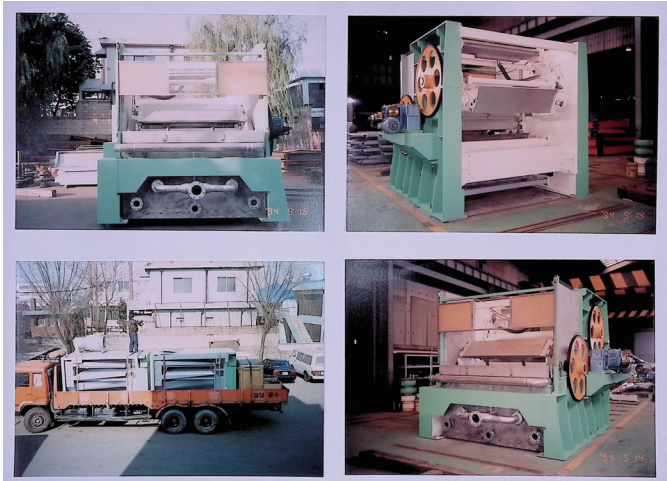
군산에서 태어나서 쪽 생활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매형의 권유로 해안기계 면접을 보고 입사했어요. 입사할 때는 기계설계부에서 기계설계 업무를 했고, 이 일에 만족해서 재미있게 회사 생활하며 인천에 자리를 잡았죠.

해안기계의 설립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1975년 이영철 대표와 김정일 전무가 (주)한독제지 동료로서 마음이 맞아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당시 인천기계산단에 있는 해안정밀(연탄 만드는 기계 제조업체)을 인수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풍림산업 이필호 부사장과 만나 같이 논의 끝에 해안기계를 인수하고, 이필호 부사장이 해안기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필호 대표이사는 국방과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었는데 서울대 금속공학과 학부를 나온 분입니다.

해안기계의 주 생산 품목에 대하여 말씀 해주세요.

해안기계는 기계부와 주조부로 나뉘져 있는데, 기계부는 제지기계 제작을 해서 전국의 제지 공장을 거래처로 기계 영업을 하여 납품했고, 주조부에서는 제철 업종에 주물을 가공하여 납품을 했어요. 제지업체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해안기계 제지기계 납품 대기사진. 故 김정일 전무 제공

기계를 제작·납품 하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해안기계는 큰 공사가 81년도인가 방글라데시의 시가네테페이퍼라는 회사 턴키(turn key) 베이스¹⁾로 25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1) 발주자가 프로젝트의 완성까지의 계약을 설계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발주하는 프로젝트 운영 방법. 기획, 설계, 시공, 보수 까지를 종합적으로 청구한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수준으로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대우실업²⁾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방글라데시의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마’ 있지 않습니까. 주트라는 삼 계통의 식물인데 그걸로 담배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주트 페이퍼(zoot paper)라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250만 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공사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5~6개월을 상주하며 설치 운전을 했는데 방글라데시의 형편이 안 좋고, 후진국이다 보니 콘크리트를 부을 때 사람 손으로 대야에 콘크리트를 받아 머리에 이고 붓는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요 운전 요원들은 한국에서 차출해서 그분들이 가서 몇 년씩 근무를 했습니다. 설치 시운전을 하는 인원들은 한국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생각나기에, 기계를 보낼 때 우드박스 패키징을 할 때 그 안에 라면, 소주, 고추장, 된장 같은 것을 기계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별도로 박스에 잘 포장해서 보냅니다. 거의 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뒤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계를 방글라데시에 보낼 때 어느 화물로 이용을 하시나요?

(주)대우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대우가 선사를 선정해서 배편을 이용했으며 배편에 따라서 부산 아니면 인천에서 선적을 합니다. 부산까지는 화물차로 이동을 하는데 수인산업도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망이 조성이 되기 전에는 인천에서 부산을 가려면 오산IC까지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치할 때 저는 기계 부품을 만들고, 납품을

2) 대우실업, 대우인터네셔널을 거쳐 현재의 포스코인터네셔널

할 때 기술부 직원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79년도 신입사원 시절에 평택 쪽 지금의 고덕지구 삼정펄프(주)³⁾ 라는 데에 제가 한번 따라간 적 있어요. 그때는 8톤 차면 큰 차였지요. 요즘은 뭐 25톤도 있지만요. 그 차를 타고 저는 화주(貨主)⁴⁾ 의 자격으로 평택을 가는데 만수동 고개부터 차가 올라가지 못해요. 고개만 나오면 힘드니까 기사가 반월 IC 좀 지나 수원 좀 못가서 신일 선풍기 회사가 있는 정문 앞에다가 차를 대고 수원에 가서 정비공장 직원을 태우고 점검을 받아보니까 메탈⁵⁾이 늘어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베어링 메탈이 늘어붙어서 협착이 돼가지고 저 혼자 비 오는데 차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화주니까 차에 실린 기계를 지켜야 되니까요. 차주는 그 다음날 와서 결론을 내기를 폐차하기로 했다는군요. 엔진을 가는 비용보다는 폐차가 낫겠다 해서 다른 차하고 레카차를 불러 짐을 옮겨 평택까지 갔습니다.

제작한 기계가 차선보다 클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운송을 어떻게?

주로 저희 단골 화물차 컨택을 해서 새벽에 차 없을 때 저희 차가 앞뒤로 캄보이⁶⁾해가지고 새벽에 갔습니다. 그 안에(차량과 차량 사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차가 별로 없는 새벽 한 4시 정도 움직이면 딱 좋습니다.

3) 위생 용지 생산회사

4) 선적 화물의 송화인(送貨人), 일반적으로는 수출자와 동일한 의미

5) 자동차 금속 부품의 일종, 엔진 부품: 피스톤, 크랭크샤프트, 실린더 헤드 등

6) convoy, 호송대

보통 기계의 무게가 얼마쯤 되나요?

저희는 현장에서 뛰는 법이 없습니다. 다 싯덩어리라 뛰다 부딪히면 골절을 당합니다. 크레인이 10톤, 5톤으로 저희가 공장에서 들 수 있는 단위 무게가 한 15톤 정도 되니까 기계 전체로 하면 수백 톤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립이 되면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이 100m가 넘습니다.

기계 부품이 조립이 되면 완성된 기계는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 시운전을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기계설계를 하다 보니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고 아날로그 시절이니까 다 손으로 도면을 그렸습니다. 당시는 연필로 설계도면을 그렸습니다. 제가 혹시 싶어서 그때 그 연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계 설계시 사용했던 연필

45년 전에 제가 도면 그릴 때 사용한 연필인데 뒤져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손으로 도면을 그렸고, 샤프 펜슬도 없었습니다. 연필을 깎아가지고 연필통에 넣고 다녔습니다.

도면은 선으로 그려지고, 선의 굵기나 선의 형태에 따라서 도면을 그린다 보니까 4B는 찢한 거 4H는 연하고 단단한 것, 가는 것 할 때는 HB로 쓰죠. 지금은 도면은 안 그리지만 기계 쪽 일을 하니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갖고 있었습니다.

도면은 트래싱 페이퍼(Tracing paper)라는 우윳빛 나는 종이에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청사진을 뒀습니다. 복사기가 없으니까 청사진 도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의 필름에다가 도면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 설계를 하다가 영업부로 보직을 변경하게 된 계기는 있나요?

그전에는 특별히 영업부라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 김정일 이사님이 나중에 상무로 진급을 하셨고 그분이 설계, 생산을 다 총괄하셨는데 일을 혼자하기에 많아지다 보니까 영업부라는 부서가 필요해서 생겼지요. 기술영업이다 보니까 기계를 아는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실에서 차출이 된 거죠. 그중에서 좀 영업의 적성이 맞을 거라고 윗분들이 생각하셔서 아마 데려간 것 같은데 좀 처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를 가서 만나 업무 얘기를 해야 하고 외출을 하다 보니 비용 측면에서 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많이 힘들었지요. 당시에는 카드도 없고 바빠서 택시를 타면 영수증이 없어서 사비로 처리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영업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나마 이 나이 먹도록 활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깊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좀 넓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지요. 깊이보다는 넓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좀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을 하면서 오더를 받고 개인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해안기계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해안기계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그런 직업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사실은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봉신중기⁷⁾로 입사하면서 영업을 하고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되면서 부터는 독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지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노조 활동은 어떠했나요?

근무는 안 해서 직접 겪지는 안 했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크게 노조 활동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노조가 8~90 년도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안기계는 중소기업이고 인원이 많지도 않고 한 100명 남짓이 되니까 노조가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주조공장이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면서 분리되다 보니 노조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7) 1967년 봉신주작소 설립, 이후 1984년 봉신중기(주)로 이름 변경, 2024년 현재 (주) 심팩인더스트리. 인천 서구 소재

주조공장이 이사하고 분리가 되어 주조공장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기계공장은 한 40명 정도, 주조공장은 한 70명 이상 80명? 공장이 나뉘다 보니까 노조가 크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조금 하다가 아마 노조가 자연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는 잘 되어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복지가 잘되어있지 않았지만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야구부를 활성화를 시킨 분이 도병희 관리과장이었고 공선택 씨, 서창수 씨 등 기계부 쪽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야구부를 만들어 주로 봉사중기하고 많이 했습니다. 도병희 과장이 봉사중기에서 주물을 부어오는데 주물을 잘 부어오기 위한 로비 차원에서 봉사하고 야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야구 끝나고 한 잔씩 하면서 친목을 다졌지요. 그때 당시 저는 해안기계에서 봉사중기로 자리를 옮겼는데 저는 그때 봉사중기 영업부 과장이라 봉사중기하고 해안 기계 사이에서 업무 협조를 했지요.

기초산업 분야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인력입니다. 요즘은 일이 있어도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고령자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안전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령자 기피하거든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좀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60대들 아직 젊어요.

젊은 친구들이 기초산업 쪽에는 잘 안 가려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업고등학교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다 대학 가지 않습니까? 전문대 가고 대학 가고 고학력만 있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 일할 애들이 없어요. 선배들이 독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업 교육이 굳이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생산 현장에 가서 일을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차별 대우가 없으면 애들이 갈 거 아닙니까. 노동 여건이 좋아졌는데, 없어요.

우리 기계 쪽에서는 범용기계⁸⁾가 있고 NC(numerical control)⁹⁾가 있습니다.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¹⁰⁾는 NC 컴퓨터 수치 범용기계라는 것은 옛날 아날로그 기계들, 선반, 밀링 그런 기계들로 요즘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애들이 NC나 CNC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계만 해요. 사실 NC나 CNC를 개발한 이유는 물론 난이도 있는 것도 있지만 숙련공이 필요 없는 기계거든요. 컴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자만 있으면 되는데 범용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배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범용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60대예요. 그렇듯이 기계도 그런데 주물은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용기계라는 것이 수공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NC나 CN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시스템화 돼 있어서 NC는 대량 생산에 맞는 거고, 범용기계는 소량 다품종에 맞는 기계인데 산업기계는 특성상 소량 다품종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대량 생산이지만 일

8) 특정 부품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전용 공작 기계에 대하여 1대로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작기계

9) 수치와 부호로 구성된 수치정보를 통해 기계를 자동 제어하는 방법

10) 수치 제어(數値制御)의 일부 또는 그 태반을 컴퓨터에 의해 대처한 것. 또 다수의 NC 머신을 컴퓨터와 직접 리얼타임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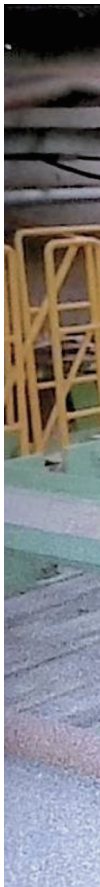
반 산업계는 다 소량 다품종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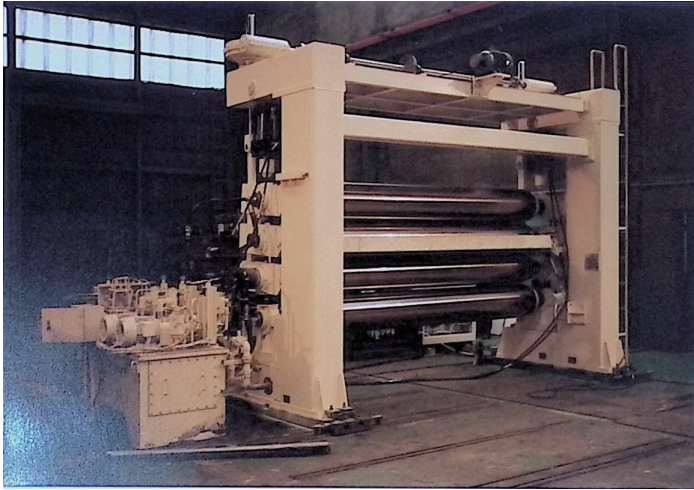
그리고 젊은 층도 대기업들 보면 현장들이 대부분 자동화가 다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한 조건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에 가면 근무시간도 적고 보수도 많고 대우가 월등한데 중소기업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노후화된 인천기계산단과 주안산업공단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개인적인 바람이 주안산단 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공장 헐고 요즘 뭐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고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초산업이 좀 꾸준히 유지가 되어 되는데 요즘 IT 때문에 AI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기초산업, 기초과학이 없이는 모든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주물공장도 지금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많이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게(주물업종) 없어지면 앞으로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계산단은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주안산단이 위치가 좋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주안산단은 교통이 좋으니까 사람 쓰기가 좋아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산업 이 름에 맞도록 꼭 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면 좋겠어요.





해안기계의 제지기계





해안기계(주)

1975년 이영철 대표와 김정일 전무의 제안으로 풍림산업의 이필호 부사장이
1976년 해양정밀을 인수하여 제지기계 생산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설립연도 : 1976년
대 표 : 이필호
종업원수 : 30여 명
업 종 : 제지기계 제조업
주 생산품 : 제지기계 및 주물 등



기업 연보

1978년 해안기계 설립 인천기계산업공단 입주

1980년 주조부와 기계부 분류

1989년 남동공단 주조부 이전

1996년 해안기계 도화동 공장 김정일 전무에게 매각
세광기계로 상호 변경

2003년 해안기계 남동공단 주조부 상호 변경 "하이메트"로 변경

2010년 하이메트 남동공장 매각 처분

2010년 하이메트 김포공장 이전

인천기계산업 단지의 사람들





기관

'협동조합 1호, 기계공업의 산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유재경 총괄이사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애국자'
인천상공회의소 박노호 전)사무국장

'인천기계산단의 특급 민원 해결사'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장유경 과장

협동조합 1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합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기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의 산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총괄이사

유재경 (1969년생)

1991년 7월 입사해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총괄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합수익사업, 기업 지원사업, R&D, 정부위탁사업, 원부자재사업 등 조합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11월 3일 14시

면담, 원고정리 : 조연희

면담지원 : 정지선, 박인옥, 양지원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 입사하다

제가 1991년도 7월에 입사했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취업했었던 회사가 있었고, 제대 후에 복직하려고 했었을 당시에 회사 부도로 인해서 지인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입사하게 됐죠. 저는 원래 전자공학이었고 기계 쪽은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입사 당시 맡은 직책이나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입사 당시 조합의 직원 구성은 나를 포함한 남자 직원2명, 여자직원 2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당시 조합에서는 공무원 직급 체계를 도입하여 서기보, 서기, 주사 등의 직책을 사용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주임 등의 명칭 사용을 지양하였습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하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총괄이사 직책에 이르렀습니다. 입사했을 당시에 함께 일했던 직원은 여직원 2명에 남자 저 포함해서 2명이었는데, 현재는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차 나는 직

원이 있는데, 그 직원 같은 경우는 93년도 입사해서 현재 저랑 같이 오래 일한 직원이에요.

당시에 근무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따로 있었나요? 근무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 조합의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는 9시 부터, 5시까지였으며 이는 당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체계를 준용한 것으로 조합이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장자 선배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장하였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공단 건물 내에 위치하여 공단 여직원들과 조합 여직원들이 함께 근무하였고, 3층에는 예비군 대대본부가 있어 회식시 함께 어울리는 등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사무 환경은 전동 타자기를 사용하던 시기로, 1991년에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전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큐닉스 프린터 한 대의 가격이 약 300만 원, 삼성컴퓨터는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으며, 프린터나 컴퓨터를 구입하면 제조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1992년에서 1993년경에 이루어졌으며, 조합의 전산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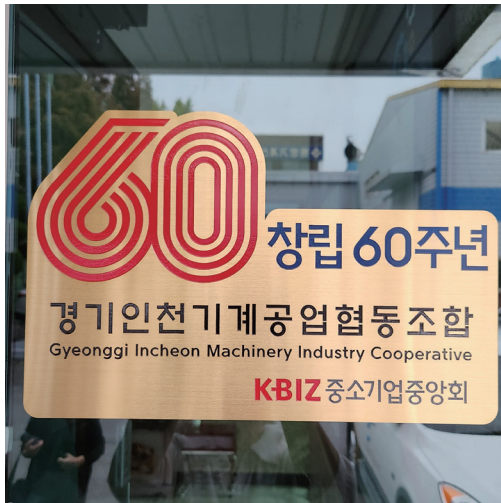
처음 받으셨던 월급 혹시 기억하세요?

잘 알죠. 1991년 7월 입사 당시 첫 월급으로 3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입사 첫 달에 근무일이 한 달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규정에 따라 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하여 3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로, 연간 총액은 약 960만 원에 달

했습니다.

1991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8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약 171,380원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월급여는 65만 원이었으며, 상여금은 연간 800% 수준이었으며, 당시 월급과 상여금 수준은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정적 안정은 주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통한 수익 창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 덕분에 조합은 직원들에게 좋은 처우를 제공할 수 있었고, 현재의 조합 회관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의 역사와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창립 60주년 기념 현판

그 당시에도 직원들 처우가 좋았네요. 처우를 좋게 해줄 만큼 재원이 있었을 테고 그 재원은 협동조합의 성과일 텐데요.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기계 업체들이 회비를 성실하게 냈다는 건가요?

조합원사로부터 월 회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조합원사 사업장 종업원 수 기준으로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비는 1인에서 5인은 2천 원, 그다음에 6인부터 12인은 3천 원, 그다음에 11인부터 20인은 5천 원, 그다음에 20인 이상부터 그다음에 7천 원, 대기업이 1만 원 이렇게 월 회비는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조합의 주요 수익원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협동조합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합원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한 해에 최고 1,5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 덕분에 조합은 직원들에게 좋은 처우를 제공할 수 있었고, 현재의 조합 회관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이 있으신지요?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주로 취급했던 품목으로 항온항습기와 공기조화기가 있었고 이러한 장비들은 주로 한국통신본부(현 KT)의 기지국 전산실에 설치되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수처리 장비도 주요 계약 품목 중 하나로, 하천이나 정수장에서 물을 정화하여 주택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특정 품목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1965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불공정 거래 등의 폐단이 발생하여, 200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합과 조원사들은 새로운 판로 개척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사회도 있었구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업종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도가 없어지고 2007년부터 시행된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조합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온라인에 결과를 등록하면 다음 날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각급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NET)인증과 신제품(NEP)인증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NET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NEP는 국내에서 최초

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잘 빠르게 대응한 기업들은 초기 지정과 수의계약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로또와 같이 일부 기업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인식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협회,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의 50년사 기념서적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과거와 현재 변화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의 이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4월 설립되어 경기·인천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인천 중구 향동에 위치하였으며, 이후 인천기계산업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1977년 제16기 정기총회 (인천상공회의소 7층)



1978년 식목일 맞이 공단내 가로에 수양버들 임직원 참석리에 식재

이후 1997년 4월, 조합은 공단 본부에서 길병원 사거리의 신세계 투자신탁 빌딩으로 이전하였으나, 같은 해 IMF 경제 위기로 신세계투자신탁이 퇴출되면서, 1년 뒤 남동공단 본부 3층으로 다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자체 회관 마련을 추진하였고, 1998년 IMF 위기 이후 경매로 현재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4일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회관 준공식(남동공단 내 현 위치)

그러면 이 전체가 자체 건물 부지인가요?

조합은 현재 자체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 수익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사업 및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회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기계산단 내에 같이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것 같아요. 62년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도 유대관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설립할 수 있었던 동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천기계산업단지는 1965년 조성을 시작하여, 인천 도심에 산재한 중소기업형 기계공장을 집단화하여 조성된 민간공업단지입니다. 이러한 집단화는 소음, 진동, 악취 등 도시 공해를 방지하고, 계열 분업화를 통

한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산업단지 내에서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공동 사업과 협동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계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복리 증진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합은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조합원사와 함께 기념행사를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판식 기념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의 역사와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창립 60주년 현판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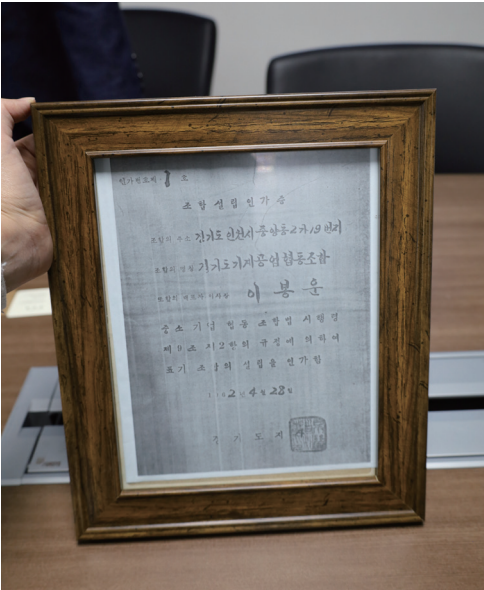


경기 연천군 백학자유리조트에서 열린 창립60주년 기념식에서 내빈들과 축하케이크 커팅

62년 협동조합 설립 당시 남아 있는 사진이 있나요?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의 1962년 설립 당시 사진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사진 기록을 남길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의 초창기 사무소는 인천 중구 향동에 위치하였으며, 자가 보유 건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건물 사진이나 관련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역사적 자료로는 공단 회관에서 회의하던 장면의 사진들이 일부 남아있으며, 설립 인가증은 누렇게 변한 사본 형태로 발견되어 현재 액자에 보관 중입니다.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당시명칭) 설립인가증 사본

한편,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조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앨범이 발견되어, 당시의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협동조합 1호로 인가 받았는데, 1960년대 초에 협동조합 설립 당시 배경을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61년 12월 27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과 업종별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2년 4월 2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었으며, 조합의 주소지는 '경기도 인천시 중구 항동'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은 기계공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구매, 생산, 판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의 정관에는 이러한 운영 목적과 사업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조합 활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산업부문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1960년대 인천 지역의 공업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운영의 흔적

이름의 변천사도 있었다고요.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설립 이후 지역 행정구역의 변화와 조합원 구성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62년 조합 설립 당시, 인천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조합의 명칭도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조합원 수의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경기도 지역의 조합원 수가 인천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경기도 북부 지역에 개소했던 본사를 폐쇄하고, 본점을 다시 인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과정에서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도 사용되었으나, 이는 수도권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과의 구분을 위해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천사는 조합의 역사와 지역적 변화를 반영하며, 조합원들의 의견과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설립 당시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1962년 설립초기에는 주로 조합원사의 생산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과 원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업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들의 대표로서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을 통한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조합원사에 대한 배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사들의 매출 증대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원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청의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재직자 교육 훈련, 사내 동아리 학습 지원, 현장 전문가를 통한 경영 R&D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채용 패키지과 청년 성공 채용 패키지 등의 사업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합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합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기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사가 초기에는 150개에서 300개로 늘었다가 2023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91년도 기준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변화된 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없어지면서 협동조합이 분리된 부분이 있어요. 신규 가입이라는 것도 직접 조합을 소개하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직접생산조사 업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회원 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조합원사의 자격 기준에 보면 업무 구역이 있는데, ‘경기 인천 지역 내에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자가 이제 조합원사의 자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기준에 가입했던 분들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14개 업체 정도가 탈퇴가 된 거죠. 그래서 300개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가 200개 대로 떨어졌어

요.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300개를 기준이라고 하면 220개가 경기도 80개가 인천이에요. 현재 기계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조합원사는 현재 3개밖에 없어요. 태진기연하고 대금지오웰이 원조 업체이고 그 다음이 2016년도에 신규 가입한 미래정공이에요.

그렇다면 조합원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합원사 방문을 통해 직접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동과 혜택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조합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조합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추천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규 조합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추천 제도의 영향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조합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원사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다!

입주 초기에 협동조합 부지나 사무실, 창고가 좀 애매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조합은 1962년 설립 이후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1971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던 고철 3천 톤이 운송 중 선박 고장과 선장의 이탈로 인해 몬드라스 공화국에서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물품을 받지 못하고, 한일은행의 지급 보증서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간의 소송 끝에 1981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조합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등을 통해 재정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1988년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항온항습기 품목 지정을 받아 조합원사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며 점진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합은 현재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고 정부의 R&D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장은 잡혔나요?

당시 선장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몬드라스 공화국에 정박 중이었을 때,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은 현지에서 경매로 처분되었고, 조합은 물품을 받지 못한 채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합은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결국 조합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동에 있던 건물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지하 문서보관함

2022년에 서고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1997년 4월,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공단 사무실에서 신세계 투자신탁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당시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박스에 담아 옮겼습니다. 이후에도 남동공단 본부 등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이러한 서류들은 박스나 캐비닛에 보관된 채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년, 지하실의 방수 문제로 인해 바닥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실 방수 작업을 새로 진행하고, 모빌랙을 설치하여 서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며, 과거의 기록들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대 이사장님의 사진을 정리하던 중, 2대 이사장님인 장만순 이사장님의 사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주차장에 펼쳐놓고 과거의 내용들을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류 정리 작업을 통해 조합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중요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기계산단의 옛 모습을 보다

입사 당시 기계산단의 모습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재에 이르러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최근에 기계관리공단본부를 방문했었던 2017년도 18년도 이때인데,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부분이 지금은 창고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많이 노후가 됐고 제가 태어났을 때 지어진 건물이니까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1층 한 공간을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5일 정도 있다가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공간이 너무 좁은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갔던 계기가 됐어요. 사실 그때도 건물 내부가 오래됐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주변에는 공단 매점이 하나 있었어요. 주유소 삼거리 있죠. 그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 건너면 그 코너에 구멍가게보다 작게 매점이 있었어요. 저희 사수는 500원짜리 즉석 복권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사장님 결제 받으러 갈 때면 자전거에 서류들을 싣고 매점을 통해 내려가

는 길로 다녔어요. 이사장님이 오시면 하루 종일 결제하셔야 했는데, 서류를 갖다 놓고 다음 날 찾으러 가고 했었죠.

지금은 동구 운동장이나 고가대로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1991년 입사 당시 인천기계산업단지 주변에는 공원이나 체육 시설이 없었습니다. 공단 본부 인근에는 작은 매점과 청소차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터가 있었으며, 주변 환경은 다소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도시 개발과 재생 사업을 통해 동구 지역에는 동구 구민운동장과 같은 공원 및 체육 시설이 조성되었고, 도로망도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갯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땅이 염전이었던 거냐 그 당시 오래 계셨던 분들에게서 따로 들은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인천기계산업단지가 위치한 도화동 일대는 과거 염전이었던 지역을 매립하여 조성되었습니다. 1965년 10월 19일, 이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 1915호에 따라 공업 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67년 11월 23일 고속도로 연변 구획정리사업 시행령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배경에는 인천 도심에 산재해 있던 중소기업형 기계 공장들을 집단화하여 소음, 진동, 악취 등 도시 공해를 방지하고, 계열 분업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상공회의소와 기계공업 관련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민간 주도의 공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인천기계산업단지가 과거 염전이었던 부지를 매립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기업들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계실 때는 비 많이 오거나 태풍 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인천 기계산업단지 주변은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교 인근은 장마철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당시 공장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곳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 구멍이 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물에 잠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 끝나고 퇴근길에 매점 좌판에 모여 술 한잔 기울이고 하셨다는데 조합에서도 같이 어울리셨나요?

과거에는 직원들이 퇴근 후 경비원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곤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탄 난로를 피워놓고, 경비견인 누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비실 옆에는 재래식 화장실과 수도가, 그리고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사에서 회의나 업무로 방문할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단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과거 인천기계산업단지 내에서 조합 직원들과 공단 직원들은 함께 어울려 회식하고, 여직원들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휴식 시간에는 간단한 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사수분이 외출 시 매점에서 분식을 사 오기도 했으며, 회식 장소로는 인천우체국 옆에 있던 국일관 나이트클럽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류는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였으며, 이사로 인해 공단 직원들과 헤어질 때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후에도 당시 함께했던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기계산업 유망주와 앞으로의 계획

앞에 기계산단 인터뷰를 다녀본 결과 대다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지요.

기계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조합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젊은 층의 기피와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계산업은 구조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력 지원 사업 강화: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조합원사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 기술 혁신 및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조합원사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합니다.
- 해외시장 진출지원: 조합원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합니다.
-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정부에 기계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 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한 국가의 성장 토대가 기계인데 중국에서 또 잘 만들어요. 지금은 중기 제품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육성을 위해 사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도가 없으면 이 시장이 무너져 중국이 다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동등한 수준에 와 있어요.

유사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흐름은 없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중앙회는 유사 업종의 기존 조합과의 이해관계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이 기존 조합과의 충돌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의 기존 조합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집단 지역에서 기계 부품 관련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약 3~4년 후에 폐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운영이 쉽

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합 설립 시 철저한 시장 조사와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인천 로봇랜드 조성은 2007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어 17년간 지연되었으나, 최근 인천도시공사(iH)의 주도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라국제도시 내 잔여 용지 72만㎡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계산업 분야의 협동조합은 로봇 및 드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조합이 인천 로봇랜드 단지에 입주하여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드론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관련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조합에 대한 입주자격요건 조합원사에 대한 로봇 관련 제조업으로서의 명확한 사업 영역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에서 고민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 중이신데, 이걸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조합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자재로서 모터와 냉동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예지보전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장비의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잠재적인 고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림을 전달하여 사전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지정비시스템은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을 방지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판매량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아하랩스의 산업용 AIOps 플랫폼인 LISA는 진동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터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AI-PHM 연구실에서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진단 예측 기술 및 주요 생산장비의 예지보전을 위한 핵심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합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육이라는 걸 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조합에서는 차세대 경영인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육은 조합원사의 2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차세대 경영인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 선진 사례 벤치 마킹, 기업 방문을 통한 현장 학습, 세무 및 법률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세 경영인들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인천시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며 근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융합하여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제조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 확충, 기술 창업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기계공단과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기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공동 및 협동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조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설립연도 : 1962년 4월 28일

대 표 : 허예회 (제24대)

종업원수 : 4명

임 원 : 18명

홈페이지 : www.gimico.or.kr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60



연혁

1962년 4월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설립
(경기도지사 설립인가 제1호)

1981년 7월 인천직할시 (광역시) 승격에 따라 조합명칭 변경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상공부 장관 인가 제109호)

2001년 1월 조합회관 건립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2012년 5월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7년 9월 ~ 2021년 11월 제1회 ~ 제4회 인천국제기계전(INMAC)
전시회 공동개최

2019년 7월 (사)인천지역 유망중소기업 연합회와의
기회 및 장비제조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2월 경기도 공유경제활성화 사업 우수단체 표창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인천혁신 모펀드 제 1호 조합 결성 업무 협약(인천광역시)

2022년 4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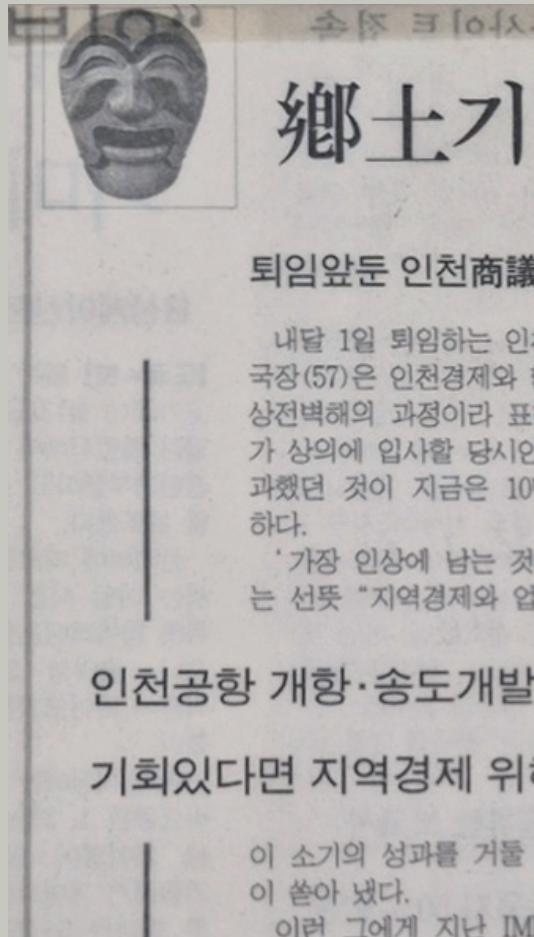
2023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우수조합(단체)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4년 5월 주안·부평 그린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SEP)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참여) 선정

2024년 8월 인천환경공단 환경분야 공동연구 MOU 체결

중소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이야 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장이 영업사원이 돼야 하고 때로는 공장 들어가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판로 개척 등 그 열정이나 기업이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이야말로 애국자





인천상공회의소 전 사무국장

박노호 (1944년생)

충청도에서 태어나 인천상공회의소에 취업하면서 인천과 인연이 되었다.

인천상의에서는 감정 업무, 물가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인천기계산단뿐만 아니라 인천의 산업사를 통찰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면담일시 : 2023년 8월 12일 10시

면담, 원고정리 : 표기자

면담지원 : 박인옥, 최지은

특채로 인천상공회의소 입사하다

인천상공회의소(이후 ‘인천상의’로 표기함)에 어떤 인연으로 입사를 하셨는지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에서 아무 연고가 없는 인천에 오게 된 것은 형님이 부평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향동기업 주식회사를 창업하는 단계였습니다.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천에 왔죠.

그 회사 명칭은 향동기업 주식회사로 하는 일은 sp라고 해서 세크리터리 폴리스 경비 용역업체. 경비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경합이 붙었어요. 입찰에서 우리가 탈락해가지고 형은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나는 그때 특채로 인천상공회의소에 들어갔죠. 거기서 하는 일이 조사 업무였어요. 감정 업무, 물가 조사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게 69년도 3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1년 채 안 돼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사표를 내니까 그때 권혁환 사무국장이신 이 어른

이 인천 초대 시의회 의장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아주 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더 있어 보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국장님의 만류로 그냥 놓
려앉아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기계산단 조성과 주역들

60~70년대 인천산업사를 보면, 인천산업은 주류를 이루던 업종이 경공업
중심으로 회사 규모도 중소 규모였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공장들이 주택
가에 분산해서 세워졌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먼지라든가 공
해로 인한 민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민원 처리를 회사에서는 소규
모라서 해줄 수는 없어서 시나 아니면 인천상의회 의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인천상의회 위상이 어땠는지, 아니면 그 업체들의 요구에 어떤 역할
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시 인천은 경인공업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공장도 많고 할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어요. 70년대만
해도 인천은 도시 개발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이 있는 데다가
중소 규모의 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어요. 주민 생활에 굉장히 불편
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죠. 소음, 미세먼지, 공해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
이 나고 했었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나서가지고 집단화해야 한다는
제의를 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
으니까 행정관서에 집단화시키자 즉 집적화하자고 건의했었습니다.



재직 중 임원들과 함께

그때부터 공장을 집단화시키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된 건가요?

행정관서에서 건의 사항을 그대로 쉽게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민원을 넣고 했던 거죠. 68년도쯤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재길 씨가 기계공단을 설립하는 데 주춧돌을 놓은 셈이죠. 인가가 난 것이 76년도인가 78년도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인천기계공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법적 공단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추진하는지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진척도라든지 추진이 상당히 루즈해지고 했던 부문이 없지 않았었죠. 공단 초대 이사장을 상공의소 사무국장을 지낸 김재길 씨가 맡아서 하다가 그다음에 장만순 씨, 인천기계제작소 사장인 이분이 경영수완이 뛰어나고 인품이나 품성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인천기계제작소가 그때 당시에 아주 칭송을 많이 받는 모범적인 업체였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사장을 한 거예요. 일본에도 일부 수출도 하던 업체였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가질 못하고 그 업체도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인가 그 회사 자체가 해체가 돼요.

장만순 이사장님 계시던 그 당시가 기계산단으로 형성이 되고 나서 안정기라고는 볼 수 있는 7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는 공단 조성면에서는 안정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기계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소 규모이면서 법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나왔어요. 그때 각급 기관에 협조를 많이 받지를 못해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었죠. 그 반면에 국가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산업단지 부평에 있는 4단지, 가좌동에 있는 5단지 6단지 여기는 본부가 구로동에 있었어요. 여기는 아주 잘 돌아갔죠. 기계산단 경우는 우리 인천에 있으면서 순수한 민간 사설공단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60~70년대에 국회의원이었던 유승원. 경인공업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이것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4공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기계공단 만드는 데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셨던 본인에 국회의원인데 김은하 그분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그때 당시 60~70년대 그때는 유승원 의원이 지역 개발을 위해 일을 많이 했죠. 경인종합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유의원이 위원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유승원 의원이 시장도 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 기여를 많이 했죠. 그 족적을 보면 인천에 공단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분의 힘이 작용을 했어요.

기업지원을 위해 은행을 설립하다

1978년에 인천기계공단으로 상공부의 인가를 받은 후 인천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노사관계가 있으면 행정관서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였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어요.

부평하고 주안공단만 국가공단으로 흡수가 됐잖아요. 그때 기계산단도 물론 국가산단으로 흡수가 되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그때 내부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계산단도 흡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인천상회가 한 역할은 어땠는지요?

그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에 요구를 한 부분은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정부에다 대고 우리가 무슨 수출공단처럼 승격을 시켜달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기계 산단이 형성된 시기가 1970년대 초기잖아요. 그때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였고 특히 그 입주한 기업체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그때 기계 업종인데 철강 또는 금속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거기 많이 있었죠. 조금 규모를 갖춘 곳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기계제작소라든지 부국철강이 정도, 그리고 다들 아주 규모가 좀 작아요.

부국철강은 저희가 사전 조사 때 방문했었어요. 지금은 물류센터로 바뀌고 철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부국철강 장영복 사장이 아주 젊잖고 경영을 참 잘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나서 한 20여 년째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기계 산단이 조성될 초기에 기업들이 입주할 때 인천상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계 산단에 직접적으로 선생님은 개입은 안 하셨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면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지에 있던 조그마한 공장들이 집단화 돼있는 공단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비라든지, 시설 이전 비용 등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주도해가지고 69년 12월 8일 인천은행이 오픈을 했는데, 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지원을 했죠.

그러다가 인천은행이 관할 구역을 인천만으로 국한시키니까 너무 협소

仁川銀行

株式募集公告

今般金融通貨運營委員會로부터 株式會社仁川銀行設立이 1969年9月4日자로 內認可됨에 따라 發起人會서는 다음要綱에 依據하여 株式을 公券함

募 集 要 領

1. 商 號 株式會社 仁川銀行
2. 業 務 一般銀行業務
3. 本店所在地 仁川市內에 本店을 둔
4. 株式의 總數 30萬株(金3億圓)
5. 設立時發行株式 納入資本金15萬株(金1億5千萬圓)
6. 一 株의 金額 金壹千圓
7. 株式請約單位 50株
8. 請約方法 所定의 株式請約書2通에 必要한 事項을記入 據印하여 請約證據金과 別列 請約票並에 請約證據金1株當百圓珠金納付期日에 株式納付金○三對株充當期日에 株式會社仁川銀行創立準備事務所(仁川商工會議所內)로 仁川市內에 本店을 둔
9. 請約證據金 自1969年9月20日 至1969年10月20日
10. 株式請約處 自1969年10月20日 至1969年11月30日
11. 請約期間 自1969年11月30日 4時30分 至1969年12月22日
12. 請約株式配定日 自1969年11月24日 4時30分 至1969年11月30日
13. 株式納付期日 外換·中小企業·國民·住宅·信託·朝興·商業·第一·韓一·信託·仁川支店
14. 株式納付書 仁川支店
15. 其 他 詳細內容(仁川銀行創立準備事務所內) 仁川商工會議所內

一九六九年九月二〇日

株式會社 仁川銀行

設立發起人會

仁川市中區松鶴洞三街三番地
電話 ②019578

인천은행 주식 공고 광고(1969년 9월 20일)

仁川銀行 2月8日開店

지난14日 創立株總...地域개발에 힘찬巨步



銀行長에 李相潤씨를 選出

港都 金融界에 轉機

仁川 港都 金融界에 轉機 李相潤氏를 銀行長에 選出

仁川 港都 金融界에 轉機 李相潤氏를 銀行長에 選出

仁川 港都 金融界에 轉機 李相潤氏를 銀行長에 選出

하잖아요. 영업 권역을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72년도에 경기는행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서울, 강원도까지 영업 구역을 넓혔죠. 그러나 1998년 퇴출은행으로 지정되어 폐업을 하고 한미은행에서 인수했죠. 광주에 가면 광주은행이 있고, 또 경상남도 가면은 경남은행이 있고, 경기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인천,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은행 개점(1969년 12월 8일)

仁川銀行株主總會

亞商聯總會開幕

京畿銀行으로 개칭

區域道內一圖으로 확장 當期純益 3千餘萬원을 獲

仁川 港都 金融界에 轉機 李相潤氏를 銀行長에 選出

1972년 4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명칭변경 의결

지방을 대표하는 은행이 존속하려면 민과 관과 여러 단체들이 협력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그 지역과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도외시하고 지방에서 아껴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지방은행이 존속할 수가 없죠. 어렵게 지방은행을 설립을 해놨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부도가 났어요.

정부지원 미흡한 인천의 산업단지

지방은행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건데 기계 산단이라든가 그런 공업단지에 지원도 못 하고 인천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죠.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기은행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게 문이 닫히니까 도산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죠.

주안공단, 부평공단, 비철금속공이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기계공단도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때 기계 산단의 분위기는 어땠었는지요? 국가산단으로 흡수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나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부문은 상공부 자체에서 추진했지만 민간산단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국가산단으로 흡수가 안 되면서 기계공단은 민간공단으로서 운영할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통합대상이 아니니까. 기계 산단 여기는 명칭이 처음에는 기계산단이 아니에요. 기계공합조합였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장만순 씨의 공이 아주 커요.

72년도 즈음에 비철금속 단지 조성 해 놓고 1개 기업도 입주할 못 시켰더라고요. 국가수출공단에 흡수되면서 기계산단 등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비철공단이 잠시 존립을 했다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공부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출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던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출공단 본부는 구로동에 있었습니다.

기계산단은 민간공단이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 어려움이 많았죠. 기계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무슨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도 곳곳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분들예요.

구로수출공단에 비해 민간산업단지인 인천기계산단은 국가의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도 인천기계공단 하면은 관심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인천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대기업은 떠나고, 중소기업은 애국자

인천은 노동집약적 산업체들인 제조업체가 많고 그러면은 기계 산단이 인천시 전체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로 보나 수출 면으로 보나 컸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도외시되고 관심을 못 받았을까요?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법인세 등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인천에는 우수한 대기업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미도 부근을 보면 대성목재라든지 선퍼니처, 선창산업, 대한제당, 동일방직, 대한제분 등 기업이 쭉 있었고 또 대우자동차라든지 대우중공업이라든지 큰 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 업체에서 인천시 재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중소기업은 고용 및 세수 부담은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IMF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인천에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대기업체들이 100개가 넘었어요. 지금은 뭐 열 몇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기업이 나가는 거는 결국 인천의 먹을거리를 소멸시켜 버리는데 지역경제와 인천 기계산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유리, 동양화학 등 많은 기업이 지방에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총량제로 기업 확장이 어려웠었지요. 수출 4단지 부평 지역 여기가 준공업지역이에요. 용도상으로 준공업지역은 공장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도 지을 수도 있고, 주택들 때문에 부평공단 4공단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4공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 주체들은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 어디로 크게 널찍하게 땅도 잡고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지요. 여

기 민원도 들어온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대우자동차도 이제 문을 닫을 겁니다. 옛날에 제조업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이 인천에 여러 개 있었어요. 여담입니다만 한국유리 판유리에요. 처음에 정부에서는 영등포에다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기를 유리의 원료가 규사인데 규사는 인천 앞바다 가면 쌓이고 쌓였다. 영등포에 진다면 이걸 또 수송을 하는데 물류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거 비합리적이고 하니까 인천에 짓자 해가지고 판유리를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곳이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한국유리에 가면 서울공대 출신자들이 많았어요. 인천은 판데에 비해 공업입지라든지 모든 게 참 좋았는데 수도권 정비사업법과 공장 재배치법 여기에 묶여가지고 인천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1970년 인천상공회의소 건의로 한국유리 인천 유치 결정

기계 공단 형성 초기부터 위기도 겪었고 산업화 과정을 말씀 해주셨는데요. IMF도 거쳤을 거고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천기계산단이 인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애국자들은 중소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이 영업 사원이 돼야 되고, 어느 때는 공장 들어가서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판로도 없어가지고 딴 데 부탁을 한다라든지 그런 입장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라든지 기업 정신, 이것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투철한 분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공장을 돌리자면은 한 5명 있더라도 10명 있더라도 하면은 그만큼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고용 증대하는 거지요. 그걸 그리고 일정 부분 대기업에 비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국가 재정에도 기여를 하지요. 인천기계공단 앞으로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도 물론이지만은 지방정부인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1970~80년대 노동운동 현장의 기억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기계공단 이전에 거기가 염전 자리였었잖아요. 염전이 기계 산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염전 노무자들은 결국 일자리를 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안산단 만들 때와 같이 이 염전 노무자들이 혹시 매립 노동자나 또는 공장 노동자로 흡수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70~80년대 노동운동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노동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 자체가 일본의 법을 갖다가 그냥 따온 거예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일본의 노동 파업은 극심했어요. 노동운동도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준다 하는 식으로 인식돼 있고, 노동운동의 근본은 노조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또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제공하는 임무를 띠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 무조건 많이 달라, 뭐 해달라 하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환영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의 C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노사 협상을 하는 거예요. 노조에서 요구하기를 이번에 우리 임금을 1만 원만 올려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만 원이 뭐냐 하고서 1만 2천 원 올려주마 해가지고 임금 협상이 타결됐어요.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장은 기업을 증설하기 위해서 잉여자금을 2억인가 20억인가 얼마를 유보해 놓은 자금을 노조에서 더 지급해달라고 파업을 해가지고 아마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노조에서는 기업 경영 성과에 따라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래를 보고서 유보를 해놓은 유보금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주고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앞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운동의 양상을 보자면 산업화로 가는 70년대가 노동운동이 뜨거웠던 시절인데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배경으로 보면 그냥 돈 많이 달라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노동운동을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하기 이전에 인권 유린의 사건들도 많은 그 시대에 그런 결핍한 상황을 겪으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국가와 근로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인천상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바로 생각됩니다.

상의(인천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저런 게 있었어요. YH사건이라든지, 동일방직 사건이라든지 특히 인권 유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계산업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어야

기계산단이라는 건 기계산업의 육성이잖아요. 예전에는 소위 조립 그런 산업에서 지금은 규모가 커져 고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 산업을 인천시 또는 국가, 인천상공회의소가 조금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기초 부문은 기계 부문이거든요. 모든 산업이 기계공업이 발달되지 않고서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행정관처라든지 상공회의소, 우리 인천 시민들도 기계산업 부문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전에 일본에 가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공

장을 한 번 시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규모는 작지만은 오토메이션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깎이고 그 순서에 의해 프로세스대로 생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만 해도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시급히 현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설비의 자동화는 공장 자체 재원만 가지고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자동화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의 미래, 전문 기술인이 존중받아야

국가산단 부평이나 주안, 남동공단에 비해서 기계산단 환경이 여러모로 많이 열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대요. 1년 내내 공고를 내도 고용하기가 어렵대요.

그 부문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예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인문계통으로 대학을 보내야 될 건지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야 될 건지 구분을 해요.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죠. 우리나라도 기술사 제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박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차별을 하니까 이공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학 나왔다 해가지고서 일을 안 하는 거지요. 소위 3D 기피 현상이라고 할까? 외국인 근로자들 몇십만 명이 일을 하고 이로 인해 일정 부문 국부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놀면 놀았지 일을 안 한다니까요. 중소기업 사장들과 대기업 임원, 사장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다 치더라도 바로 현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계 다룰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대학에서 한 2년 정도는 이론 수업을 하고 한 2년 정도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제안을 하니깐 대기업 측에서 시큰둥해요. 반면에 중소기업 사장들은 환영하고.

그 과정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기계 만지고 조립하고 깎고 하는 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산단은 아예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기계산업이 홀대 받는 이유가 다 대기업으로만 가려고 하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부 유출이에요. 외국인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비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본국으로 송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정부에서도 간파하고서 노동시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예전에는 실업고, 공업고 이랬는데 지금은 첨단 정보 고등학교로 전환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지역 산업하고 아주 동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지역의 기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고등학교도 필요한데.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각 분야별로 전문 인

력을 양성을 하는 코스가 있어요. 인천에는 남동공단 내에 있고. 우리나라는 박통 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독일에서 돈도 빌리기도 하고 기술도 많이 도입했잖아요. 한독 실업학교도 우리나라에 지었고, 그리고 특히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천 구산동에 중앙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고급 기술인들을 양성토록 하였으며 전문기술 교사들을 배출했지요. 지금은 폴리텍대학이라고 불리고 있죠.

職業훈련원開所

2백명初入所 각종 우수技能工 양성

【O】다산의 아들인 함화상(韓華相) 氏가 구산동에 職業訓練院을 설립한다. 「O」한국의 산업발달을 위한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2.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3.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4.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5.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6.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7.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8.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9.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0.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1.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2.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3.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4.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5.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6.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7.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8.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9.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20.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赤十字 陸女史 外交使節 부인 등 40 名

陸女史 外交使節 부인 등 40 名

▶ 1.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2.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3.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4.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5.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6.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7.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8.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9.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0.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1.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2.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3.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4.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5.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6.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7.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8.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19.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 20. 職業訓練원 200名의 入所를 實現한다.



중앙직업훈련소가 1969년 3월 12일 개소되었다. (경향신문, 1969년 3월 12일)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현재는 폴리텍대학이 대신하고 있는 거네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인문계열 전공한 사람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기술 배워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거기 수요자들이 우리나라 역군들이죠.

그렇게 기술인들을 양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기계 산단의 작은 업체에도 취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데는 안 올 겁니다. 여러 기능인들을 훈련 교육시키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젠 기술인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옛날 그 사고를 이제 버려야 돼요. 과거에 중소기업 사장들 한 200여 명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산이 10억이다 하면은 10억까지는 내 재산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10억이 넘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또 우리 제품을 써주는 소비자하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벌어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값어치 있게 쓰고 우리 사회를 위해 써줘야 된다고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삶의 후반 여생에 대한 회포

일과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구요. 화제를 바꿔서 퇴직하신 지가 한 20년이 넘는 거잖아요. 현업에 계실 때 동료분들이라든지 지금도 만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요. 전 직장 동료들 모임인 ‘이월회’, 기업체 전 임원 출신인 ‘좋은 벗’ 모임 등 4~5개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선 현업에 계실 때 얘기도 좀 하시나요? 주로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지요?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알면은 같이 참여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문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80대가 되니까 이제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홀로서기 연습도 하면서 아름답게 늙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매사가 허무하다고 할까요, 모든 일들을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부담 없이 남은 여생 지낼 생각입니다.



정년퇴직 한 달 전 인천일보 인터뷰



인천상공회의소

1885년 국내 상권수호를 위해 결성된 인천객주회를 효시로 하는 인천상공회의소는 정책건의, 조사, 연구, 국제통상, 교육, 기업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지역 기업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

설립연도 : 1885년

대 표 : 박주봉

현 임원 : 부회장 21명, 감사 2명, 상임위원 32명

업 종 : 경제단체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 연보

1885년 7월 인천객주회 조직

1946년 8월 임의단체 인천상공회의소 조직(회두 하상훈)

1963년 7월 부평지구 수출공단 유치 건의서 제출

1964년 10월 부평지구 수출공단 유치 신청서 제출

1965년 10월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및 창립 총회 개최
(이사장 채호 선출)

1967년 2월 (가칭)인천지방은행설립추진위원회 결성

1968년 11월 인천기계공단 조성 여론조사 주도
경기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시 등과
인천기계공단설립 발기인 모집

1969년 4월 인천은행설립 신청서 심의, 인가 의결(재무부)

1969년 11월 (주) 인천은행 창립(경기은행 전신)

1970년 4월 인천은행 부평지점 개점

1971년 8월 인천은행 용현동 예금 취급소 개점

1971년 11월 부평, 주안수출공단 통합방침 반대 대책위 구성
(위원장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기계산단의

기계산단 입주업체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규정만 내세우지 않고 융통성 있게 도움을 주면 그때 그분들이 고맙다고 음료수를 사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업체 사장님들의 한마디!

“어유~ 장 과장! 고맙대! 장 과장이 있어서 최고다. 장 과장 없으면 여긴 안 돼!”



특급 민원 해결사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과장

장유경 (1976년생)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하면서 20년 넘게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무실 외부에 있는 공동 화장실 그리고 직원은 총 2명뿐인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서 오랜 시간 홀로 사무실을 지켜온 장유경 과장은 입사 당시에 기계산업단지가 뭔지도 모른 채 입사했지만,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은 관리공단 업무와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관리공단의 특급 해결사이다.

면담일시 : 2023년 10월 30일 10시

면담, 원고정리 : 정지선

면담지원 : 허은영, 양지원

서울 출신이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로 출근하다

제 이름은 장유경이고, 48세예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신림동에서 살고 있어요. 인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워낙이 오래되다 보니 지금은 괜찮아요. 예전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제물포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주안역에서 내려서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주안역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러 가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아짜리 아침에 운동 삼아 한 번씩 걸어 다녀보자 했는데, 날 좋을 때는 괜찮은데 더운 여름하고 겨울 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도화역으로 가 봤는데 걸어오는 건 주안역에서 걷는 거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도림역에서 같이 급행을 타고 오면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인천산단으로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분들을 따라가 보니 제

물포역에서 내려가지고 역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걸 본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엔 급행이 제물포에서 안 서서 조금 더 걸렸지만, 이제는 제물포역에서도 급행이 딱 스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집에서 관리공단 사무실까지 1시간 10분? 그 정도 걸려요.

출근 시간은 몇 시예요?

8시 반부터 근무이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8시 15분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집에서 거의 한 6시 45분에 나와요. 퇴근 시간은 그나마 좀 이른 편이예요.

입사 초기에는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많아 입사하는데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입사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제 전임자가 그만둔다고 할 때 김영홍 전무님이 직원을 뽑는다고 구인 광고를 냈는데, 그때 젊은 20대 아가씨들이 면접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야 여기가 좀 리모델링이 돼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환경이 안 좋았어요. 이 건물 자체가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한 5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아가씨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거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하루 종일 연로하신 분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 게 힘들니까, 다들 면접 왔다가 안 온다고 그러는 게 몇 개월 째 되니까 전무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올 사람 없냐?” 한 게 이렇게 흘러흘러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거죠. 그때 마침 다니던 회사를 딱 그만둔 시기랑 겹쳐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소개받아 올 때 기계산업단지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구로공단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 경비원이 근무했던 초소
(현재는 외부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

입사 초기에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사무실의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 그리고 직원이라고는 여직원인 저 한 명이랑 전무 이사님 한 분 계셨는데, 초창기에는 전무님이 사무실을 못 나가게 해서 거의 불박이었어요. 전무 이사님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서 저는 밥도 배달해서 먹을 정도로 나가지를 못하게 했는데, 처음이라 그래야 되는 걸로만 알았죠.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어서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로 습관처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걸 뭐 점심시간도 없어요. 밥 먹다가 보면 사람들이 불쑥불쑥 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밥을 나가서 먹어야겠다!' 하면서 식당에 혼자 나가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 근방에서 드셨던 거예요? 혼자서?

네. 거의 대부분 여기 안쪽에 뷔페식 함바집 그런 데로 다녔어요. 처음에는 건너편 지방산업단지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먹기도 했어요.

늘 혼자여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처음에는 심심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그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무님 붙잡고 막 대화하기도 그렇고.

입사 초기 업무는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계 업무 조금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제일 큰 업무가 공장 등록 업무죠. 여기 기계 산단에 입주하려면 공장 등록은 의무이기 때문에 공장 등록 업무를 하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그때 김영홍 전무님께서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전무님은 업체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거기 나가서 확인하고 그 민원 처리해 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셨고요. 업체들과 친해져야 저희도 무슨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할 때 그런 것이 유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사님 같은 역할을 전무님이 하러 다니신 거죠.

근무하면서 역대 이사장님과 전무님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입사했을 때 이사장님은 강인덕 이사장님이셨고, 같이 일했던 전무님은 김영홍 전무이사님이셨어요. 강인덕 이사장님 전 이정렬 이사장님

(태진기연)에 대해 김영홍 전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정렬 이사장님은 3층 이사장실에 매일 출근을 하셨대요. 오셔서 차 한잔 드시면서 바둑을 두시고 그러시면서 공단 사장님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김영홍 전무이사님은 2대째 전무님이셨는데, 초창기 때 하셨던 1대 전무이사님은 거의 80세까지 일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관리공단 초창기 때부터 80세까지. 공무원 출신으로 인품이 되게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공단 직원들 야구 리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단 초창기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일요일 날에 다른 장소(동구구민운동장이 생기기 전)를 빌려서 직원들이랑 체육회도 하고 했대요.

제가 막 왔을 때에는 ‘기공회’라고 있었어요. 공단 대표님들의 모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비 걷으면서 식사를 하는 모임을 가졌고,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이분들 위주로 직원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열고 단합회나 소풍을 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장을 이전하거나 돌아가셔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현 이사장님이신 국일정공 강인덕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인덕 이사장님은 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관리공단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서 여러모로 힘을 써주고 계시죠. 이사장님은 성격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생각이 많으신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래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되게 꼼꼼하게

요. 여기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짓는 생각도 많이 했고, 구조고도화 사업도 이사장님께서 해보자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못한 거죠.

이사장님의 원대한 꿈은 이 관리공단 자리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내서 임대를 취가지고 관리공단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리공단 운영비를 안 받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동구구민운동장에 조금 남는 땅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도 동구청에서는 절대로 그거를 해줄 의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했죠.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의 변화 모습

관리공단의 규모나 역할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할 때는 관리공단이 여기 공단 안에 있는 도로까지 다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 전기세랑 각 공장에서 나오는 전기세 그리고 수도세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또 민방위도 여기에서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2층 여기가 원래는 예비군 중대 훈련하는 곳이었고, 1층에는 관리공단 사무실이랑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있었고, 3층이 이사장실이었다고 들었어요. 민방위 훈련을 하면 한 번에 50~60명 정도는 모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단 내 직원들이 많으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두 번씩인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무기고였다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있어요.



예비군 무기고로 사용되었던 부속건물

관리공단을 세울 때부터 건물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으로 알아요. 초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 거의 10여 년 정도 관리를 했는데, 민방위 그런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로 넘겨서 “이제 당신네들이 이거를 받아서 설립해 가지시오.” 하고 넘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장 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다가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온 거죠. 관리공단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80년 1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전기세, 수도세를 공장마다 부과하면서 공단을 관리하려면 근무하는 직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었나요?

초창기 때 급여 대장을 보면은 그래도 열댓 명은 됐던 것 같아요. 관리 공단 직원들이랑 예비군 훈련하시는 직원들까지 다 1층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직원이 많이 줄었는데, 관리공단의 업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겠네요?

기본적인 거는 다 그대로 가는데 다만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는 각 공장에서 관리하고, 도로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됐죠. 현재 공장 등록 업무는 유지하고 있어요.

산업집적법이라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¹⁾’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관리공단에 공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계산단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우리에게, 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는 지방산업단지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 법인 거죠. 주안산단도 관리공단이 있어요.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의 어려운 점

1)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가 관리공단 운영 회비를 받아요. 기본 회비 3만 원에 땅 평수에 따라 평당 20원씩 해서 회비를 받아요. 그게 많아봤자 월 한 3만 5천 원 그 정도 되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평당 가격은 그대로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사회나 정기총회 때 물가가 오르니까 기본 회비는 그렇다 치고 평당이라도 조금씩 올려달라라고 말해 봤지만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리공단 회비에 대해 입주업체들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산업단지라는 곳을 아예 모르고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설명해 드리면은 “아! 그러냐.”고 수궁은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남동공단이나 주안공단 같은 국가 공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관리공단 운영비를 좀 내주십시오.” 하면은 “국가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내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내냐?”에서부터 “이거 내면 관리공단에서는 우리한테 뭐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자체나 다른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건 없지만, 공장 운영하다 보면은 공장과 공장끼리 서로 민원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냄새나 진동이 난다거나 하는 이런 민원 그리고 주차 문제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공단 관계자가 가서 부드럽게, 서로 조금 양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정보 같은 걸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공장을 좀 더 늘리고 싶은데 혹시 공장 땅 나오는 데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안내해 주고, “가격대가 좀 저기 하다.” 그러면 중간에서 조율해 주기도 해요. 외부 중개

인 분들도 가끔가다 저희한테 “공장 부지가 있는데, 혹시 다리 뇌졸 데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찾아서 가격도 조금씩 완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당장에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라는 거죠.

분쟁이 될 만한 내용을 입주계약서 쓸 때 미리 공지하기도 하나요?

공단에 입주 계약하러 올 때 매매 서류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서류에 담당 부동산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거기다가 우편 발송으로 했어요. ‘인천기계산단은 업종 제한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요 업종 외에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공단에 내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반드시 계약할 때 고지해라!’ 근데 부동산에서 듣고 왔다고 해도 불구하고고도, 와서 막상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입주업체 중에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업체도 있나요?

그렇죠. 99년도까지 산업집적법 거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었대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관리공단 회비 관련 부분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워져서 지금은 회비 내달라고 공문만 보내는 정도죠. 저희 기계산단 옆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도 해체되기 전까지 저희처럼 운영 회비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도 워낙에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청에서 “이제 회비 받지 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의 규제가 여기도 들어온다면 앞으로 회비 걷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방산업단지는 저희처럼 땅이나 건물이 없어요. 공단 안에 있는 공장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있던 회비만 소진하면 되니까 해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자산으로 있어서 인천시에서 마음대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약 182평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인천시에서 해체하라 마라 못하는 거죠.

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받는 회비가 적어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회비 말고 다른 수익금은 없나요?

여기 관리공단 건물 1층과 3층 그리고 과거에 예비군 무기고로 쓰였던 건물을 임대줘서 임대 수익이 있어요. 지금 3층은 공실인데, 이 건물이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되고 계단이 좁고 높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3층 오르기를 꺼려해요.

그리고 여기 산단은 공업용지로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공장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공장 해 놓고 가로 열고 사무실 이런 식으로 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거고, 관리공단은 토지 이용이 굳이 공장이 아니어도 편의시설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층 사무실 외에 옥상을 사무실로 냈더니 여기 공단에 임대하신 업체 중 좀 욕심이 많으신 업체분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제한을 두고 왜 너네들한테는 이렇게 푸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1층은 그냥 공장 업종으로 받고 있어요. 그분들도 공업용지엔 공장만 들어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임대 낼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공장, 기계 업종으로 받고 있어요. 근

데 3층을 공장으로 사용하기엔 저희 건물이 불편한 게 많아서 1층과 3층을 동시에 쓰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3층은 계속 공실로 두게 된 거예요.



관리공단 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

인천이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 산업단지마다 분양 방식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인천에는 14개 산업단지가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가 2개 있고,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산업단지인가 해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산업단지예요.

초창기 여기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관리공단이 토지를 가질 수 있게끔 투자를 해서 저희가 여기에 토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관리공단 운영비도 받고. 저희 다음에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했는데, 그게 불행한 게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아예 여지를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다 매매로 분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은 건물도 없고 토지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 게 서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서는 아예 초창기 때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 몫으로 1,000평인가를 떼고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의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랑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공단의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는 인천시에서 '산업단지 자체에 자립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부산업단지를 자립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은 회비를 받지 않아도 관리공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관리공단) 안에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 외에 나머지는 임대해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인천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검단에 만들었는데 거기도 관리공단 할 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관리공단 전무님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사무실 없이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보시다가, 인천시로 관할이 넘어오면서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하면서 관리공단이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거기 전무님이 한 4~5년간 고생을 하셨죠.

인천기계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민원과 산단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기까지

기계산단 입주업체의 민원은 어떤 종류인가요? 해결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름 되면은 공장들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옆에서 “냄새가 날아온다. 어지럽다. 구토가 나온다.” 등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업체에 가면은 그 업체들은 더우니까 있는 창문 없는 창문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럼 옆쪽에 어쩔 수 없이 냄새가 가요. 공장들이 거의 딱딱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덥더라도 민원 넣은 업체에 맞는 창문은 닫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죠. 현장에 가서 직접 조율하는 편이에요.

또 업체들 중에 큰 차가 나가야 한다고 회사 앞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하게 설치물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 근무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민원을 넣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큰 차가 나가고 할 때에는 못 하게끔 해놨다가 안 나갈 때는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시간 조율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어떤 회사는 대표님 차량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해 막아놓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 된다고 못 해요. 저희가 관리공단 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값이 우리가 아녜요. 우리가 을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가끔가다가 우리를 본인들이 직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처음에는 그게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유~ 네. 그러십니까? 해줘야죠. 공동 운영비 내주시니까 해줘야죠.’ 이제 이런 마인드인 거지.

그런 마인드가 생긴 게 언제쯤이었어요?

입사했을 때, 처음에는 업체들이 와서 막 큰 소리로 말하고 ‘탁’ 치면 무서워서 발발 떨고 그랬거든요. 막 울먹거리면서 전무님한테 업체에서 이런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유~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다가 민원 넣어드릴게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청이 잘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올 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업체들이 길이 꽁꽁 언다고, 제설 작업 안 하냐고 막 민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민원 넣는 업체한테 직접 치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관리공단 운영비 운운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무님하고 제가 둘이서 염화칼슘을 직접 구해와서 뿌렸어요. 염화칼슘이 많지 않아서 구청에 요청하면 직접 가지러 오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못 하고 민원 들어온 업체들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기계산단 주변이 재개발되어 거주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2017년? 18년 그때쯤 주변 아파트에서 악취와 분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보공업사가 공장 부지를 도시공사에 팔고 가좌동으로 이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사실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다 체크를 했는데,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도 아파트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민원을 계속 넣으니까 정치적인 힘으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관리공단 바로 앞에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걱정이예요. 거기에 옛날에 인천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인천대 학생들이 하숙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인천대가 빠지면서 거기가 완전히 죽은 거죠.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우중충해서 거기 주민들이 페인트칠을 한다면 담장 같은 것도 없애 가지고 주차 공간을 새로 단장을 하는 것도 했는데, 그래도 힘든지 아파트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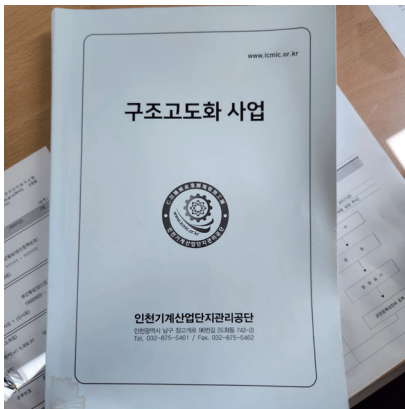
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데, 업종은 초창기 때보다 풀어도 사실은 받는 게 더 겁이 나요. 또 이거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얼마 전에 인쇄 회로기판²⁾을 제조하는 전자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공장 자체에 폐기 처리 시설이 있다고 해도 주변 업체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이 돼요.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도 매년 년 초에 정기총회 건 때문에 위임장 받으러 다니면 솔직히 냄새 안 나고, 진동 안 심하고, 소음 안 심한 데가 없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남의 것만 알아. 어떤 공장에 가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가서 말 한마디하고 오면 그날 목이 다 쉬어 있어요. 하도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니깐. 옷이고 손이고 다 새카매져서 오는데 막상 본인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2) PCB(printed circuit board)로 전자공학에서 저항기, 콘덴서, 집적 회로 등 전자 부품을 인쇄 배선판의 표면에 고정하고 부품 사이를 구리 배선으로 연결해 전자 회로를 구성한 판

구조고도화 사업 준비와 기계산단 도시재생에 관한 이야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오래된 공장들이 많았어요. 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우중충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길에 다니는 공장 직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우중충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공장들이 팔리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른 산단처럼 인천시에서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립을 해보려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준비했어요. 주안이랑 부평이 구조고도화 사업³⁾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 번 받아보려고



인천기계산단관리공단이 작성한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서

3)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했는데, 이것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은 저희가 못해도 200억~220억 원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서도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다는데 저희 여건이 여의치가 못해서 포기했어요.

최근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아! 재생사업!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에요. 모든 산업단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가뜰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고가 밑에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너무 민원이 많아요. 여기는 큰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놔서 큰 차들이 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도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인천시에서는 주차 타워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단 도시재생 사업이 지방 산단 이랑 같이해서 낸 거라 지방 산단 부지도 같이 활용할 것 같아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소회 그리고 기계 산단을 위해 남기고 싶은 한마디

20년 이상 관리공단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가끔가다가 업체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되게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만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장 운영 하면서 규정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융통성 있게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면 그때 그분들이 고맙다고 막 음료수를 사서 가지고

오셔요. 그럴 때가 좀 좋죠.

저도 사실 그만두고 싶기는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까 정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유~ 장 과장! 고맙다! 장 과장이 있어서 최고다. 장 과장 없으면 여기 안 돼!!” 이런 말을 업체 사장님들한테 들을 때 그때가 또 힘이 나죠.

오늘 인터뷰를 통해 과장님께서 기계산단관리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기계산단의 미래를 위해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회비로 운영하는 산단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산단들은 자생력을 갖추도록 준비를 해 줬지만, 각 산단의 자본이 고갈될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단이 다 같이 살아남으려면 통합을 해서 대구나 청주처럼 통합 관리공단 체계로 가면 우리 기계산업단지의 제조업들이 도시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은 대기업에 침식되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와 폐업전의 매립으로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설립 기성회가 1968년에 발족 됨으로써 태동하게 되었다.

발기인 대표로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채호)이 선출되었고, 창립총회에서 첫 번째 이사장(김재길)이 선출되었다. 2004년에 강인덕 (주)국일정공 대표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관리공단을 이끌어가고 있다.

설립연도 : 1969년

이 사 장 : 강인덕

소 재 지 : 인천 미추홀구 장고개로 98, 2층(도화동)

설립목적 : 기계공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



연혁

1968년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설립 기성회 발족

1969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에 김재길 선출

인천기계공업공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허가 제120호)로 기공식 실시

1971년 제3기 정기총회 실시, 임선 개선 이사장 장만순

1976년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로 지정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978년 인천기계공업공단 관리공단 창립총회

이사장 김성성 선출

상공부장관 인천기계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허가

(허가 제249호)

1980년 제2기 정기총회에서 임선 개선 이사장 안희점

1989년 제11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장주완 선출

1991년 제14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이정열 선출

1994년 인천기계공업단지 용도별 구획

(인천직할시 고시 제 1994-66호)

1997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4년 제26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이정열 퇴임

제26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이사장 강인덕 선출

2007년 제29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강인덕 재 선임

2022년 제44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강인덕 재 선임

인천기계산업 단지의 사람들





이웃

'산단 직원들의 사랑방, 경북슈퍼'
김호순

'그때가 참 좋았지'
백용순

산단 직원들의

이곳은 나의 삶이자 인생이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4살 때 인천 제물포로 이사와 작은 종자돈으로 어렵게 시작한 경북슈퍼에서, 주변 텃세 속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3남매를 훌륭히 키운 용감한 어머니이다.



사랑방,

경북슈퍼





경북슈퍼

김효순 (1947년생)

경기도 광주에서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지역의 근현대 산업사의 이선에서 함께 한
인천의 오랜 주민이다.

면담일시 : 2023년 11월 7일 15시 50분

면담, 원고정리 : 이혜숙

면담지원 : 정지선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하기까지

인천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4살까지 살다가 부모님을 따라 인천으로 이사 왔다가, 결혼하면서 경상도로 가서 2년을 더 살다가 남편의 일자리를 찾아 다시 인천 제물포역 앞으로 이사 온 후, 1년여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작은 종갓돈으로 경북슈퍼를 열어 지금에 이르렀지.

어릴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구슬치기하고. 남동생이 넷이라 거기에 맞춰서 놀다 보니 그렇더라. 남자가 되더라고. 그 뭐지 그 구슬치기는 내가 아주 대빵이었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7, 8살 차이가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식 살리겠다고 인천을 왔어. 누가 어디 가서 물으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당신 자식을 살리려면 고향을 떠나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가 보따리 싸가지고 인천에 왔어. 오 남매 갖다버리고 오 남매 살았지. 내 위로 셋인데 오빠 하나 살고 남동생 밑으로 둘 죽고 셋 살아있지. 10남매 중에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낳았을 때 금줄을 땅에 끌도록 했다. 나 명줄 길으라고. 그렇게 딸 낳았다고 좋아서 하나 더 낳으려 했는데 성공 못 했지. 근데 다 소용없어. 어려서 아버지 무릎 앞에서 크다시피 했는데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고생만 주루룩했는데…….

공단 가구공장 노동자들의 쉼터

경북슈퍼를 어떻게 열게 되셨나요?

처음엔 아저씨 번 것 갖고는 삼 남매를 못 기르겠더라고. 우리 막내딸 5살 때 떼어놓고서 애는 혼자 집에 있고, 오빠들은 학교 가고,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 백만 원을 내 손에 쥐었어. 45년 전에. 그러고 그거 가지고 집을 샀어. 근데 집을 사려니까 복덕방 위에 저 파출소 옆에 사는 분이 “아줌마 집을 사서 뭐하냐!” 하는 거야. 자식들은 고만고만한데 월세 살았거든.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고 이 가게가 나서 이거 장사할 때 와서 봐어. 사실은 그랬는데 와서 봤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삼 남매를 떼어놓고 1년 직장생활을 했어. 하다가 100만 원 보니까 좀 사람이 그래.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다가 있으니까 진짜 부자 된 기분이더라고. 그래 아저씨하고는 안 사는 한이 있어도 난 자식을 못 버린 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북슈퍼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 고향이라 그랬더니 여기 오니깐 텃세가 말도 못해. 깡패들이…….

그 당시에는 깡패가 좀 있었어. 건달! 건달! 동네마다 건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 놓는데 진짜 깡패가 안 되면 내가 장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팔짱을 걸어 채웠어. 내가 ‘난 여자가 아니야!’ 그때부터 마음을 먹은 거야. 내가 여자가 되면은 우리 새끼들 공부를 못 가리키겠더라고. 그래서 삼 남매 저것들 다 가리켰어요. 대학교까지. 근데 재(따님분을 가리키며)만 이제 조금 못 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한다.” 해서 오죽하면 내가 그랬어. “너 나중에 엄마를 원망하면 넌 나 가만 안 놔둔다!” 근데 제일 효자야. 진짜야. 가리키는 놈은 효자가 아니야. 제일 안 가리킨 놈이 효자야. 자기가 원망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살잖아. 우리 딸 잘 살아요. 신랑이 사업하고 사위도 내가 골랐어요. 옛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내가 째했어. 생활력 하나 보고 인물 안 봤어. 나! 인물 보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건달이 들끓어서 그랬더니 그렇게 잘해 지금. 나보다 한 6개월을 어떤 사람이 했어. 처음에 근데 가게에 물건이 2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나야 인수하기 좋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이 옆에 건물이 울산전자 기숙사였어.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사람들이 울산전자가 그때 망했잖아. 망하는 바람에 다 도망갔어. 먹고서! 이 아가씨들이 전부 먹고 도망을 간 거야.

그러더니 돈을 어디서 받아 밤에 도주 다 했는데, 그 할머니는 집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망했어. 그리고 내가 들어온 거야. 내가 운이 닿았나 봐. 그때부터 솔직히 얘기해서 한 달에 돈 백만 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우스웠어. 소주 하루에 7~8짜 팔았어. 막걸리 10짜은 우습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어. 손님들 물건 팔고 나면 거기 앉아서 빨래해야 돼. 손빨래! 그때만 해도 세탁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손이 다 망가졌어. 나 여기저기 수술도 다 했어. 양쪽에.

슈퍼 근처의 모습은 어땠나요?

동서가구, 우아미가구, 한미 이견 산단에 다 있었지. 우아미가구도 있었지. 동서가구 있었지. 한미 있었지.

그러니까 이 동네가 돈이 끊었어. 그 당시에 장사 잘 됐어. 진짜 하루에 10짜! 막걸리 10짜! 팔았다면 거짓말이야. 딴 사람이 그러면 거짓말이라 그래. 음료수 한 짹씩 나의 창고에다 빌려서 놓고 물이 차 가지고 어느 한 해에는 물이 차 가지고 음료수 다 닦아서 팔았어. 병이니까 과자 같은 경우는 딴 데 창고에서 물을 먹었지. 과자 같은 건 그때 없지. 그런데는 안 뇌됐고, 익은 방에 저 위에 선화! 내가 제일 1호야. 이 동네에서 그 위에 선화슈퍼 위에 장단상이라는 데가 있었어. 근데 그 가게가 제일 1호야. 지금은 없어.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1호가 됐어. 2호에서 1호가 된 거야.

염전과 연탄공장, 개 건너 쪽대밭 추억

옛날에는 근처에 염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장사할 때도 있었어요. 여기 장사할 적에..... 왜냐하면 내가 이..... 선인재단 그걸 넘어오면 여기가 갯벌이니까, 그게 애들이 여기 와서 노는 거야. 우리 아들 그때 매 맞고 막 그랬어. 아들 하나인데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옆에 보면 원목 쌓는 데가 있었어.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도 있어. 깔려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단도리하는 거야. 아들 하나니까. 딸도 딸이지만 아들 하나니까. 아들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내 제일 선물인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 지금은 아닌데 그때만

해도 그래. 근데 아들은…… 아들은 든든해. 확실히 아무리 저기 해도 딸이 좋아.

다 거짓말이야. 속으로는 안 그래 난 딸이 좋다고 해도 저 딸을 내가 잊어버릴 뻔했어. 여기서 살 때 이거 장사하기 전에 할아버지 따라서 직장 따라서 부천에 좀 살았어. 한 1년 넘게 살았을 거야. 살았는데 이사를 잘못 갔는지 탈이 난 거야. 저놈이. 그래갖고 한 달에 그때 70만 원씩…… 그때 돈 70만 원이면 4살 때 70만 원이…… 51년 전이야. 그러다 보니깐 딸이 아파 죽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맨날 업고 다녔어. 부천 시장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거기 병원을 하루에 두 번씩 다니다 보니까 한 달 되니깐 거덜납디다. 10원도 없이 나 인천에 왔어. 손바닥에 10원 있어야 살지. 친정 오빠나 언니 저기…… 엄마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야. 친정 엄마가 많이 돌봐줬어요. 그렇게 살았어. 지금 동서가구 맞은편에 그거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그 산동네 있었어요.

소금 염전 그 창고! 연탄공장이 주안역이지. 거기…… 여기 팔이 데인 거, 그거 사연도 있어 연탄을 그전에는 이렇게 연탄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숙소 들어간다고 아줌마들 따라가. 그러면 이제 그 연탄 덩어리 있잖아. 연탄 만들기 전에 가는 거 있잖아. 덩어리를…… 바위같이 생겼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불을 피우면 밥도 해 먹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다 그걸 담을 소쿠리 속에다 몇 개씩 훑쳐갖고, 그거 이제 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깡통에다가 그래서 풍구질 해가지고 친구들은 저기서 노는데 나는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속상해. 15살도 안 됐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옷을 해준 걸 입고서 풍구질 하다가 불이 붙은 걸 모른 거야. 그래갖고 여기 나 지금 물을 보면 흥터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난 그

래서 이 팔 여름이 되면 지금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훌쩍 벗지만, 그때
 는 못 벗었어. 이게 트라우마야. 남들은 다 깨끗한데 나는 왜 이렇게 흥
 터가 있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얼른 찢었어야 되는데, 비빔 거야.
 비비다 보니까 훌쩍 벗겨졌어. 그 살이…… 익어가지고 옷하고 같이……
 그래서 흥터가 졌어. 연탄공장이 여기서 나 장사할 때까지도 있었어.
 지금 용화사 있죠? 용화사 거기까지 다 주안이었어. 염전이었어. 지금
 용화사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이쪽으로 보면 그 조그마한 암자 있을 거
 예요. 거기에 제일 최초의 딸이 용화사 다니거든. 이렇게 보면은 내가 먼
 저도 얘기했지만, 그 암자가 있어. 조그마한 거. 그게 최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컸지. 그거가 조그마해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나 봐.
 내가 남자하고 놀았으니 뭐 오죽하겠어. 그 인천 고가 돌다리를 달으려
 면 큰엄마가 안고 건넜어. 바위 이만한 거 있으면 물이 나가야 건너. 그
 것도 물 있으면 못 건너. 그러니까 물 없어질 때 지금 가좌동 쪽으로 다
 가 썩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썩 같은 거 뭐 개떡 이런 거 썩
 먹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엄마 친구분들하고
 엄마하고 따라서 건너가서…… 개 건너가서 그 썩 해오고 그랬어. 그거
 는 썩이 이런 키 큰 썩이 아니야.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참썩이라
 고 그래. 그걸 가지고 그거 해왔어. 그러다가 갔다가 동네 사람도 나눠
 주고 그러니까 집에 지금도 그렇지마는 잠시를 안 있어. 지금도 이렇게
 해도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어. 어떤
 때 내가 한숨을 쉬면 그래. 엄마가 “왜 한숨을 쉬어?” 어디가 다 속이 답
 답하다,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그래. 지금 매일 노래해. 나만 보면 엄마가
 그만하세요. 여기서 전철까지가 염전이었죠. 쪽~ 아주.

1990년대 공단의 쇠락과 경북슈퍼의 운명

슈퍼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유흥거리나 식당은 따로 없었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별로…… 우리가 팔았어. 내가 팔다시피 했어. 왜냐 하면 공장 사람들이니까. 두부 같은 거, 뭐 닭고기 같은 거 여기(슈퍼 한 쪽을 가리키시며) 닭고기 튀기는 데야. 그걸로 계속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왜 그걸 알았냐면 술을 팔아야 되잖아. 딸자식들은 커가는데 그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고 크는 게 뭐가 있겠어. ‘아! 이걸 아니다.’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데 엄마가 술장사를 한다. 그러면 나 이거 때려치우고 그거 했으면 떼돈 벌었어. 엇그저께도 저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지만, 나 그때 술장사했으면 떼돈 벌었어요. 지금도 그 저기, 여기서 술장사하던 사람 있어. 가정집에서. 근데 그 양반들 다 돌아가셨지. 이제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저게 안 되니까 다 소용없더라고. 돈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 다 그냥 그렇게 무너집디다. 그게 다 돌아가시고 그랬어.

80년대 내가 박정희 대통령 1년만 더 살았으면 나 떼돈 벌었다 그랬어! 나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 소리에요. 내가 장사하자마자 80년대에 돌아가 81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이야. 79년도에 했으니까 얼마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까지도 잘 됐어. 김영삼까지도 좀 괜찮았어. 그 뒤부터 그제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사람이 없잖아. 한미 나갔지. 우아미 가고. 또 별 볼 일 없지. 동서가구도 사람 자꾸 줄어지지. 한미도 자동으로 다 만들지.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자가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자꾸 자꾸 줄고 또 큰 데 생기고…… 이마트 생겼잖아.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워.

오죽하면 세무서에서 왔었어. 세무서에서 와서 그전에 팔던 가락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이제 이런 거 막 내던 사람이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온 거야. 와서 봐라! 이거야. 나 세무서 가서도 막 싸워요. 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렇지 않냐. 실적이! 그러면 세금을 조금 덜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세무서 담당부에서 당신 부모한테 용돈 얼마나 줘. 내가 따졌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노인네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노인네들이 십분의 일이라도 벌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린다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냐? 이거지. 지금도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일등 공신이야. 나무 절약해 줘. 전기 절약해 줘.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좀 아쉬워. 그래서 내 자식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아주 이를 악물었지.



연탄난로 좌판 밑 아궁이

외상값은 받아야지

공장 직원들과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동서가구, 우아미가구, 나한테 안 거쳐 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옛날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있어요. 단골도 있었지. 근데 다 이제 단 데로 갔잖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게가 작아지면 손님들이 덜 와. 큰 데로 가지. 우선 현찰을 안 쓰고 카드로 쓰니까 옛날에는 외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다가 이거를 장부가 이만큼이었어. 그거 다 버렸어. 버리지 말고 그때 왜 버렸나 몰라. 월급날 도망가는 사람과 잡기를 하고 별짓 다 해봤어. 내 지금 생각하니까 있죠. 남한산성이야! 남한산성. 그 꼭대기를 갔는데, 넘어갔는데 돈을 그때 부식을 내가 대줬어요. 어느 회사를!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이 죽었어.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갔는데 내가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내 머리가 나쁘지 않았나 봐. 식당 아줌마를 짱 박아놨어.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총알같이 연락이 오지. 분위기 이상하고, 돈도 내려왔는데 “니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래. 그때 100만 원이면 큰돈이야. 집 살 돈인데 그런데 날아간다니니까 큰일 났잖아. 슬리퍼야 여름이니까. 되게 더울 때야. 슬리퍼 반은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뛰었어. 근데 이 아침 그때만 해도 이 주머니를 찾으면 괜찮은데, 이 바보 할매가 앞치마를 차고 장사를 하다가 앞치마를 패대기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을 이제 저기 사무실 직원을 잡았어. “내 돈 내놔라. 내 돈 안 내놓으면 아저씨 서울 못 가!” 그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니까 “그럼 저하고 서울로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럼 갑시다!” 사장

님한테 나는 받아야 되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받아야 돼. 이 돈 놓치면 나는…… 우리는 거지가 된다고, 막 그거 하면서 따라서 가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장이 사정을 하는 거야. 어디 나가더니 아줌마 잠깐만 기다려 보래. 사장이 참 점잖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30만 원을 구해왔더라고, 그럼 내가 며칠날 아줌마 돈은 세상없어도 줄 테니까 걱정마시라고! 진짜 다 받았어요. 그래 갖고서는…… 그래도 대갈님이 돌아가야 돼! 처음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처음 타봤으니 인천에 엘리베이터 하나도 없을 때야.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갔는데 큰일 났어. 그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올라가서…… 올라가긴 했는데 다닥다닥 그렇게 사무실이 많습디다.

그래가지고 어디 골짜기 구석으로 끌고 가는데 ‘이거 죽이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랬더니 돈 30만 원 구해다 주어서 그래 이제 요 돈은 여기다 넣고 이제 버스비만 이제 손에 쥘 거야. 쥐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버스를 무조건 탔어. 아저씨 무조건 서울역만 찾은 거야. 서울역은 자주 다녔거든요. 내가 경기도 광주에 우리 이종사촌 동생들이 살았어. 그래서 거기를 자주 다녔어. 13살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 큰일 났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줌마 이 차를 타세요!” 이래. 이거 서울역 갑니다. 서울역 내려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전철만 타면 되잖아. 그러면 인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집 찾아왔어. 그러고도 살았어.

근데 다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재가 엄마한테 잘해. 진짜 잘해야 돼.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지식 길렀는데, 지금은 엄마들한테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 돈이 들어온다는 거에, 그거는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 지금 하라면 못해. 그 당

시에는 막 있잖아. 사람들이 참 좋았어. 의리가 있어. 얼굴만 대면 딱 그 도망가는 놈도 있어. 내일 도망갈 건데 이견산업에 가서 기다리니까 안 와. 안 나가. 이게 경비를 다 알잖아.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경비를 딱 하니까 그 사람 벌써 퇴근했대. 집으로 뛰었어. 저 계단 있는데. 집으로 뛰어가니까 보따리도 다 싸냈어. 내놔! 깜짝 놀래. 지금 이제 차 오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받은 적도 있어. 그래 나는 뛰지는 않았어. 그런 거는 내가 눈치가 빨랐나 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먼저 아줌마는 장부책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돈 뜨거운 줄 알아야 받아. 다 도망가고. 근데 내가 제물포 살은 덕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억척스럽게 살았어.

처음에 오니까는 동네 아저씨들이 거기 소금 염전 있는 데서 났다는 사람. 그 사람이 패거리가 있어. 대여섯 명. 오면은 이제 이걸(손으로 돈 모양을 흉내내시며) 안 준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먹어! 실컷 먹어.” 그 대신에 와서 깡판만 넣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돼서 “야! 너하고 나하고 주민등록 나보다 6살 7살 더 먹었는데 주민등록 까! 너 인천에서 얼마나 살았어?” 내가 이제 객인 줄 알고 텃세를 한 거예요. “너, 주민등록 까! 너 여기서, 인천에서 얼마나 살았어?” 그랬더니 나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래 “그래 나는 제물포서 나도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너 제물포 인간들한테 너 한번 혼나고 싶어?” 그때만 해도 제물포 깡패들이 한주먹 했거든. 재 갖다 없애. 그러면 그때는 없었어. 그 당시엔 그랬어. 동생들 친구들이 갖다 재 짱박아. 그러면 바다에 갔다 던지는 수도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법이 무서운 거지. 제물포하고 이 8번지하고 39번지하고 싸움이 붙으면 제물포가 이겼어. 그 정도로 췌어. 그러니까 제물포 기질이 있지. 그 기질이 몰라. 내가 있는지는 몰라도 내

동생을 그 이웃에 한 두 살 먹은 애를 때렸는데, 딱 그 집 가서 문 앞에 3일을 버티고 앉았던 사람이야. “니가 내 동생을 때려?” 그러고서는 그 집 문 앞에 계속 집에 3일 못 들어갔어.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랬어. 근데 우리 이웃에 바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있는데, 애 이제 여기는 개고, 여기 이제 우리 집은 가운데고, 요 옆에 집에 있는 애들 딸이 셋인데 색시는 저리 갔다야.

근데 나는 남자 틈바구니 컸으니 내가 남자가 될 수밖에. 개네 들은 여자들끼리 크니까 맨날 재네들 닮으라고 암전한 게 어떻게 여자가 크도록 깡패냐고 맨날 그랬어. 우리 엄마가. 아 암전한 개 부뚜막에 먼저 올라잡디다.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어. 재밌었어. 그래도 지금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연탄불 갖다가 딱! 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뭐라 그러지? 빠지도록 겨울에. 연탄재 갖다 딱 덮어놔. 그럼 자기가 안 빠지고 배겨.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지. 깊이 안 만들고 조금만, 큰일 나지. 깊이 파서 다치면. 그런 짓도 했고 그랬어. 진짜 재미있었어. 그때는…… 딱 그 시기라면 우리는 산더미같이 싸워.

더 이상 외상은 없다

지금은 오는 사람이 없나요?

가끔 와요. 그럼 나 음료수 하나 얼른 줘. 아주 너무 반가워서 그거 다 몇 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했나 봐.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근데 저쪽에 가서 막 쪽 서 있어. 내가 저녁때 아저씨가 가게를 보니까. 내가 오후에는 좀 운동을 한 번 했고 그렇

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남의 집이 좋지도 않은 집을 어떤 놈들이 짝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주 좋지도 않은 집을 누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나? 그랬더니 세상에 우아미가구에서 그 전부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내 옆치기도 잘했어. 여기다가 소주를 넣어주면 감추기 잘해. 동석하고 그랬고 재밌었어. 그때는 이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의리가 있거든. 진짜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못 믿어요. 외상 줄 수가 없어. 여기 저쪽 건너가면은 기숙사에 있었잖아요. 이건설산업도 그리고 가계가 몇 개 안 됐어. 지금은 뭐 24시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저쪽이 장단점이 하나다. 그러니까 뭐 여기 오지 않으면 살 데가 없거든. 식당이 있나, 뭐 있나. 저 담 있는 데가 다 우리 집 통로야. 여기서부터 저 사람 지나가는 데까지가 하수도야. 지금 우리 집 문 앞에서 저 택배 있는 데까지가 하수도야. 지금 이 밑에 하수도야.

다리 놓고! 다리 놓고 건너가서 거기 가서 신문지 한 장 들고 가면 앉아서 드시는 거야. 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두 다리 쪽 뻗고 앉아서 이 근로자들은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지금 당시에 박스가 어딴어! 근로자들은 그냥 신문지 하나만 깔고 앉으면 그냥 거기서 술 한잔하고, 두부 그냥 두부 한 판 두 판씩 사놓으면 간장 양념 얼큰하게 해가지고 착착 썰어서 짹! 뿌려주면 그냥 배고플 때 최고지. 퇴근 후나 야간 주간이 있으니까 퇴근한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저기하고 이제 저녁에 오시는 분은 이제 늦게까지 이래. 그럼 그 사람들 보내놓고 문 닫고 쉬었었지. 저기서 빨래를 하는 거야. 손빨래 다 해서…… 3명 빨래, 3명분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안 바라. 둘이 다 빨면 한 보따리야. 그래갖고 빨래 갖다 놓고 그랬어.

하루에 막걸리 8짜씩 10짜씩 팔 정도 되면 두부를 얼마나 팔았겠어? 두

부뿐이야. 노가리! 그러니까는 다 걸어놓고서, 그냥 후라이팬 여기다가 돼지고기도 볶아주고 닭 그거 있죠? 닭갈비! 닭갈비 재워가지고서 딱 놔뒀다가 한 판 구워봐. 얼마나 맛있다고 나 닭갈비 잘 재. 그럼 이거 파는 거는 이것까자는 구색이야. 지금도 과자는 구색이야. 몇 가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버는 게 어딨어. 여기서 생선도 팔았지. 야채도 팔았지. 과일도 팔았지. 별거 다 팔았어. 그러다 여기서 닭을 하루에 40마리씩 튀기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다 옛날 통닭! 지금 옛날 통닭 나오죠? 그런 거 이게 통째로 이렇게 있었죠.

물건을 사고 받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상사에서 받았죠.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그마하니까 주류만 이제 상사에서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사위가 도매를 해. 그래서 사위가 이제 갖다 줘. 거기서 영업 재료 넣으면 되니까 한 군데서 다 가져와 버리지. 배달 안 해주는……. 이제는 일이 조그마한 데는 자동으로 죽게 돼 있어요.

옛 모습과 현재와 미래

가게 내부의 모습이 신기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앵글은 30년.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앵글이 있었어. 근데 다 삭아가지고 한번 같은 거야. 이게……. 요 앵글. 바닥이 다 흥글흥글해. 이 연탄을 때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다 녹아버립디다. 그래서 한 번 같았어.

할아버지 있을 때. 평상이나 이런 건 그냥 그대로. 책상은 한 40년 됐고. 이거 지금 건드리면 송장 쳐. 못 건드려. 건드리면 무너져. 그래서 고정 시켜 놓은 거예요. 요런 철제도 많이 버렸어. 지금도 이제 안에 있는 것도 거의 버리고 이제 내 옷하고 장롱만 버리면 돼. 이사 갈 때 이제 그렇게 할까 싶어서. 이사는 저기 아들 옆으로 가려고. 딸이 와서 보는데, 힘들어하니까 미안해서. 그리고 또 뭐 나 먹고 살 건 있으니까.



계산대 책상

내가 엄청 바보짓을 했어. 그때 그냥 땅을 사놨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그걸 못했어. 그 당시에 땅을..... 땅! 땅! 땅! 이렇게 사놨으면 진짜 떼부자 됐을 텐데, 왜 그걸 거기에는 안 깨었었는지 모르겠어. 여기 체육관 있는 데 있잖아? 거기는 그냥 몇 푼 안주면 샀어. 그게 뭐 땅값 몇 푼 가지도 않아. 여기 이 동네 처음에 와서도 장화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동네야. 이 동네..... 여기서 송림고개 있지 거기도 그랬는데 뭐. 거기 저 넘

어가려고 그러면, 인천교 가려고 그러면 장화 없이 못 살았어. 우리 4살 때 인천교서 살았잖아. 우리 막내딸 4살 때. 일로 와서 여기서도 이제 5살 때 여기서 살다가, 마을금고 맞은편에 거기서 살다가, 내가 떼어놓고 도저히 이래갖고 못 살겠습디다. 난 아저씨 보고 그랬어. 나는 너하고 안 살아도 좋으니깐 애들만 두고 가라 그랬어. 나중에는 애들까지 다 줄라 그랬어. 생활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서 억척을 떨은 거야.

혹시 특별하게 바라시는 것이나 소원이 있으실까요?

그냥 뭐 바라는 거야 뭐…… 이제는 나 하나 몸뚱어리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업도 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또 엄마 밤에 무섭다고 밤이 걱정인 거야. 낮에는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할매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해가 가는 줄을 모르는데,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우리 동네가 너무 낙후가 돼서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어. 노인정에 그것도 텃세. 그러니까 노인정에도 안 가는 사람들은 안 가려



물건들이 진열된 슈퍼 내부

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나는 아직 다리가 안 아프니까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복지관에라도 다니고 싶고, 봉사라도 하고 싶고 이런데, 우리 딸은 그러는 거야. “엄마 요즘 좋잖아.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좀 하시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 사세요.” 맨날 그 소리가. 노래해.

아주 우리 딸들. 지들 고생시켜서…… 지들이 고생을 한 것보다 엄마가 이제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만 하시고, 노후에 편안하게 놀러도 다니고 그러라고. 근데 짝꿍이 없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장사를 하면요 경계선을 뒤편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게 되더라고. 옛날 친구를 찾았는데 사는 수준이 틀려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자동으로 멀어집디다. 개네들 사는 게 또 그래서 그런지, 내가 발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달갑게 안 하대. 내가 찾았어. 제물포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친구들이 없겠소? 다 뿔뿔이 살고 그랬는데 그냥 뿔뿔이 그냥 흩어지더라고. 그런 게 좀 아쉬워. 조금 이래도 친구들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게…… 그런 시절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 있으면 소중한 거예요. 슈퍼 잘 정리하고 그냥 좋은 데 살고 싶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 취미도 갖고 싶고, 나 노래는…… 노래 잘하지는 못하는데, 나 노래하고 이런 데 다녔었어요. 할아버지 있을 때도.

그때가

“이 세상에서 나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없어야 귀한 줄 아는 거지.”

대금지오웰에서 근무하다 직원 식사를 준비하게 된 백용순 씨.

한정된 돈으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원 식당을 운영하였다.



참 좋았지





대금지오웰 식당 근로자

백용순 (1952년생)

10살부터 잔심부름을 하며 맺은 대금과의 인연,
결혼 후 다시 대금의 가족이 되어
직원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엄마 같은 알뜰한 솜씨로 인정을 받았다.
산업화 시기 힘들고 지친 여성의 치열한 삶을 기억하게 한다.

면담일시 : 2023년 10월 11일 11시

면담, 원고정리 : 이혜숙

면담지원 : 조연희, 박인옥, 양지원

대금지오월에 입사하기까지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고향은 경상도인데 3살 때 서울로 왔어요. 근데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엄마한테 들은 소리지. 서울로 와서 살다가 또 인천에 6~7살에 와서 계속 있었어. 그러다 퇴직하고 영종도로 왔지.

내가 한 10살인가 11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먹었을 때 거기(대금)를 간 거야. 하여튼 어렸어. 어려서 대금에 아들만 넷인데 나를 시영 딸¹⁾ 삼아 데려간 거야.

왜냐면 거기에 사모님의 외숙모라는 사람이 거기 식수밭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혼자 다 못하니까 외숙모가 계신 거야. 내가 시영 딸로 간다고 그러지만, 시영 딸로 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대금에서 세월을 다 보냈어.

1) 수영 딸. 남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기른다는 뜻

결혼 후 사시는 건 어땠나요?

섬에서 농사짓는데 흉년이 자꾸 드니까 한 해 농사를 못 짓는 거야. 못 지으면은 이제 많이 짓는 사람 같으면 그전에 지어 놓은 사람이 농사가 많으니까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는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 아저씨(남편)가 외아들이고 누가 없어 형제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농사지으려면 올해 못 지었으니까 먹을 것도 그렇고(없고). 내가 거기(대금과 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대금에 경비 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와서 있겠다 그랬지. 그때 4~5개월 된 딸이 있었어. 놀면은 봄에 약 사고 뭐 이런 것도 다 힘들고 양식도 어렵고 1년 먹으려면.

그때는 시어머니가 계셨어.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겨놓고 우리 둘이 나갔어요. 대금으로 돈 벌러 나갔지. 그때는 핸드폰이 어디가 있고 전화가 어디 있어. 애들 떼어놓고 가서 얼마나 저녁마다 둘이 붙들고 울었나 몰라. 먼 곳 전화라도 있으면 목소리라도 듣는데, 그때는 하루에 배가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냥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저녁마다 둘이 붙들고 울었어. 우리는 그런 세월을 거기서 살은 거야.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애들이 좀 크고, 그래서 대금에서 1년 한 몇 개월만 있다가 내가 농사를 못 지어 억울해서 다시 좀 잘 지어보려고 나왔어요. 영종도로 들어와서 농사짓고 11월 정도 또 오겠다고. 우리가 영종도로 들어올 때 그렇게 아줌마들이 울었어. 거기 회사에 있는 아줌마들이 정들어가치고. 지금도 그 아줌마 있어. 내가 다니지.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래서 그때 내가 울면서 다시 올해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온다고 그랬지만, 거기서 있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오בות한 거야. 우리가 집에서 있었으면 힘든데 돈 벌어 갖고 가니까 이걸로다 농사도 짓고. 농사를

잘 지었어. 그래갖고 또 간다고 그랬거든. 그때는 또 누가 잠깐 있었나 봐. 내가 대금에 간다 그러니깐 거기서(대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래. “애 너 지금 이번에 와서는 아주 있으려면 오고 그렇게 또 있다가 또 갈 것 같으면 오지도 마라!” 이러는 거야. 오지도 마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나은 거야. 일을 하니까. 일을!

농사는 뭐 잠깐 하고 겨울에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했지. 근데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더 낫다, 대금에서 일하는 것이. 애들이 커지니까 학교를 가야 하는데. 영종도는 중학교밖에 없어요. 고등학교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둘이 나가고…… 나가서 그냥 거기서 살고 애들도 방 얻어서 나오고 그러면 또 두 집 살림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거기 있으면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그때 당시에 대금에서 나한테 맡기는 일은 아무나 못 맡기는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농사를 지어다 먹었잖아. 쌀을. 근데 내가 나가게 되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때는 젊었어요. 이 아래(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아래) 사셨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 우리 두 집이 먹을 수가 있잖아.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나는 나가서 버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서 우리 친정 보고 농사지으라 그러고 거기에 그냥 계속 있는 거야.

하루 네 끼, 대금 직원의 식사를 책임지다

대금 입사 초기 때는 어땠나요?

직원들이 많았어. 한 70~80명 됐어. 그런데 아줌마들하고 또 기숙사 애들

이 있었잖아. 기숙사 애들 밥을 해주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 못 먹는 거야. 도시락들을 싸서 다녔대. 점심에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12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11시면 나와요. 내가 거기서 솔 걸고 밥해 먹으니까 내가 해야지 딴 사람이 오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나와서 이제 식사를 준비했어. 라면을 끓여서 밥 못 먹는 사람들은 라면을 끓여서 주고, 점심에 라면 먹고 난 치우고 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우리 둘이 다 현장에서 일을 했지. 일을 하고 일하는 대신 우리가 집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경비로 쓰고 집을 제공해 준 거잖아. 그 주택 있는 거를 “너네가 살면서 여길 지켜라.” 이래서 그 사택에서 우리가 살았지. 그때는 우리 애들을 안 데려갔을 때지. 둘이 처음이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회사가 점점 번창하면서 커져가지고 사장님이 나한테 “밥 하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날 딸처럼 보았으니까 속을 다 알잖아. 나를 불러다 놓고 “식당에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한다면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고, 니가 싫다 하면 다른 사람을 쓰겠다.” 이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부엌에 다른 사람이 밥한다는 거는 나도 싫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밥을 하겠습시다.” 했지. 밥을 준비하면 한 달에 얼마 준다는지 금액까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15만 원을 준다 하더라고.

직원들의 식사 준비는 어땠나요?

점심에는 한 70명 했을걸? 야근하는 사람들 밤 12시에도 밥 주지. 야근까지 했어.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밥을 네 번 한 거야. 기숙사 애들은 아침도 먹어야 되잖아.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기숙사 직원들은 아침도 다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 내가 있어서 식사 준비

를 해야 했지.

차라리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나아. 일하는 게 난데 부업에 들어와서 그 살림을 탄 사람이 한다는 게 싫은 거야. 내가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사택 부업) 와서 개입하는 게 싫은 거지. 내가 그냥 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때는 밥을 바깥에다 솔 걸어놨잖아. 그렇게 밥 했어. 반찬은 우리 먹는 반찬이지 뭐. 특별히 따로 뭐 할 게 있나? 다 같이 먹는 반찬이지. 시장에서 장 봐다가 해주는 거지 뭐. 그리고 우거지 삶아서 말려놓고, 생선 구워주고. 돼지 김치국을 많이 끓였어. 그때는 오뎅 넣고도 김치국 끓이고, 돼지고기 넣고도 김치국 끓이고, 두부 넣고 김치국을 끓이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직원들 다 먹었지.

김장도 뭐 한 30포기 했어. 절이는 거는 뭐 사람 한두 명이 누가 오든지 그렇게 해놓고, 씻고 같이 하고 그랬지.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던 걸로 기억나요. 나는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혼자 내가 할 수가 없어. 배운 게 살림밖에 없어. 어려서부터 살림밖에 한 것이 없는 거야.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내가 뒤돌아보면 나 거기 나오고 나서도 사장님이 담 넘어서, 대문 담 넘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시찰을 돌으셨다. 난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는 깜짝 놀랄 정도였어.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한 거야.

거기 있다가 내가 집을 사가지고 나왔거든. 나오고 출퇴근을 했어. 그랬을 적에는 애들 야근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오셨더랬단 말이야.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근데 살림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야무지게 해가지고 빈틈이, 물 썰 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20만 원 줘도 못하는 일은 나는 18만 원 줘도 그 사람보다 더 잘했어. 살림을!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보고 다 놀

랄 정도지. 나 회사 나오고 나서 엄청 후회했을 거야. 왜냐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요. 일주일 치를. 내가 일주일치 돈을 탕거든. 부식비를.

일할 때는 어떠셨어요?

15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착한지 내가, 그때 나는 그랬거든. 너무 흥년 들어서 힘드니까 나가서 ‘정부미 한 가마 값이라도 매달 받으면 애들 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나간 거야.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15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많이 주세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걸…… 내 월급 15만 원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15만 원 줄 테니 자네 생각엔 어떤가?” 그러고 내 의견을 물어. 근데 내가 “좀 더 주세요.”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주세요?” 내가 또 이랬다. 바보 같은 게. 그래가지고 내게 말긴 거야.

말렸는데 이제 우리 식구도 있는데 쌀을 거기서 그냥 그 많은 수가 다 먹으면 그냥 맨날 쌀 사다 판나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내가 미안하더라고. 쌀이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근데 나는 가을이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백 가마씩 보내요. 우리는 일반미 먹었어요. 일반미! 밥이 맛있다고. 정부미 안 먹지. 우리 가족은 따로 해 먹은걸. 그러니까 더 나를 믿은 거야. 그 집에서 자기네 쌀도 안 먹지? 쌀 우리 식구가 다 파먹어 봐라. 그걸 뭐로 당하나. 근데 쌀도 자기네 농사지어다 놓고 방에 다 재워놓고서 좋은 쌀로 밥 먹으니까 나를 믿을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은 갖다 놓으면 그 밥 먹고 뭐 다 그러지. 안 먹겠어? 그랬는데 다 자기네 집안이니까. 그냥 그런 것도 다 물어 넘어간 거지. 뭐 진짜 원래 처녀 때서부터 데려다가 날 시영 딸로 했으니까.

뭘 하면 야무지게 다 당신 마음에 드는 거야? 당신 마음에 들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게 하니까. 내가 시장 갔다 오면 100원 200원 잔돈 남은 것도 다 갖다줘. 이거 남았다고. 그러니까 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가 빈틈이 없는걸. 그러니까 아주 딸처럼 진짜 나를 너무너무 믿고 잘 해줬지. 우리 신앙은 그냥 막 연탄불 피고 나무 자르고 시골에서 뭐 한 게 있어?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밥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세월이 갔다.

신흥동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있었어. 거기에 있다가 송림동으로 또 간 거야. 그러고서 기계공단으로 이전 해온 게 71년이니까, 세 번 옮긴 거야. 그게 실제 들어온 거는 69년에 들어온 거고, 71년 새벽부터 좌우지간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밤에는 안 하면 괜찮은데, 밤 11시에 밥해서 12시에 줄래 봐요. 졸았어요! 졸았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눈물 나. 나 돌아가기 싫다 그래. 지금 오죽하면 젊어져도 돌아가기 싫다. 눈물 나. 그래도 아주 그냥 모든 걸…… 너무 야무지게 하니까.



인터뷰가 진행된 현장

장 보는 건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 나한테는 “뭐 잘못 한다! 맛이 없다! 짜다!” 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진짜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진짜 인정받았어. 지금까지도 대금에서 나와서 식당할 때 사람들이 나 보고 싶다고. 나는 급식포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줬어요. 알아서 그냥.

그 대신 전날 먹은 건 안 해! 일주일 치를 딱 짜 가지고, 내가 어저께 먹은 거 오늘 먹은 거는 매일 안 하지. 이렇게 일주일을 돌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반찬을 매일 장을 보면 그 돈 가지고 사흘이나 먹으면 다 끝나. 없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는 연안부두서부터 더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태 한 짝, 고등어 한 짝 오징어 한 짝,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돌리는 거야. 생선을 그렇게 하고, 뭐 야채도 일주일 치 다 봐와. 그렇게 봐 다가 냉장고에다 다 놓으면 일주일을 먹는 거야.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 짜서 냉장고가 딱딱 차는 거야. 계란도 다섯 판씩 막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갖다 놓으면 부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와서 열어보면 딱딱 차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잖아. 근데 내가 회사 나온 후 맨날 직원들이 반찬이 모자란다고 난리가 난대. 밥 먹으면서 내 생각이 아른하지, 식당 아줌마는 맨날 딸따리에 다 끌고 오는데, 반찬이 맨날 모자란다고 난리인 거래.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그래 “야 이 세상에서 나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짝으로다가 해야 돈이 적어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매일 보는 장은 감질나서 못 먹어.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그 돈이 많이 남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면서 한 번은 뺏았어. 뺏은 게 아니고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왜 안 한다고 그랬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내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차를 가지고 가면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봐 오냐. 직원들도 바쁘다고 못 해준대.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당신들이 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큰돈 남는 줄 알고 했어요. 하더니 나중에 두 손을 싹싹 빌더라고. “아유~ 형수님 아유~ 이젠 차 가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갈 테니까 형수님이 해줘.” 아주 살살 빌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또 해드렸어.

그래서 아주 그렇게 사연이 많았다고. 나는 진짜 사람들이 다 생각지 못하게 잘해줬다고. 내가 해줬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러고. 지금도 만나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아줌마들도 다 얘기해. 누가 만지지 못하게 해도 나보고 막 주물러야 더 맛있다고 그래. 다른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 아줌마들이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똑같이 먹고 복날 이런 날은 삼계탕 같은 거 특별히 해주고, 보름밥 해주고. 참 그 시절이 좋았다.

쉬는 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농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고, 따로 집을 구하기는 여력이 안 되고 하니깐 회사들마다 1인당 방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큰 방에 같이 거주했어. 옛날에 그렇게 했어. 아침에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나가면 밥 먹고 나가. 그리고 나가서 점심은 안 먹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다가 저녁때 들어오든지 그건 몰라. 일요일 날 딱 하루 쉬어도 어디 가지도 못했어. 거기 경비 지키느라고. 기숙사 직원들 책임지고 있으려면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어.



인터뷰 때 내어주시던 간식

퇴사 후의 삶, 영종도로 들어오다

대금 퇴사하시고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나와서 식당 차렸어. 나는 가좌동에 ‘낙지마당’ 식당을 차렸는데 대금에서 왔다 갔어요. 그때부터 나와 가지고는 절대로 남의 밑에서 일을 안 했어. ‘낙지마당’도 한 2년 했나. 3년 했나? 하여튼 직원 한 사람 쓰면서 거기서 같이 했지. 그러다가 그 건물 불링장이 없어지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야. 그냥 후다닥 넘기고 간석동으로 왔어.

간석동에 와서 주물럭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서도 금방은 잘 됐는데, 전기가 누전돼서 자꾸 나가더라고. 이게(전력) 약한가 봐. 가정집 밑에다 차리니까 불(전기)이 자꾸 나가서 그냥 손님이 다 끊어지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막 새카맣게 앉아서 사람들이 보고 대박 났다고 난리 났더랬거든. 근데 불(전기)이 나가니까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누가 고기 먹어? 불 나가니까 에어컨이 꺼져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걸. 그래서 그냥 그 자리 다시 넘긴다고 호프집을 차렸지. 그랬더니 그게 뭐 되냐?! 그때 또

IMF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주 속 썩어가지고 손해는 많이 안 보고 넘겼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안 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농사를 지었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들어앉은 거지. 그러다 시어머니도 다시 아프시고, 시어머니도 90이 다 돼서 모셨으니까. 내가 인천 가서 그래도 오래 사셨지. 내가 집도 짓고 했으니까. 우리 시어머닌 그래도 나 때문에 나오셔서 호강하다 돌아가셨어.

내가 인천 만수동에다 3층 집을 지었거든. 3층 집에서 살다 돌아가셨으면 호강했지 뭐! 여기서(영종도) 안 돌아가시고 3층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더 있다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농사지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우리 먹을 곡식만 조금씩 해서 먹고, 애들도 돈 들어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 같아.

돌아가려면 안 돌아간단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제는 내 마음이야. 여태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한 10년 전부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다 쓰러져 가는 집 고치고 내가 들어와 엄마 살게 해드리니 편안한 거지. 내가 이제 와서 고칠래 봐? 죄짓는 것 같은 거야. 내가 거기 3층 지으면서 엄마한테 죄짓는 것 같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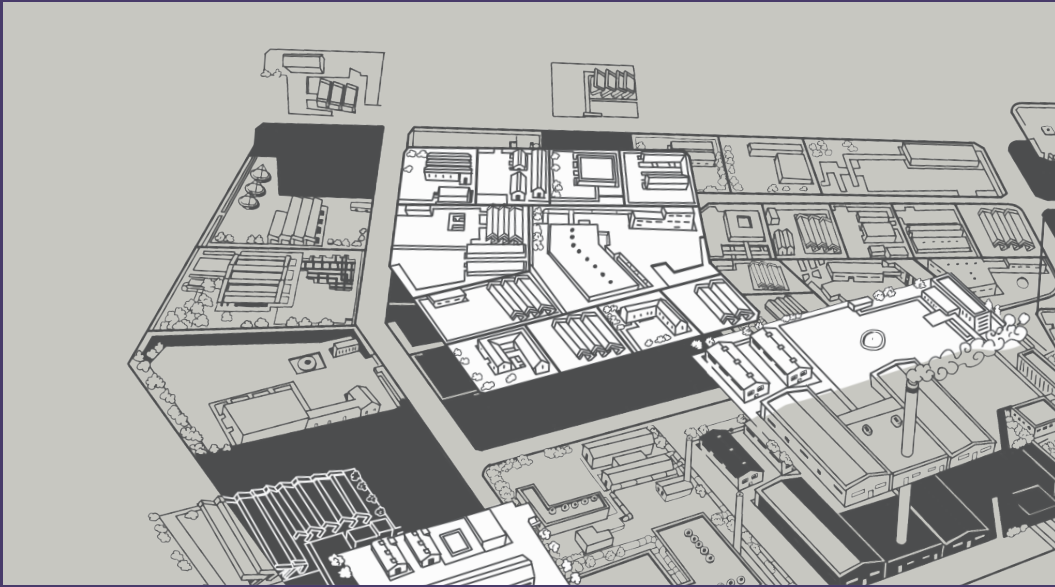
엄마 나이 88세에 돌아가셨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뒤돌아보니깐 입식에서 한 번도 못 살고 재래식 부엌에서 사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이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여기 땅(영종도) 팔리면 엄마 다 이렇게 고쳐주고 산다 그랬는데, 엄마는 나를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벌써 이거 고친 지가 8~9년 됐나?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 이거 고친 지가. 그래도 고쳐갖고 엄마가 좀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이제 아무 후회

도 없어. 우리 엄마가 저기 싱크대 서서 음식할 때 싱크대를 고쳐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요양사가 오면서 한 게 내가 한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별장(영종도 집)으로 쓰는 거지. 나 인천이 있고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들들이 또 누구하고 온다면 친목계도 여기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가 또 옛날 처럼 그렇게 배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살기 싫어. 지금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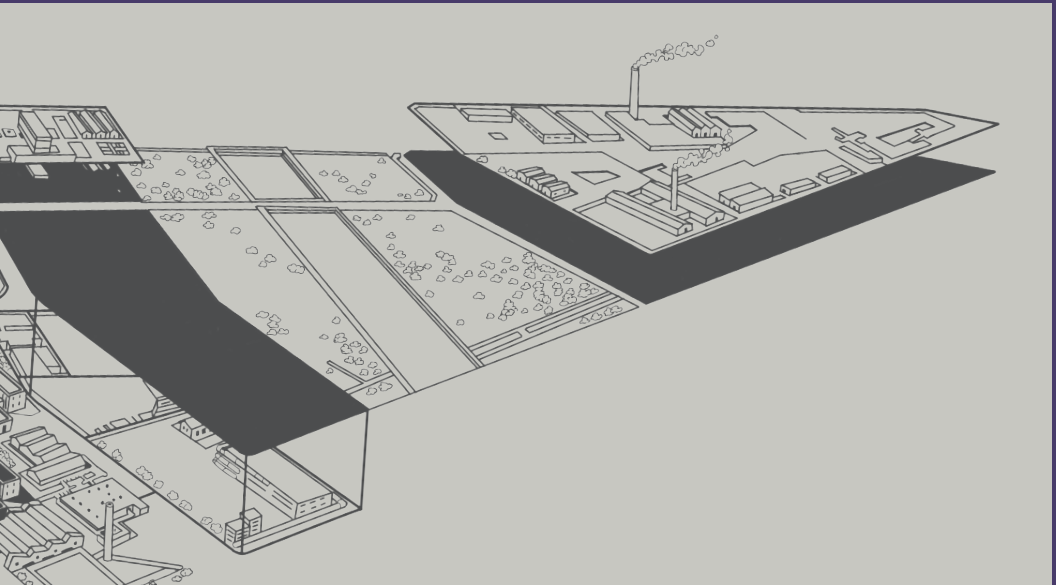




영종도 고향집 전경



인천기계산업단지를 향한 제언



**‘인천기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산업단지 활성화 최근 논의와 인천기계산단 시사점’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기계산단의 현안과제’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인천기계산업현황과 기계산단’
유재경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본부장**



1

인천기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김용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참고문헌

김차, 산업단지 관리법제에 관한 연구(입주관리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1
양원탁,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및 경쟁력 약화 실태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이성룡외,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방안, 경기연구원, 2016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과정에서 2024년 5월 ‘인천기계산업단지 현황과 발전방향 좌담회’를 운영하여, 인천기계산업단지의 비전에 대해 산단 관계자, 연구자,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 원고들은 해당 원고들을 모은 것이다.

산업단지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주거와 직장이 분리된 공장 중심의 개발 방식이 시작되어 제조업의 집단화된 단지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경제정책에 따라 1964년 서울 구로동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시작으로 공업단지를 개발하였다.

1967년,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형 기계공장을 집단화하고 분업화를 위해 주안과 서구 염전 매립지에 민간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1976년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1978년에는 인천기계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90년 이후 시장 개방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단지 관련 법을 통·폐합했다.

기존 ‘공업단지’라는 개념이 지식기반 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공업단지’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였다. 과거의 제조

공장 중심의 공업단지로 개념에서 다양한 산업 및 지원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정의하였다. 인천기계공업단지는 1997년 인천기계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 12월 현재 이 단지에는 17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주요 업종은 기계업종(113개소)으로 가장 많고, 전기(28개소), 철강(4개소), 비금속(2개소), 기타(18개소), 비제조업(14개소) 순이다. 약 2,5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약 2,951억 원, 수출액은 약 1,648만 달러에 달하며 여전히 기계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고, IT와 융복합 산업의 확산으로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의 역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관리법, 산업집적법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왔다. 산업단지 관리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를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조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싱가포르 사례처럼 사업시행자가 개발과 관리를 통합하고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개발과 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산업단지 활성화 최근 논의와 인천기계산업단지 시사점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기계산업단지 현황

○ 인천기계산업단지는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1969년에 착공을 하여 1971년 완공. 1978년에 인천기계공업단지로 공단이 설립되어 5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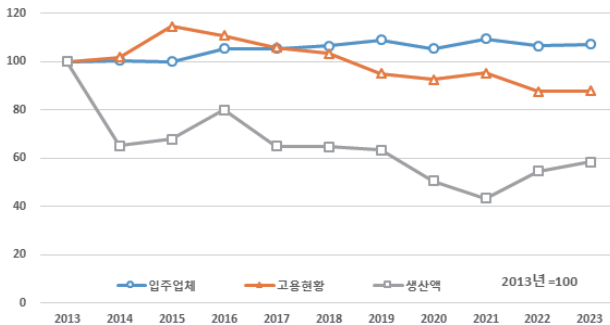
○ 면적으로 35만㎡이며 이 가운데 분양 가능 면적은 29만㎡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입주업체는 170개이며 고용인원은 1,923명, 생산액은 2천9백억 원 규모이고, 수출액은 1천6백만 달러 규모임. 인천기계산업단지의 규모는 인천시 전체 산업단지 고용 규모의 약 1.3%, 생산액의 0.5% 수준임.

○ 입주기업은 제조업이 16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제조업은 15개 업체임. 제조업 가운데 기계업종의 업체가 110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전기전자 업체가 29개, 금속업종이 30개, 이외 철강, 기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산업단지라는 명칭에 부합하게 기계 관련 업종이 주축인 산업단지임.

○ 최근 10년 인천기계산업단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종사자 수, 생산액, 수출액 등 주요 지표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활력이 낮아짐.

○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3년 말에 2,18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10년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1,923명으로 감소함. 생산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5천1백억 원에서 2023년 말에 2천9백억 원 규모로 감소하여 10년 전에 비해 생산 규모가 58% 수준으로 축소됨. 수출 부문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2013년 말에 4천9백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3년 말에 1천6백만 달러 규모로 감소하여 10년 전에 비해 약 33% 수준으로 감소.

연도	고용 현황 (명)	생산 (백만원)	수출 (천달러)
2019	2,078	325,668	48,641
2020	2,026	259,462	19,258
2021	2,083	222,782	143,766
2022	1,915	279,921	15,765
2023	1,923	299,929	16,343



〈인천기계산업단지 동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각 년도

○ 인천기계산업단지는 2023년 8월에 인근의 인천지방산업단지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총 272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주도로 주차장(1개소) 및 공원 조성(1개소), 도로 환경 개선(보도 정비, 씬터 조성, 담장 철거 및 특화 등) 사업을 진행.

○ 발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산업화 시기 초기에 부평, 주안 일대의 산업단지 개발에 발맞춰, 항만, 고속도로 및 노동력 활용 인접성 등 지리적인 이점과 지역 주체들의 노력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산업기술 발전 추세의 변화, 물리적 시설의 노후화, 주변 도시환경과의 부조와 등 내 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



항목	인천지방	인천기계	최소기준	충족여부	비고
건축물 노후도(%)	14.5	30.4	-	-	일반산단 20년 이상 공장
기반시설 준공 노후도(년도)	40.0	42.0	-	-	일반산단 기반시설 준공 경과년수
도로율(%)	7.2	2.8	10%이상/ 8%이상	미충족	20m이상 도로율
주차장(%)	0.0	0.0	-	-	산단 내 주차장 면적 비율
소팔지화(%)	72.8	66.0	-	-	500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부지
지원시설용지 실태(%)	0.0	0.0	-	-	지원시설용지 면적비율
녹지 면적 실태	0.0	0.0	7.5%이상/ 5%이상	미충족	산단 내 녹지비율
공원 면적 실태	0.0	0.7			산단 내 공원비율
도심과의 거리 실태(m)	1.121	2.191	-	-	도심(시청)과의 거리
지가 수준(%)	64.1	27.9	-	-	주변 지역 지가 대비

<인천기계산업단지 노후도>
※인천광역시 산업입지와 보도자료 (2023년)

최근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2023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발표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살펴보면 ① 첨단 및 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업단지 ②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③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의 세 가지 방향을 산업단지의 미래 활성화를 위한 주된 테마로 제시.

○ 먼저, 첨단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산단 입주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신산업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하도록 하며, 업종 특례지구 요건 완화, 그리고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두 번째로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확대를 위해서 지원시설 용지 면적 확대를 용이하게 하고, 정부의 마중물 사업 재원을 확대하며, 구조고도화 사업의 면적과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 구역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

○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산단의 산업고도화 및 공간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음.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

킬러규제: 경직적 입주업종·토지용도 제도

- 첨단·신산업 입주 및 투자 제약
- 편의·복지시설 확충 곤란
- 지방정부 역할 제한

개선
방향

- 1 첨단·신산업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는 산단
- 2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산단
- 3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인천기계산업단지 시사점

○ 인천기계산업단지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리적인 노후화는 지속되고 있고, 산업 구조적인 활력이 감소하며, 도심지역의 개발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내외부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긴요한 시점임.

○ 인천기계산업단지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기계산업단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주체들인 토지 소유주, 임대 사업자,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인천시, 미추홀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합의된 비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 단순한 외부적인 통계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천기계산업단지의 내부적인 실태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또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해 당사자의 역량을 증진 시키는 과정 병행.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기계산업단지만의 고유한 자산과 비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형성하는 노력 필요.

○ 인천시청, 미추홀구 등 지방정부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촉진자의 역할로 자리매김. 또한 산업적, 물리적인 구조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긴 호흡의 계획과 변화를 유도하는 안목도 요구됨.



3

인천기계산단의 현안 과제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 인천기계산단은 전국 최초의 기계산업에 특화된 일반산업단지로서 35만 m² 규모에 179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약 70%가 기계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임.

○ 인천기계산단의 첫 번째 현안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인천기계산단의 연간 생산액, 수출액은 2017년 이후 하향 추세이며 업체당 평균 고용자 수도 감소 추세임. 이와 같이 낮은 생산성, 생산설비의 노후화, 입주기업의 사양화로 경쟁력이 약화되며 입주기업의 영세화, 필지 소형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인천기계산단은 조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며 산업시설구역이 대부분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식당,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 인천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점인 도시지만 인천의 GRDP에서 제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13% 감소함. 인천의 제조업 중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품'의 부가가치 비중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계산업은 인천의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인천기계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인 기계, 전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시설, 지원기관이 부족한 상황임.

○ 다음으로 인천기계산업단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음. 주변 지역인 도화 도시개발사업 실시로 주변 공장의 노후 시설 개선과 방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보공업은 이전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황임.

○ 인천기계산단은 국토부의 산업단지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노후화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함. 산업입지법에 근거한 산업단지재생사업은 기반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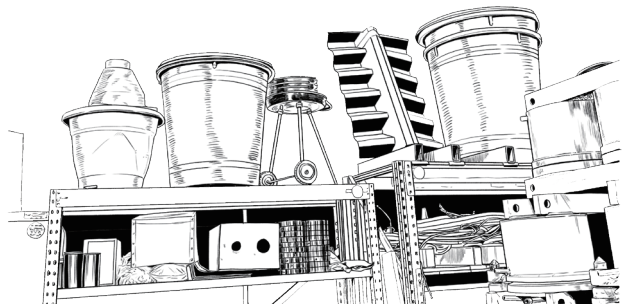
○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산단 입주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및 인프라 부족 해소, 인력 부족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성보공업 부지를 활용한 혁신지원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주차장과 기술사, 편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에서 산단 내 업종 간 융·복합화와 입주기업들의 고도화 추진을 유도하여 첨단 기계산업 혁신지지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인천기계산단은 국토부의 산업단지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있지만 향후 산업부에서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통해 R&D, 입주업종 첨단·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

○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면 2.5t 이상 중·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산단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기계산단은 기계, 장비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물류에 차질이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산단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리공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관리공단은 공장설립 및 생산 활동 지원, 고용증대와 후생 복지 지원,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관리공단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관리공단이 구조고도화 및 제조혁신 추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4

인천기계산업의 현황과 기계산단 고도화 필요

유재경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총괄이사

1. 인천기계산업의 현황

○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 2013년 인천 뿌리산업 사업체수는 3,003개로 전국 26,013개 대비 11.5% 차지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현황>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개사	비중(%)	명	비중(%)	백만원	비중(%)
전국		26,013	100.0	420,776	100.0	90,731,775	100.0
인천		3,003	11.5	53,161	12.6	11,561,806	12.7
업 종 별	주조	192	6.4	4,921	9.3	1,799,574	15.6
	금형	575	19.1	8,731	16.4	1,788,836	15.5
	소성가공	701	23.3	8,847	16.6	1,892,758	16.4
	용접	403	13.4	10,432	19.6	1,835,293	15.9
	표면처리	1,042	34.7	19,013	35.8	3,911,638	33.8
	열처리	90	3.0	1,217	2.3	333,708	2.9

* 자료출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내부자료(2013년)

○ 뿌리산업의 중심 기계·금속 산업

- 과거 인천의 4대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였던 기계·금속 산업은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며, 최근 전자·정보기술이 융·복합된 지식기반산업으로 영역 확대 추세

* 메카트로닉스, 마이크로머신, 로봇, 옴토 일렉트로닉스 등으로 융복합 발전

기계 · 금속산업

금속기계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구조물 공구 기계요소 등	공작기계 건설기계 냉동공조기계	발전기/전동기 변압기 조명기기 등	계측시험기기 광학기기 의료기기 등	자동차 컨테이너 항공기 등

○ 인천의 기계산업 이탈 심화

- 인천 산업단지(주안·부평 등) 노후화, 업체 영세화, 기술 경쟁력 하락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음

- 인천 소재의 많은 기계·금속 관련 기업들이 사무실과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거나 검토하는 등 기업의 인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인천 기계산업단지의 기업 수는 2000년대 500여 곳에서 현재 167개로 감소

○ 타 지자체는 기초 뿌리산업 육성중

- 인천이 기계산업 육성을 외면하는 동안 경기도의 경우 수백억 원을 투자한 협동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계·금속 기업을 유치하는 중

- 타 지자체(부산, 대구 등) 역시 전시회 등을 통하여 기계·금속 등 뿌리산

업 육성, 기업 수출 판로개척, 마케팅 기회 제공을 하고 있음

○ 인천 뿌리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 뿌리산업의 중심인 기계·금속 산업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제품 기술 교류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제공 및 대외경쟁력 강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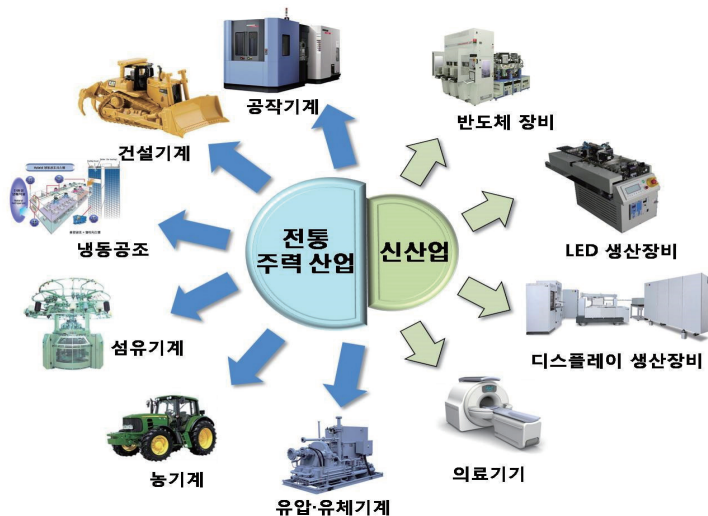
○ 지자체 간 기초산업 육성 경쟁 대응 및 연관 산업 성장 견인

- 제조 산업 및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의 기계·금속 산업 육성 및 지역 뿌리 산업 전반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견인

2. 기계산단 특성 및 시장동향

■ 기계산단 특성

○ 기계산단은 건설·공작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



- 생산기술 축적을 위해 지속적·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되는 자본집약적산업
- 일반기계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기반 산업임
- 기술 인력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기반 산업
- 다품종·소량 생산의 산업 구조상, 업체의 브랜드가 성능·품질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로 작용하는 브랜드 세일즈 산업

3. 기계산단의 고도화 필요로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무상구축 사업의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사업 검토

■ 부평+주안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지원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 국가산업단지만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와 시비 지원을 통해 기계산단의 고도화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22개 주요 산업단지에 속한 1,500여 중견/중소 제조기업에 정부 국비 100%를 지원하여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RE100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효과 및 사례

구축 기대 효과

(에너지)비용절감

- 사용량 제어 절감
- 스마트팩토리 구축 비용 절감
- 전력단가/기본료 절감

생산성 향상

- 설비 예측 보전
- 설비 다운타임 감소

품질 향상

- (전압/전류)전력 품질 개선
- 설비 효율 향상



FEMS 및 에너지효율화 절감 후 **RE100** 추진

타산단 절감 구축 사례



에너지진단 수행 후, 열손실, 권력 손실, 속도, 온도, 동력 제어 설비 절감, 공정 최적화 설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대불산단 사례 종합

공장코드	에너지 총량(TCE)		에너지 절감률 (%)
	구축 전	구축 후	
G01	43.5	39.8	8.5
G02	886.1	818.1	5.8
G03	285.3	254.9	10.7
G04	154.1	141.3	8.3
G05	71.2	63.2	11.2
G06	41.7	38.7	7.3
G07	59	54.9	6.9
G08	3,287.10	3,037.7	7.0
G09	352.4	326.9	7.3
G10	85.3	77.8	10.0
G11	19.2	18.8	12.7
G12	325.9	300.8	7.7
G13	250.8	228.4	9.7
G14	33	30.9	6.4
G15	20.8	17.1	17.9
G16	72.8	66.0	9.3
G17	96.8	91.8	7.1
G18	127.86	118.5	7.3
G19	287.2	277.1	3.5
G20	193.3	179.7	7.0
G21	116.8	110.8	5.1
G22	218.7	211.2	3.4
G23	134.7	105.6	21.8
G24	240.7	202.4	15.9
G25	440.7	409.6	7.1
G26	99.7	94.2	5.6
G27	48.7	41.4	15.0
G28	70.8	65.3	7.7
G29	41.9	38.1	9.2
G30	208.5	187.0	10.3

대불 산업단지
에너지원단위 **9.1%** 개선

대불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1차년도)

구분	기업수	비고
기업수	30	송구속기업수
분석대상	30	중소기업 30곳 분석

대불산단 30곳 절감 실적 분석 결과

구분	에너지 합산(TCE)
설치 전	8,279.5
설치 후	7,643.6
분석	635.9[10배] 에너지 9.08% 감소



나
가
며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하다

1969년, 그리고 2023년

기록후기

기록일지

찾아보기



기록후기

인천기계산단의 역사를 기록하며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내가 인터뷰 한 기업체는 이곳을 떠났기에 현재의 이곳에서의 생활은 느끼지 못했지만 70년대, 80년대의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계의 소리가 끊이지 않던 작업장,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며 가족을 위해 애썼던 모습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꿈을 키워가던 그 시절의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살아 있는 역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공간이었기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낡고 쇠퇴해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곳을 지키며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의 역사를 넘어 삶과 희망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맞이하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 숨쉬던 기계산업 단지의 영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안 산단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미추홀시민기록단 이혜숙

격동의 시기 주안 산단 곳곳에서 가정과 회사를 일궈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알게 되는 인터뷰였다. 작은 공업사로 시작하여 주안 산단의 초기 입주 회사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 해오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업 대금지오웰, 대금지오웰 초창기부터 회사의 식구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 오신 식당 근로자 백용녀 님, 세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슈퍼를 운영 해오신 경북슈퍼 사장 김호순 님까지, 잘 알지 못하던 주안 산단 인근의 역사를 배운 시간이었다.



삶은 다양하기에 소중하다

미추홀시민기록단 정지선

2021년에 미추홀의 음식을 시작으로 2022년엔 미추홀의 목공장인에 이어 작년과 올해는 민간 자

본으로 조성되었다는 '인천기계산단' 아카이빙 작업을 했다. 사실 주안 산단을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역명으로만 알고 있던 나에게 인천기계산단은 더욱 생소한 단어였다. 인터뷰에 앞서 기계 산단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 제조업의 기초인 기계산업에 종사한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일등 공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접 그 시대를 살아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제품들이 기계산업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고의 무게감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대표의 쉽게 가능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미래 산업을 위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종사자의 노력이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3년째, '미추홀 시민 아카이브'를 위해 사전 조사, 인터뷰, 녹취록 작성, 사진기록 작성의 과정을 매년 밟고 있다. 현재의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위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궤적을 듣다 보면, 첫인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양하기에 소중한 것 같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던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지역 산업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미추홀시민기록단 조연희

인천 산업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산업 거점이었던 인천기계산업단지만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처음 제안을 해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 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이곳을 과연 내가 기록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추홀시민기록단 2기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는 저에게 이 기록 작업은 도전과 동시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곳의 역사를 담는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쏟아낸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거듭한 대표님들의 노력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계산업단지의 발전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와 성장은 단순히 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향길을 걷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혁신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업적들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인천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기록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기계산단 산업화 일 세대들의 족적을 살펴보다

미추홀시민기록단 표기자

올해 아카이빙 주제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기계산업단지에 관한 것이었다. 해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주제를 대할 때마다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우선 기계산단의 배경지식 습득과 더불어 그 산업사와 함께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활동이 시작되었다.

인천 시내 중심에 세워지고 있는 화려한 고층빌딩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는 일상과 비교해서, 사전 탐방한 기계산단 외관은 슬라브지붕의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70년대 초 흑백사진을 보는 듯했다. 70~80년대 산업사를 '기록'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 시대에 형성된 기계

산단의 산업사도 그 궤를 같이할 만큼 발전했는지
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인천지역산단의 유관기관 관리자 인터뷰는 기계
산단 사람들의 자주적, 자립적 활동에 대해 찬사
를 아끼지 않았다.

인정테크 사장님은 지극히 소박했던 꿈이 직원 수
십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기까지의 개척
담이 간단치 않았을 터인데 간혹 유머와 함께 한
편의 일화처럼 담담히 풀어내셨다. 그러나 직원들
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사뭇 진지함과 책임 의식이
느껴졌다.

평생을 공돌여 일귀 낸 회사에 대해 기적이라 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개인사적으로나 인천지역 산
업사적으로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제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민초들만의 일이 아
니라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으
로서 풀뿌리 제조업의 새로운 변모를 기대해본다.



생산의 나날을 기억하며

미추홀시민기록단 허은영

2023년 여름,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들의
품에 텃밭에서 애써 키운 고추를 한 아름 안겨주
시던 강병욱 이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땅에서 한 때 눈부시게 하얀 소금을 생산하느
라 염부들은 돌굴레를 끌며 바닷물보다 짠 노동의
비지땀을 흘렸겠지요.

또 이 땅에 몇만 톤의 철강 제품이 뜨거운 불을 내
뿜으며 쏟아져 나오고 하루 종일 현장을 오가던
노동자들의 바쁜 발자국이 찍히고 그러는 동안,
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철들이 실려 나가고
노동의 무게를 벗어던진 땅이 가볍게 부풀어 이제
고추와 깻잎을 키우고 초록의 잎들에 생명을 채워
넣고 있었습시다.

2024년 겨울, 다시 찾은 부국철강공업은 역대급
으로 내린 첫눈에 텃밭이 하얗게 덮여 땅은 휴식
의 시간에 들어가고 있었습시다. 제품을 싣고 분
주히 계근대 앞을 오갔을 짐차들의 무게도, 주야
로 제품을 생산했던 육중한 설비시설도, 작업대
앞을 지키며 생산 현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던
노동자들도 떠나간 후 부국철강공업의 대지는 잠
시 쉬고 있는 듯합니다.

그 땅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장영복 부사장님,
강병욱 이사님, 그리고 오기석 부장님은 가족같이
맑은 모습입니다. 철강 수출을 주도했던 기계산
단의 산업역군들은 이제 부국철강의 새로운 변화
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계절을 쉬고 땅은 또 노
동의 숨 고르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일지





기록을 준비하다

2023.6.9.(금) 10:00	[특강] 인천의 산업화 1세대 산물, 산업단지 (박인옥 인천대 강사)
2023.6.23.(금) 10:00	기록 준비모임
2023.6.26.(월) 17:00	인천기계산업단지 1차 답사, 사진촬영(김용경, 이혜숙, 표기자, 허은영, 양지원)
2023.7.3.(월) 15:00	부국철강공업(주) 사전방문, 사진촬영 (박인옥, 박성희, 이의록, 양지원)
2023.7.3.(수) 14:00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공단 방문 (박성희, 양지원)
2023.7.7.(금) 10:00	인천기계산업단지 2차 답사, 사진촬영 (정지선, 조연희, 최지은)
2023.7.21.(금) 10:00	[특강] 주안염전의 특성과 역사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2023.7.21.(금) 14:00	[특강] 인천의 노동운동 (송정로 인천N 대표)

기록을 진행하다

2023.8.3.(목) 10:00	인천기계산업단지 항공촬영 (삼촌네사진관, 최지은)
2023.8.7.(월) 14:00	전)해안기계 故 김정일 전무 면담 (김용경, 박인옥, 양지원)
2023.8.8.(화) 11:30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대표이사 사전면담 (이혜숙, 박인옥, 양지원)
2023.8.11.(금) 10:00	기록공유모임
2023.8.12.(토) 10:30	인천상공회의소 박노호 전 사무국장 면담 (표기자, 최지은)
2023.8.25.(금) 10:00	기록 공유모임
2023.8.31.(목) 15:00	부국철강공업(주) 강병욱 이사 면담 (허은영, 표기자, 양지원)
2023.9.6.(수) 14:00	우일정밀공업(주) 조항구 대표이사 면담(정지선, 표기자, 박인옥, 양지원)
2023.9.6.(수) 14:00	영일산업기계 박태석 대표 사전면담 (박인옥, 양지원)
2023.9.13.(수) 14:00	전)해안기계 이진우 과장 면담(김용경, 허은영)
2023.9.14.(목) 10:00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대표이사 면담 (이혜숙, 김용경, 양지원)
2023.9.15.(금) 10:00	기록 공유모임
2023.9.21.(목) 15:00	태진기연(주) 사전방문 (조연희, 박인옥, 양지원)
2023.9.27.(수) 14:00	부국철강공업(주) 김문환 전 공장장 면담 (허은영, 김용경, 양지원)
2023.10.6.(금) 10:00	기록 공유모임
2023.10.7.(토) 14:00	영일산업기계 박태석 대표 면담 (조연희, 허은영)
2023.10.11.(수) 10:00	(주)대금지오웰 백용녀 면담 (이혜숙, 조연희, 박인옥, 양지원)
2023.10.19.(목) 17:00	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 방문 (박인옥, 양지원)
2023.10.20.(금) 10:00	기록 공유모임

2023.10.27.(금) 16:00	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 기록물 촬영 (양지원, 최지은)
2023.10.30.(월) 10:00	인천기계산단관리공단 장유경 과장 면담 (정지선, 허은영, 양지원)
2023.11.3.(금) 14:00	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 유재경 본부장 면담 (조연희, 정지선, 박인옥, 양지원)
2023.11.7.(화) 15:00	경북슈퍼 김호순 면담 (이혜숙, 정지선)
2023.11.8.(수) 14:00	부국철강공업(주) 장영복 부사장 면담 (허은영, 양지원)
2023.11.9.(목) 10:00	기록 공유모임
2023.11.10.(금) 16:30	인정테크(주) 안인수 대표이사 사전면담 (표기자, 최지은)
2023.11.16.(목) 14:00	인정테크(주) 안인수 대표이사 면담 (표기자, 이혜숙, 최지은)
2023.11.30.(목) 14:00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자료 수집
2023.12.7.(목) 14:00	부국철강공업(주) 장영복 부사장 면담 (허은영, 양지원)
2024.6.7.(금) 10:00	원고 제작 모임
2024.6.21.(금) 10:00	원고 제작 모임
2024.6.27.(목) 10:00	(주)국일정공 강인덕 대표이사 면담 (정지선, 표기자, 박인옥, 양지원)
2024.7.26.(금) 10:00	원고 제작 모임
2024.8.9.(금) 10:00	원고 제작 모임
2024.8.27.(화) 16:00	인천기계산업단지 건물 사진 촬영 (김용경, 정지선, 손유미)

기록을 정리하다

2024.5.23.(목) 14:00	[좌담회] 인천기계산업단지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발제: 박인옥 다온정책연구원협동조합 연구위원 토론:강인덕, 최태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2024.12.19.(목) 18:00	[출판기념회]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기록하다 (예정)

위의 일정 외에도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검수, 원고작업 등 다양한 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찾아보기

[ㄱ]

경기은행	129, 130, 291, 292, 353, 354, 367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32, 35, 316, 317, 319, 323, 325, 326, 327, 328, 329, 331, 333, 342, 446
경동산업	168
경인공업지대	348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23, 29, 34, 35, 37, 38, 328, 329
경제자유구역	21
공청회	56, 136
구조 고도화	88, 91, 135, 136, 176, 177, 178, 337, 338, 341, 360, 376, 387, 440, 444, 445
국일정공	37, 46, 68, 206, 208, 212, 213, 214, 216, 217, 222, 227, 229, 230, 375, 390
국일프레스	46, 208, 212, 213, 214, 224, 230
금성기계	294
가공회	375
가능직	108

[ㄴ]

남동공단	58, 88, 157, 176, 178, 238, 247, 262, 264, 270, 288, 290, 305, 310, 311, 323, 324, 333, 343, 361, 363, 379
내연기관	101, 102, 110
노후화	137, 158, 308, 341, 434, 439, 441, 443, 444, 448
농구팀	222, 231

[ㄷ]

단자회사	128, 129
단체수의계약제도	320, 330
대금공업사	77, 79, 80, 89
대금지오웰	74, 76, 77, 79, 80, 81, 82, 84, 86, 89, 90, 96, 97, 258, 331, 414, 416, 419
대림산업	285, 293, 294
대우실업	301
대우자동차	103, 109, 110, 356
대우종합기계	258, 259, 260
대우중공업	189, 212, 356
대유공업사	189, 190, 191, 205
대청금속	258
대한제쇄공업	293
도면	170, 201, 238, 258, 259, 260, 268, 303, 304
도제학교	269, 270

동국제강	126, 128, 145, 158
동방제강	158, 172
동서가구	402, 403, 406, 407
동인신철	150, 157
동인제철	293
두산인프라코어	115, 189
디젤	101, 189
디트로이트 중장비 전시회	275

[르]

리먼 브러더스 사태	130, 194, 219
------------	---------------

[로]

마찌꼬바 (町工場)	158
매니폴드	258
물류업	135, 137
미주철강	157

[보]

바우마 (BAUMA)	275
백화점	121, 122, 123
범용기계	307
베어링	86, 302
병역특례	272
봉신중기	305, 306
부국철강공업(주)	118, 122, 124, 125, 132, 133, 134, 140, 146, 149, 154, 164, 165, 167, 168, 171, 172, 184
부시, 부쉬(BUSH)	54, 86, 96, 264, 265
부평산업단지	21
부품	50, 54, 56, 58, 64, 74, 77, 78, 85, 86, 87, 93, 96, 98, 101, 102, 103, 104, 109, 110, 111, 112, 114, 189, 199, 201, 205, 214, 223, 248, 261, 265, 268, 273, 278, 301, 302, 303, 307, 338, 386
비레트(billet)	145, 147, 153, 158
비산먼지	81
비철금속공단	30, 31, 33, 37, 42

[시]

산업집적법	378, 380, 434, 445
삼정필프(주)	302
삼진신철	150
서울제강	172, 175

선박	147, 170, 171, 215, 332
성보공업	49, 50, 385, 444
세광기계	282, 290, 292, 311
세류기	54, 74, 78, 79, 81, 82, 83, 84, 85, 87, 93, 96, 97
수도권 공장 총량제	88
수출드라이브 정책	128, 137
수출탑	127, 137, 171
스마트빌리지	341
스테인리스	131, 132, 133, 175, 176, 184
스테핑	214
슬레이트	178, 336
시장(市場)	78, 79, 84, 85, 86, 91, 96, 97, 116, 127, 129, 131, 132, 133, 147, 167, 176, 186, 196, 200, 202, 234, 238, 240, 241, 243, 250, 278, 322, 338, 339, 362, 421, 423, 433, 449
식당	137, 169, 176, 225, 226, 267, 373, 403, 405, 409, 414, 416, 420, 424, 426, 443
신용장	128, 129, 130, 198, 262, 291
썰베지(salvage)	170
쌍용제지	284
썬앤실드	261

[오]

아웃소싱	109, 260, 261, 262, 263
안성신철	150, 157
알루마늄	258, 259
알파세트	195
압연	126, 128, 145, 147, 148, 150, 157, 159, 172, 174, 184, 185, 204
앤티덤핑(anti-dumping)	131
어태치먼트	261, 273
업종 제한	33, 54, 177, 181, 380
연구소	57, 82, 83, 85, 97, 108, 115, 131, 185, 199, 299
영일산업기계	234, 250, 252, 253
영창철강	125
영풍제지	292, 294
예비군	168, 318, 376, 377, 378, 381
오카다아이언	261, 262, 275
외국인 근로자(직원)	192, 201, 270, 306, 337, 362
외환은행	129
우아미가구	400, 405, 409
우일정밀공업	98, 100, 101, 102, 103, 107, 110, 114
원부자재	218, 316, 329, 332
우일Autotech	103, 104, 106, 110, 115

유가증권	218
유산스	128
유성기업	199
유한공전	259
의료보험공단	293, 294
이연고무	120, 143
인정테크	256, 261, 264, 265, 271, 272, 273, 278, 279
인천강업합자회사(인천강업)	121, 140, 143, 144, 145, 146, 148, 155, 156, 167, 170
인천고무공업사	120, 123, 140, 143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	39, 42, 191
인천기계제작소	35, 44, 45, 125, 292, 293, 349, 351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29, 39, 42, 46, 47, 48, 51, 53, 68, 69, 208, 370, 376, 378, 390, 391
인천상공회의소	23, 29, 31, 35, 42, 43, 44, 45, 64, 68, 136, 323, 335, 346, 347, 348, 349, 350, 351, 357, 360, 362, , 353, 359, 362, 366, 367, 377, 390, 442
인천수출산업공단	22, 23, 26, 27, 28, 37, 42, 43, 367
인천은행	352, 353, 367
인천제철	126, 128, 143, 170
인터메토 (INTERMAT)	275
일반화 도로	55, 60, 61, 136, 177, 445

[지]

자동차	56, 84, 103, 105, 134, 145, 159, 161, 193, 194, 201, 230, 257, 267, 308, 361
장마철	150, 336
재생 사업	46, 58, 59, 60, 61, 64, 176, 273, , 274, 335, 388, 444
전문경영인	64, 227
정밀공작기계	214
제1기계공단(단지)	31, 32, 33, 36, 37, 39, 42
제2기계공단(단지)	33, 37, 42
제3기계공단(단지)	31, 33, 37, 42
제일제당	213
제조업	38, 41, 47, 50, 54, 89, 91, 96, 102, 105, 114, 120, 125, 128, 130, 131, 135, 137, 165, 177, 184, 213, 234, 247, 248, 250, 252, 268, 270, 273, 275, 278, 299, 310, 330, 339, 356, 357, 360, 389, 433, 434, 437, 443, 444
제지기계	280, 284, 285, 295, 300, 309, 310
조선소	133, 184
존디어	264
주물	78, 125, 173, 176, 188, 189, 194, 195, 200, 201, 213, 290, 300, 306, 307, 308, 310
주물공장	78, 186, 189, 194, 195, 196, 198, 200, 201, 202, 205, 308
주안국가산업단지	21, 266, 308, 358, 378
주철	77, 194

주트(JUTE)	288, 301
중대재해 특별법	64, 134
중소기업중앙회	325, 337, 338, 343
중앙제지	290, 291
지방 공단법	135
진흥주물	194

[ㅋ]

철강	77, 78, 87, 121, 122, 125, 126, 128, 131, 134, 135, 140, 144, 148, 169, 172, 179, 184, 351, 434, 437
청보산업	293
캄보이	302
카드	193, 257
캐스쿠드	194
캐파(CAPA)	131, 240
캠	257
케스코	198
코네스코(CONEXPO-CON/ AGG)	275
크레인	303
키스톤 밸브	290
키친아트	168
킴코(KYMCO)	265

[티]

탄소 배출	41, 83, 266, 274, 450
태진기연(주)	47, 188, 189, 190, 191, 192, 193, 196, 197, 204, 205, 331, 375
턴키(turn key)	287, 300
트럭킹차지(trucking charge)	133

[피]

페션	147, 148, 170
페업	211, 253, 338, 353
풍림산업	284, 285, 299, 310
프레스	208, 213, 214, 215, 216, 217, 230, 231
프루티거(FRUTIGER)	93
피스톤핀	101
핀 (PIN)	96, 101, 261, 264, 265

[ㅎ]

한국기계	189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21
한국정밀기계통상	211, 212
한국종합상사	132
해안기계	280,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90, 291, 293, 294, 296, 298, 299, 300, 305, 306, 309, 310, 311
해안정밀기계공작소	44, 45, 284, 299
현대인프라코어	102
협력사	87, 268
형강	78, 116, 127, 145, 172, 174, 184
화성제지	284, 285, 294
화일프레스	293
환어음	128, 129
회로기판	386
히타치	189

[C]

CNC	262, 263, 307, 308
-----	--------------------

[E]

ESG 경영	92, 93
--------	--------

[G]

GM	102, 103, 106, 108, 109, 110, 115
----	-----------------------------------

[I]

ISO	104, 105, 115, 195, 205, 231
-----	------------------------------

[M]

MOU	199, 291, 345
-----	---------------

[O]

OEM	223
-----	-----

인천기계산업단지 기록하다

1969년, 그리고 2023년

2024년 12월 19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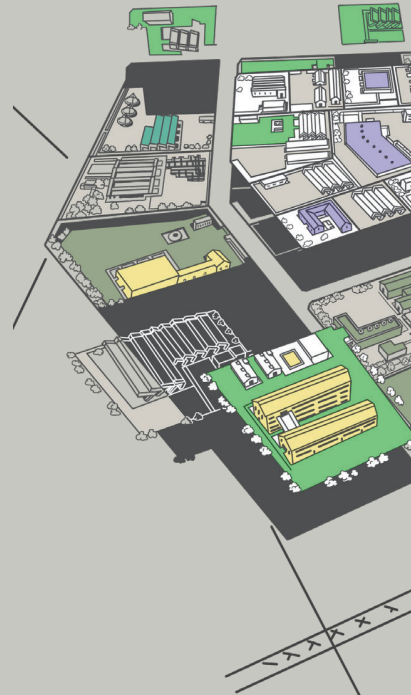
펴낸이	정형서
펴낸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협력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기획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록, 인터뷰 정리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이혜숙 조연희 정지선 표기자 허은영
기록지원	양지원 손유미 최지은
기록멘토	박인옥
검수	천영기
디자인	모모하시니
일러스트	오현석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Tel. 032-866-3993-4
haksanculture.or.kr
ISBN 979-11-982450-2-1
979-11-968891-0-4 (세트)

인천기계산업단지는 전국 유일의 민간 주도의 기계분야 산업단지로서 인천의 근현대의 제조업 역사를 담은 큰 자원이며 유산이다.

“인천의 산업단지는 초기 상공계와 언론, 지역토착민, 농민 및 노동자, 행정, 정치인들이 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성한 산업화 1세대의 산물이다. 산업단지는 지역민의 기대가 막연하게 표출된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내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주변에는 노동자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섰다. 산업단지는 일터와 주거, 소득과 소비가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토대다.”



비매품/무료
04090



9 791198 245021

ISBN 979-11-982450-2-1

ISBN 979-11-968891-0-4 (세트)